

제 8 차

2004 정기총회 자료집

- 일시 : 2004. 1. 9(금) 15시
-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관악산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 8 차

2004 정기총회 자료집

- 일시 : 2004. 1. 9(금) 15시
-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관악산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회칙
- 대표인사말

■ 2003 사업보고	7
I. 사업방향	8
II. 센터, 위원회별 보고	12
1. 한반도 평화센터	13
2. 일상의 평화센터	61
3. 갈등해결센터	73
4. 회원참여센터	84
5. 국제연대위원회	96
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9
7. 정보사업	111
8. 사무처 업무일지	118
 ■ 2004 사업계획	 125
I. 사업방향	126
II. 센터, 위원회별 계획	129
1. 한반도 평화센터	130
2. 일상의 평화센터	132
3. 갈등해결센터	134
4. 회원참여센터	139
5. 정책위원회	141
6. 국제연대위원회	142
7.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44
8. 정보사업	146
III. 월별 사업계획	148
 ■ 2003 회계 감사 보고서	 149
 ■ 정관 및 규정	 151
정관	152
- 정관개정안	157
운영규정	162
- 운영규정개정안	163
갈등해결센터규칙(안)	165
 ■ 부록	 167
성명서	168
보도기사모음	223

* 세상의 평화를 우리 손으로 : 반전평화행동과 평화문화 확산

회 순

1. 메는마달 (오후 3:00 -3:30) 연간 활동의 보람과 앞으로의 비전

사회: 심영희 공동대표

안정애 국방과제팀장	(한반도 평화센터)
문병너 평화심상팀장	(일상평화센터)
조영희 청소년교육팀장	(갈등해결센터)
김정수 회원장	(국제연대위원회)
김현희 조직국장	(사무처)
김숙임 공동대표	

2. 정기총회 (오후 3:30 -5:00)

의장: 이김현숙 상임대표

• 인사발령	이김현숙 상임대표
• 격려사	김윤옥, 정현백(전대표)
• 성수보고	서기
• 개회선언 및 개회사	의장
• 회순재택	의장
• 전 회회록 낭독	서기
• 2003년도 사업보고	
사무처	사무처장
각 센터, 위원회, 연구원	각 센터장, 위원장, 연구원장
감사보고	감사: 이문우, 송열대
• 2003년도 회계결산보고	회계: 신종순
• 임원 선출(보선)	
• 임원인사	의장
• 사무처장취임인사	
• 2004년도 사업계획 (안) 보고와 승인	의장
사무처	사무처장
각 센터, 위원회, 연구원	각 센터장, 위원장, 연구원장
• 2004년도 예산(안)보고와 승인	의장
•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의장
• 기타 토의	의장
• 모범회원 시상	의장, 공동대표
• 회회록 발음	서기
• 폐회선언	의장

3. 먹거리 나눔 그리고 평화덕담 (오후 5:00-6:00)

2004년 새해,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앞글리 사라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평화여성회의 활동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 반전평화형성과 평화문화확산”에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여성회는 여성들의 힘을 묶어 한반도평화센터, 알상의 평화센터, 갈등해결센터, 회원센터, 연구원을 가동, 목표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통일, 경제대응, 국방 문제를 담당했던 한반도 평화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여성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협상활동을 계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3.1절, 6.15, 8.15 행사를 남북민족공동행사로 진행하는 일에

여성부문을 대표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3.8여성대회시 남북여성평화 여성선언을 채택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 오는 데 전념했습니다.

또한 북핵위기라는 건박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를 조직,방미단을 파송하여 미국의 조대와 싱크탱크, 한반도문제전문가들, 시민단체대표, 교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시민단체의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고 전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6자회담을 전후하여 6개국 정상들에게 평화호소문 보내기/국제서명캠페인으로 한반도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내 시민사회의 의지를 모범적으로 모아냈다.

이밖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앞두고 시작한 반전 평화활동은 세계 평화여성들과의 공조와 연대 속에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라크전쟁 반대 활동을 주도하며 슬가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방과제로는 군대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방감독제의 도입을 제안하는 활동을 전개, 한국사회 전반이 군대폭력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함으로써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단초를 열었습니다.

알상의 평화센터에서는 “나와 세계를 평화롭게”라는 평화평생을 프로그램과 평화아카데미라는 교육을 심화시켜 개인의 삶 한가운데 평화의 씨를 심고 실천, 평화문화를 세워가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3리개 3달이” 캠페인을 벌여 대중이 생활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문화를 태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갈등해결센터에서는 갈등해결 강사를 훈련하여 중고등학교 창의적융합 학습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고교도 참가하며 갈등해결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기반을 만드느라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해결의 실태를 소개하는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이론과 실천을 배우는 학습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연대활동 또한 평화여성회의 역할은 눈부셨습니다.

성공적 6자회담을 위한 연대활동, 이라크전쟁반대를 위한 연대활동, 북핵위기에소를 위한 국제 시민단

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 등 국제 평화단체들과의 연대를 지속해 왔습니다.

회원권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회원들의 지도력을 고양시키는 활동에 매진 하였으며 회원들 사이의 끈교를 돈독히 하기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연구원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평화운동을 점검하고 우리의 운동을 이 론화하려는 연구활동을 꾸준히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평화여성회 가족 여러분의 힘과 열정, 그리고 평화의지가 모여 가능한 일이었 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여성회 가족 여러분과 지도위원, 전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선생님들과 주변 의 많은 지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온 사부곡의 활동가 여러분과 평화운동에 동태차 일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북핵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대전의 결과가 한반도에 어떤 풍랑을 들고 올지 모르는 불안 한 2004년에는 어느때 보다도 평화여성회의 대응과 헌신이 크게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성들의 평화적 힘을 묶어 한반도의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남북한 사이의 회색화 연대가 깊어지는 한해를 만들도록 우리 서로, 우리 안의 힘을 일깨우고 격려하며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 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9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이길현숙, 김숙임, 심영희

2003년 사업보고

I. 사업방향	8
II. 센터, 위원회별 보고	12
1. 한반도 평화센터	13
1-1 정세대응팀	13
1-2 국방과제팀	37
1-3 통일과제팀	44
1-4 한반도 평화 국민협의회 활동	50
한반도 평화센터 사업일지	55
2. 일상의 평화센터	61
2-1 평화교육문화팀	62
2-2 평화심상팀	66
사업일지	71
3. 갈등해결센터	73
4. 회원참여센터	84
사업일지	93
5. 국제연대위원회	96
사업일지	107
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8
7. 정보사업	111
사업일지	116
8. 사무처 업무일지	118

1. 사업 방향

1. 사업목표 : 반전평화행동과 평화문화확산

2. 사업취지와 기초

2003년은 지난해의 월드컵, 대선, 촛불시위 등을 통해 분출되었던 국민들의 열정과 자발적 참여로 한반도의 희망과 가능성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주는 해이다. 대선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한 열망과 SOFA 개정을 통해 자주적인 한미관계를 요구했던 국민들의 의식과 주체적인 참여는 한국사회의 전보적 수준을 더 한층 높이는 결과를 낳았고,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대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앞으로 정책의 합리성이 한층 강화될 정부를 맞이하여 NGO의 시민사회운동은 정책여량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할 현실에 직면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역동성 분출을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미군제노착량이 의한 여중생인사사건으로 촉발된 소파개정, 미국의 대 테러전쟁 정책 등으로 인해 평화 NGO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평화NGO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반전평화행동과 평화문화확산이라는 사업목표를 중점방향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한다. 그간의 평화통일사업, 평화교육사업 등을 보다 전문화, 대중화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센터, 일상의 평화센터, 공동체평화센터, 회원참여센터 등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국제평화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구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수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여성평화운동을 보다 체계적, 여성친화적으로 전개하여 평화여성회의 장기적 비전을 향해 모두 희망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자.

- 1) 소파개정을 통한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 남북공조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 이라크전 반대운동 등으로 촉발된 반전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 전망을 가진 한반도 평화의제를 개발하고 평화통일정책제시와 국방부 의견감시 활동 등을 전개한다.
- 2) 남북화해 협력을 모색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불복이시야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 3)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빈정화제 대한 평화감수성과 평화의식을 고양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평화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화교육을 실시한다.

4) 생활 속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적 갈등해결 지도력 고양과 갈등훈련자를 양성한다.

5) 여성평화운동의 조직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사업 활성화에 집중한다.

3. 주요사업내용

1) 전쟁반대와 평화행동

-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 전개
- 사이버 운동, 주요사안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여론형성 및 압력행사
- 평화군축을 위한 의정감시 및 의제개발활동
- 국내, 국제적으로 사안별 연대의 강화

2) 남북화해와 협력활동

- 북한임신모와 어린이 돕기
- 남북여성교류촉진 활동과 토론회
- 여성평화통일 정책제안 활동
- 통일, 외부, 국방분야에 여성의 참여촉진
-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연대

3) 평화,통일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의 전문화
- 어린이인형극 전문화 및 대중교육재뉴얼개발
- 학교,교육기관과의 연계로 공교육 영역의 확대
- 일상의 평화문화 지침서 개발과 평화문화 캠페인
- 여성평화통일 지도력 양성 및 강사뱅크 안정화

4) 갈등해결과 중재훈련

- 갈등해결과 관용훈련 강사트레이닝 실시
- 학교 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교사 워크샵
- 갈등해결과 중재훈련 매뉴얼 개발
- 갈등해결 전문가팀 운영
- 각 단체 요청시 팀파견

5) 회원확대와 조직력 강화

- 기존 회원 관리의 안정화 및 회원확대
- 여성평화지도력 개발 및 회원활동 강화
- CMS 활성화 및 제정의 안정적 지원화

6) 정책개발과 연구활동

- 여성평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 정세대를 토론회 등을 통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정립과 방향 제시

7) 국내외 연대 활동

- 5.24 세계 여성평화군축의 날 행사
- SOFA 개정운동 연대
- 반평화□반통일적인 법제도 폐지운동 연대
- 반전평화운동 네트워크 강화
- 국제평화운동연대 강화

4. 총평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북핵위기, 재선임정국 및 생환고에 시달리는 노동자, 농민, 자결 등 2003년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충격 속에 몰아넣는 사건들이 계속되었다. 평화여성회는 이라크파병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에 저항하며 이라크의 평화화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그 지남하고 힘겨운 여정의 한 가운데 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운영위원, 그리고 실무자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여성평화운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는 좀 더 긴 안목과 주체적 역량 확대에 여성평화운동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에 낼 것이 요청된다.

올해 평화여성회는 '반전평화행동'과 '평화문화확산'이라는 사업목표를 중점발달로 해서 여성평화운동의 확산에 계속 주력하면서 기존 체계를 생략할 조직으로 재편하여 여성평화운동을 보다 전문화, 대중화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시도로 시작한 센터들은 먼저 한반도평화센터(주요정책 및 정책, 이슈 대응)와 앞산의 평화센터(생활 속의 평화문화 및 평화교육의 확산), 광동해결센터(평화교육의 새로운 모델개발 및 광동해결훈련) 그리고 회원참여센터(회원의 확대 및 조직력 강화) 등으로 올해 각 센터별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올해의 주요사업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반전평화행동'분야에서 본 회는 이라크전쟁반대와 한국군파병반대, 정전50년 태소를 위한 평화합동제정 요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북핵위기 해소와 한도평화를 위해 평화여성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의 '당미단'활동은 국회의원들과 NGO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미국의회, 정부사회와 미국평화운동에 한반도 해방기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평화비트리크를 더욱 강화하였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전후한 '6개국 정상들에게 평화호소문 보내기'국제서명캠페인으로 한반도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내 시민사회의 지지를 모범적으로 모아냈다. 한편 국방과제심의 군복역근거의 대안을 위한 국방감쪽관제도 도입 연구와 법률안 제정 준비활동과 같은 정책개발활동과 연구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남북화해와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남북여성교류사업은 비록 주변정세의 영향으로 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3.8여성대회를 기념하여 '남북여성평화선언'을 채택하고, 6.15. 8.15 등 남북민족공동행사의 여성상봉모임을 통해 남북여성교류 성사와 한반도 해방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임안으로 여건이불가시업, 남북여성교류 추진 활동 등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평화문화확산'운동 역시 다양한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평화여성프로그램의 지속적 진행과

평화시위문화 개발 및 평화담론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의 공교육 영역으로의 확장을 교사훈련의 평화화와 학교교육에서의 실천, 교안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출제는 무엇보다 회원참여센터의 신설과 정보화사업 담당자 태치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회원참여 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조직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참여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프로젝트 사업의 승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 사업방향과 계획에 따라 정복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계획적이고, 단계별 성과가 축적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연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본회의 국제시민사회에서의 위상을 향상시킨 국제연대사업이 회원활동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교육과 정보공유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평화여성회는 다소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전개해 온 여성평화운동의 사업내용을 기초로 하여 내용적 깊이를 더하도록 경주해야 한다.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중심가적 전망 속에서 각 센터별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깊이 있고 대중친화적인 사업방식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높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개발과 연구를 통하여 운동기초와 방향을 생산할 수 있는 인맥망을 형성하고 논의구조를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회원확대사업에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개별역량에 의존하는 운동방식이 아닌 보다 폭넓은 대중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체 결합도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반전평화운동과 남북화해협력활동, 평화교육 확대 및 평화문화확산을 위한 기초와 전략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 또한 조직체계와 운영을 좀 더 심숙있게 하고, 주제역량을 최대한 강화시켜가야 한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논의구조를 확보하고, 인적토대를 강화하여 정책실무능력을 배가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II. 센터, 위원회별 보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 / 반 / 도 / 평 / 화 / 센 / 터

2003년 활동보고 및 평가

○ 소 장 : 이김현숙 상임대표

○ 담당실무자 : 권은주 정책국장

○ 사업방향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평화적, 여성적 관점에서 장기적 전망 아래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여 외제를 개발하고 정책과제제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통일, 국방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여 긴밀한 대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여성들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

1-1. 정세대응팀 (팀장 : 홍승희)

- 팀원 : 김귀옥, 김민정, 김정수, 오형업, 정희경
- 사무국 : 권은주 사무국장

○ 사업목표

- ① 한반도 평화□통일과 반전평화를 위한 정세와 주요이슈에 대한 활동을 펼친다.
- ② 급박한 정세대응을 위해 국내외 평화□통일단체들과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 ③ 성명서 발표 등 긴박한 정세대응을 원활히 하여 여론을 확산한다.

○ 사업총평

가. 성과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복색하기 해소를 위한 활동과 남북여성교류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 목각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반도평화국민회의회 구성 및 방미단 활동의 주도적이고 모범적인 활동과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6자회담 개최시 6개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평화호소문 보내기, 정전 50년 기념 평화합정식절을 위한 여성평화행동 등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국내 단체들과 활동을 모으고 국제여론을 환기시켰다.
 - 한반도 정세대응을 원활히 하고, 여성전문인력들을 발굴,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포럼을 3회 진행하여 사안에 따른 정세대응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조명해보고자 노력하였으며 여성task force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 반전평화를 위한 정세와 주요이슈에 대한 활동으로 이라크반전운동 및 과평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여성평화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 이라크 전쟁 반대, 한국군 과평반대 활동을 위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과평반대를 위한 여성국회의원과의 기자회견 조직, 과평반대를 위한 반전평화여성행동과의 지속적인 연대활동 등 여성단체들의 반전평화행동을 조직해내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성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 급박한 정세대응을 위해 국내외 평화, 통일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 927 국제반전행동, 과평반대국민행동과 연대, 이라크여론이 돌기, 목감항계전(NLL)의 평화적 관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정전50년 한반도평화대회,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한 한국 시민 사회 각계 300인 선언” 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을 전개
- 긴박한 정세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성명서 발표 등으로 여론 확산에 노력하였다.

나. 과제

- 한반도 평화교통일과 반전평화운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늘 사안 중심의 급박한 대응을 취주로 전개하여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 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는 내부의 논의과정도 충분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평화운동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공감하는 운동의 전개가 부족했음을 평가할 수 있다.
- 따라서 이후 한반도 평화교통일과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내부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전문성을 담보해가는 정책논의(정책협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정세대응은 사안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평화운동의 정책성이 드러나고 자기주체적 내용성을 띄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성평화운동의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이 담보되는 정세대응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정세대응뿐만이 아니라 본회의 여성평화운동의 정책성을 정립함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요 이슈 대응시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단체들이 평화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교통일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의 연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평화운동의 강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관성을 가지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 경제대응팀은 긴박한 경제에 움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올 해 팀 구성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체계가 아니었다. 긴급함의 성격으로 인해 주로 사무국 허주의 대응에 치우쳤고, 바쁜 일정으로 인해 내부 구성원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한 어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대응팀의 구성과 운영을 좀 더 신속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예, 사안에 따른 정례회의 진행)

□ 내적 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전문인력의 인프라형성을 위해 올해 시도한 여성task force 구성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한다.

○ 사업내용

1) 회의

□일시 : 2003년 2월 25일(화) 오후 7시~9시

□장소 : 인사동 할머니장터국밥

□위원 : 이길현숙, 홍승희, 김귀옥, 김민경, 김경수, 오영임, 정희경

□참석 : 이길현숙, 홍승희, 김경수, 오영임, 전은주

□사회 : 이길현숙 소장

□내용 :

- 2003년도 사업계획(안) 공유 및 당면경제에 관한 토론
- 경제대응을 위해 내부 T/F활동을 시작하고, 여성계를 규합하여 경제대응을 위한 여성T/F 활동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하여 논의를 발전시키기로 하다.
- 정전50주년 활동, 주한미군질수, 평화협정 체결 등 현안을 포함한 이후 논의과제들을 함께 도출하면서 평화여성회 내부의 활발한 토론과 활발 논의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공유하다.
- 여성부 프로젝트 사업으로 제출된 사업 중 국제이론 형성을 위한 이태일서비스팀 운영은 국제협력위가 맡기로 하다.

2) 사업내용

① 과평관대활동

반전평화여성행동과 연대 - 민족자주 반전평화 여성행동의 날

가. 제목 : 이라크공격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평화의 빛, 춤... 그리고 여성"

나. 일시 : 2003년 2월 27일 오전 11시30분~12시30분

다.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라. 주최 :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기독교인회, 대구여성회, 대한YWCA연합회, 부레발, 부산여성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해방연대(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미대협, 전쟁반대여성연대,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주한미군범죄진상조사본부,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주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여매니저,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호주제폐지모임, 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

다. 후원 : 여중생법대위, IPF제원연대

바. 순서 :

- 사회 : 전은주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 추모 묵념 : 전쟁희생자와 대구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묵념
 -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보고 : 소 탄 여성해방연대 사무국장
 - 발언 1 : 정현택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평화의 춤 (대포먼스) : 평화여성회(평화심성팀), WAW
 - 여성계 입장 발표 : 한우림 한국여성외교연합 공동대표
김지현 상대대군침울위한 한소리회 회원
 - 평화의 빛 베풀기 : 참가자 전체 대포먼스
참가자 모두 '순겨울'을 들고 미 대사관으로 평화의 빛을 비추
 - 여성계 입장 미대사관 전달(보고) : 최성비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국장
- 미대사관으로 여성계 입장을 오전에 전달하고 이후 답신을 받기로 함.

② 이라크파병반대 제반활동

○ 전쟁 지지 및 파병 방위 규탄 기자회견

가. 일시, 장소 : 3월 18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나. 참석 : 평화여성회(이갑현숙, 전은주), 봄여연대, 혼경련, 녹색연합, 민가협, 다함께, 평통사 등
다. 내용 :

사회 :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언 : 이오경숙(여연), 최윤희(한경연), 임기환(민가협), 김광일(다함께) 등

기자회견문 낭독 : 장유식(봄여연대)

○ 파병 및 전쟁 지원 반대 국회 앞 시위

가. 일시, 장소 : 3월 24, 28일, 4월 2일, 국회 앞

○ 개전항의 기자회견

가. 일시, 장소 : 3월 20일 오후 1시, 미대사관 앞

나. 참석 : 김숙임, 안정애, 여해숙, 전은주, 김현희, 김수길

○ 긴급 참의 협회

가. 일시, 장소 : 3월 20일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나. 참석 : 이갑현숙, 김경수, 정경연, 전은주, 지성혜 등

○ 이라크참공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촛불대행진

가. 일시 : 3월 22일 토 오후 4시, 종로공원 (행진 후 7시 광화문 정리집회)

나. 참석 : 김숙임, 전은주 이사, 여해숙, 김귀옥, 이낙호, 안병선, 이권명희, 이삭, 지성혜, 전은주, 김수길 등

○ 한국군 파병 반대 농성 돌입 기자회견 및 농성돌입

가. 일시, 장소 : 3월 23일(일) 오후 4시, 국회 앞(국면은행 앞)

나. 참석 : 이갑현숙, 전은주

○ 파병반대 기자회견

가. 일시, 장소 : 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나. 참석 : 김숙임, 전은주

○ 반전평화운동을 위한 활동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가. 일시, 장소 : 3월 26일(수) 오후 2시, 민중연대

나. 참석 : 전은주

다. 내용 : 반전평화 합동운영위원회 구성합의, 반전평화운동 이후 활동방향 논의

○ 파병안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가. 일시, 장소 : 3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 앞

나. 참석 : 김숙임, 포털너, 이나호, 조영준, 김경수, 김정관, 지성태, 전은주, 김수철 외

○ 한국군 파병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시위

가. 일시, 장소 : 4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 앞

나. 참석 : 이김현숙, 이나호, 전은주

③ 한국군 파병반대 여성국회의원,여성단체 기자회견

가. 일시 : 3. 24(월) 오전 10시

나.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다. 참여단체 : 평화여성회, 여성연합, 연우회, 여친연합

라. 참석 : 이김현숙, 김숙임, 전은주, 지성태

마. 내용 : 사회 : 한국여성민주회 필장자 공동대표

□참가자 소개 - 사회자

□인사말 - 평화여성회 이김현숙 상임대표 / 여성 국회의원 전민

□기자회견 취지 설명 : 한국여성친화연합 박인혜 상임대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중단 및 한국군 파병 반대를 촉구하는 여성 국회의원□여성단체의 평화호소문

발표 : 여성 국회의원(이미경, 김정원)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상임대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중단 및 한국군 파병안 반대 여성 국회의원 대국민 서명식 : 김정원, 김희선,

이미경, 조혜숙 의원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평화 상징물 전달식(대표단)

④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인

"한반도 평화, 지구촌의 평화까지 - 여성이 만드는 평화"

가. 일시 : 2003년 5월 24일(토) 오후 4시 - 6시

나. 장소 :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

다.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라. 주관 : 경기여성단체연합, 세리살을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 수원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우회, 한국여성친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3개)

마. 참석 : 김숙임, 김현희, 지성태, 김수진, 전은주, 장정옥, 김정화, 김병철 외

바. 행사내용 :

○ 부대행사 (오후 4시 - 6시)

- 푸기 장난감은 이제 그만 ! : 총, 칼 등 푸기 장난감을 갖고 오면 예쁜 화분으로 바꿔주기(참여당)
- 사전권 '전쟁과 여성, 어린이 -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 이라크어린이들이 모금 부스 운영
- 나의 평화감수성 지수는 얼마일까? : 평화감수성 체크리스트(평화상징물)를 드립니다.'

- 내가 꿈꾸는 평화 '공동그림판' 함께 꾸미기
- 열글 그림 그리기(페인팅 레인팅) 수빈 아카데미
- 본행사 (오후 5시 - 6시)
 - 평화의 문을 여는 길놀이 : 한성대 민속예술연구회
 - 평화의 노래 공연 1 : 이태동무 아름나라, 환경운동연합 노래패 '솔마당' □봄여엔데 노래패 '봄꽃다'
 - 평화의 노래 공연 2 : '평화단결기' 외 1곡 여성 평화노래 발표
 - 평화기원 춤과 반전평화 퍼포먼스 : 여성예술집단 '요즘'
 - 평화 저널리즘과 함께하는 평화선언 : 어린이, 여대생, 전 일본군위안부 출신 김현옥 할머니
 - 평화의 비누방울 날리기

⑤ 한반도정상대응 여성task force - 전문가포럼 "핵위기 해소와 한반도평화"

가. 일시 : 2003년 7월 3일(목) 오후 3시~7시

나. 장소 : 홀리데이인서울 호텔 백합홀

다. 내용 : 사회 : 윤덕희(통일과계정장, 정치대 북한학과 교수)

발제 : 핵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 - 박명림(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 이대훈

모론 : 핵위기 해소를 위한 여성의 역할 - 김민전(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전체토론

라. 참석 : 강남석 외 32명(발제자 포함)

⑥ <평전을 평화로> 여성평화대레이드

가. 일시 : 2003년 7월 24일(목) 오전 11시~12시

나.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다. 주최 : 평화여성회, 여성연합, 여전연합, 여성전우회, 여성환경연대, 성폭력상담소, 교회여성연합회, 자주여성회 외

라. 후원 : 여성신문사, 우먼타임스, 미즈엔, 페미니스트저널 이브

마. 프로그램 :

사회 : 김현희 평화여성회 조직국장

○ 7.27 정전 50년을 맞이하며(취지문 낭독) : 구지진 한국여성전우회 부장

○ <평전을 평화로> 여성평화선언문 낭독 : 박인혜 한국여성외교화연합 상임대표

○ 평화상징의식 - <평전을 평화로> 나무에 평화염원리본 달기 : 참가자 전체

○ 다함께 노래 - 우리의 소원은 평화

○ 평화의 여신대레이드 - 참가자 전체 : 진행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라. 형식 :

○ 30여명의 참가단이 "정전, 50년은 충분하다. 이제는 평화다" 낱글자 현수막을 개인이 들고 참가자들은 흰옷과 꽃관을 쓰고 평화의 여신 퍼포먼스를 진행

○ 행사 진행 이후 명동성당 들머리 일대를 평화의 여신대레이드 진행

3) 연대활동

① 전쟁반대말화실현공동선언

- 이라크 침공 반대!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3□15 반전 평화 촛불 대행진

○ 대회 기초

- 2015 국제 반전 평화 대행진의 성과를 이어, 수천 수만의 호순이와 미션이를 낳을 미국의 야만적 인 이라크 전쟁을 전세계 반전평화이들과 연대하여 대중적으로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반대를 요구하는 대회이다.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더불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전쟁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을 폭로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대회로 한다.
- 각계 각층의 반전 반전 평화 역할을 모아 공동 대응한다.
-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중적인 참여 대회로 한다.

○ 대회 일시 : 2013년 3월 15일 (토) 오후 3시

○ 장소 : 광요공원(5시) - 광화문(7시)

○ 주최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 미군장갑차 여성생 고 신희순□삼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 대회 기획안

<중요 집회>

- 사회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개회 선언 : 사회자
- 반전 발언 1 : 문명녀(평화여성회)
- 반전 발언 2 : 연혜인 (참여연대)
- 문예공연
- 반전 발언 3 : 종교인 (여중생범대위)
- 반전 발언 4 : 교육 공부본 (민주노총)
- 반전 메시지 : 청소년 (민주노동당)
- 상징의식(전체 퍼포먼스 위주)

<거리행진>

<광화문 집회> 사회 : 이승헌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실행위 회의

가. 일시, 장소 : 2013년 8월8일(금) 오후2시, 민주노총 9층 회의실

나. 참석단체 : 사회진보연대, 민주연대, 전국연합, 동성애자인권협회, 아시아사회연대보건의료단체 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학생반전위, 자통협, 문화연대, 전농, 공무원노동조합연대, 기아자동차화성공장반전위, 비폭력평화연대, 평화여성회, 다함께

다. 논의내용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계획 여부 건

- 폐지대상 : 자통협, 참여연대, 문화연대, 전농,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주연대 외
- 폐지반대 : 평화여성회, 다함께, 비폭력평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외
- 폐지한성의 이유

하나. 반전평화운동이 점차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에 비해 이 내용을 담을 틀인 현 공동실천의 조직으로는 운동역량이 조직적, 투쟁적인 한계가 있다. 대중적인 동원력 역시 취약하다.

둘. 실질적으로 책임질 단체가 없다. 한 예로 지난 반전평화운동시 부채가 1,600만원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또한 논의주도 및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다. 설명서 하나 만드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조직개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

셋. 지금의 공동실천의 틀을 폐지하고 건학하게 제기되는 반전평화이슈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넷. 9.27 형사의 경우도 국제사안이 중심이 아니라 한반도 사안을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 폐지반대의 이유

하나. 조직운영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

둘. 왜 굳이 이 시점에서 폐지를 논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라. 논의결과

당일 4시간 회의에서 한치의 알지도 없이 의견이 광범히 대립되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실행 위 단체중 폐지 찬성 6개단체, 폐지반대 4개단체 였으나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공동실천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다. 단, 실행위 단체에 의해 회의소집의 필요가 제기될 경우 참여 연대, 연중연대, 다합제가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다.

② 반전평화여성행동 - 파병반대 활동 연대

○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최집

가. 일시 : 2003년 3월 19일(수) 낮 12시 - 오후 1시

나. 장소 : 새창문화회관 앞

다. 내용 :

-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평화기원 여성 퍼포먼스
- 여성들의 입장 발표

라. 참석 : 이길현숙, 김숙임, 이명희, 정경란, 최안전경, 김현희, 지성혜, 전은주

○ 한국군파병반대 미대사관 앞 1인 릴레이시위

가. 일시 : 2003년 3월 20일(목) 부터 매일 12:00 - 13:00

나. 장소 : 미대사관 앞

다. 참석 : 김숙임, 김태경, 전은주

○ 파병반대 국회 앞 건널목 여성시위

가. 일시, 장소 : 3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나. 참석 : 김숙임, 문명녀, 이나호, 문영금, 김경수, 정경란, 지성혜, 전은주, 김수길 외

다. 내용 : 여성행동 소속 회원들이 검정색 옷과 검정색 완을 머리에 두르고, 이라크 어린이의 피해 사진을 가슴에 부착 한 후 국회 앞 사거리 모든 건널목 위주로 전대며 침묵시위를 진행

○ '반전평화캠페인' 여성행동 1일농성(4월 3일 오전 10시-4월 4일(금) 오전 10시)

<이라크침공중단과 이라크여성,어린이들이 평화명상 및 모금 캠페인>

가. 일시, 장소 : 오후 12시-2시, 덕동성당 들머리

나. 참석 : 김숙임, 이현숙, 김경수, 문명녀, 전은주, 김현희, 지성혜, 김수길

다. 주관 : 평화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

라. 참가단체 : 반전평화여성행동

마. 내용 :

<날 12시 - 2시> - 덕동성당 들머리

▶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 촉구와 이라크 여성□어린이 돕기' 평화명상 및 모금 캠페인

- 고통받는 이라크 여성과 어린이를 생각하는 평화명상
- 미국의 야만적인 이라크 침공 중단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반전평화 발언 (참가자)
-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평화상징의식(분홍색리본에 평화영원을 쓰고 잇기)

- ▶ 이라크 어린이에게 "북반대성 의약품들" 기부모금 캠페인
- 이라크 어린이에게 보내는 엽서쓰기
- 'Peace by Women' 토론 참여
- 사진 전시

④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활동

<한반도평화연대(가칭) 준비위 회의 (이전 : 자어래팀)>

○ 북핵관련 의원, 시민단체 간담회

가. 일시, 장소 : 3월 25일(화) 오전8시, 국회 귀빈식당

나. 참석 : 평화여성회(이김현숙, 권은주), 여성연합(이오경숙, 정현덕, 최성미), 환경연(최 열, 명 호),
참여연대(박순성, 김기식, 이태호), 녹색연합(김재남, 김다균)

다. 내용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시민단체 협의체 구성에 합의, 간사대포급으로 6인 위원회
구성(이김현숙, 이오경숙, 최 열, 김기식, 이부영, 김근태). 이 후 구체적인 사항은 제논의
키도 함.

○ 한반도평화연대(가칭) 준비위 회의

가. 일시, 장소 : 2003년 4월 3일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나. 회의결과

■ 일시 : 2003. 4. 3(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제1회의실

■ 참석자 : 정옥식(평화네트워크), 이현숙(평화여성회), 오재식(월드비전), 이오경숙(여성연합), 정경란
(평화여성회), 박순성(참여연대), 권은주(평화여성회), 김재남(녹색연합), 김기식(참여연대),
명호(환경연합), 이태호(참여연대), 김다균(녹색연합/기독)

■ 경과보고

- 김대중 전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공유가 있었음
- 북핵장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 간담회 제안 경과보고가 있었음(박순성)
- 망미단 관련 보고가 있었음(정경란) : 망미단문제는 '6인 실무소위'에 위임하기로 함
* 망미단문제로 미국단체와 주고 받은 편지원문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안전 논의

o T/F보고서 관련

- 전문가소위 구성, 초안을 검토하기로 함(초안검토자 : 박순성, 정옥식, 석관훈, 장정현, 김집수, 이
상훈 등 수반)
- T/F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토요일 오전까지 (정옥식 대표에게 전달)
- 전문가 초안검토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9시 참여연대 1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검토회의 최종안
은 4/1(화요일) 오전까지 참가자들에게 메일로 보내주기로 하였음
- 명문번역은 평화네트워크에서 책임상을 갖고 진행하기로 하였음, 김수는 박근용, 윤형모 담당하기로 함

o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 조직구성에 대한 결함 및 수준별 위 : '단체단위'가 아니라 '개별인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우선, 현재수준의 시민단체, 평화단체 참가인사와 국회의원 개인 인사로 함. 정치인 참여문
제는 여야 참가정치인들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함
- 명칭 : (가칭)한반도평화연대

<조직체계 (한반도평화연대 구성)>

- 대표그룹(인) 또는 고문그룹 : 오재식, 박상준, 박영숙, 강만길, 박낙정, 최영희, 강현룡, 범종 등

* 상임대표나, 운영위원장으로 오개시를 제안하였음

- 운영위원회 구성 : 시민사회(최열, 이오경숙, 이길현숙, 김계남, 김기식, 최병모), 국회의원(김근태, 이부영, 김영환, 서상철, 이성기) 등 15인 이내로하기로 함

- T/F 구성 : 보고서 및 논의를할 등 정례기능을 담당하기로 하고 참여인사에 대해서는 박순성과 정국석이 리드하기로 하였음

- 실행팀 : 정경란, 정옥식, 이대근, 최성미, 명호, 이태호, 김태균

- 참가단체명칭 : 여성연합 및 참가단체, 민변, 녹색연합, 환경연합, 평화통일시민연대, 좋은벗들,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 최종구성안은 이길현숙 대표님께 별도 제출기로 함(운영위원회장 및 운영위원회)

○ 기타 논의

- 북핵문제와 관련 정부쪽 논의흐름과 시민사회의 흐름에 대한 논의의 장은 정국석이 마련하기로 함

<특별관련 6인위원회 회의보고>

가. 일시 : 2003년 4월 16일(수) 오전 7시30분

나. 장소 : 국회의원 귀빈식당

다. 참석 : 이길현숙, 최열, 이오경숙, 김근태, 이부영, 이태호, 김태균(실무)

라. 결정사항 :

- 방미단 일정확정 : 6월1일-10일(대표단 :이부영, 김근태(논의중), 이현숙, 오계식 외 6-7명 정도)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협의회(한반도평화국민협)를 구성하기로 합의

- 준비일정 : 4월30일 11시, 국민협 운영위(국회 귀빈식당), 1시, 국민협 발족식

5월 7일 운영회

5월22일 정부 방미단 결과보고미팅

- 국민협 실무단 : 이부영의원 보좌관, 이태호, 김태균

참조) 미국NCC, 종교단체 쪽에서도 방미단 구성 중

<25일 실무회의 결과>

가. 일시, 장소 : 2003. 4. 25(금) 오후 5시, 참여연대 회의실

나. 참석자 : 정경란(평화여성회), 명호(환경연합), 권상훈(참여연대), 김태균(녹색연합)

다. 회의 결과 :

○ 방미단과 관련하여

- 방미단 구성현황 : 실재연의원(민주당), 이우계의원(천안시장), 이길현숙(평화여성회), 박건영(가톨릭대), 정경란(평화여성회) - 확정된 명단, 오계식 또는 박상중 두분중 한분으로 하고, 시민사회에서 한분을 모시는 것으로 함

- 방미시 주요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비행정부의 대북한정책, 북한핵문제, 주한미군, 빈민구제, 미국의 평화운동 등)의 정리와 방미단내(의원그룹, 시민사회그룹, 학자) 역할분담 등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2차례(노무현대통령의 방미전, 방미후)의 워크샵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정경란님이 관련 세부계획안을 마련 제안하기로 함

- 방미단 워크샵과 관련 1차워크샵은 5월6일 또는 7일 중에 택일하기로 제안하기로 했음, 발제자로 나설 분(박건영교수, 김현철 교수 등)들과 방미단 구성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최종결정하기로 함

○ 국민협의구성 및 발족과 관련하여

- 협의회 구성 참여인사를 점진한 결과 시민사회연명의 참여인사 섭외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야정치인의 참여는 지조한 실정임

- 파벌반대 및 정치개혁에 참여한 여야국회의원들과 이부영의원실과 김근태의원실에서 추가적으로

포함시켰으면 하는 의원들에게 관련 제안을 보냈으며, 현재까지 완어를 통보한 의원은 김경철의원, 안광수의원, 김성조의원, 안영근의원, 배기운의원, 심재곤의원, 이미경의원 등이며, 대부분의 의원실측은 검토중이라는 연락을 해온 상황임. 28일(월) 오전까지 관련 의원들에 참가 여부를 타진한 후 30일 발족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할지 판단하기로 했음

- 어야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4월30일을 '국민협의회 발족준비모음'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안되었음
- 고문그룹에 대한 심의는 박영숙(평화)대표(임의 : 이김현숙), 강단길-백나침-강원룡-변정(임의 : 최일)분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함. 또한 고은님, 황석영님, 신경림님, 김중태님을 추가로 고문그룹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제안이 실무회의에서 있었음
- 또한 통일운동그룹과 반종운동그룹의 국민협의회 참여와 관련 김기식처장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했음

○ 북한의 핵무기보유주장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문제 : 붙임자료 참조

<4월 28일 회의결과>

가. 일시, 장소 : 2003. 4. 28(화) 오후 2시, 참여연대 회의실

나. 참석자 : 이김현숙(평화여성회), 박순성(참여연대), 정경란(평화여성회), 명호(환경연합), 원성훈(참여연대), 김다균(녹색연합)....

다. 내용 : 4월 30일 발족식은 5월 7일로 연기, 방미단관련 논의, 위원조직 정립, 위원 회비 5만원, 기타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발족 기자회견>

가. 일시, 장소 : 2003. 5. 7(수)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

나. 행사순서 : 사회 - 서주원(환경연합 사무총장)

다.

○ 인사말

- 이김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 김근태(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이부영(한나라당 국회의원)

○ 참석자 소개 (사회자)

- 고문단, 대표단, 운영위원, 추진위원 등 참가위원 소개

○ 경과보고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차장) - 취지, 활동보고, 조직구성 등

○ 발족 선언문 - 정현백(여성연합 대표)□여야의원(심재권 의원)

○ 향후활동계획 발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차장)

<방미단 출국 기자회견>

가. 일시, 장소 : 2003. 5. 30(금) 오전 9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카페

나. 행사순서 : 사회 - 이태호(참여연대)

다. 진행

- 인사말 (이김현숙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방미단 대표단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 방미단 취지 설명 및 활동계획 발표 (심재권 의원)
- 한반도평화국민협 방미단 출국에 대한 입장 발표 (이우재의원)
- 방미단 보고서 발표 (박건영 교수)

<방미단 활동 및 보고 기자회견>

가. 일시 : 2003. 6. 18(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 귀빈식당

나. 방미기간 : 6월 1일 ~ 10일

다. 방미단 : 이길현속(평화여성회), 구갑우(경남대, 참여연대), 박진영(카톨릭대), 심재권(민주당), 이우재(한나라당 의원), 정경란(평화여성회), 정현택(여성단체연합)

라. 내용 :

- 방미단 인사 : 심재권, 이우재 의원
- 방미기간 활동내용 소개 : 이길현속, 정현택 대표
- 미국친우봉사회 인사 : 조셉거슨
- 향후 활동계획 : 참가자

마. 방미단 보고서 내용

가) 프로그램 개괄

- 프로그램명: 한반도평화국연합의회 방미 대표단 활동
- 방문목적
- 방문준비과정 : 방문준비과정, 미국 초청단체, 방미대표단 구성, 방미단 활동내용과 활동일지

나) 방미단 입장문서

- 국문자료 ○ 영문자료

다) 방문활동 보고 및 평가

- 방문내용 ○방미단의 성과와 한계

라) 자료

- 한반도평화국연합의회 소개 자료
- 미국에서 만난 사람 주소, 이메일
- 기타 자료

<2차 운영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8일(수), 국회 의원회관 306호

나. 참석자 : 김근태(민주당), 심재권(민주당), 이강태(민주당), 이부영(한나라당), 이길현속(평화여성회), 박순성(참여연대), 정옥식(평화네트워크), 정현택(여성단체연합)

다. 참 관 : 정경란(평화여성회), 전은주(평화여성회), 안정애(평화여성회), 윤현봉, 박성준(비폭력평화물결), 조셉거슨(AFSC), 권상훈(참여연대), 신상열(김근태 의원실), 조경식(이부영 의원실)

라. 주요논의사항

1) 방미단 최종보고서 작성관련 역할분담

- 작성책임자 : 방미대표단이 담당하고 박순성 교수, 정옥식 대표가 도와주기로 함. 정경란씨가 실무를 책임지기로 함.(작성기간 : 6월 22일까지 완성)
- 보고서 관련 의견
 - 완성된 보고서는 국회의원, 언론, 시민사회단체, 정부, 미국내 한인들에게 보내도록 함.
 - 다음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작성하고 활용하도록 제작함.
 - 전문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현안이 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화자는 의견이 있었음.

2) 간사단체 선임

- 국회의원측 간사는 민주당 신상열(김근태 의원) 보좌관과 한나라당 조정성(이부영 의원) 정책실장이 담당하기로 함.
- 시민사회 간사단체 선임은 시민사회단체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함.
- 정경란 간사가 한반도평화국연합의회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함.

3) 정세대를 방안

- 평화국민협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세적 대응을 하자는 의견이 제안됨.
- 김근태 의원은 5차 회담의 경우 긍정적인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고, 이런 발언을 통해서 개입력을 높이려가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

④ 파병반대활동 연대 - 공동실천, 여중생법대위 공동활동

○ 한국군 파병반대 국회 간담회

가. 일시 : 3. 21(금) 오전 10시

나.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다. 참석 : 평화여성회(김숙임, 전은주), 참여연대, 녹색연합, 여성연합, 국회의원(김근태, 김원용, 임종석, 서상설, 김성호, 여미경의원 등 11명 참석)

라. 내용 : 국회 파병동의안 거부권 행사 관련 시민단체, 국회의원 활동 관련 논의

○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

○ 소집 제안 기자회견

가. 제안자 : 이길현숙 대표 외 종교, 문화, 환경, 여성 등 각계주요인사 44명 제안

나. 일시, 장소 : 3월 31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다. 내용 :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 제안의 배경과 추진계획 발표 및 명동성당 안마당에 설치적인 대화와 토론의 마당이 될 '반전평화캠프' 설치

라. 참석 : 이길현숙, 김숙임, 전은주

○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

가. 일시, 장소 : 4월 3일 오전10시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나. 참석 : 이길현숙, 김숙임, 전은주, 김현희

다. 내용 :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호소문) 채택, 각 부문별 반전평화발언, 반전평화선언문 낭독, 반전평화행동지침 마련, 미대사관까지 평화행진 등

○ 반전평화운동의 진전을 위한 각계 간담회

가. 일시, 장소 : 2009년 3월 29일(토) 이른 8시, 6월사랑방

나. 참석자 :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재남(녹색연합) 김혜경(환경연합) 박원순(참여연대) 및 안(실천불교승가회) 정태웅(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손호철(민교협) 송보경(소시오) 양길순(보건지료) 이대영(경실련) 이무열(전교조) 이위영(민변) 장대현(전국민운동대) 정대연(통일연대) 김현택(여성단체연합) 전종훈(천주교사제단) 최인순(보건지료단체연합) 최 영(환경연합) 한종욱(전국연합) 황인성(6월사랑방) 김성관(전국연합) 김학규(6월사랑방)

나. 회의결과 : 최영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함.

- 최영이 간담회를 소집한 취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함.

- 장대현이 현재의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함.

- 반전평화운동의 대공격 확산을 위한 폭넓은 역량결집을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각계의 명망있는 지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비상회의의 소집이 시급하고, 향후 반전평화운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Camp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1) 30명 정도의 원로급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 준비모임'을

2003년 3월 31일(월) 늦은 2시에 평등성당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
 2)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4월 3일(목) 이른 11시 정도에 각계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
 성)'만민평화를 위한 비상국면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

3) 재인과 동시에 평등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농성장이 만민평화운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4) 이를 위해 홍보기획팀(팀장 : 박원순, 김재남, 김경재, 박순성, 정대연, 최민순, 황인성)과 조
 직사무팀(팀장 : 최 원, 손오일, 이무영, 정진우, 정현배, 한송복)을 구성하여 "3/31 준비모임"
 을 실무적으로 준비

5) (가성)4/12만민평화범국민대회'와 각계의 동참을 조직하는 사업 참은 평등성당 농성장을 열
 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며 추진

○ 공동실천, 여중생법대외 합동운영회 1차 회의

가. 일시, 장소 : 3월 24일 오후2시, 민주노총 9층 회의실

나. 내용 :

안건 1> 합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 두 명의 학생 부문측 운영위원을 두기로 함.

* 청년학생안전위원회는 내부 회의를 거쳐 현 청년학생안전위 간사가 운영위원으로 합동운영위
 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 여중생학생대책위와 한송원이 상의해서 운영위 참여 결정함.

2) 종교 인권, 문화예술, 범죄, 학제, 보건 의료 등 부문을 포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동운영
 위원장이 추천한다.

3) <공동실천>과 <여중생법대외>의 힘을 합친다는 기본원선에 비추어 두 조직의 주요 간부가 참
 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없는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두 단체를 통합하기로 한 것이니 가능하다면 집행 단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자. 하여 여중생법대위에서 한 사람 운영위에 참여하도록 한다.

* 운영위원회는 해당 단체 내에서 집행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가 참여하기로 함.

* 아래의 운영위 참여 단체 내에서 운영위 회의 참여자를 결정하기로 함.

녹색연합, 여민, 평화여성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함께, 전남, 학생21만민평화학생위원회, 여
 중생학대위,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통일연대, 전국연합, 겨룡합,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
 함.

4) 공동운영위원들 :

* 우선 여성과 시민, 민중 진영에서 각 1인씩 3인의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시민 진영
 은 김재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여성은 여성단체에서 논의 후 결정, 민중진영도 논의 후 결정.

<안건 2> 상황실 설치 및 상황실장 인선의 건

* 법대위와 공동실천이 합동상황실을 운영한다.

* 상황실장 : 법대위 최근호로 결정, 사무국장 : 공동실천 상황실장 정수영이 제안함. 이후 공동실천 내에서
 논의 후 결정

<안건 3> 내법 불의인 국회 통과 지지 투쟁 평가와 향후 투쟁 방침의 건

3월 27일 오후 2시 기자회견과 함께 2차 농성투쟁을 전개한다.

3 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앞 총력집결투쟁을 전개한다.

각 단체별로 정부와 대정부권 사업에 총력을 다한다.

각 지역별로 지구당사 농성 등 지역집지인에 대한 압박사업을 일제히 전개한다.

• 매일 저녁 7시에 촛불 집회를 한다.

•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모든 단체가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함.

• 민주노총이 기존 차원에서 중식 집회를 열거나 내 시간 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요청과 재안

• 4월 12일 서울 10만, 전국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가집> '반전평화범국민총발기대회'를 하기로 함. 그리고 이를 위한 '반전평화 범국민해상시국회의'를 조직하자.

• 다음 회의 때 비상시국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기로 함.

• '반전평화 1천만 서명운동'을 하기로 함.

• 학생들의 경우 4월 4일에 동맹휴업하기로 3월 24일 결정함.

• 민주노총의 경우 28일 비상중앙위가 잡혀 있고 27일에는 산발대표가 모임이 있다. 그 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계획 정하기로 했다 함.

• 반전평화운동기금을 위해 대중적 모금을 전개하자. 기관 단체를 논의하도록 하자.

○ 공동실천, 여중생법대위 합동운영위 2차 회의

1) 운영위원회 추가 구성 및 합동운영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 운영위 화성단체 20개 확정.

• 전민련과 건총의 운영위원 참여는 박석운 운영위원이 책임을 맡기로 함

• 공동운영위원장 선임 : 민중 전맹은 전국연공연대의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이 맡기로 함.

2) 합동집행위원회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기획위원회는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 선임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함

• 합동집행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4□12일 집회 이전에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함

3) 범국민 반전사범 운동

• 대중적인 국민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고 각 단체 및 부분의 실정에 맞게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상황실이 사명 용지 초안을 작성해서 다음 운영위 때 제출하기로 한다.

4) 4월 12일 집회 관련

• 집회 제목 : 종약전쟁 중단, 파병철폐,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4□12 국제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 장소, 일시 : 시청, 4. 12 오후 4시

• 주최 : 비상국민회의 주관 : 전쟁반대평화실현/여중생법대위

• 시청에서 평화문으로 뺄진한다.

• 국민참여와 대중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로 함

5) 5.1제이데이 반전평화 집회 관련

민주노총에 제안하고 민주노총은 검토하기로 함.

7) 상황실에 상근자(반상근 포함)를 파견하도록 요청하기로 하고 특히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구하기로 함

8) 단체별 반전 운동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에 관해 운영위 내에서 각 운영위원들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런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음.

○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철폐! 한반도 전쟁 위험 반대! 국제반전평화공동행동의 날

가. 주최/주관 : 반전평화를위한비상국민회의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 미군장갑차 고 신희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나. 일시/장소 :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앞 / 전국 및 세계 각지, 오후 3시부터 다양한 사건현장

< 대회 순서 >

- 춤대 '출' 한현 춤 공연

- 개회 및 의례

- 판전시 낭송
- 발언 1 : 리영희 교수
- 발언 2 : '정권영'씨(영화인)
- 국제 반전 메시지 낭독
- 발언 3 : 김정범 (의사)
- 노래공연 : 어린이 노래단
- 상징의식
- 노래공연 : 꽃다지
- 태국민호소문 낭독 : 수내님

<4.12 국제반전평화행동의 날 시민 행동지침>

하나. 판전평화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도구를 준비하여 참가합니다.

하나. 4월 12일 오후 4시, 각 성당, 사찰, 교회에서는 전쟁단대 다중을 합니다.

하나. 12일 오후 4시, 모든 차량은 10초간 경적시위를 합니다.

하나. 12일 오후 10시, 백악관, 청와대, 국회 사이버 시위를 전개합니다.

○ 제4차 합동운영위원회

가. 참석 단체 : 박석준(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 자통협(여중생 연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명호(화성운동연합), 박준도(사회전보연대 사무처장), 전은주(평화여성회 사무국장), 민지열(한총련 연사 위원장), 최일봉(다함께 편집자), 이종우(청년학생반전위원회 간사), 최근호(합동상학실장), 정종권(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장), 이희수(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김어진(합동상학실 상근자), 김재민(한총련), 김인석(다함께), 김광일(다함께), 박석민(민주노총 대외국장)

나. 문화일보 4월 11일자 기사에 관한 건

문화일보 4월 11일자 기사 내용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도록 한다.

한겨레 신문 4월 12일자 기사(제목 : "이제 한반도 전쟁 위험 중단 운동")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논의하도록 하자.

다. 4월 12일 집회지 제정에 관한 건

1) 합동운영위 참가 단체들은 30만 원 이상씩 내도록 한다. 비상국민회의 쪽에서 200만원 정도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제속 요청한다.

2) 일반 단체들한테도 추가로 10만 원씩 내도록 요청한다.

3) 부상자 치료비 명목으로 모금을 했으니, 모금된 액수(2백5십4만8천8백7십 원) 가운데 1백만 원을 부상자 치료비로 우선 지급한다.

그리고 부상자 치료비에 관한 특별 모금을 하도록 한다.

라. 4월 12일 이후의 사업 계획에 관한 건

1) 합동운영위가 난민 구호 운동을 벌인다는 것을 표명하지는 않는다. 개별 단체가 난민 구호 운동을 할 수는 있다.

2) 다함께추진 운영위원회와 민중연대가 각각 제출한 안을 발표하고 토론함

3) 4월 17일 한국군 괴형 편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일정

기자회견 1시 30분 국방부 앞

2시 국방부 앞에서 집회(4시 30분까지 인원공람에 도착한다)

5시 인천 공항에서 집회

아.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과 여중생법대위 주최의 반전 메이데이 진야제에 관한 건

- 하지 않기로 함.

바. 차기 회의 일정 : 4월 25일(수) 오후 4시. 전주노동 9층 회의

㉔ 여중생법대회

○ 여중생법대회 대표자 소환 규탄 기자회견

가. 일시 : 2003년 3월 12일(수) 오후 1시

나. 장소 : 경찰청

다. 내용 : 소환장 발부에 대한 규탄

○ 여중생 법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불법 폭력연행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발표

○ 여중생 법대회 탄압에 대한 미국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 비상공동상임대표자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3년 3월 14일 (금) 오전 9시, 평동 참전교회

■ 참가 대표자 : 교포단(서경원, 권오현), 상임대표단(홍근수 목사, 한상열 목사, 진관스님, 문대골 신부, 조희주), 단체 대표자(임영규, 노수희, 권오창, 김순심, 이성필, 범민련, 탈북자, 자통협, 다함께)

■ 법대회 탄압에 대한 긴급 대응 방침

- 법대회 소속단체와 지역대책위는 법대회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15일까지 발표한다.

- 법대회 소속단체와 지역대책위는 법대회 탄압에 대한 중앙일간지 연속광고를 게재한다.

- 3월 12일 폭력 불법연행에 대해 민-청사상 법의 대응을 진행한다.

- 평화문 추모 촛불행진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확대한다.

- 경찰청장 및 대통령 항의 편지를 전달한다.

- ON-OFF 라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선전을 강화한다.

- 소환장 8인 간부 구속시 즉각적인 형의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 각 정당을 방문해 인권위에 경찰폭력에 대해 알린다.

○ 고 신효순 심미선 6□13 1주기 추모대회 범국민 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

가. 일시 및 장소 : 2003년 5월 2일 오전 11시, 통사단

나. 방식 : 각계각층 대표, 유명인사, 사회원로 613인의 이름으로 발족식을 진행한다.

-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내용 : 1주기 추모제 사업계획 및 10년준비위원 조직결의

- 1주기 국면준비위원회 조직구성

- 1주기에 즈음한 대국민 호소문 채택 (준비위원회여호소및생동방원등)

- 1주기에 즈음한 국민 요구안 발표

○ 6.13 1주기 추모대회 ,자주평화실현 촛불대행진

- 일시 : 2003년 6월13일, 7시(5시부터 사전행사)

- 장소 : 서울시청 광장외 전국해외 80곳

- 식순

1부 : 열린시민마당

2부 : 촛마당 - 1마당 / 2마당 / 3마당

3부 : 촛불대행진

㉕ 글사주의현대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 회의

가. 일시 : 2003년 2월 26일(수) 오후 6시

나. 장소 : 한소리회

다. 참석 : 김숙임, 김엘리

라. 내용 :

- 여성평화네트워크의 비영리단체 등록 문제 논의 : 내년국제회의 앞두고 조직등록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전까지는 자유로운 네트워크로 활동하기로 하다.

- 중간 회의 : 일본에서 상황이 어려워진 관계로 한국에서 중간회의로 하고, 참가자들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 여성주의적 감수성 관련 자료 페이지 작성(장유진)

○ 안전평화토론회

가. 일시 : 3월 5일(수) 오후 7시

나. 장소 : 서강대 M관 102호

다. 주최 :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라. 참석 : 김숙임, 김엘리, 김정수 ...

마. 내용 :

- 여성과 전쟁, 그리고 여성들의 과제와 역할
- 여성 반전평화운동에 있어 국제연대의 방향과 과제

② 7.27 정전50년 한반도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집행단위 회의>

가. 일시/장소 : 2003년 7월 2일, 오전 9시 / 6월사랑방

나. 참석 : 평화여성회(정은주), 조희연(학단협), 한중목(통일연대), 송주영(교수노조), 정태연(민주노동당), 이태호(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김승익(통일연대평화위), 김성완(전국연합), 박서민(민주노동), 김종익(자통협), 박준도(사회진보연대), 민교협, 민경우(통일연대), 지금중(문화연대), 김학규(6월사랑방), 정진희(다함예), 윤용웅(통일연대) + 3인

다. 내용 :

1)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안) 확정 의 건

○ 7.27 한반도평화대회 (집중사업)

- * 일시 : 7월 27일, 오후2시~4시 / 장소 : 임진각

- * 흐름 : 기 재출원 기획안에 토대하여 분예기획팀에서 구체화

○ 각계 밀레이 평화선언 (집중사업)

- * 내용 : 조직위원회의 사업기조와 무관의 요구를 결합한 평화선언

- * 일정 : 여성, 문화예술, 종교 등을 중심으로 기획사업으로 진행, 구체적인 일정은 집행과정에서 결정

○ 광장사업(집중행세인)

- * 방식 : 기 재출원 기획안에 토대하여 주관단체들의 특성과 요구 결합

- * 일정 :

7월12일(토) - 시민, 환경, 여성, 학제

7월19일(토) - 민주연대, 통일연대

7월24일(목) - 종교, 보건복지, 문화예술 등

- * 장소 : 1단-국제청 앞 광장 / 2단-인사봉들머리 / 3단-대학교(행세인기획팀에서 결정)

- * 행세인기획조직팀 구성 - 참여연대(이태호실장) + 청년 + 학생 + 통일연대(조직위 사무국) +8

- 기획팀1차회의 : 7월7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 서명운동

* 명칭 : 7.27 반전평화서명운동

* 기간 : 7월 27일까지

* 주최 : 7월27일까지는 조직위원회 + 개별단체 연명

○ '평화의 날' 제정운동

* 7월4일, 기자회견을 통해 '7월27일 평화의 날' 제정 운동 발의

* 서명운동의 내용으로 결합

* 중장기적 사업으로 기획(조희연 교수 + 학단협 + 민교협 + YMCA)

○ 한반도평화포럼

* 일시 : 7월26일, 오전9시30분~6시

* 장소 : 연세대

* 주제 프로그램 : 차기회의에서 프로그램 최종화정과 역할분담, 토론참석자 조직 등 논의

○ 한반도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간법정

* 일시 : 7월25일, 오후1시

* 장소 : 핵법기념관

<한반도평화대회 조직위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가. 일시 : 2003년 7월 4일(금) 오전10시~12시, 느티나무파라

나. 내용 : 기자회견사파: 송주명 교수

1) 개회 - 사회

2) 대표연사말 - 오종필(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3) 조직위원회 결성 추진 경과 보고 - 박석운 (조직위 공동운영위원장)

4) 결성위지문 낭독 - 이길현숙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5) 조직위원회 사업계획 소개 - 조희연 (조직위 상임운영위원장)

6) '반전평화필름' 선포문 낭독 - 박상중(참여연대 공동대표)

7) 질의응답 및 폐회

① 정전50년 한반도평화대회 조직위원회 한반도평화대회

가. 일시, 장소 : 2003년 7월 27일(일) 오후 2시, 임진각

나. 프로그램 :

○ 예능마당 : 정혼천-씨나라(문화연대, 전해홍 기획)

○ 1부 : 사회 - 한송옥 공동운영위원장

▷ 대회선포(평화대회 추진 과정 소개 결합) - 사회

▷ 대회사 -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

▷ 각지평화제세지(문해세지)

▷ 국제연대사 - 조경 해외인사

▷ 문화 - 평화의 시 낭독 / 어린이들 '평화의 노래'

▷ 평화연언문 채택, 발표 - 이길현숙 상임대표, 한철 의장

○ 2부 - '정전 50년 평화기원 문화제'

- 회양사, 민족총대 '출', 박성환 밴드, 우리나라, 친지인 등

- 회합의 솟대 세우기

- 부대행사 : 대회를 주위에 각 단체별로 전시회, 공연행사, 설치미술 등의 부스를 설치

⑧ 정대협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회

가. 일시, 장소 : 2월 28일(금) 오후4시, 정대협 회의실

나. 참석 : 지성택 간사

다. 내용 :

- ZONTA의 회원단체 제명
- 대표선출에 있어 정대협 자체 회의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다.
- 회비 10만원으로 하향조정
- 권광재여성인권센터 병설
- 기념사업위원회 구성 정신대기념관 추진

⑨ 이라크어린아이에게 의약품보내기

가. 주최 : 한겨레신문사, 한국가톨릭교회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천주교주교회

나. 주관 : 건강발전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남쪽어린이에게
동무,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베트남평화의료연대,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다. 진행상황 :

○ 의약품 지원 1차 전달대 12일 출발

- 11일 오후 6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의약품 1차 지원 논의 진행

- 참석자 : 우석국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송미옥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정성훈 전체 사무국장, 변해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권태선 한겨레 편집국 무국장, 이병 한겨레 뉴미디어본부 무본부장, 황상철 한겨레 국제부 기자, 박진원 남쪽어린이에게동무 사무국장, 김보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국장, 허운정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간사

- 12일 오후 6시 비행기로 4명이 지원경로 모색 등을 위해 요르단으로 떠나며, 1차 지원액은 총 5천만원 규모로 정함

- 전달대지원물품 : 바그다드에서 긴급히 필요하다는 마취제 '리도카인' 전달(100kg, 2천명분)

- 전달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성훈 전체 사무국장, 반전평화팀의 합영진, 한겨레 국제부 황상철 기자 등 기자 2명

- 이날 회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다중주중 전달대를 요르단으로 보내고, 현지에서 국경없는 의사회와 연대를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의해 이루어짐.

- 그러나 바그다드 상황이 급변하고, 반전평화팀을 통해 바그다드 시내에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오며 따라 요르단으로 가는 전달대 출국 시간을 앞당김.

- 전달대는 요르단에서 국제기구나대체위와 함께 물품을 구입하고, 이라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고, 1차 지원한 전달대가 요르단에서 경로를 확보할 경우 5천만원까지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함.

○ 토요일,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행사 마련

- 토요일날 마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이라크 어린이에게 사탕의 편지 전달 등 간단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동무에게 제안해 온.

⑩ MD저지 공대회

가. 일시 : 7월 3일(목) 오후3시, 참여연대

나. 참석 : 민주노총, 자통협, 평통사, 평화시민연대, 평민연날축본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좋은벗들, 민주노동당, 현충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전국학생연대회의, 통일물고연대

다. 내용 :

1) 보고(MD관련 상황, 실천활동 보고)

2) 2003년 하반기 사업 계획안 논의

○ 2004년 국방예산 증액 반대 투쟁 : MD 관련 무기체계(PAC-II)를 비롯한 소요물급한 무기 도입에 대한 국방예산 배정을 철회, 삭감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MD무기 도입 반대 국회 의원서명 받기 중 국회의원을 조직하여 함께 대응하기)

○ 월계 집회 등 개최 : 평통사와 함께 국방부 앞 월계 집회를 개최하고, 상황에 따라, 중, 소규모 집회를 추가로 조직하며, 1인 시위, 기자회견 등도 함께 배치한다.

○ 청와대, 국방부, 미대사관, 미군사령부 등에 대한 항의 전달 전개 : 현재 공위로 등장한 '한국의 MD참여' 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 대한 청의와 민담을 통하여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MD지지 공대위의 항의와 반대 입장을 전달한다.

○ 관련 부처와 공청회, TV 토론회 조직 :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TV 토론회 조직하여 MD문제를 공론화 시킨다.

○ 신정철 제작, 배포 : 2002년 상반기의 신문 제작에 이어 최근 상황을 포함한 MD 관련 선전문<소책자, 리플렛 등>들을 제작, 배포한다.

○ MD제거 도입 반대 서명□홍보전 전개 : 일정한 기간 집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서명□홍보전을 통해 MD제거 문제점을 반대 여론을 모아낸다. (- 각 시기에 따라 항의 이념일 보내기, 신문광고 선전조직 등 고려해볼 수 있다.)

- 결과를 청와대, 국회, 미대사관 등에 전달한다.

○ 국정조사권 활용 촉구 : 국방부 획득관리규정과 예산회계법 위반하면서 작년 8월 14일 미 정부와 본 계약이 체결된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 기 타

※ 중□장기 사업 계획안을 본래해서 마련하기로 하다. (다음 차 회의 때 중 대 구체화하기로 하다.)

-MD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각 집회 때 연설 배치, 청와대 민담 등을 진행하기로 하다.

-집회 개최 : 국방부 앞 집회와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회, 미대사관 일인시위 등을 모색하기로 하다. -기회 예산서 전달 : 평통사가 준비하고 있으므로 'MD지지 공대위'가 이에 함께하기로 하다.

-토론회 개최 : MD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근 변화된 내용을 반영한 토론회를 다음 집행회의 때 논의해 개최하기로 하다. (7월10일 평화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

-선전문 제작 : 다음 차 회의 때 구체화하기로 하다.

⑪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가. 일시, 장소 : 2003년 9월 27일(토) 오후2시, 서울 도심

나. 주최 : 9.27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

다. 제목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반도 위기 조성반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⑫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총 361단체)

법국민 비상시국회의(4회) 법국민총결의의날 및 인간파앗기(5회)기자회견 (10회),

청와대 앞 1인시위, 국회의원대명청만의건물기상화물농성, 집회등 9월 20일부터 시작된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은 해만기 반전평화운동을주도한 가운데 미국의 파병압박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정부의 파병일정과 규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반전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③ 이라크파병 반대여성행동의날

가. 일시:장소: 2003년 11월 11일(화) 평화문KT앞

나. 주최: 반전평화여성활동연대

다. 제목: 여성들은 파병을 반대한다. “용기있게 파병철폐”

사회: 최선희(평화여성회 사무처장)

인사말: 정현택 <여연공동대표>, 박추연 <기독여인회 회장>

식당송: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파병반대전국지역여성단체 메시지: 순복여성민우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울산여성회,

이탈임(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단체별 결의회시간: 정대협 황태남, 평화인연연대, 연주소동당들

결의문낭독: 여성회이름으로 파병을 반대한다. 김숙임(평화여성회공동대표, 김선실
현주교여성공동체 대표) 퍼포먼스 : “용기있게 파병철폐” 박터트리기

④ 반전평화 송년퍼레이드 ‘국민을위해 파병한다고 하지 마세요’

가. 일시:장소: 2003년 9월27일 종로 국제실앞

나. 주최: 평화물민드는여성회, 참여인대, ymca, 문화연대, 20대가짜라는세상, 소망의나무,

민가협,

우리민화연대, 간디학교 등

다. 후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라. 내용: 사회:최광기

1. 평화영상 (평화물민드는여성회 김숙임공동대표)

2. 이라크파병반대 연설 - 민가협

3. 반전관소리 민중소리대의 바카소리-최윤석

4. 전사-우리민화연대

5. 퍼포먼스-미술인회

마. 평가: 반전평화퍼레이드로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보자는 취지아래 이

라크파

병을 반대하는 시민,문화단체들이 모여 만든 행사로서 전쟁에 대한 차분한

이해와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고 알려내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⑤. 정세대응을 위한 여성 task force- 3차 전문가포럼

“이라크 파병, 여성, 평화행동”

가. 일시:장소: 2003년 10월 30일(목)오후 3시, 성공회대성당 성가수녀원

나. 주관: 평화물민드는여성회

다. 후원: 여성부

라. 내용:사회 - 홍승희(평화물민드는여성회 정세대응팀장)

발제1. 한반도평화, 이라크파병으로 좀 수 있나. 김현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발제2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이라크전쟁과 평화: 김영리(평화여성회 정책위원)
- 발제3 이라크전쟁과 시민사회 역할: 정경란(평화물민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
- 토론1 이라크 전쟁과 국회의 역할: 김영환(국회지원)
- 토론2 평화를 위한 여성연대: 최문성씨 (한국여성단체연합)
- 토론3 이라크인은 무엇을 원하나: 강연화(이라크반전평화팀)
- 전제토론

□ 기타

- 조선일보 기고와 인터뷰를 거무하는 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차 선언
"우리는 조선일보를 반대한다"
- 가. 일시, 장소: 2003년 3월 4일(화) 오전 11시, 느티나무(안국동)
- 나. 주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 시민사회단체활동가모임
- 다. 순서
- 인사말 / 격려사 / 경과보고 / 질의응답 / 선언문낭독 /
- 라. 경과보고/ (선언문 별첨)
- 한국여성단체연합 - 킁낫한 스님 발한 기념 평화열린대회
- 가. 일시: 2003년 3월 22일 오후 2시-5시
- 나. 장소: 시청 앞 광장
- 다. 주최: 환경재단, 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종교인연대회의, 문화연대
- 다. 참석: 김숙임, 이낙호, 지성혜, 김수갑, 이명희, 전은주 이사 등
- "노무현 대통령의 땅미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과제 300인 선언" 기자회견
- 가. 일시: 2003년 5월 9일(금) 이른 10시
- 나. 장소: 서울YWCA대강당(4층 - 명동성당 맞은편)
- 다. 주최: 과제 300인 선언 준비모임
- 라. 순서: 사회(손호철, 연교협 공동의장)
- 참석자 소개 / 취지 설명 /
- 인사말: 김전환(전 서울대 교수), 오종일(목사, 6월사관할 대표), 정장훈(전국민총연대 준비위원장)
- 선언문 낭독: 김숙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유덕상(민주노총 인천대협)
- 질의응답 / 폐 회
-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관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 가. 일시, 장소: 2003. 6. 5(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하체
- 나. 주최단체: 6월사상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영세종립통일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좋은벗들/ 참여연대/ 통일찾아/ 통일민주회의회/ 통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물민드는여성회 /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청년연합회/ 한민족통일촉진협회 / 피랑네트워크
- 다. 진행: 사회: 정광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취지문 발표: 박정원 통일민주회의회 회장
-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정자 평화여성회 이사

○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영상물 제작 중

가. 준비단계 : 평화여성회, 예민, 품어인데

나. 제작 배경 : 발리단 활동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반도 현실과 활동을
표현하는 영상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미국 활동가들의 제안에 의해 열광으로 된 영상물을 만들기로
함.

1-2. 국방과제팀 (팀장 : 안정애)

- 팀원 : 김숙임, 여태숙, 김현희, 김수권, 장정옥, 조정준, 김정화
- 사무국 : 전은주 사무국장

○ 사업목표

- ① 국방관련 의정감시활동을 실시한다.
- ② 국방정책과제개발 및 제시한다.
- ③ 대안적인 국방감시제도를 연구하고 제안한다.
- ④ 평화주의와 여성주의적 관점을 국방정책에 적용한다.

○ 사업총평

가. 성과

○ 올해 처음 신설한 국방과제팀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매 월 회의를 정례화하면서 대안적인 국방감시제도를 연구하면서 '군복역 군정을 위한 대안적 배당시스템으로 국방감독관 제도'를 제시하였다.

국방감독관 제도는 독일의 사례가 유일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하면서 한국사회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군대문화를 개선하고, 적국적 계급의 군감시시스템으로서 사회의 책임을 부여하고자 입법화과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이라는 신선한 접근으로 사회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으며 여성평화운동의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를 하였다.

○ 국방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위해 내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전향한 전 문가로서 및 공익입법보좌활동은 대안적인 국방감시제도를 연구하고 제안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이는 법률안 제정활동 등 대국화활동을 위한 연구과정으로서 사업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낳았다.

○ 사안에 따른 긴급한 국방관련 사업에 국방과제팀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졌으며 국방비 증액 반대 활동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국방부 사고예방 통합대책안에 대한 시민사회입장 기자회견 등 국방관련 대응 연대활동을 진행하면서 국방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대광명화하였다.

나. 과제

○ 올해는 국방관련 의정감시활동을 시도는 했으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과 전문성 부재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행을 못했다. 하지만 올해 평가를 토대로 의정감시활동의 구체적 주제를 형성하여 역량에 맞는 정도로 의정감시활동의 전개와 여론활동이 요구된다.

○ 올해 추진한 국방감독관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전문성을 더욱 확대하고, 추진 이후 국방위원 고실 등 대국회 로비활동 등을 통해 대국회 실무작업과 여론확대로 군감시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국회발의 과정을 전개한다.

○ 국방관련 사안은 매우 전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자체 내 팀원들의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올해 사업과정을 토대로 결합한 전문가 그

품을 본격적으로 조직해내어서 자문위원 위촉 과 함께 논의를 활성화시켜 전문성을 확보해가야 한다.

○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경험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국방과제팀의 중장기적 전망을 세우면서 여성평화운동의 전문성과 진부시켜서 군사주의문화 해소와 여성평화운동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대사업에서도 팀원들의 적극성을 발휘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적 전문성 향상으로 구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모태를 확산시켜 평화주의와 여성주의적 관점을 국방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내용

1) 회의

① 1차

가. 일시, 장소 : 2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12시, 평화여성회 회의실

나. 참석 : 김숙임, 안정애, 안수경, 김현희, 권운주

다. 사회 : 김숙임 (임시)

라. 내용 :

- 2003년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 국방과제팀이 올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에 관한 토론 후 평화여성회의 고유영역에 대한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이후 STUDY를 통해 사업영역을 전문화하기로 하다.

- 국방과제팀장으로 안정애 위원이 팀에서 추천되었고, 이후 변호사, 학계 등 위원을 보강하기로 하다.

- 2월 1회 회의를 정리확정하기로 하고, 국내외 자료를 취합, 정보를 수집하여 상반기는 내부STUDY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연대활동을 모색하기로 하다.

② 2차

가. 일시, 장소 : 3월 20일 오전10시30분, 회의실

나. 참석 : 안정애, 김숙임, 여해숙, 김현희, 권운주

다. 내용 : 국방정책에 대한 STUDY, 이후 이라크침공규탄 기자회견 참석

라. 발제 : 국방부 국방정책 개요 전반(안정애 발제)

마. 회의내용 :

가) 스터디 : 2001년 국방주요자료집, 2003년도 국방부 업무보고,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 등

나) 내용 : 주적개념의 논란, 한미동맹 개입,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 군법무관제도의 문제점, 병무행정제의 문제점,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 이후 국제심리지도 지침 등으로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이 일치.

다) 향후 스터디 커리큘럼 : 국방예산, 병무행정, 군원경문제, 의문사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소과 여성인권보조조항, 주한미군문제, 군축위협, 한미상호방위조약, 주적개념 등

라) 향후 운동 : 국방비 삭감 및 자료공개요구 활동,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등

③ 3차

가. 일시, 장소 : 4월 21일(월) 오전 10시30분, 사무실

나. 참석 : 안정애, 여해숙, 김숙임, 김현희, 권운주

다. 내용 : 발제(안정에 팀장)

㉔ 4차

가. 일시, 장소 : 5월 23일(금) 오전 10시30분 ~ 12시, 평화의집 지하 강당

나. 참석 : 안정애, 김숙임, 여해숙, 김현희, 전은주

다. 내용 :

가) study 현미형협, 상호방위조약 - 안정애팀장

방위비 삭감운동 관련 - 김숙임팀장

나) 기타 - 5.28 세계여성 평화군축의 날 공유

소와 소모임팀이 발전적 해소를 하면서 국방과제팀에 활용하기로 하다.

㉕ 5차

가. 일시, 장소 : 6월 20일(금) 오후 4시, 평화여성회 회의실

나. 참석 : 김숙임, 안정애, 여해숙, 김현희, 김수길, 전은주

다. 내용 :

가) 국방에 증액에 대한 평화여성회 입장에 대한 논의 (발제: 안정애 팀장)

국가인권위 발간자료- 군대폭력 관련 자료 공유

SOFA 관련 계급 발제 (김현희)

나) 의정활동에 관한 기초토론 : 국방정책 의원간담회 회의 보고 및 타단체 준비상황 공유

아직 단계별로 구체적인 상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후 계속 논의해가기로 하고, 차후 국방정책 관련한 모임 및 논의에 팀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다.

㉖ 6차

가. 일시, 장소 : 7월 18일 오후4시, 회의실

나. 참석 : 안정애, 김숙임, 전은주, 김현희, 김수길

다. 내용 :

가) study - 국가인권위 보고서 자료 검토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독일 국방감독관 제도 (아래나위 자료 참조)

나) 군 폭력 행위 근절과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서 및 이후 활동 논의

원주교인권위, 국가인권위 사례 조사, 논의하기로 함

다) 신문광판 조직하기로 하다 - 안정애 팀장

라. 방식 :

성명서를 보도자료로 제출(7월 30일 경으로 예정)

청원서 제출 준비 : 국회 국방의장 면담 요청하기로 하고, 재안단체는 평여, 여전, 성폭, 원주교인권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제안하기로 하다. (청와대 : 캠프수신으로 송부)

㉗ 7차

가. 일시, 장소 : 8월 21일(목) 오후 2시, 회의실

나. 주요논의

가) 전문가 포럼 및 내부위크업 준비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국방감독관 제도

나) 군대 인권 침해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제) 준비

다) 입법 청원 관련 사항 논의 : 정가국회 일정 (2003. 9. 1-12.31), 국정감사(9월 22일 경 예정)

라) 캠프자료 제출 : 원주교인권위 제출-국회본사특별법안 및 국방부 군기강화법대위장구안, 육군행동강령

2) 사업내용

① 한반도 정세대응을 위한 여성task force - 제 2차 전문가포럼

가. 일시, 장소 : 2003년 9월 25일(화) 오전 10시-오후1시, 프레스센터 39층 국회실

나. 참석 : 황학수 외 35명

다. 내용 :

- 사회 :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발제 1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 : 황학수 (민주고인권위원회 위원/ 변호사)
- 발제 2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안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방과제팀장 / 인화대 강사)
- 토론 1 : 군폭력실태와 대안 : 이행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토론 2 : 국방부 군폭력근절정책 대안 : 독고 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 3 :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군폭력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토론 4 : 국방감독관 제도 : 권세기 (국회 입법정보연구원)
- 권세기토론

라. 사업평가(안)

가) 성과 :

- 국방과제팀의 신설로 인하여 군사주의문화 및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적 시도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군대 내 폭력 문제는 늘 심각하게 나오고 있지만 절대적인 해결성을 가지고 있는 군을 상대로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사민사회대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과제팀의 군폭력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 노력은 사회적 영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다소 생소한 주제이긴 했지만 언론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업으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나) 과제 :

- 처음 시도하는 사업과 주제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접근이 필요하며 내부적인 토론과 준비가 충실히 마련되어야 한다.
- 내적 인력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 법률적 지식기반 확대와 정책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능력 배가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공익입법 로비 활동 워크숍

가. 일시, 장소 : 9월 17일(수) 오후1시-4시, 평화의 집 지하 강당

나. 참석 : 이길현숙, 김숙임, 심영희, 안정애, 김수갑, 지성희, 조정훈, 김현희, 전은주 등

다. 내용 :

- 진행 : 양세진
-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과정의 행정적 구조 이해
- 로비활동 내용 및 과정 검토
- 국회청원, 법안 발의 등 전반적 의사결정 및 입법제정 활동 검토 등

라. 사업평가(안)

가) 성과 :

- 그동안 입법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입법제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없었는데 워크숍을 통한 법률적 지식과 진행과정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평화운동 확산을 위해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공익입법 로비 활동을 통한 구체적 접근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과제 :

○ 단기적인 교육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을 병행한 워크숍을 지속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 인적 인프라 형성과 이론적 배경 등에 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 제도도입을 위한 노력은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전망수립의 필요성을 느껴져 되었다.

3) 연대활동

① 이대 아시아여성학 - 신시아 인로 공개초청포럼 참가

가. 일시, 장소 : 2003년 2월 24일 (월), 오후 5시 - 7시, 이화-포스트론 B152호

나. 제목 : "국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감수성 만들기: 여성, 남성성, 군사주의"

(Making Feminist Sense of 'National Security': Women, Masculinities and Militarism)

다. 취지 :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격, 북핵 위기 등 전쟁과 군사적 행동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국가안보, 군비경쟁, 군사주의의 문제를 조명하고자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주의의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적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라. 강사 : 신시아 인로 (Cynthia Enloe, 미국 클라 대학 여성학과 교수) - 미국 클라 대학 여성학과 교수로서 국제정치학에서의 여성, 군사주의와 성별정치학 문제를 다룬 *Bananas, Beaches and Bessie*, *Does Khaki Become You?* 등의 저자

라. 주최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한국여성연구원

다. 참석 : 김숙임, 김영리, 안정애, 김현희 외

② 국방정책 관련 현안 대응 논의

가. 일시 : 2003년 6월 24일(화) 오후 5시, 느티나무 카페

나. 참석 : 김숙임, 안정애, 진은주, 박순성, 이태호, 권상훈, 이정아, 정옥식

다. 내용 : 국방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추진

하반기 국방위 의정감시활동 관련 대응 논의(평화단체에 제안서 발송하기로 함)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국방비 줄여, MD 체제 구축, 주한미군재태치를 비롯한 한미관계 등 함께 대응을 논의하기로 함.

③ 국방비 증액 및 MD체제 편입 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가. 일시 : 2003년 7월 3일(목) 오전10시, 느티나무 카페

나. 참가단체 : 평화여성회, 어연, 환경연, 참여연대, 녹색연합,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통사

다. 내용 : 국방비 줄여와 MD 참여 의혹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 사회 :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국방비 증액의 문제점 :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한국 정부의 '온달한' MD 참여에 대한 의혹 (변인식 평통사 공동대표)

○ 진정한 안보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 (정현희 여성연합 공동대표)

○ 질의응답 :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④ MD 및 국방정책 관련 의원,시민단체 간담회

가.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8일(수) 오전 8시 30분, 국회 귀빈식당

나. 참석자 : 심재권(민주당), 서상섭(한나라당), 이무영(한나라당), 조재숙(민주당), 정현택(여성단체연합), 박순성(참여연대), 정숙식(평화네트워크), 안정애(평화여성회), 권상훈(참여연대), 신상엽(김근태 의원실), {무순}

다. 주요논의사항

○ MD 및 국방정책 관련 향후 대응방안

- 시민단체들이 다음 주 초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후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함.
- 정숙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전란적인 사업 방안을 기획하기로 함.
- 기자회견 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필요할 경우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게 편답신청추진
- 평화국민협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제안됨. 향후 평화국민협은 중재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의견임.
- 의원들과 확대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심재권 의원실에서 실무를 도와 주기로 함.
- 2~3주 내에 대통령 재가가 요청될 수 있기에 다음주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음.

⑤ 국방비 증액, 하반기 국방위 국감 관련 활동 논의 간담회

가. 일시 및 장소 : 2003년 7월 9일(수) 오후 12시, 참여연대

나. 참석 : 평화여성회(김숙임, 정은주), 참여연대(박순성, 이태호, 권상훈), 평통사(유영재), 평화연대(사무총장), 환경연(김낙중), 녹색연합)

다. 내용 : 국회 국방위 국감활동 대응을 위한 자UBY요청

국방위 의제개발 중

※ 국방과제팀 독자사업 : 군국력 근절과 군대내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활동 준비 중

⑥ 국방정책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가. 일시, 장소 : 2003년 7월 23일(수) 오후 5시, 참여연대 1회의실

나. 참석 : 박순성(참여연대), 유영재(평통사), 권은주(평화여성회), 안정애(평화여성회), 이태호(참여연대), 권상훈(참여연대), 정현택(여성연합) {무순}

다. 내용 :

○ 각 단체 활동현황 보고

<평통사>

- 장영달 국방위원장 면담했음. 8월 탈경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하기로 함. 국회 국방위, 국방부, 시민단체 공동주관 형태의 토론회를 구성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요청. 실무국감선에서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음. 7월 이전에 면담이 진행될 것임.
- 국방부는 정상적인 예산증액 방법으로는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음. 대통령이 특단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음.
- 기획예산처앞에서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기자실 활용) 등을 고안하고 있음.

<평화여성회>

-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군인검문채(구타사건, 성폭행 등)에 대한 사업 준비 중
- 국방부 장관 면담을 고려하고 있음.
- 국감시기 필요한 자료목록 요청(평화네트워크에 전달)

<참여연대>

- 국방비와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을 개발중임.
- 골프장 건설, 열악한 사병숙소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지휘관 집무실 문제, 장교의 정원초과 문제 등에 대한 아이템을 조사중임.

○ 이후 활동 논의사항

- 평통사 기획예산처 면담 결과를 공유하기로 함.
- 평통사 기획예산처 시위, 기자회견시 요청하는 내용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함.
- 국감서 필요한 자료를 각 단체별로 작성해서 7월 말까지 정육의 평화네트웍크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함.
- 단체별 구체적인 사업안을 짚어서 차기 회의를 모이기로 함.

① 국방부 사고예방 종합대책안에 대한 시민사회입장 기자회견

가. 일시, 장소 : 8월 28일(목) 오전 11시, 느티나무카페

나. 내용 :

- 어는할 : 군대내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모임 결성과 기자회견의 배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양숙 정책실장
- 발 인 : 군대내 구타 가혹행위 폭력 실태 - 천주교인권위원회 윤가협 윤옥순 여사
 - 군대내 성폭력 실태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 군대내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 - 민변 여성위원회 이윤정 변호사
 국방감독관 제도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경애 국방과제팀장
- 공동집결서 낭독 - 국방부의 조사결과 및 사고예방 종합대책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여성민주회 유경희 가족과 성상담소장
- 결의서 전달 위치 및 이후 대응 발표 - 군대내 인권 침해 문제 해결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 결의서 : 천주교인권위 안주리 사무국장

1-3. 통일과제팀(팀장 : 윤덕희)

- 팀원 : 강남식, 김귀옥, 노귀남, 박현선, 정경환, 한옥자, 우문숙, 송소희
- 사무국 : 전주시 사무국장

○ 사업목표

- ① 한반도의 통일정책이 평화적으로 전개되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의정감시활동을 전개한다.
- ② 통일정책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강화하고 여성참여를 요구한다.
- ③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④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의 확대와 여성의 역할을 강화한다.

○ 사업총평

가. 성과

○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의 확대와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해 남북여성교류 행사를 위해 남북협상을 주도하였고, 민화협 여성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족공동행사의 여성모임 주제로 '남북여성모임'을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 통일정책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강화하고, 남북화해협력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과제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통합사회 모색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내용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후 정기적 워크숍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 통일과제팀 신설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내용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통합사회 모색을 위해 정책적 내용을 담보하고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나. 과제

○ 통일과제팀이 처음 신설되어 주요한 활동이 요구되는 체계이나 중요성에 비해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존재했고, 목표에 따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통일과제팀은 내년도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설정으로 개인적 역량을 중심으로 전개한 사업을 회견회의 논의를 확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견회의 통일사업을 주도적으로 고안하는 정책단위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활성화해서 남북여성교류 및 화해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인신분과 어린이돕기 사업 등 남북화해와 협력사업이 전체 사업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것이 통일과제팀 사업계획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또한 계획했던 의정감시활동과 6.15 공동선언 실천활동은 구체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일과제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체사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팀의 역할에 맞는 사업설정이 필요하다.

○ 통일과제팀에 전문인력이 다소 구성되어있지만 구성원의 시간적 여유와 논제 제시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논의가 모아지거나 활동을 담보하는데 있어 여전히 응집력이 약하다. 그래서 이후 통일과제팀은 전문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논의와 집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용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통일정책 의제감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 및 정부, 기관에 평화통일 정책과제 제시를 더욱 적극화하여 통일정책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강화하고 여성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내용

1) 회의

① 1차 회의

가. 일시, 장소 : 2003년 4월 18일(금) 오후6시, 회의실

나. 안건 : 통일과제팀 사업방향 및 내용 토론

② 2차 회의

가. 일시, 장소 : 2003년 4월 25일(금) 정오 12시, 어머니의 물

나. 참석 : 윤덕희, 강남석, 김숙일, 정은주

다. 내용 : 2003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안) 공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통일과제를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제시 및 의제개발을 할 수 있는 task force의 역할 공유

라. 다음 회의 내용 : 남북(여성)교류 전반에 대한 흐름 및 평가(박현선 발제), 통합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모색(윤덕희 발제)

③ 3차 회의

가. 일시, 장소 : 2003년 7월 10일 오후7시, 회의실

나. 논의내용 :

-남북 통합사회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관련 브레인스토밍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실무회담 관련 내용 공유

(여성분야 '남북여성평화행진'(가칭) 관련 논의, 의견 수렴)

-이후 활동계획 논의 : 통일과제팀 워크샵 개최 - 7월 29일(화)오전10시

남북 통합사회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발제 : 여성개발원 장혜경 박사)

사회문화교류 전반 통합과정(발제 : 윤덕희 발제)

2) 사업내용

① 통일과제팀 워크샵

가. 일시, 장소 : 7월 29일(화) 오전 10시, 여성연구소

나. 참석 : 장혜경(여성개발원), 윤덕희, 김숙일, 송소희(자원봉사자), 우문숙(민중의소리 라디오방송, 경남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이영희(ywca), 사무국

다. 내용 :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 평화통일과 여성: 정책과제를 중심으로(장혜경 박사 발제)

- 사회문화교류사업의 전반적 이해(윤덕희 팀장 발제)

- 토론

라. 통일과제팀원 보장 : 송소희, 우문숙

3) 연대활동

① 평화형 여성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연속대회

○ 여성부문모임 결과

가. 일시 : 2003년 3월 2일(일) 오전10-12시

나. 장소 : 워커힌호텔 라일락룸

다. 사회 : 이길현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리영희 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라. 진행순서 :

(1) 소 개 : 참가자 소개 및 인사

(2) 환영사 : 이길현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3) 답 사 : 리영희 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

(4) 논 의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남북해외여성평화선언문 채택 논의
- 반전평화를 위한 부시에게 보내는 서한, 미국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논의
- 6.15·8.15를 기념한 남북여성활동 논의

마. 논의결과 :

(1)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한반도전쟁방지와 평화를 위한 남북 여성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문건 검토는 실무단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 여성선언문에 한반도 상황과 선언문의 취지를 담은 서문을 첨부하여 '부시대통령에게 서한 보내기'와 '미국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보내기로 하다.

(2) 6.15, 8.15 장을 기념하여 남북여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자유 토론한 후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실천의지를 모으고, 다양한 활동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하다. 남북의 여성대표들은 대중여성들이 동참하는 남북여성선언문 공동서명, 국제연대 활동, 남북여성대회 지속화 등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을 제안하였고, 다양한 통일운동을 펼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3) 남북여성대표들은 지난해 10월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과를 다시 확인하면서 남북여성들의 합력사상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반전평화운동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하다.

바. 남북 참가단

○ 북측

리영희 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순희 여 민족화해협의회 과장

한성희 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과장

박영희 여 민족화해협의회 부부장

○ 남측

이길현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윤금근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고기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부산지부 여성위원장

김정수 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문남영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박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손미희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기화	세계평화여성연합 평화통일분과위원장
신희운	대한YWCA연합회 시민사회개발부 위원장
며음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유혜림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사무총장
이거원	수원여성회 대표
이미혜	반미여성회 회장
이순임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정미	통일연대 여성위원
이경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연호사)
장경화	반미여성회
전은주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정경란	평화여성회 정책위원
최성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국장
최영선	세계평화여성연합 사무총장

사. 여성선언문 영문작업 : 조경훈 자원봉사자

②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가. 일시/장소 : 3월 5일 오후1시, 통일교육협의회 회의실

나. 참석 : 여성분과위원장(김희은 원장/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한국사회연구소(홍옥화 통일분과위원장), 통일민주협의회(김명섭 부회장), 통일여성안보중앙회(), 평화불탄드느여성회(전은주 사무국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김은희 간사),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고정명 회장), YWCA연합회(김미자 간사),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전숙희 원장)

다. 내용 :

- 신규 가입단체 소개 및 단체별 사업보고하다.
- 2003 분과위원장(김희은 -여연), 간사단체(평화여성회) 추천, 결정하다.
- 2003년도 여성분과위 사업을 논의 - 여성통일학교 - 여성분과위 워크숍(5/30-31), 지역단체 통일교육(하반기)

③ 민화협 여성위원회 워크숍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성들의 대화”

가. 일시, 장소 : 2002년 6월 26일(목) ~ 27일(금), 동서증권연수원

나. 참가 : 김숙임, 이김현숙, 안정애, 문명녀

다. 내용 :

- 개회식/ “2003 민화협 여성위 사업계획”보고
-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 할민희 이대 교수
- 평화의 노래 배우기 - 거래하나 합창단
- 북한 언어 배우기, 북한언어를 활용한 짧은 글짓기
- “2003 남북여성교류의 진상과 역할”
- 발제 : 이현숙 (전 민화협 여성위원장)
- 여성위원회 향후활동에 대한 조별토론
- 조별토론 결과 발표 / 폐회

④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실무회담

가. 일시, 장소 : 2003년 7월 4일(금)~6일(일), 금강산

나. 참가 : 민화협(여성위: 김숙임), 통일연대, 종단

다. 내용 :

- 8.15 대외관련 논의

- 여성단위, 이후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

⑤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성위 회의

가. 일시, 장소 : 2003년 7월 11일(금) 오후4시30분, 회의실

나. 참석 : 민화협(김숙임, 안정혜), 통일연대(이정미), 종단(전도교)

다. 내용 : 남북여성평화대행진 관련 논의, 참가자 인원배분 논의 등

⑥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회의

가. 일시, 장소 : 2003년 7월 21일(월) 오전11시, 민화협

나. 참석 :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

다. 내용 : 8.15 행사 준비 및 내용 공유 등

⑦ 2003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필임)

가. 일시, 장소 : 2003년 8월 14일~17일, 평양

나. 내용 :

* 8.15 민족대회 여성부문 참가자

<남측 참가자>

* 종단

정혜숙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

김현옥 카톨릭여성연구원 기획실장 (민병준수녀는 종단으로 대신)

(임필현은 종단모임으로 감)

* 민화협

김숙임 민화협 여성위원장

김영애 재원년진주당 사무총장

최영선 새지평화여성연합 사무총장

박열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유혜경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은경 YWCA연합회 부회장

윤덕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국제팀장

(참관: 오은영-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 홍성덕-여성국구협회 단장)

*통일연대

윤금순 통일연대 여성위원장, 권여농회장

이정미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희희 지구여성회 부회장

정은하 대구여성회 회원(전여대협)

김은진 민주노총당 부산시지부 여성위원장

(참관: 박정자-용산사당시민연대 대표)

<복측참가자>

황화숙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허경숙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원

서옥선 조선여성협회 상무위원

박영희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안정희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차인덕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차(상봉모임 시 20여명 참가)

㉠ 여성부문 상봉모임

가. 일시: 2009년 8월15일 오후12시~3시

나. 장소: 농라도 공원 잔디밭

다. 진행: 김숙임, 황화숙

라. 참석: 복측은 박순희조선여성민주동맹위원장 외 20여명, 남측은 김숙임민화협여성위원장, 이경숙여연대 표 외 20여명 해피는 중국교포5여명, 일본교포 김지영 외

따. 내용:

가) 전체 남북여성 참가자 인사와 식사 (12-12:40)

나) 토론 및 대화(12:40-2:00)

※ 발언 핵심 내용:

복측은 6.15선언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민족공조를 통해 외세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남측은 민족공조로 위기를 극복하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함

다) 친교 및 자유로운 대화(오후2:3시)

실무협상(오후2:3시)

㉡ 여성당문단에 관한 실무협상

가. 일시: 8월15일 오후 2-3시

나. 장소: 농라도 공원 잔디밭

다. 참석: 복 - 황화숙(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서옥선(조선여성협회 상무위원),

박영희(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

남 - 김숙임(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이명신교무(총단), 이정덕(통일연대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라. 내용: 남북여성간에 7월, 실무협상에서 거론되고 이후 퀘스트로 논의되었던 여성당문단에 관한 행사는 복측의 사스 기간으로 인해 밀린 행사들과 9.9월 행사(건국기념일)로 인해 9월 중순 경 행사실현여부를 통보하고 논의하기로 하였다.

㉢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여성위원회 참가자모임

1) 여성위원회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가. 장소: 1층 속소식당

나. 일시: 8월15일 오후3시

다. 내용: 여성부문 참가자소개, 여성부문상봉모임 안내와 실무협상이 있음을 알림.

2) 친교 모임

8월16일 오후 9시30-12시 남북여성참가자들이 친교모임을 간담회 가졌다.

1-4. 한반도평화국민회의의 활동

1. 한반도평화국민회의 대표(이현숙 상임대표) 및 간사(정경란 국제협력위원)활동

2. 방미단 조직 및 준비활동

- (1) 평화국민회 준비과정에서 방미계획 결정
- (2) 방미단 실무간사와 AFSC 동아시아 담당자 방미문제 논의
- (3) 방미대표단 구성
- (4) 입장문서 마련을 위한 워크숍과 공청회

• 방미단 1차 워크숍

때 : 5월 10일 10-1시

곳 : 참여연대 강당

주제 : 3자회담의 결과와 북한, 미국의 대응

발표 : 3자회담의 결과와 미국의 입장(박건영 카톨릭대 교수)
3자회담의 결과와 북한의 입장(김현철 고대 연구교수)

• 방미단 2차 워크숍

때 : 5월 22일 2시-5시

곳 : 참여연대 강당

주제 : 주한미군과 반미감정

발표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박건영 교수 (카톨릭대)
SOFA와 국면적 대응-최승환 교수 (경희대)
주한미군과 반미감정 보고서 초안

• 공청회

때 : 5월 26일 (월) 2시

곳 : 의원회관 귀빈식당

내용 : 평화국민회 소속 위원들과 보고서 검토, 조율
방미단 계획 발표

• 보고서 작성팀 구성

□ 북한의 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공통의 기준과 원칙,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함 (박건영 교수, 정육식 평화네트워크대표)

- 북한과 관련한 안보상황의 위험성

Dangers of the security situation regarding the DPRK

- 북한의 현재 상황과 북핵문제 평가에 대한 대응들

Responses to the current situation with regards to DPRK and nuclear issue-assessments

-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Proposals for re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 핵문제, 북한, 지역안보와 관계

Relationship of the nuclear issue, relations with DPRK, and regional security

□ 북한에서 인권

Human rights in DPRK : 박순성 동국대교수

□ 한국에서 미군기지와 미국 US bases/US troops in ROK : 박진형 교수

□ SOFA : 이경희 변호사

□ 한미감정 : 정경환 간사

□ 남북정책과 NGO의 입장 : 김연철 고대 연구교수

□ 노무현 정부의 정책성 : 정현백 대표

□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세력의 정책성 : 정현백 대표

□ 기타(한반도평화국민연합회 소개 자료 등) : 이태호 참여연대 소장

과 주제를 검토한 후, 박진형 교수의 총괄로 3 가지 주제를 가진 보고서로 작성하고 구갑우 교수가 요약본 작성에 참여했다.

• 방미대표단 보고서 조율

5월 25일, 5월30일 방미대표단 모임을 통해 보고서 조율

• 출발 기자회견

때 : 5월 30일 9시

곳 : 느티나무 카페

내용 : 방미단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 실시

3. 방미활동

(1) 방문목적

- 1) 핵문제 등 북미간담회 대한 대한민국 의회 및 시민사회의 우려와 정책대안 전달
- 2)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전달
- 3)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책지도자나 정책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로비활동을 전개
- 4)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모색

(2) 방미대표단

이길현숙(방미대표단 단장, 평화국민협 공동대표)

정경환(실무간사, 평화여성회 국제협력위원)

이우재(한나라당 의원, 평화국민협 운영위원)

심계권(민주당 의원, 평화국민협 운영위원)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평화국민협 운영위원)

박진영(가톨릭대교수, 평화국민협 위원)

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 평화국민협 위원)

(3) 미국 초청단체 :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국친우봉사회는 웨이커가 운영하는 평화단체로서 1917년 창립되었고 1947년 웨이커모임인 친구종교사회(Religious Society of Friends)를 대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음.

(4) 방문 일정

방문기간 : 2003년 5월 31일 ~ 6월 11일

방문지역 : 워싱턴 등 10 개 지역

- 공동일정(이우재, 심재권, 이길현숙, 박건영, 정현택, 정경란)
워싱턴 → 필라델피아 → 뉴욕
- A팀(이길현숙, 구갑수) : 시카고 → 시애틀 → 아이오와시티 → 드로인
- B팀 : 보스턴(심재권, 이우재, 정현택, 박건영, 정경란) → 뉴햄프셔(심재권, 이우재, 정현택, 박건영, 정경란) → 샌프란시스코(정현택, 정경란)

(5) 방문 활동 내용

1) 미국 의원에게 로비활동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소속 찰스 팡글(민주당), 마이클 카루아노(민주당), 진보로커스 (Progressive Caucus) 겸 파(민주당), 방북을 주도하고 북미관계 재선을 추구하는 커트 웰튼(공화당) 하원의원을 방문하고, 의원 비서관 케이스 루스(리처드 부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비서), 사프나 치하르다(테니스 루지니히 하원외원 비서), 로렌 스미스 주니어(비로 파월라 하원외원 비서)를 만나 방미단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모색했다.

2)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종교지도자 및 평화운동가와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형성

마크 아나손 등 입법조사국 연구원, 레온 시걸 등 한반도 전문가, 교회세계선교국 및 연합감리교의 종교지도자와 AFSC, WILPF,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등에서 활동하는 평화운동가를 만나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했다. 특히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의 전국대회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를 향후 미국 평화운동의 주요 이슈로 삼는 데 기여했다.

3) 미국 예비선거지역에서 한반도 주제 이슈화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지역인 뉴햄프셔와 드로인을 방문해 예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역 여론형성층을 만나 한반도 핵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4) 미디어 활동

미국사회에서 미디어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비롯해 보스턴 글로브 및 지역 언론(라디오, TV)에 이르기까지 약 10회의 인터뷰를 하여 미국 국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방

미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5) 재미동포와 연대 형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재미동포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 평화단체, 종교지도자의 집회 등 어느 모임이나 재미동포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평화국민협과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했다. 현재 재미동포 단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분열적인 측면이 강하다. 평화국민협의 방미단은 시민사회 대표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심의 기존 대표단과 달리 동포사회의 관심을 더욱 많이 끌었고, 향후 연대에 대한 그들의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성과 및 과제

□ 성과

1) 북핵문제나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결주체가 될 수 있는 미국 연방의회 의원 및 전문가(think-tank) 그룹과 만날 수 있었고,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알리고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북핵문제(북미갈등)해결 촉구 의사를 전달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2) 미국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미국 시민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3)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미국평화운동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상호 협력 채널을 열 수 있었다.

4) 의원들과 학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방미 대표단이 처음 민간대표의 진출을 열었을 뿐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 로비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과제

1) 국제사회 여론 형성 활동

평화국민협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한반도평화 관련 정보와 정책대안을 International Peace Bureau,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등 국제평화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정보제공, 미국이나 국제 유력지에 기고 등이 있다.

2) 정책, 정보팀 구성

국민적 합의 구축 및 대외 여론형성 활동을 위해 중요한 사업은 정보의 수집, 정리 배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정보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관련 정보와 정책대안을 국내외에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미국 의원과 네트워크 형성

Korea 코커스 (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진보 코커스(Progressive Caucus), 커트셀튼 의원 등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는 의회 코커스 및 의원들과 한국 국회의원이 비트워드를 형성해야 한다. 지속적인 정보 교류, 상호 방문, 공동행사 등을 조직하여 의원 회고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평화국면협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4) 미국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평화단체와 교류

미국 방문은 다양한 미국 시민단체, 종교단체, 평화단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이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평화단체의 네트워크인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United for Peace and Justice)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5) 재미동포단체와 연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많은 재미동포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동포단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연대의 원칙과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내단체□동포단체의 한반도 평화 캠페인 지원, 상호 정보 공유, 국내□국제 캠페인 공동조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의회 모비와 관련되어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1-5. 한반도센터 활동일지

2/20(목) 오후 1시30분	여인 사무국장 연석회의, 청산교육장(전은주)
2/21(금) 오전10시	반전평화여성행동 회의, 여성교회(김숙임, 전은주)
2/25(화) 오후 7시	정서대응팀 회의, 인사동장터극장(이김현숙, 홍승희, 김정수, 오영인, 전은주)
2/26(수) 오전10시30분	국방과제팀 회의, 회의실(김숙임, 안정애, 인수경, 김현희, 전은주)
2/27(목) 오전11시30분	반전평화여성행동 집회, 새문화회관(김귀옥, 김숙임, 김정수, 김현진, 김현희, 류춘도, 문명나, 윤명선, 전은주, 정경란, 정현희, 지성혜)
2/27(목) 오후12시30분	반전평화여성행동 회의, 새문화회관(전은주)
3/1(토)-3/3(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만족대회, 처지힐호텔(이김현숙, 김귀옥, 김정수, 정경란, 전은주)
3/5(수) 오후 1시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통일교육협의회 회의실(전은주)
3/5(수) 오후 5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실행위, 민중연대(전은주)
3/6(목) 오후 1시	한반도 보고서 관련 저어새 워크샵, 참여연대(이김현숙)
3/6(목) 오후 3시	새천년기념관 장소 답사(이김현숙, 전은주)
3/6(목) 오후 5시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여성연구소(김정수, 김숙임, 김엘리, 전은주)
3/7(금) 오후 2시	3.15 반전시위 준비단 회의, 참여연대(전은주)
3/11(화) 오후 3시	시민의신분 좌담회 - 반전에 관하여(정경란 참가)
3/11(화) 오후 7시	민가협 주최 : 양심수석당과 수배해제를 위한 작은 문화제 "타정순에게 희망을", 천도교수운회관(전은주)
3/12(수) 오후17시	여성중생대위 간부 집단소환장 발부 글단기자회견, 경찰청(전은주)
3/13(화) 오후 7시	민가협 주최 : 양심수석당과 수배해제를 위한 작은 문화제 "타정순에게 희망을", 천도교수운회관(전은주)
3/12(수) 오후 1시	여성생명대위 대표단 소환장 발부 글단기자회견, 경찰청 앞(전은주)
3/12(수) 오후 3시	운영위원회, 지하강당(이김현숙, 김숙임, 김귀옥, 문명나, 박수선, 신춘순, 전은주, 김현희, 지성혜)
3/15(토) 오후 5시	이라크 침공반대, 한반도전쟁리탈 반대 3.15 반전평화대행진, 종로공원(김숙임, 전은주(이삭), 문명금, 이나호, 김엘리, 문명나, 안병선, 전은주, 김현희)
3/17(일) 정오12시	한국군 이라크 파병반대 1인시위, 청와대 앞 (이김현숙)
3/17(일) 오후 3시	북핵관련 T/F (저어새팀) 회의, 참여연대 (이김현숙, 정경란)
3/17(일) 오후 7시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토론회 : 남북위기와 시민사회의 대응- 발표: 김정우(중앙일보 국제팀장), 삼성경제연구소 대외외실(한일그룹 빌딩 8층-신용산역 2번 출구)
3/18(화) 오전10시	파병반대 기자회견, 청와대 앞(이김현숙, 전은주)
3/18(화) 오전11시	공동실천 긴급 실행위 회의(전은주)
3/20(목) 오전10시30분	국방과제팀 회의, 회의실(안정애, 김숙임, 여해숙, 김현희, 전은주)
3/22(토) 오후2시	퍼나한 스님 광한기념 평화법원대회 "생명의 소리, 평화의 울림", 시청 앞 광장
3/22(토) 오후4시	이라크침공규탄, 한국군 파병반대 촛불대행진, 종로공원-광화문(김숙임, 전은주 이삭, 이나호, 김엘리, 안병선, 김정수, 이병영희, 이삭, 김귀옥, 전은주, 지

- 3/23(일) 오후4시
한국군 파병반대 농성 돌입 기자회견, 농성, 국회 앞(이길현숙, 전은주)
- 3/24(월) 오전11시
파병반대 기자회견, 국회 앞(김숙임, 전은주)
- 3/24(월) 오전10시
한국군 파병반대 여성국회의원, 여성단체 기자회견(이길현숙, 김숙임, 전은주)
- 3/25(화) 오전 8시
북핵관련 의원간담회, 국회 귀빈식당(이길현숙, 전은주)
- 3/26(수) 정오12시
전쟁반대 미디어관 1인릴레이시위, 미디어관(김숙임, 김태경, 전은주)
- 3/26(수) 오후 2시
반전평화 활동운영위원회 회의, 민중연대(전은주)
- 3/26(수) 오후 6시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회의, 한소리씨(김영리, 전은주)
- 3/27(목) 오후1시30분
파병반대 국회 앞 여성 건넌목시위, 국회 앞(김숙임, 문명녀, 이낙호, 문영균, 김정수, 정경란, 지성혜, 전은주, 김수길 외)
- 3/27(목) 오후 2시
파병반대 기자회견, 국회 앞(김숙임, 문명녀, 이낙호, 문영균, 김정수, 정경란, 지성혜, 전은주, 김수길 외)
- 3/29(토) 오후 7시
반전평화 촛불시위, 광화문 교보문고 앞(전은주, 김현희, 지성혜, 문명녀 외)
- 3/31(월) 오후 2시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 소집 제1차 기자회견, 명동성당 앞(이길현숙, 김숙임, 전은주)
- 4/ 2(수) 오전 9시
한국군 파병반대 집회, 국회 앞(김숙임, 이낙호, 전은주)
- 4/ 2(수) 오후 4시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 준비회의, 한경전(전은주)
- 4/ 3(목) 오전10시30분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이길현숙, 김숙임, 전은주, 김현희)
- 4/ 3(목) 정오12시
이라크침공중단과 이라크여성,어린이들이 평화평상 및 모금캠페인, 병동성당 풀머리(이길현숙, 김숙임, 전은주, 김현희, 지성혜, 문명녀, 김수길)
- 4/ 3(목) 오후 2시
(가칭)한반도 평화연대회의, 풀머리대(이길현숙, 정경란, 전은주)
- 4/ 9(수) 오후 6시
공동실천,여성생법대위 활동운영위, 민주노총(전은주)
- 4/12(토) 오후 3시30분
국제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시청 앞(김숙임, 김숙임 지인, 이낙호, 류순도, 김정수, 정경란, 장민애, 김현희, 김현희 지인, 전은주, 김수길, 지성혜, 영남중학교 학생 8명 외)
- 4/15(화) 오후 5시
국제평화봉사단 이갑수 이사장특보 면담, 세종홀커피숍(전은주)
- 4/15(화) 오후 6시
공동실천,여성생법대위 활동운영위, 민주노총(전은주)
- 4/16(수) 오전 7시30분
북핵관련 6인위원회 회의, 국회 귀빈식당(이길현숙)
- 4/18(금) 오전10시
여성생법대위 공동집행위원회, 범대위 상황실(전은주)
- 4/20(일) 오후3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평화의 행진> 사랑해요 이라크 친구들 캠페인 참가, 남산(김숙임, 이대수, 김현희, 지성혜, 김경진, 김정희)
- 4/21(월) 오전10시30분
국방과제팀 회의, 회의실(안정애, 김숙임, 여해숙, 김현희, 전은주)
- 4/21(월) 오후 5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시민단체 회의, 풀머리대(정경란, 전은주)
- 4/23(수) 정오12시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통일교육협의회 회의실
- 4/23(수) 정오12시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통일교육협의회 회의실
- 4/24(목) 오전10시
여성생법대위 대표회의, 향원교회(김숙임)
- 4/25(금) 정오12시
통일과제팀 회의, 어머니지킴이(윤덕희, 강남식, 김숙임, 전은주)
- 4/25(금) 오후 5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시민단체 회의, 풀머리대(정경란)
- 4/28(월) 오후 2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시민단체 회의, 풀머리대(이길현숙, 정경란)
- 5/ 7(일) 오후11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운영회(이길현숙, 전은주)

5/ 7(월) 오후11시	한반도평화국민협 발족 기자회견, 국회개원식당(이길현숙, 김숙임, 이정자, 전은주)
5/ 9(수) 오전10시	노무현대통령방머리춤한 시민사회 300인 집회, ywca(김숙임)
5/24(토) 오후 4시	5.24평화군속을 위한 세계여성들의 날 캠페인, 대학교 마르니에 공원(김숙임, 김현희, 지성혜, 김수길, 전은주, 장정숙, 김정화, 김병철 외)
5/28(수) 오후 2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로보신문 기자(이은희) 본 회 내방
5/30(금) 오전 9시	한반도평화국민협 방미단 출국 기자회견, 노티나무카페(이길현숙, 김숙임, 전은주, 김현희, 최진경)
5/30(금) 오전11시	고 이우정 선생님 1주기 추모예배, 경동교회(이길현숙, 김숙임, 문명녀, 김현진, 지성혜, 김수길, 고은광순, 최안진경 등)
5/30(금)~31일(토)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워크샵, 경기도 아식 수동기도원(전은주)
6/5(목) 오전10시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관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정자, 전은주)
6/6(금) 오후4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을 창립대회, 동국대(축사글-김숙임, 전은주 총석)
6/9(월) 오후5시	실무자회의(전체 사업, 부서별 사업공유 및 논의, 행정업무 논의)
6/12(목) 오후7시	국방정책 대응 간담회, 참여연대(김숙임, 전은주, 김현희)
6/13(금) 오후5시	고 신효선, 심미선 1주기 613 추모대회, 시청(이길현숙, 김숙임, 김현희, 지성혜, 전은주, 김수길, 김정화, 정경란, 문명녀 외)
6/15(일) 오전10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주최, 6.15 3주년 기념식, 백산기념관(김숙임, 전은주)
6/15(일) 오후 1시	민화협 주최, 6.15 기념 국제평화대회, 도라산역(김숙임, 안병선, 유춘도)
6/16(월) 오전9:46시	민화협 주최, 국제평화대회, 성문관대500주년기념관(김숙임, 실향희, 안병선, 안광재)
6/16(월) 오전10시	북한식당난 해결과 남북농업회생을 위한 기자회견, 노티나무카페
6/18(수) 오전8시	국방정책관련 피원간담회, 국회 귀빈식당(안정애)
6/18(수) 오전9시30분	한반도평화국민협 방미단 보고회, 국회 의원식당(이길현숙, 이정자, 안정애, 정경란, 전은주)
6/20(금) 정오12시	평화와성회 후원회 회의, 국가인권위 소회의실(이길현숙, 이정자, 박정서, 이재경, 손덕수, 유동준, 전은주)
6/20(금) 오후4시	국방과제팀 회의, 회의실(안정애, 김숙임, 여희숙, 김현희, 김수길, 전은주)
6/23(월) 오후5시	실무자회의(전체 사업, 부서별 사업공유 및 논의, 행정업무 논의)
6/24(화) 오후5시	국방정책 행안 대응 시민사회단체 논의, 참여연대(김숙임, 안정애, 전은주)
6/26(목)~27(금)	민화협 여성위원회 주최 워크샵, 통일연구원수원(김숙임, 안정애, 이길현숙, 문명녀)
6/26(목) 오후2시	여성의전화연합 20주년 기념행사(이길현숙)
6/28(토) 오후5시	시민의신문 평화콘서트(지성혜)
6/30(월) 오후12시30분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실무회담 판원 여성회 모임(김숙임, 전은주, 남인순, 이정미 외)
7/2(수) 오후2시	대인지피대책위 공청회, 국회의원 소회의실 (보론자: 김숙임)
7/3(목) 오후3시	2003-1차 전문가포럼, 홀리데이인서울호텔
7/3(목) 오전10시	국방비 줄여 줄까 및 MD참여가입 반대 기자회견, 노티나무카페(김숙임, 전은주)
7/4(금) 오전10시	정전50년 한반도평화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노티나무카페(이길현숙,

	전운주)
7/4(금)6(일)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실무회의, 금강산(김숙임)
7/4(일) 오후 시	통일교육원지회 회장단회의, (이김현숙)
7/4(일) 오후4시	KTV 인터뷰 - 평화여성회 소개, KTV방송사(전운주)
7/5(토)	저온회장관계의 간담회, 평원(이김현숙)
7/6(일)	CBS 시사저기 정경50주년 관련 인터뷰(이김현숙)
7/7(월)	통일교육원지회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 통일교육원(이김현숙)
7/7(월)	참여연대 사회참여연구소 좌담회, 참여연대 강당(이김현숙)
7/7(월) 오후6시	한반도평화국민회 발기단 평가모임 및 해단식, 인사동(이김현숙, 정경만)
7/8(화)	미국심즈스대학교 심은희 교수와의 간담회, 스미로카페(이김현숙)
7/8(화) 오후 2시	이우정 평화상 추진위 회의, 제2진국회(이김현숙)
7/8(화) 오후6시30분	우리연극서포터즈총 7주년기념식, 백범기념관(전운주, 지성혜, 김수길)
7/9(수) 오후12시	국방정책 관련 대응 회의, 느티나무카페(김숙임, 전운주)
7/9(수) 오후5시30분	남북여성평화행진 관련 논의, 새문화회관(김숙임, 이김현숙)
7/9(수) 오후12시	국방정책 관련 대응 회의, 느티나무카페(김숙임, 전운주)
7/10(목) 오후3시	운영위원회, 여성연구소(김숙임, 안정혜, 문명녀, 김경수, 박수선, 신은순, 사무국)
7/10(목) 오후4시	정전50년 관련 여성행동 논의 모임, 자운로도빌(이김현숙, 윤정숙, 정경자, 박진참아)
7/10(목) 오후7시	통일과제팀 회의, 회의실(윤덕희, 노귀남, 김숙임, 전운주)
7/11(금)11(토)	여연 주최 여성운동가대회, 미라내리조트(김현희, 김수길)
7/11(금) 오후4시30분	민족공동행사 여성위, 회의실(김숙임, 통일연대, 종단)
7/11(금)	KCRP(한국총요인평화회의) 참미활동관계회의, 성광회 대주교실(이김현숙)
7/11(금)	남북장관급회담 환송민찬, 신라호텔(이김현숙)
7/15(화) 오전11시	<정전을 평화로> 여성평화연대 회의, 평화여성회(평여, 여연, 민주회, 여연)
7/15(화)	대일신문 정전50년 관련 인터뷰(이김현숙)
7/16(수)	한반도평화국민회의 공동대표 회의, 여의도관광호텔(이김현숙)
7/18(금) 오후4시	국방과제팀 회의, 회의실(안정혜, 김숙임, 김현희, 전운주, 김수길)
7/18(금)	중앙일보 인터뷰(3페이지 3장이면대인 관련), 인권광학(이김현숙)
7/18(금)	CBS시사저기 인터뷰(정전50년 관련), 인권광학(이김현숙)
7/21(월)	통일부 정책자문회의, 통일부회의실(이김현숙)
7/21(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회의, 민화원(김숙임)
7/22(화)	미국 NGO radio 인터뷰, 프레스센터(이김현숙)
7/22(화) 오전8시	727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 회의, 참여연대
7/22(화) 오전10시	727한반도평화대회 원로 회의, 참여연대 '평화연연 채택'관련 논의
7/23(수)	R-TV 편집(이김현숙)
7/23(수) 오후5시	국방정책 및 국방대응 회의, 참여연대
7/23(수)	KCRC 총회, 성광회대강당(이김현숙)
7/24(목) 오전10시30분	청와대 고문단 회의(남북회담사무국) 및 대통령 허측장 권수석 및 오찬간담회, 청와대(이김현숙)
7/24(목) 오전8시	한반도평화국민회의 운영위원회, 국회국민의당(이김현숙)
7/24(목) 오전11시	<정전을 평화로>여성평화연대 주최, 여성평화포럼이드, 명동성당 돌머리 (김

	숙업, 김수길, 전은주, 김현희, 송소희, 최안진경)
7/25(금) 오전9시	학단협, 문화일보 주최 국제학술심포지움, 프레스센터 (도문, 이길현숙, 김귀옥, 참가: 김숙임, 안명선, 김엘리, 김정수, 김수길, 전은주, 김현희 외)
7/25(금) 오후1시	727조직위 주최, 국제단간법정수정위 주관-한반도핵문제해 대한 국제단간법정, 박병기법관 전현선 출
7/26(토) 오후9시	727한반도평화대회조직위 주최, 평화포럼, 연세대 (도문, 정경란, 김현희, 최안진경 외)
7/27(일) 오후2시	727 한반도평화대회 조직위 주최, 한반도평화대회 참가, 임진각(이길현숙, 최안진경, 김귀옥, 안명선, 조영희, 김현희, 지성배, 김수길, 전은주)
7/29(화) 오전10시	통일경제팀 워크샵-남북통합사회과정의 여성의 역할, 여성연구소
7/30(수)	군복역, 군인권 임명 청원서 제출 예정
8/1(금) 오후4시	공동실현 실행위 회의, 민주노총(김현희)
8/11(월) 오후4시	한반도평화국헌의회와 미국평화운동가- 주디스 브 블랑씨와의 간담회, 국회 의원회관 휴게실(이길현숙, 정경란)
8/11(월) 오전10시	연극공동행사 추진본부 회의, 민화협(김숙임)
8/12(화) 오후 2시	군대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모임 회의, 천주교인권위 (전은주)
8/12(화) 오후 4시	9.27 국제단간행동 행사 준비 회의, 참여연대(전은주)
8/14(목)-17(일)	연극공동행사추진본부 주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연극대회, 경양(김숙임, 윤덕희)
8/15(금) 오후7시	민화협 주최, 광복56주년기념 평화문서도, 한강(김현희, 김수길, 정경란 외)
8/21(목) 오후 2시	국방과제팀 회의, 사무실(안경애, 김숙임, 어혜숙, 김현희, 김수길, 전은주)
8/22(금)-25(일)	인권재단 주최-제주도 평화회의, 제주도(이길현숙, 김숙임, 실영희, 김정수, 김엘리, 박수연, 안정애)
8/26(화) 오전10시	6자회담에 즈음한 우리의 제안,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이길현숙)
8/28(목) 오전11시	국방부 군기강화입대채장구안 관련 기자회견, 참여연대 느티나무카페
8/28(목) 오후3시	운영위, 여성교회
8/29(금) 오후6시30분	활동가 평화교육 참가자모임(김현희, 전은주)
9/1(일) 오전11시	민화협 여성회 회의, 민화협 회의실(김숙임)
9/19(금)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비상시국회의 제안단체 집행책임자 회의
9/20(토)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결성
9/23(화)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비상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9/26(금)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기획단 회의
9/27(토)	9.27 국제 반전공동행동의 날
9/30(화)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2차 기획단 회의
10/1(수)	파병 반대 국민행동 2차 운영위원회
10/6(일)	파병 반대 여성행동 회의
10/6(월)	파병 반대 국민행동 대표단 국방위원장 연담
10/8(수)	파병 반대 민주노총 시국모임회
10/9(목)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 기자회견, 느티나무카페
10/9(목)	파병 반대 국민행동 3차 운영위원회

·10/16(목)	과병반대 국민행동 4차 운영위원회, 청와대 기자회견
·10/17(금)	이라크결의안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10/20(월)	과병반대 국민행동 5차 기획단 회의
·10/23(목)	과병반대 국민행동 5차 운영위원회
·10/24(금)	이라크과병반대 비상국민행동 2차 비상시국회의
·10/25(금)	이라크과병반대 2차 발국민행동의 날
·10/28(화)	이라크과병반대 청와대 1인시위(김숙임 공동대표)
·11/1(토)	과병반대 국민행동의 날
·11/3(월)	공동운영위원장/기획단 연석회의
·11/4(화)	7차운영위원회
·11/6(목)	과병반대 농성
·11/8(토)	과병반대국민행동 농성
·11/11(화)	과병반대 여성평화행동의 날
·11/11(화)	8차 운영위원회
·11/13(목)	이라크과병 부추기는 국방부 규탄기자회견, 공동운영위원장단/기획단연석회의
·11/15(토)	3차 범국민대회 - 이라크 과병철폐 국민 총결기대회
·11/19(수)	9차 운영위원회
·11/28(수)	과병반대 국민행동 운영위원장 회의, 4차 비상시국회의
·12/1(월)	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12/2(화)	기획단 회의
·12/4(목)	11차 운영위원회
·12/9(화)	이라크과병반대를 위한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국회의원 일대일 면담, 연두연 설득의 날
·12/12(금)	이라크추진과병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 다짐
·12/14(일)	대통령제당 대표 과병합의 반대 기자회견
·12/14(일)	공동대표단 간담회(최선희)
·12/17(수)	과병반대 국민행동 13차 운영위원회
·12/18(목)	국회의원 연두연 참찬의견 묻기(최선희, 김현희)
·12/20(토)	과병반대 과병철폐 평화문 인간미 짓기 대회
·12/23(화)	과병반대 기자회견(자상해, 송소희, 김도형)
·12/24(수)	반전평화연행행사 간담회(최선희)
·12/29(월)	반전평화연행행사 이라크과병반대 송년 행커인(김숙임외 7명)
·12/31(수)	반전평화송년집회 '2003반전평화송년결의대회'(최선희외 5명)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일 / 상 / 의 / 평 / 화 / 센 / 터

2003년 활동보고 및 평가

○ 소 장 : 김숙임 공동대표

○ 담당실무자 : 지성혜 교육간사

○ 총평

일상의 평화센터는 올해 시민사회에 평화주의 가치를 심어 나가고, 여성평화지도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화교육, 평화문화제인 및 평화시위문화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전쟁과 폭력, 군사주의 문화가 일상적인 삶 속까지 들어와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철학을 개발, 확산시키고 대중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시었다. 주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지적 평화감수성 교육의 지속적 확산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과 2차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를 실시하였다.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은 평화명상, 지비명상에서부터 한국사회 평화주의적 가치 형성에 이르기 까지 작년부터 더 다량하고 폭넓은 평화운동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평화심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차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프로그램은 미래의 평화리더들을 길라잡이 위하여 여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일상에서의 갈등을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실천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면서 여성평화리더로서의 비전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앞으로 11월에는 “남북화해형력을 위한 여성평화지도력 개발”이라는 주제로 9기 여성평화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남북 간의 평화무드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여성평화지도력을 더욱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중친화적인 평화운동 개발

평화교육문화팀에서는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지원 개발의 일환으로 “3단계 3달에 평화문화제인”을 전개하였다. 우리사회 평화문화를 위해 대중들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점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평화의 동력을 평화운동으로 환원시켜나가고자 기획하고 열심히 홍보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평화심성팀에서는 반전평화를 위한 여러 집회 등에서 평화대모인스를 공연함으로써 평화로운 시위문

화 형성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이나 정기모임 등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부드러운 여성적 시위문화의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다가면서 만들어낸 퍼포먼스다 대중의 호응이 매우 컸다.

1. 전체 사업 방향

일상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개발한다. 반 평화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현실 이해를 돕고, 폭력과 군사주의 문화에 의해 사람들의 내면에 형성된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평화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캠페인을 실시한다.

2. 조직

- 1) 평화교육문화팀(이연명희(팀장), 김숙임, 김열리, 김혜진, 서정혜)
- 2) 평화심성팀:문명녀(팀장), 김숙임, 김혜진, 김현진, 김현숙, 장정화, 이낙호, 박여경, 이은영)
- 3) 팀별 사업 진행

<평화교육문화팀>

○사업 목표

- (1)계층과 연령에 맞는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평화의식을 확산시키고 여성평화지도자를 개발한다.
- (2)평화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실시한다.
- (3)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지침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 (4)대중이 평화를 일상에서 친근하게 느끼고 교육할 수 있는 평화가향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사업 내용

(1) 회의

1) 사업 기획 회의(3차-7차)

지난해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2003년 평화교육문화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과 기초 등을 정하고 “평화문화 캠페인”, “청소녀평화캠프”, “여성평화아카데미” 등의 준비, 홍보, 진행 등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점검, 보완을 하였다.

(2) 사업

1) 평화문화캠페인

<사업취지>

지금 세지는 전쟁 위험과, 폭력 문화의 만연으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갈망하게 한다. 평화로운 사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화 문화 만들기라는 바로 나 자신의 성장과 실천으로 시작될 수 있다.

<사업목표>

-시련들로 하여금 평화롭지 않은 많은 것들을 지향해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시련들이 “3박제”문화를 통해 타인과의 공존을 위한 대의를 일상화하고 이를 “3박제” 운동으로 연결시켜 - 사회로 환원해 나가게 한다.

<사업내용>

① 평화문화캠페인 거리 캠페인 (전단 및 핸드폰 줄 배포/퀴지설명, 동참촉구)

② 자체 혹은 연대 행사에서 홍보

③ 언론홍보

④ 시민운동 (아이디어부문, 태너제작부문, 수거부문)

2) 청소년평화리더쉽훈련캠프

<사업목적>

종교교육에서 제외로 실시되지 못하는 평화교육을 점차 확산하는 일의 하나로써 캠프 형태의 청소년평화교육을 실시한다. 미래의 평화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교양과정으로써, 임시위주의 경쟁적, 배타적 학교 생활을 이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롭고 건강하게 배워나갈도록 도움을 주고 미래 평화 한국의 주춧돌이 되도록 도와준다.

<사업목적>

-평화의 개념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원구, 선생님, 부모님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여성평화 리더들의 국제연대활동상을 통해 평화리더가 되는 꿈을 심어준다.

<사업내용>

① 언론홍보

② 강의구성 개발

③ 본행사

가. 일시 : 2003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7월 22일(수) 오후 5시

나. 장소 : 봉도청소년수련원

다. 참석 : 정지원 부인중학교 3학년 외 21명

라. 프로그램 :

	7월/22일(화)
9:30~10:30	등록
10:30~12:30	[함께 배우는 평화] 평화! 또 다른 희망! (진행:박수선)
12:30~2:00	점심식사 및 휴식
2:00~4:00	[여성 리더쉽 익히기] '여성평화 활동가와 함께하는 세계속의 여성' (진행:정경란)
4:00~6:00	[감동해결훈련] '협상게임' (진행:최정현진)
6:00~7:00	저녁식사
7:00~10:00	[평화김수성배우기] '몸으로 만나는 평화' (진행:서본)
10:00~12:00	[여성 리더 연대망 키우기] '모듬별 인터뷰 프로그램' (최정현진)
11:00~	취침

	7월/23일(수)
7:00~8:00	[자연과의 만남] '산록, 출렁강' (진행:이권명희)
8:00~9:00	아침식사
9:00~12:00	[의사소통훈련] '희극작 듣기, 나 전달법, 바꾸어 말하기'(진행:박수선)
12:00~1:30	점심식사 및 휴식
1:30~3:30	[평화의 힘 확대하기] '성장나무 키우기' (진행:이권명희)
3:30~4:30	[소년들의 협주곡 협탁기] 오색실로 뛰어보는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평화지킴이'(이권명희)
4:30~5:00	평가

④ 평가회의

가. 캠프 전체평가

- ☐ 평화리더로서의 큰 미션을 보게 하자는 면에서 목표는 달성했다.
- ☐ 집중성이나 깊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 아이들이 평화에 대해 무언가 얻은 것은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 ☐ 전반적으로 준비도에 비해 매우 잘 했다.

□모든 교사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 여러 교육적 현상이 모둠별로 일어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육하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타이프하고, 참가 교사만으로 주제를 녹여낼 수 없어서(특히 여성의 문제) 아이들이 버거웠을 것 같다.

□2박 3일은 되어야 할 것 같다.

□장소이용 면이나 내용구성이 꼭 겨울 수련회 같았다. 야외 프로그램이 없었다.

나. 프로그램 평가

평화개념 익히기/의사소통훈련(진행:박수진)아이들 모두 기대 이상으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주었다. 진행자의 태도가 평화교육에 적합했다. 액티비티 위주의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의 상태를 잘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스텝과 강사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세계 평화 활동과 여성성화 리더와의 만남(진행:정경원)국제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에게는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었다. 앞으로 어려운 국제연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특히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준비과정에서 강사의 경험 정도가 그가 맡은 프로그램이 전체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협상제임을 통한 평화익히기/여성리더연대방 카우치/소녀들의 힘주고 힘받기(진행:최정원)‘협상제임’은 여러 가지 모둠활동을 위한 소도구 등의 준비가 잘되었다. 그러나 ‘소녀들의 힘주고 힘받기’는 중요한 도구인 탈선이 너무 잘 끊어졌다. ‘협상제임’에서 진행 중 모둠 간, 모둠 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를 전 시간에서 배운 평화적 갈등해결 문제와 연결시켜 지도를 써줄 보조교사가 부족해서 아쉬웠다.

□평화감수성 익히기(진행:서문)강사가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 시간에만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의 준비 정도를 볼 수 없어서 놀이 프로그램으로서의 가회되도에 부합하지 못했다. 강사는 아이들이 수줍어해서 아쉬웠다고 말하고, 아이들은 별 다른 것 없이 스트레스만 하다 끝난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강사를 간 사전 컨설팅 공유 시간은 중요하다.

□평화 명상/평화의 힘 확대하기(진행:이연영)‘평화 명상 시간’은 여성의 몸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강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 ‘평화의 힘 확대하기’는 상상나무 그리기를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미래 평화리더로서의 자아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역시 모둠교사의 적절한 가이드가 중요했던 시간이었다.

다. 세부전행평가

□강사들을 스터디 안 내었다. 강사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다.

□유형기기가 문제 있었다. 사전 점검 부족했다.

□인터뷰가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을 가져왔다. 적절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대 언론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보조교사가 부족했다. 한 두명의 모둠교사가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를 맡게되어 힘들었다. 모둠별 교육에 대한 정력이 필요하다.

라. 향후계획

□프로그램 참가자 조직이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평화여성회 청소년 교육사업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과 관련한 단체와 연계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사전 홍보, 지속적인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

□평화여성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위한 조직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소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도 참가자를 소녀들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년과 함께 혹은 가족이나 교사와 함께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 양성평등적 편견을 없애고 세대간 평화를 도모하는 지리를 만들자.

<평화심성탐>

○사업 목표

- (1) 평화심성, 평화강수성 강화를 통해 평화운동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시도한다.
- (2) 여성평화운동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모색한다.
- (3) 평화주의자의 삶과 운동, 가치를 연구하여 평화운동의 운동양식을 개발한다.
- (4) 시민사회의 평화주의 마인드를 확대한다.

○사업 내용

(1) 정기모임

1) 정기모임 (1차~10차)

정기모임은 밀원 교육 ("평화로운 시위 문화 개발을 위한 총 강습", "평화로운 시위 문화 개발을 위한 요가 강습") 등과 자유발제토론("순자방법과 노장사상을 통해 본 여성으로 사는 법.. 그리고 평화", "갈디의 비폭력주의" 등) 및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운영 논의 그리고 요한칼통 "평화의 수단에 의한 평화" 스터디 등으로 10차례 진행되었다.

(2) 평화시위문화를 위한 활동

1) 2, 15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반전평화 노래공연(둘리 만화 주제가 가사)

2) 반전평화여성행동 김화 "평화의 빛, 총.. 그리고 여성"

-활동내용: 이라크공기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위험 완화를 위한 퍼포먼스

석유배관을 위한 재국주의 공직을 이라크에 행하는 미국군사주의를 검은색 천으로,

고통 받는 이라크 민중을 빨간색 천으로,

세계인의 연대로 지켜낼 터져 평화는 본색 천으로 각각 형상화 하여

큰 레논의 "Imagien"에 맞춰 퍼포먼스를 진행함

3) 이라크침공 중단과 이라크여성, 어린이 돕기 평화퍼포먼스

-평화의 전기 평상을 통한 전쟁중단 시위

4) "여성이 만드는 평화", 피난한 스님 강연회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환경과 형성, 평화를 주제로 인류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티치낫 (Thich Nhat Hanh) 스님의 한국 방문에 맞춰, '여성이 만드는 평화'의 자리이며 전쟁 없는 평화해상을 만들교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를 표명

-자신이 꽃임을 잊지 말고, 항상 평화도를 마음에 물을 주어야.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항상 평화의 대화를 나누어 한다.

-가장생활에서부터 평화를 이룩하여라.

(3) 제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사업의지>

전쟁은 어디에서 오며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오랜 싸우는 이라크전, 한반도의 전쟁 위험 등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공통의 화두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일상의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다.

평화교육에 있어 중요한 영역인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형성'이 이러한 시대를 맞아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어떠한 대단히 내용으로 평화심성을 증진시킬 것인가? 평화여성회는 평화심성훈련을 통해 평화운동의 진정한 내적 동력인 평화마인드를 확산함으로써 '나와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업목표>

- (1) 한국사회에 평화주의 가치를 위한 기반형성
- (2) 평화로운 문화문화를 구축하는 토대형성
- (3) 평화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 (4) 여성주의적 평화감수성 키우기

<사업내용>

1) 행복과 평화를 위한 명상

가. 일시, 장소 : 2003. 6. 6(금) 오후2시~6. 7(토) 오후12시, 봉도청소년수련원

나. 강사 : 최물, 최귀례, 김성수, 정현숙(이상 명상아카데미 소속 강사)

다. 참석 : 장정화 외 22명

라. 내용 : 평화 명상 입문 심화 과정-자신을 돌아보기

2) 평화집회를 위한 퍼포먼스 확립

가. 일시, 장소 : 2003. 6. 7(토) 오후12시~6. 8(일) 오후12시, 봉도청소년수련원

나. 강사 : 이항림(참실장심리상담센터예술치료실장)

다. 참석 : 장정화 외 22명

라. 내용 : 평화시위문화의 개발

3) 사르트로다하의 자비명상

가. 일시, 장소 : 2003. 6. 11(수) 오후7시, 나눔문화연구소

나. 강사 : 조민현 (한겨레 기자,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 저자)

다. 참석 : 최경민 외 21명

라. 내용 : 본성과 불화를 넘어 세상의 희망으로

4)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심성 만들기

가. 일시, 장소 : 2003. 6. 18(수) 오후6시 30분, 나눔문화연구소

나. 강사 : 이민경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파란만장 부모들의 이야기” 저자)

다. 나. 참석 : 이기욱 외 23명

라. 내용 : 의사소통 잘 하기

5) 여성주의적 감수성으로 세상의 폭력 읽기

가. 일시, 장소 : 2003. 6. 25(수) 오후7시, 나눔문화연구소

나. 강사 : 김희진(여성학 강사,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의 저자)

다. 참석 : 최선희 외 22명

라. 내용 : 여성의 눈으로 평화심성 키우기

6) 한국사회와 평화

가. 일시, 장소 : 2003. 7. 2(수) 오후7시, 나눔문화연구소

나. 강사 : 이승환(고려대학교학과 교수)

다. 참석 : 김혜진 외 21명

라. 내용 :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평화주의적 가치를 형성할 것인가

7) 언론보도

가. 2003. 5. 7(수) 우먼타임즈, 평화심성프로그램 소개

나. 2003. 6. 18(수) 여성신문,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소개

다. 2003. 6. 19(목) 문화일보, 평화심성프로그램 전체 및 2차 주요강좌 내용소개와 인터뷰

회 평화심정팀 평가회의

가. 일시 : 2003년 7월 23일(수) 오후 7시

나. 장소 : 여성연구소

다. 참석 : 김숙임, 공명녀, 김혜진, 김현진, 송정란

라. 내용 :

□강사마다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좋았다.

□퍼포먼스 워크샵이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다.

□자료집이 기대된다.

□참가자를 낮춰서 참가자 동원이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

□내년도에는 평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평화학술회의를 겸한 축제 한여당 형식이 좋겠다.

* 참조: 7월2일 참가자와 함께한 평가

① 프로그램 내용 및 주제, 기획의 적절성

□기획은 다양하고 좋았다.

□강사가 자신의 전문 강의를 평화와 접목해서 잘 녹였다는 의견이다. 한 흐름으로 정리되기보다 강사와의 개성이 두드러진 점이 조금 문제이나, 프로그램 기획에 강사들이 완전히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스스로 완결 구조를 갖고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2차 프로그램이 1차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평화 퍼포먼스 워크샵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활력소가 되었다. 귀찮게 자신을 발전화였다.

② 강사 선정의 적절성

□귀한 강사들을 섭외했다. 너무 재미있었다. 다양하고 좋은 강의를 이행지 엮어 들을 수 있는 기획은 드물다.

□행복과 평화를 위한 명상(해봉 외): 처음 명상에 입문 해본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내적 평화를 탐색하는 일상에 대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었다.

□평화교육을 위한 퍼포먼스, 총독살(이향원):퍼포먼스의 인무를 위한 준비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강사가 매우 열정적으로 시위문화화를 위한 개발을 시도했다. 앞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수업내용이었다.

□사르브다이의 자비명상(조연현):여성주의적 평화 감수성은 부족한 듯 보였으나, 비폭력 자비명상 때에는 모두 감동을 받았고 두는 사람도 있었다. 강사가 자비명상을 열심히 실천해온 사람이라 말보다 느낌으로 주는 호소력이 있었다.

□인간관계속에서 평화심정 만들기(이연경):강사가 기존의 자신의 강의안을 그대로 써서 기획에 충분히 맞춰져 있지 않았으나, 현장 속에서 가족이나 동료와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여성주의적 감수성으로 세상의 폭력 읽기(정희진):여성주의적 관점을 잘 살려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가 만연된 사회문화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고찰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평화주의적 가치를 형성할 것인가(이승환):강사가 매우 성실했 준비를 했다고 느껴지고, 과거 성찰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 깊어 강조되어 강의가 유익했다. 질의 응답시간은 더 유익하게 느껴졌다.

③ 진행과정의 적절성

□사차 명상음악이 너무 좋았다. 강사들도 호감 있어 했다.

□사회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관하였다. 사회를 심정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은 것은 새로운 시도도 좋았다.

□예회 피로도도 좋았다.

□평화여성회 분위기가 강사들에게 평화운동에 대한 시명감을 주었다.

④ 자료집

□1차 프로그램 자료집처럼 잘 만들기를 희망한다.

⑤ 참가자 모집

□모집에 대한 부담이 특정 개인에 몰려 동원 과정이 힘들었다. 향후 프로그램 일정과, 공원에 대한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참가비 조정도 필요하다.(1인 1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⑥ 향후 계획 (2004년)

□더 재미있고 활기차게 구성되었으면 한다. 다음 기획은 학술회의와 망상 및 축제를 겸한 1박2일 과정이 좋을 것 같다. 강사설치는 연초나 전년도 말에 시작해야 할 것 같다.

8) 실무자 평가회의

가. 일시 : 2003년 7월 30일(수) 오후 2시

나. 장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다. 참석 : 김숙임, 김현희, 지성혜

라. 내용 :

-1차 프로그램보다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강사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평화문제를 녹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시작 전 충분한 교감과 검토가 필요하다.

-평화여성회 대중교육사업을 위해서는 연말 연초에 홍보 정책과 전략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 회원사업과 연계해서 참가자 조직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내년도에는 강과 형태가 아닌 1박 2일 합숙 프로그램으로 낮에는 학술회의, 밤에는 축제식의 구상을 하자.

○사업평가

(1) 활동 평가

1) 정기모임, 평화시위문화를 위한 활동

-일상적 활동했다.

-1년 정도의 활동을 통해 평화심성팀의 사업내용과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

2) 제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은 강사가 매우 인상적이었고, 2박 3일 간의 속박 기간도 적절했다.

-사업(특히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팀원들 간의 부담이 내년 사업에 잘 이뤄져서 한 사람에게는 집중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2) 앞으로의 과제

1) 팀원 보강

-평화시위문화를 위한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수적 열악함을 극복해야 한다.

-주위에 평화심성팀을 소개하면 관심을 갖고 봐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 즉 조직화가 어렵다. 앞으로 조직화 사업을 사무처와 연계해서 더욱 고민해 봐야한다.

-기획단(스터디, 프로그램 기획)/일반팀원(정기모임) 등으로 나눠서 관심분야별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반팀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활동인원의 폭은 넓히자

즉 이론적 부분에 대한 정비

-정기모임에서 책을 가지고 하는 발제 형식의 스터디도 좋았고, 앞으로는 이슈 토론 등 case 스터디도 가미

해서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론과 현실적용의 적절한 결합이 중요하다.

-사회이슈나 평화주의 가치와 방법, 평화문화시위를 위한 활동 등 그때마다의 사안에 따라 여러분들과 결합하면서 실행시켜나가면 될 것 같다.

3) 제3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사업준비

-정기모임을 최대한 활용하여 준비하자.

-기획회의단을 위한 모임도 마련하자.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에 프로젝트를 내면 좋을 것 같다.

○ 일상의 평화센터 사업일지

<평화교육문화팀>

- 02/18(화) 1차 사업 기획회의 (김숙임, 이권명희, 김팔리, 지성혜)
- 02/22(목) 2차 사업 기획 회의 (김숙임, 이권명희, 김팔리, 지성혜)
- 05/13(화) 3차 사업 기획 회의 (김숙임, 이권명희, 지성혜)
- 06/2(일) 평화문화캠페인 기획회의 (이연희, 지성혜)
- 06/15(일) 원주교동방송, 3페이지 3장이 평화문화캠페인 취지 및 내용(이권명희)
- 06/30(일)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 기획회의 (이권명희, 박수선, 지성혜)
- 07/5(토)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 강회 구성 회의 (이권명희, 박수선, 정경한, 최현진, 지성혜)
- 07/7(일) 평화문화캠페인 및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 홍보 전략 회의 (이연명희, 지성혜)
- 07/9(수) 평화문화캠페인 저리 캠페인 (임지현, 문명녀, 김현진, 김현희, 지성혜, 김수진, 문명녀)
- 07/11(목) 통일한국,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 등 평화여성회 평화교육사업 소개 (지성혜)
- 07/11(목)-7/12(금) 여성운동가 현아당 공 평화문화캠페인 홍보 (김수진, 김현희)
- 07/14(일)-7/15(화)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 강의구성 워크 (이권명희, 박수선, 최현진, 노림, 지성혜)
- 07/20(일) 중앙일보 여성면, "여기-쓰기-북대기 적제- 평화 여성회" 캠페인(이김현숙)
- 07/21(일) 강원교동방송,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 취지 및 내용 (지성혜)
- 07/22(화) CBS방송,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 현장 인터뷰(이권명희, 박수선, 참가한 학생 2명)
- 07/22(화)-7/23(수)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 (정지현의) 21명 여자 중학생 참가)
- 07/23(수) YTN방송, 3페이지 3장이 관련 인터뷰(이김현숙)
- 07/25(금) 불교방송,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생방송 인터뷰(김수진)
- 07/26(토) 울산MBC, "아침을 달린다" 인터뷰(김수진)
- 07/31(목) 청소년 공동체 "희망" 주회 통일제일 참가자 대상 평화문화캠페인 홍보 (김수진)
- 08/12(화) 청소년평화리더십훈련캠프 평가회의(이연명희, 박수선, 김현희, 최현진, 노림, 지성혜)
- 010/23(목) 여성부 서명식 대외협력국장 본회 방문, 여성평화아카데미 지원확정
- 011/25(화) 2003여성평화아카데미 개최

<평화심성팀>

- 01/30(목) 1차 정기모임 이학림의 "평화로운 사회 문화 개화를 위한 줄 잡음"(문명녀 외 4명)
- 02/15(토)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반전평화 노래공연(문명녀 외 8명)
- 02/22(토) 2차 정기모임 박남식의 "평화로운 사회 문화 개화를 위한 요가 잡음"(김현진 외 6명)
- 02/23(목) 반전평화여성행동 줄잡음 "평화의 빛, 줄... 그리고 여성" 퍼포먼스(문명녀 외 3명)
- 03/18(화) 3차 정기모임 박재도론 "손자병법과 노장사상을 통해 본 여성으로 사는 법... 그리고 평화"(박재경 외 7명)
- 04/3(목) 평화의 전기 역사를 통한 전쟁중단 시위(김숙임 외 3명)
- 04/3(목) "여성이 만드는 평화" 다큐멘터리 스님 강연회(김현진 외 4명)
- 04/16(수) 4차 정기모임 박재도론 "간다의 비록러주의"(김숙임 외 4명)
- 05/7(수) 우먼다인즈, 평화심성프로그램 소개
- 05/14(수) 5차 정기모임 신일립원 환영 및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운영방안논의(장정화 외 7명)
- 06/6(금)-6/8(일)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속학교육-평화명상, 평화집회를 위한 퍼포먼스 워크샵 (장정화 외 22명)

□6/11(수)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정기강좌 "사르보다야의 자비명상"(최정민 외 21명)
□6/18(수)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정기강좌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심성 만들기"(이기옥 외 23명)
□6/18(수)	여성신문,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소개
□6/19(목)	문화일보, 평화심성프로그램 전체 및 2차 수요강좌 내용소개와 인터뷰
□6/25(수)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정기강좌 "여성주의적 감수성으로 세상의 폭력 읽기"(최선희 외 22명)
□7/3(수)	2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정기강좌 "한국사회와 평화"(김혜진 외 21명)
□7/23(수)	6차 정기모임 평화심성프로그램 평가(장정화 외 5명)
□7/23(수)	평화심성팀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평가회의(송경관 외 4명)
□7/30(수)	성무자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평가회의(김숙임 외 2명)
□9/29(월)	7차 정기모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문과 1부 평화이론 발제 및 토론(지성태 외 4명)
□10/23(목)	8차 정기모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2부 갈등이론 발제 및 토론 및 2003 사업 평가회의(김숙임 외 5명)
·11/19(수)	9차 정기모임 2004년도 사업계획(김숙임 외 5명)
·12/1(월)	10차 정기모임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4부 문명이론 발제 및 토론(김현숙 외 5인)
·12/12(금)	11차 정기모임 송년의 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 / 등 / 해 / 결 / 센 / 터

2003년 활동보고 및 평가

- 소 장 : 박수선
○ 담당실무자 : 지성혜 교육간사

○ 총평

2003년은 갈등해결팀에서 갈등해결센터로 전환하여 사업을 시행한 첫 해이다. 팀 단위 활동에서 센터로의 조직적 틀은 변화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센터라는 조직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2003년은 사업적 확대와 함께 센터라는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업적으로는 올해의 주요 목표로 삼았던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을 교육할 '강사트레이닝'을 실시했다. 이 강사트레이닝은 1월~7월에 이르는 93시간이라는 장시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었고, 실제 트레이닝 참가자들이 중·고교에서 갈등해결 교육을 진행하는 성과가 있었다. 처음 시행한 것이어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교육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더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로,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강사트레이닝의 성과이기도 한데 강사트레이닝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자신의 학교에서의 적용, 주요 교육공간이었던 관악고등학교에서의 교육 시간 확대 등을 통해 갈등해결 교육의 확산을 서렸다.

셋째로,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교육의 확산을 위한 교안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강사트레이닝을 통해 배출된 강사들의 학교에서의 갈등해결교육 진행 경험과 내용을 기초로 매뉴얼화 하는 사업으로 이 교안집 작업은 청소년교육팀에서 주요 과제로 진행했다. 이 교안집 작업을 통해 교육의 내용을 더 심화시키고, 결과로 나온 교안집은 앞으로 일선 교사, 교육활동가들이 갈등해결교육을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의 사업은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회원 확보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진행되었는데 실제 강사드레이닝 등을 통해 CM5 회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활동 회원을 갖게 된 성과가 있다. 현재 연구원 모집과 청소년교육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세분화된 이슈와 활동을 중심으로 팀 단위 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센터로서 사업 및제로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또한 진행과정에서는 여러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즉 더욱 전문화되고, 정교화된 프로그램 디자인과 진행의 필요성, 다양한 계층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 조직적으로는 센터의 전체적 사업전망과 계획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성, 정회원성회 전체와 센터의 보다 명확한 위상 정립, 센터의 전문화된 행정성무인력의 필요성, 재정확보와 관련된 노력 등 앞으로 채워나가기 할 많은 과제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교육 중심의 활동에서 나아가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상황에서의 개입, 평화조성 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요구된다.

1. 2003년 사업 목표

-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구성, 실천을 모색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갈등해결의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연구들 강화하여 실적 내용적 확대에 힘쓴다.

2. 조직

- 1) 연구원 모집/갈등해결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강사드레이닝 등 사업 진행
강정미, 김경수, 김학득, 이재형, 김정란, 최정현진
- 2) 청소년교육팀/학반기에 결성, 청소년 교육 관련 사업 논의 및 진행
조영희(팀장), 문다영, 박인혜, 심은희, 여태숙, 전효진, 최안진경, 허유영
- 3) 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센터 운영의 방향성 및 사업 계획 및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
김정수, 박인혜, 여태숙, 이재형, 김정란, 조영희, 최정현진, 지성혜, 박수선

3. 회의

- 1) 연구원 모임
전체적인 센터 사업 방향과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 청소년 강사드레이닝, 활동가대상 워크숍 '갈등해결을 통한 민주적 조직문화' 워크숍 준비 및 진행, 운영위원회 준비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10여차례 회의(회의 주제적 내용 생략)
- 2) 청소년교육팀
편하고, 이대부중 CA 및 창의재활 수업 진행을 위한 논의 및 교안발간 사업을 위해 14여차례 회의(회의 주제적 내용 생략)
청소년교육팀은 학반기에 구성되었는데, 실제적인 활동을 기획, 실행하는 단위로서 갈등해결센터 조직의 재구조화와 평화여성회 내에서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였다.
- 3) 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반 내용 논의를 위해 3차례 회의

4. 주요 사업

- 1)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 강사드레이닝

<사업목적>

- 입시위주의 경쟁적, 패타적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시도로서 학생들이 평화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 일상에서 빈번한 사소한 갈등을 힘과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한다.
- 대화와 협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훈련한다.
- 민간의 극복,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분노조절과 평화적 표현을 익히고 권유, 강요, 회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갈등해결□평화문화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갈등을 청소년 스스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래 중재안'을 양성한다.

<사업목표>

- “갈등해결과 평화” 창의재량 수업의 진행자로서 평화의 지식, 가치와 태도, 기술을 함양한다.
- 참여프로그램 진행의 기술을 익힌다.

<기대효과>

- 교육과 실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갈등해결센터의 활동터 강화
- 센터 회원의 확보

<일시>

-2003년 1월 15일- 7월 28일

<내용>

	일 정	장 소	진 행	주 제	내 용
1회차	1/15	여성연구소	박수선	오리엔테이션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2회차	1/25- 1/26	봉도수원원	강사진	워크숍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 ○프로그램 전체 대학 소개
3회차	1/29	인권위 태운터	김정수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평화교육의 필요성,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의 갈등해결 교육의 의미에 대한 이해
4회차	2/5	인권위 태운터	이재영	갈등, 갈등해결개념 이해	○비판적한 갈등해결 방법 이해
5회차	2/12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수선 김학복	창의재량수업 방법론	○진행자의 자세, 관점과 역할 ○수업 운영의 원칙
6회차	2/19	청산교육장	박수선 최원진	수업교안 만들기 1	○수업대수업 검토 ○창의재량 수업 첫 시작 시간의 프로그램 검토 및 실습
7회차	2/26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창의재량 프로그램 디자인과 진행방법	○창의재량 수업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의 전체 프로그램 디자인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등 검토

8회차	3/3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기본기법 소개 및 실습	○관동해결의 평화적 해결 방법 전반에 대한 이해 ○기본적 기술로서의 의사소통기법 실습 - 적극적 듣기, 나전달법, 페르스페이킹, 요약하기
9회차	3/10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정경란	갈등해결의 방법-협상의 원칙과 방법	○협상의 협상 이해 ○상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여러 방법에 대해 이해
10회차	3/17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관동해결의 방법-중재	○중재의 원칙과 방법을 익히고, 자정에 대해 실습
11회차	3/24	평화의집 교육장	김정스	차이와 차별1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의 개념과 부작용 이해 ○차이가 고정관념, 편견 등을 통해 차별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
12회차	3/31	평화의집 교육장	장정미	차이와 차별2	○차이를 차별화 하는 것들, 종론의 결함(소수자 인권) ○종론의 결함들,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제도, 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
13회차	4/7	평화의집 교육장	최원진	분노조절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났을 때의 행동 등을 객관화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모색함
14회차	4/14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중재, 포괄중재의 의미와 방법	○학교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포괄중재의 배경과 방법에 대해 이해 ○역할놀이로 통해 포괄중재를 실습해 보고 포괄중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
15회차	4/21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수업교안 만들기 2	○관동의 개념 이해 교안 만들기 및 교육실습
16회차	4/25	청산교육장	이재영 Robert Harris	특별수업	○포괄중재의 해외 사례 및 훈련 (미국의 포괄중재 전문가 초청)
17회차	4/28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수업교안 만들기 3	○의사소통방법(적극적 듣기, 나전달법, 비귀담하기) 등을 기초로 교안 제작 실습
18회차	5/12	평화의집 교육장	최원진	수업교안 만들기 4	○분노조절을 기초로 교안 제작 실습
19회차	5/19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수업교안 만들기 5	○차이와 차별을 기초로 교안 제작 실습
20회차	5/26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교안 평가 이후 프로그램 디자인	○'관동해결과 평화 창의재향 수업 참가 후 과정과 내용에 대한 논의와 평가 ○여주 구제적 실천의 진행을 논의 ○19차 이후의 교육과정을 참가자들과 함께 디자인 함
21회차	6/2	평화의집	이원영희	다양한 사람들	○MBTI 검사와 이해를 위한 활동을 통해

		교육상		이해하기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 방법을 모색해 봄
22회차	6/16	평화의집 교육장	해 원	청소녀 영상지도법	○평화심성교육으로써의 영상지도
23회차	6/23	평화의집 교육장	정경란	국제분쟁 해결 사례 연구	○방더활동 보고 · 갈등해결의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 사례
24회차	6/30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중재, 대화 기술 심화 훈련 1	○중재자가 가져야 할 관점 ○효과적인 중재를 위한 기술 훈련
25회차	7/7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사회 갈등의 중재 과정 디자인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한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과정을 디자인해 봄
26회차	7/14	평화의집 교육장	이재영	갈등전환/비폭력 과 사회변화	○갈등적 폭력의 갈등해결방법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갈등전환과정에 대해 이해 ○사회변화를 위한 비폭력의 방법에 대해 모색
27회차	7/21	평화의집 교육장	박수선	갈등해결의 방법-Dialogue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구조화된 Dialogue의 목표와 원칙 이해 ○교육과정, 상반기치 강의제량수업 진행 평가
28회차	7/28	청산교육장	박수선	갈등해결의 문화적, 제도적 접근의 모범 만들기	○한국사회 갈등해결의 제도적 문화적 확산과 정착과 학교의 평화문화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 ○교육 이후의 활동에 대해 논의

<평가>

가. 성과

7. 갈등해결 강사 배출 :

-교사나 교육관련 활동가들에게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중·고교(이대부중, 장위중, 양강중, 관악고, 등)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반 강사를 배출하였다.

나.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의 단초를 제공 :

-갈등해결 강사훈련을 받은 교사나 강사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갈등해결교육을 시도하면서 교사들 스스로가 가르치는 태도나 가치관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갈등해결 강사훈련을 받은 교사나 강사들이 진행한 창의재량수업이나 CA반을 통해 실시된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 일반 교과 수업과는 다른 자율성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익히고 평화와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인식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나. 발전점 :

-목표인 강사양성 면에서 12인의 수료생 배출(조영희, 박명숙, 여혜숙, 문다영, 최한진경, 하윤형, 남희정, 권호진, 이권명희, 지성혜, 김현희, 신은희)이라는 성과와 중·고교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확대 실시(관악고, 장위중, 양강중, 이대부중 등)라는 성과를 남겼다.

-강과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여티비티가 많은 수업양식이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내용 도입에 있어서 흥미를

자아였고, 프래그먼트 전문가(모더트 레리슨) 초청 워크샵 등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많은 지적 자극을 주었다. 참가자 요청에 따른 반독, 심화 학습으로, 후반부 커리큘럼을 열어놓는 방식은 교육을 처음 나가는 사람들에겐 좋은 보충이 되었다.

-자기 가능성의 발견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다.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이었다.

다. 아쉬운점 :

-자체 교육장이 없는 문제로 이동이 잦았고, 안정적인 교육장 확보가 필요하다.

-회원간의 커리큘럼은 긴 것 같다. (5월 이후 출석률 저조)

-지역 교육관련 활동가들도 많이 듣고 싶어했으나 강제가 서울에서 이루어지 참석하기 어려웠다.

-커리큘럼이 너무 반복적이었고, 앞으로는 조직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강동해결, 평화의 이론적인 내용보다 기술적인 면에 치우쳐진 프로그램이었다. 이론적인 기반이 보장되어야 한다.

-처음에 기초 워크샵이 있었다면, 중간점검이나 마무리 워크샵 등을 통해 집중 교육이 요구된다.

-실제 강사로의 활동을 위해 합판수업 등 실습의 기회가 더 필요하다.

-충분한 실습이 부족한 채 강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이 실습이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다. 앞으로의 과제

-강동해결센터의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평화여성회의 성과로 총화시킬 것인가도 논의해 나가야한다.

-강사드레이닝은 계속될 필요가 있고, 이번 드레이닝을 기초로 내년에 실시할 강사드레이닝은 보다 효과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중·고교 평화 인권반 운영 및 교안개발(국가인권위원회 프로젝트)

<사업취지>

중·고교의 CA반이나 참의제발수업을 활용한 평화인권반 운영 및 교안개발은 임시위주의 경쟁적·태도적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려는 시도로서, 학생들이 평화문화를 이해하고 인권의 가치를 체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업목표>

-학생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겪는 사소한 갈등을 힘과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한다.

-학생들에게 인권과 관련한 영상물 및 다양한 모둠 활동 등을 통해 편견의 극복, 소수자인권에 대한 이해 및 분노의 조절과 평화적 의사 표출을 익히고 관용, 평화, 화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한다.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갈등해결·평화문화 교육 모델을 개발하며 청소년들의 갈등을 청소년 스스로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는 '포레 중재인'을 양성한다.

-현재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갈등해결강사드레이닝"에 참여 중인 현직 교사, 인권단체 활동가, 갈등해결교육 전문강사 등이 함께 위와 같은 평화인권반을 운영하면서 만들고 사용할 자료들을 엮어내어 각 학교마다 보급함으로써 일반 중·고교에서 평화인권수업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내용>

가. 중·고교 평화인권반운영

<평가>

-그간의 청소년 교육의 내용을 기초로 복능일화하는 작업은 앞으로 청소년대상 갈등해결교육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사업주체인 청소년교육팀이 8월달 구성되어, 10월달 발간이라는 계획이 다소 부리가 있었다.

-교육팀원 전체의 활발한 참여가 부족했다.

-차라리 워크숍을 통해 일선 교사와 교육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역시 짧은 시간 내에 교안을 발간해야 하는 사업상 어려움으로 워크숍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프로젝트 사업의 문제)

<앞으로의 과제>

-교안집 발간은 그간 교육의 내용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 더 채워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 교안집이 실제적인 교육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안집의 일선 교사들에게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재 워크숍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일상적으로 교안을 만들어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갈등해결을 통한 민주적 조직운영워크숍(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주최)

가. 일시 : 2003년 10월17일(금) 오전10시~10월19일(일) 오후1시

나. 장소 : 송추연수원

다. 참석 : 이윤희 외 19명

라. 내용 :

일자	시간	강의명	강사
10월 17일 (금)		등록	
	10:00 -12:00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프로그램 일정 소개, 진행규칙 정하기	박수선
	12:00 -13:30	점심시간	
	13:30 -16:00	갈등해결 이해하기 1-조직갈등의 현실 진단 모네펜 작업	이재형
	16:00 - 18:00	갈등해결 이해하기 2-갈등해결의 기초	이재형
	18:00 - 19:00	저녁식사	
10월 18일 (토)	19:00 - 22:00	갈등분석 갈등의 원인 분석의 필요성과 여러 방법	정경란
	09:00 -09:30	어제 프로그램 평가	박수선
	09:30 -12:00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1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달하기, 관용하기	최현진
	12:00 - 13:30	점심식사	
	13:30 -15:40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2 Dialogue, Problem Solving, 의사결정 방법	박수선
	16:00 -18:00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3 중재자의 역할, 중재 위치와 과정	박수선
	18:00 -19:00	저녁식사	
	19:00 -21:30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4 중재자의 역할, 중재 원칙과 과정 II	박수선
10월 19일 (일)	09:00 -11:00	갈등해결 방법 배우기 5 중재실습	박수선
	11:00 -13:00	갈등해결을 통한 민주적 조직운영 모색 평가 및 과제	박수선
	13:00-	식사 후 휴식	

<평가>

-2002년 시민교육매뉴얼 작업의 연장으로 기획된 워크샵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대상이 단체활동가이다보니 일정을 잡는 것과 모집의 어려움이 있었다.

-워크샵을 진행하는데서 진행 주제와 행정 주제의 뚜렷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상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

-갈등해결센터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대상의 선정, 모집의 가능성, 진행과 운영의 역할분담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고려 속에 프로그램을 단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대상을 특화한 프로그램 구성에 더욱 노력하고, 프로그램으로 여러 조직된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 2002년 춘천교대 통일교육과 워크샵처럼 일정한 틀로 묶인 조직에 프로그램과 진행자로 결합하는 방식)

-민주적 조직운영을 위한 갈등해결 교육 아이템을 보다 세분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4) 갈등해결교육 적용 확대를 위한 활동

가. 6월 1-30일 필리핀 민대나오 Peace Building 프로그램(3주 프로그램) 참가

<평가>

-현재 긴 분쟁 속에 있는 미대나오에서의 평화, 갈등해결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갈등해결과 무력분쟁에 관한 실제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다양한 긴 시간의 공백(소장 및 연구원의 대거 참여)으로 일상적 센터 활동의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

-갈등해결센터의 구성원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사드래이닝 이후, 프로그램 이후의 심화 프로그램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자체 교육 강화 및 외국 연수 기회 강화 등)

나. 2003 서울시교육연수원 중등교감자격연수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여명의 교감 자격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8시간 갈등해결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 김경수, 박수현, 이재영, 정경란

<사업배경>

이 교육은 교감 자격을 얻게 되는 연수로, 공립 중고등학교 교감 희망자는 반드시 이수하고, 성적이 좋아야 교감으로 발령을 받는 자격연수이다.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 이사장이 교감 발령의 권한을 가지므로 발령에는 상관이 없지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이다. 이번 연수의 전체 참가자는 200명이다. 연수의 총 시간은 150시간이며, 그 중 8시간을 평화물اند는여성회와 '갈등해결과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배정하였다. 지난해 처음 평화여성회 갈등해결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두 번째 요청에 따라 진행되었다.

<사업목표>

1. 평화여성회의 목표

-학교의 행정주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감(예비)들에게 갈등해결에 대해 이해를 높임으로써 앞으로 제도화의 배경을 만든다.

-'갈등해결'이 한국의 현실, 특히 학교 현실에 어떻게 적용 가능할지의 시험대로서 교육을 활용한다.

2. 참가대상자의 목표

-학교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교감(예비)들의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을 키운다.

-학교의 한 주체인 학생들에게 평화강수상을 키우고 갈등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방법에 대해 모색해본다.

<교육내용>

차시	교육내용	교수방법	준비물
1	1. 갈등의 개념 2. 갈등 대응 유형 테스트 3. 평화적 갈등해결의 의미와 내용 4. 갈등분석, 성찰	강의, 활동(Activity) 실습 및 그룹토론	Work Sheet 갈등대응유형 Test지 태극권 등 CHP 사용
2	1. 협상의 4원칙 2. 중재의 원칙과 과정 3. 중재실습 4. 평가	강의, 활동(Activity) 실습 및 토론	시나리오, Work Sheet 평가지 CHP 사용

<일정 및 반별 장사>

차시	일시	반별	담당강사	
1차	5월 6일(화)	1반	박수선	이재형
	5월 9일(금)	2반	박수선	정경란
	5월 12일(일)	3반	박수선	이재형
	5월 13일(월)	4반	박수선	김정수
2차	5월 20일(화)	1반	박수선	이재형
	5월 21일(수)	2반	박수선	정경란
	5월 29일(목)	3반	박수선	김정수
	5월 30일(금)	4반	박수선	이재형

<평가>

- 각년에 이어 2회씩 진행하는 것으로 교사 및 교육 관련 장학사들에게 갈등해결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데 기여했다.
- 각년에 비해 한 반의 인원이 늘어 진행상 어려움이 있었다.(한 반 25명)
- 앞으로 제도내 교사교육의 틀이 확대될 전망이다 만큼 진행자의 수적 확대가 필요하다.

다. 독일 에버트재단 갈등분석 전문가 (아프린 하제만) 초청 워크숍

- 일시, 장소 : 2003. 4. 29(화) 오후1시, 청산교육장
- 참석 : 김승국 외 17명
- 내용 : “마케도니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회 내 갈등의 분석, 모니터링 작업·사회정치적 협조를 도구로”

다. 서울시교육청 주최 갈등해결과 또래중재 워크숍 통역 참여(김정수, 이재형)

- 일시, 장소 : 7월 21-25일 서울시교육연수원
- 대상 : 중등 생활지도부장, 상담부장 등 50여명
- 내용 : 또래중재 이해 및 실습(미국 오하이오주 갈등해결센터에서 진행자 파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 / 원 / 참 / 여 / 센 / 터

2003년 활동보고 및 평가

○ 소 장 : 최선희 사무처장

○ 담당실무자 : 김현희 조직국장

○ 사업방향

방향 : 기존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회원확대를 이루어 나가며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후원유지 및 회비증대 노력을 기울여 회원 회비에 의존하는 안정적인 재정자립화, 조직의 안정성을 모색한다.

○ 사업목표

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여 회원 확대 및 소모임장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나간다.

② 기존회원의 지속적인 후원유지 및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 마련해 나간다.

③ 회원들의 정보를 함께 서로 공유하고 평화여성회의 활동내용 및 회원소식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한다.

○ 사업내용

1) 평화여성회 6주년 후원의 밤

가. 목적 : 평화여성회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여성평화운동의 문화적인 행사를 마련한다.

나. 내용 : 여성평화제 “이땅에 평화를” -

평화로운 사람, 평화문화가 살아있는 사회, 전쟁없는 한반도

다. 일시 : 2003년 5월20일(화) 오후 6시30 -8시30분

라. 장소 : 새천년기념관 5층 조병두 국제홀

마. 프로그램 내용 및 순서

사회자 : 오숙희, 유지나

제1부 평화의 만찬 (오후6:00-7:00)

제2부 평화여성회 소개 및 홍보대사 위촉식 (7:00-7:30)

- 개막 영상쇼 : 평화여성회가 걸어온 길
- 감사의 말씀 : 이길현숙, 김숙임, 심영희 공동대표
- 인사말 : 박경서 국가인권위 인권대사
- 축하 : 지은희 여성부 장관
- 축하 : 박상준 참여연대 공동대표

· 홍보대사 위촉식 : 홍보대사 - 인기가수 이정현

제3부 여성평화페 및 홍보대사 위촉식 (7:30-8:30)

- 퍼포먼스 : 무기를 빵과 장미로
- 송소희, 장희정, 김현숙, 김현진, 김동훈, 강지현 외
- 시낭송 : 불타는 바그다드의 어머니' 김영환 국회의원 (시인)
- 영상쇼 : 평화롭지 못한 밤, 평화를 갈망하다.
- 어린이 노래공연 : 아름나라 어찌불무
- “부메랑이 되어”, “더불어 하나”, “가자 아름다운 나라로”
- 함께 노래하기 : 상한여성을 “Blowin in the Wind”
- 축하공연 : 초대가수 한영애 “어울록” 조율

다. 결산

수입	항목	세부항목	금액
	다갯잔대		25,080,000
	기업협찬	삼성생명,에경전보, 한국문화진흥	4,500,000
	포스터, 티셔츠발판		
	외부후원금		6,500,000
	특별후원금(정회정)		5,000,000
	합계		41,080,000

지출	항	세부내용	금액
	사무비	식대, 문구, 화분, 복사, 우편발송비	1,040,200
	식비 (과객)	뷔페 (200인분)	3,900,000
	인건비	연출가, 가수십여, 사회자십여 외	3,660,000
	잡비	송금수수료	2,000
	행사진행비	퍼포먼스 준비, 위촉료, 자봉단 식대외	1,429,620
	홍보비	카드제작, 팔로워, 현수막외	2,475,000
	회의비		294,040
	합계		13,710,080

	수입	41,080,000
	지출	13,710,080
	순수익	27,369,140

사. 사업평가(안)

가) 성과 :

① 후원행사에 대한 수입 목표 및 참가자 조직을 열심히 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참가자를 조직한 성과가 있었으며 행사 준비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

② 평화여성회의 후원행사가 단지 공식적인 후원행사에 머물지 않고 중간 중간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 퍼포먼스 (두기를 빵과 장미로 등) 및 평화를 향한 노래등 여성평화문화제 행사를 도입한 것은 참여자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였다.

③ 인기가수 이정현을 평화여성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다양한 평화문화 확산 운동 및 평화문화제제인에 함께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추후 대중적으로 여성평화운동의 참여기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과제 :

① 후원행사에 다양한 문화행사들 사전 준비과정에 있어서 작은 실무자의 역할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추후 문화제 행사를 도입한 후원행사에는 실무역량에 부러가 가지 않고 일반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담이 필요하다. 예) 평화콘서트외 및 표 존재금액에 있어서 역수가 부담이 되어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 판매에 있어서 저렴한 금액도 포함해야 된다.

2) 2003년 여름 소식지 발간

가. 여름호 (통권 제 17호) : 발행 2003년 7월 15일 / 발행부수 3000부

목 지	내 용	쪽	글쓴이
평화문화 행태인	3페이지 3장이 평화실천은 내거면저..	2	평화여성회
여성평화제 이야기	제 6회 여성평화제를 맞이하여	5	평화여성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홍보대사 이정현	7	평화여성회
특집 1	한번도 혁명이 해결을 위한 '다자회' 의 시험대	10	정경란
복합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참여정부의 '평화변형정책'	24	윤덕희
이야기마당 1	김은 '나'와 맞닥뜨린 내적여정	27	별
특집 2	괴해자의 입장에서 전쟁하기	30	유은하
이리크 전쟁과 반전평화운동	반전운동이 준 또다른 선물	36	홍승희
이야기마당 2	감수성의 푸른 색이 뜨고 있어요	38	여혜숙
이야기마당 3	갈등을 벗삼아	41	박인혜
이야기마당 4	우리는 모두 꽃으로 이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달노한 스님의 '여성이 만드는 평화' 강연회에서'	43	문영녀
평화진구 만들기 캠페인		49	
지구촌 평화이야기	민다나오에서의 3주일	52	박수선
성명서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67	평화여성회
	한반도 반전평화 여성 선언문		평화여성회
	여중생및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련장 발부 및 불법폭력	70	평화여성회
	연행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평화여성회
	국회가 국전의 진정한 대의기구라면 한국군 파병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평화여성회
알림과 나눔		74	평화여성회
회원소식		84	평화여성회

나. 사업평가 (안)

가) 성과 :

① 편집구성

올해 편집의 기획방향에는 시사이슈, 일상의 평화읽기, 홍보대사, 회원들의 소식나눔등으로 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전문적 지식 및 관하게 얻을수 있는 다양한 일상의 평화소식등을 적절히 배치한 것이 좋았다.

나) 과제 :

① 회원소식 및 나눔의 글 확대 필요성

회원장이 센터가 올해부터 신설되었기에 이에 걸맞게 소식지 내용도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즉 회원들간의 다양한 소식들 회원 나눔의 글 태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쉽다. 회원의 의사소통 교류를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 제1회 회원한마당

여성평화운동 리더십 개발 “내안의 보석을 찾아라

가. 일시 : 2003년 10월3일 ~ 10월4일 (1박2일)

나. 장 소 : 바람과 물 연구소

다. 목 적 :

①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서의 정체감 확보 및 자발적인 참여의지 부여마련

평화여성회는 분명히 회원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평화운동은 실무권에 집중되어 있고 회원들의 참여와 활동이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을 살려 평화여성회가 주관하는 여성평화 운동에 기여할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준다.

② 한국여성 평화 지도력 배출

본회의 지역으로서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풀어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전문여성 지도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세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한국여성 평화 지도력을 배출하고자 한다.

③ 여성 평화운동의 비전과 자신감 공유

구조적인 폭력과 내재되어 있는 반 평화 요소로 인한 무력감과 패배감에서 벗어나 여성 평화운동의 비전과 자신감을 함께 공유한다.

④ 평화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역량 키우기

여성평화운동 리더십 개발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적인 리더쉽을 키워가고 삶 속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지경과 접목시켜 평화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간다.

라. 프로그램 내용

일자	시간	강의명	강사
10월 3일	9:00 - 12:00	출발 ~ 서울 동대문 운동장까지	
	12:00 - 13:00	도착 및 접수	
	13:00 - 14:00	점심식사	
	14:00 - 15:00	분과 토론으로 인사하기	박수진(평화여성회 공동 책임센터소장)
	15:00 - 17:00	내안의 보석을 찾아라 "여성평화운동리더십개발 을 위한 시간관리"	양세진(시민리더십센터 소장)
	17:00 - 17:30	쉬어가기	
	17:30 - 18:30	내안의 보석을 관리하라 "여성평화운동리더십개 발을 위한 시간관리"	양세진(시민리더십센터 소장)
	18:30 - 19:30	평화의 민족	
	19:30 - 20:30	내안의 보석을 관리하라 "여성평화운동리더십개 발을 위한 시간관리"	양세진(시민리더십센터 소장)
	20:30 - 21:30	쉬어가기	
10월 4일	21:30 - 23:00	평화축제의 시간 "댄스댄스 댄스 - " PEACE BELL을 울려라" 외	
	08:00 - 09:00	아침식사	
	09:30 - 11:00	평화의 명상 "나를 찾아서 자연을 찾아서"	문명녀(평화여성탐험가)
	11:00 - 12:30	여성평화운동의 리더가 되자 "여성" 만드는 평화"	정현택(한국여성단체연합공 동대표, 성관련대 사학과 교수)
	12:30 -	식사 후 평가회 및 해산	

마. 참가자

강원숙, 김난희, 김복희, 김수진, 김숙임, 김현진, 김현희, 문명녀, 박수진, 박애경, 박준옥, 송소희, 안정애, 엄인영, 이낙호, 전은주, 조영희, 이정희, 최안전경, 최안전경 시어머니, 원정어머니, 최선희, 최정현진, 양세진, 정현택, 사유진 (27명)

바. 사업평가(안)

가) 성과

- ① 최초의 최원한마당 행사를 가졌으며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며 최원으로서의 자부심, 정체성을 갖기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추후 평화여성회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성과로 나타났다.
- ② 지속적으로 최원한마당 행사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
- ③ 여성평화운동 리더십이라는 주제가 최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끄는 주제여서 일반인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이는 최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성과를 낳았다.

나) 과제

- ① 내년에는 좀더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 프로그램과 일의 시간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② 단지 일회적 최원한마당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성평화운동의 참여의 장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기를 마련해야 한다. 즉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

원칙,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제기가 되어야 한다.

③ 회원헌약의 중, 장기적 편성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에는 자신의 사명발견하기, 시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회원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의 참여동기 부여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여성평화운동의 비전 속에서 추후에도 회원들의 욕구 및 제공해 주어야 할 교육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하여 회원헌약 행사를 치루어 가야 한다.

회원헌약팀 (팀장 : 없음)

○ 팀원 : 김현희, 문병녀, 송소희

(1) 사업목표 : 회원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회원사업의 활성화를 이루며 가도록 한다.

안정적인 회비납부를 이루어가 조직적, 재정적 안정의 기반을 마련해 가도록 한다.

(2) 회의

일시 : 2003년 7월8일 오전 11시

참석 : 문병녀, 송소희, 김현희

장소 : 평화여성회 회의실

내용 : 회원헌약팀 구성 및 활동내용 '회원관리 및 회원확대 전략, 재정확보 전략'

(3) 사업내용

1) 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CMS 납입 요청

가. 일시, 장소 : 2003년 7월30일, 7월31일, 8월1일, 평화여성회 회의실

나. 활동내용 :

① 평화여성회의 회원들 400여명에게 전부 전화작업

- CMS 가입전환 요청 (*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CMS로 회비납부신청 성과를 내었다.)

- 주소록 및 연락처 정정 및 재정리 작업

2)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Giving EXPO 2003

가. 일시, 장소 : 2003년 10월10일 (금) - 10월12일 (일), 서울여성플라자

나. 공동주최 : Giving EXPO 조직위원회, KBS

다. 목적 :

① 우리나라의 바깥적이고 성숙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만든다.

②행사기간 중 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희망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 참가자 : 김현희, 문병녀, 김숙인, 심영희, 김현희, 김수경, 전은주, 지성혜, 최선희, 문병녀, 김현전, 김성화, 엄인영, 황순영, 최안진경, 송소희, 박애경

다. 행사 절차(안)

① 의미 있는 행사에도 불구하고 접근권이 용이하지 않고 치을 치루어 지는 행사인지를 행사규모, 투자액

에 비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자수가 저조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에는 대학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끝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화여성회를 알릴수 있는 홍보에 초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방문자를 늘리기 위하여 다도를 함께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 세련되고 도사적인 이야기 보다 평화여성회에 맞는 편안하고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다.

③ 이번 행사에 참여한 SK텔레콤, CJ, 무림건설, 코보생명등 기업에게 평화여성회를 알리고 상대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서로 인연을 익히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④ 이번 행사를 통해 2명이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임소연 (강예후 권익문제연구소 간사), 한정애(여성교회)

3) 회원확대 캠페인 '평화친구 만들기 캠페인'

가. 일시 : 2003년 8월 -

나. 내용 : 여성평화운동 대중화를 위해 회원확대를 주력하는 캠페인

다. 방식 : 평화친구만들기 캠페인에 30명 이상 회원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뉴질랜드 항목티켓을 주어 회원확대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도목 한다.

라. 평가(양)

① 꾸준히 작년에 비해 회원가입자 수는 늘었지만 상층공간을 타지 못하였다. 회원확대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제공되지가 않아 30명 이상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없어 이에 대한 절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30명까지는 못했지만 5명 내외로 문명녀, 김천희, 김숙인, 박수선등이 회원확대를 하였다.

회원참여센터의 총평 (양)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통한 여성평화 운동의 회원참여도를 높이고 회원 확대를 통한 여성평화 운동의 품격기반,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회원참여센터는 실무자 1명이 배치되어 본격적인 회원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참여 활성화와 일반인이 혼란의 발판이나 후원자가 아니라 운동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도록 건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안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특별한 노력이 없이 회원참여센터의 소장자 겸장 없이 미약하게 출발한 회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방향 및 사업목표에 맞게 전반적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회원참여센터를 통하여 기존 회원들이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후 평화여성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회원참여센터의 성과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4) 총평

1) 성과

① 작년보다 좀더 높은 회원수입 및 회원증가

2003년 12월 기준 CMS 70명 가입에서 회원 참여센터가 신설된 이후 회원이 약 배가되었고 이에 따른 CMS회비 역시 배가 되어 회원확대 및 회원수입의 확대를 가져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점차 마련해 갈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

② 후원행사에 있어서 기업협찬의 성과

그 동안 기업협찬이 거의 미비하였는데 올해에는 회원들의 도움을 얻어 삼성생명, 전보식품, 세경, 과스칸, 문화진흥 등 후원행사에 있어서 기업협찬을 받게 되어 재정적으로 도움을 얻었으며 추후 기업협찬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㉓ 회원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회원들간의 교류 및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 부여
최초로 이루어진 회원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참가자 모두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며 이를 통하여 여성
정화운동에 대한 관심 부여 및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였으며 추후 여성정화운동의 실질적인 인적
기반 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㉔ 회원참여센터의 회원연락망을 꾸려 회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 마련
회원연락망에서는 회원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하여 회원한마당 행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GIVING EXPO 2003, 회원연락을 다지기 위한 산
행모임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회비납부 전화
요청을 한 결과 약 20여명의 회원들이 CMS(자동이체)로 회비납부를 한 성과를 낳았다.

㉕ 회원직업 연계 마케팅의 성과

송소희 회원전략팀원의 경우 자신의 해당 클래너 직업을 살려 해당사업을 성사시켰을 경우 커종의 이념으
로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일정정도의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 또한 김한칠 회원
의 경우도 자신의 컴퓨터 서비스 사업을 활용하여 서비스 한건당 1,000원액을 기부하기로 하고 서비스 받
은 이들에게도 회원가입의 기회를 열어 놓기로 하였다.

이것은 회원사업의 창조적인 사업 발상이라 할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㉖ 여성정화운동의 팀원확대에 기여

회원소모임인 소파 스타터 모임이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한년도 정화센터의 국방과제팀원으로 활동하게 되
어 국방과제팀원의 인적자원을 갖게 되었다.

2) 과제

㉑ 여성정화운동의 미래는 회원사업에 달려 있다고 하는 회원사업의 중요성을 마련해야 한다.

회원사업은 회원참여센터의 몫이 아니라 여성정화운동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는 참박성을 대표단, 실
무활동가들, 운영위원들 모두 공유하여 회원사업에 대한 총, 장기적인 과제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㉒ 회원사업 담당자가 회원사업을 집중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사업은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는 회원 인적관리에도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사업 담당자가 재직(회계), 총무와 회원을 함께 맡아 회원사업을 예 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㉓ 신입회원들의 정착화를 마련해야 한다.

매월 꾸준히 신입회원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현원수에 상응없이 신입회원 한마당 행사를 매월 개최하여
여성정화운동의 지속화를 위해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계속 가능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마련
해야 한다.

㉔ 회원 및 회원 수업의 확대 마련

신입회원은 꾸준히 약간의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습폭선을 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회원확대를 위하여 평화여성회 차원에서 집중적인 고민이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점을 찾아야 할 것이
다. 또한 회원이 약 400여명 되지만 회비납부 회원은 140여명에 머물고 있다. 회원확대를 위한 개선점 및
회비납부를 위한 동기부여를 마련해야 한다.

㉕ 회원관리의 정교화 마련해야 한다.

활동회원과 재정회원의 구분이 필요하고 회원참여확대를 위한 관리 데이터 마련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회
원으로서의 자부심 및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
화여성회를 쉽게 알릴수 있도록 평화여성회 소개가 담긴 소책자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⑤ 회원참여센터의 소장 및 팀장을 세직야 한다.

지속적인 책임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참여센터의 소장 및 팀장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4) 회의

① 1차 자문회의,

가. 일시, 장소 : 2003년 3월6일(목) 오후 2시, 평화여성회 회의실

나. 참석 : 김숙임, 양세진, 김현희

다. 내용:

- 2003년도 평화여성회 회원참여센터 사업계획 공유 및 검토
- 회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SWOT 분석 및 검토

② 2차 자문회의

가. 일시, 장소 : 2003년 9월17일 오전 11시30분, 송석경 소아

나. 참석 : 양세진, 김현희, 권은주, 송소희

다. 내용 : 상반기 회원사업에 대한 검토 및 회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 각 센터에서 발행되는 행사판플렛 및 자료집등에 회원가입안내를 하도록 해야 한다.

- 회원참여센터가 주관이 되어 각 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회원참여센터와 공유하도록 하여 신탁 회원의 발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회원참여센터 사업일지

2/12(수) 오전 9시	YWCA 100년을 향한 비전, 선례로서의 삶과 운동과 경험 발표. (YWCA 수양관, 김현희)
2/18(화) 오후1시	3.8 여성대회 2차 준비위원회 회의, 청산교육장 (김현희)
2/18(화) 오후3시	최재 인수인계, 평화여성회 회의실 (김현희, 신윤순, 전은주)
2/19(수) 오후7시	원음방송 89.1 라디오 방송 평화여성회 행복동네 사람들 인터뷰(김현희)
2/23(화) 오후 2시	평화여성회 회원사업을 위한 스카프분석, 평화여성회 (김숙임, 김현희, 전은주, 지성혜)
2/27(목) 오후 2시	여성평화재 장소 사전답사 및 심의 추진, 성공관대 새천년기념관 (김숙임, 김현희)
2/28(금) 3/1(토)	2003 시민사회단체 회원사업 Workshop,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김현희, 문명녀, 전은주)
3/3(월) 오전 11시	회원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논의 (김숙임, 김현희)
3/6(목) 오후 2시	회원참여센터 제문회의 (양새진, 김숙임, 김현희)
3/7(금) 오후 2시	3.8 여성대회 준비 작업 (김현진, 김현희, 전은주, 지성혜)
3/8(토) 오후 1시	3. 8 여성대회 참여 (김숙임, 김현희, 김정란, 박수선, 최안진경, 김정화, 박미영, 지성혜, 전은주, 신윤순, 안병선, 이나호, 조영희, 김경수, 고예신, 김현숙, 문명녀, 정현백 18명)
3/15(토) 오전 12시	여성평화재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김숙임, 문명녀, 문영금, 서미숙, 오영인, 이김현숙, 이나호, 김은주, 김현희)
3/18(화) 오전 10시30분	여성평화재 집 긴급이사회 (지하1층 회의장, 김현희)
3/21(금) 오후 7시30분	회원소모임, 오만한 나라 미국 스터디 (김현희, 김수길, 장정숙, 조경훈)
3/23(일) 오전11시~24(일)	오후5시 조화는 목사 원순전지, 강원도 평강군 봉평면 두어 1리(백운동) 하늘다리(조화순 목사님 자택) 1.노들문종과 산언어로 여당 - 3월 23일(일) 낮 12시 ~ 4시, 2.기림예배 - 3월 28일(월) 낮 12시에서 1시
3/25(화) 오후3시	여성평화재 준비를 위한 연술가와의 만남 (김정환연술가, 김숙임, 김현희)
3/27(목) 오전11시	2월 회계감사, 평화여성회 회의실 (신윤순, 김현희)
3/27(목) 오후 2시	평화여성회 소개 인터뷰 , 평통사 소식지 (김현희)
3/31(일) 오후 5시	국정홍보처 프로젝트 제출 '평화대상 만들기', '여성평화재와 여성평화운동리더쉽 개발'
4/2 (수) 오후 2시	여성평화재 연술논의, 성공관대 새천년기념관 (김현희, 연술가 강혜영, 부대감독)
4/4 (금) 저녁7시30분	회원소모임 , 오만한 나라 미국 스터디 (김현희, 김수길)
4/8 (화) 오후 4시	여성평화재 연술논의 , 평화여성회 회의실 (김현희, 연술가 강혜영, 부대감독, 외국어대 모의국제연합)
4/9 (수) 오후 4시	3월 회계감사, 평화여성회 사무실 (신윤순, 김현희)
4/10(목) 오후 5시	3월 회계감사, 평화여성회 사무실 (신윤순, 김현희)
4/11(금) 오전 11시	기업협찬을 위한 대평양과의 만남 (문득일 필장, 대평양 기업문화실, 김숙임, 김현희)
4/11(금) 오후 2시	기업협찬을 위한 진나이 코리아와의 만남 (현양수 실장 - 홍보실, 김현희)

- 4/14(월) 오전 11시 기업협찬을 위한 삼성생명과의 만남 (서성식 차장 , 김현희, 권은주)
- 4/15(화) 오후 2시 여성평화회를 위한 연출가와의 3차회의(김현희, 권은주, 강해영 연출가)
- 4/16(수) 오후 1시30분 기업협찬을 위한 삼성생명과의 만남(서성식 차장 , 김현희, 권은주)
- 4/16(수) 오후 4시 기업협찬을 위한 팔리오와의 만남(윤철아 대리, 김현희)
- 4/17 (목) 오전 10시 기업협찬을 위한 여경과의 만남(유계현 담당, 김현희)
- 4/18 (금) 오후 7시30분 회원소모임 '오만한 나라 미국' 스타디(김현희, 김수길, 장정욱, 조정훈 외)
- 4/24 (목) 오후 4시 여성평화회 대본 기획회의(이길현숙, 김현희, 강해영 연출가)
- 5/9 (금) 오후 7시30분 회원소모임 '오만한 나라 미국' 스타디(김현희, 김수길, 장정욱, 김정희, 박미영)
- 5/10 (토) 오후 2시 여성평화회 피켓 및 관련 업무 집결 (김현희, 지성혜)
- 5/12 (일) 오후3시 여성평화회 집결 및 논의, 여성교회 (사무국, 강해영, 무대감독)
- 5/13 (화) 오전 12시 평화여성회 후원회 준비위원 모임, 설진강 (이길현숙, 김숙임외.)
- 5/14 (수) 오후 6시30분 여성평화회 준비를 위한 사회자와의 만남, 물양가 (이길현숙, 심영희, 김현희, 오소희, 유지나, 강해영)
- 5/16(금) 오후 2시 여성평화회를 위한 자물단 모임 및 준비활동(김수길, 김현희, 무대감독, 김현진, 송소희외)
- 5/17(토) 오후 1시 여성평화회를 위한 자물단 모임 및 퍼포먼스 준비 (김수길, 김현희, 무대감독, 퍼포먼스단, 자물단)
- 5/19(일) 오전 10시 여성평화회를 위한 자물단 모임 및 퍼포먼스 준비 (김수길, 김현희, 무대감독, 퍼포먼스단, 자물단)
- 5/20(화) 오전 10시 여성평화회를 위한 자물단 모임 및 퍼포먼스 준비 (강희정, 송소희, 김현숙, 김현진, 송소희, 김동훈, 최은주, 장정욱, 강지현, 박미영외)
- 5/20(화) 오후 6시 제 6회 여성평화회 “이땅에 평화를” - 평화로운사람, 평화문화가 살아있는 사회, 전쟁없는 한반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 5/26(일) 오전 11시 제6회 여성평화회 평가, 평화여성회 회의실, (사무국)
- 5/27(화) 오전10시30분 어화여대 사회학과 임인영 학생 평화여성회 방문 및 자료조사 (김현희, 임인영)
- 5/30(금) 오전10시50분 국정홍보처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실무자 워크샵, 현양대 생활과학관 7층 (김현희)
- 6/12 (목) 오후 1시 국정홍보처 프로젝트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담론, 평화여성회 (프로젝트 담당 : 김현희, 평가자 : 오현철 박사 - 한양대 제3세대연구소 정치학박사)
- 6/17 (화) 오후 3시 평화여성회 회비확대를 위한 CMS 에 관한 논의, 평화여성회 (김현희, 문명녀)
- 6/28 (화) 오전 11시 평화여성회 회비확대를 위한 CMS 에 관한 논의, 평화여성회 회의실(김현희, 문명녀) - 7월안으로 회원들에게 CMS 전환 요청 권회하기로 하다.
- 6/27 (금) 오후 7시 평화여성회 소파소모임 해소 MT , 경기도 고양시 (김현희, 김수길, 김정희, 장정욱, 조정훈, 박미영, 강지현)
- 7/9 (수) 오후3시 평화여성회 소식지 교정 , 박수선 사무실 (김현희, 박수선)
- 7/7 - 7/11 (금) 평화여성회 회비확대를 위한 CMS전환 가결전환 (문명녀, 김현희)

- 7/18 (금) 오후 소식이 발행 완료 및 회원들에게 소식지 후원발송 완료 (김현희, 송소희 외)
- 8/5 (화) 오후 통일부 등록서류 대표자 명의변경 신청 및 재발행 반송 (홍일부, 김현희)
- 7/30 - 8/1, 8/7 CMS회원신문 가입을 위한 전화요청 (평화여성회 회원전락팀 - 김현희, 문명녀, 송소희)
- 8/13(수) 오후 국정홍보처 프로젝트 중간보고 제출
- 8/14(목) 오전 평화여성회 회원한마당을 위한 장소 물색 (계합과 물 연구소, 임광연수원, 김현희, 송소희)
- 8/22(금) 오후1시 제 1회 평화여성회 회원한마당 세부기획회의 (평화여성회 회의실, 김현희, 진은주, 김수길, 송소희)
- 8/29(금) 오전11시 국정홍보처 프로젝트 중간평가 워크숍 (한양대학교 선소재 공학관 7층, 김현희)
- 9/3(수) 오전11시 제7회 평화여성회 후원행사에 관한 제모임기 (평화여성회 회의실, 황금말음, 김현희, 진은주)
- 9/18(목) 오후 6시 30분 참여연대 9주년행사 '아름추 넓기' (새문на회회관 새문나홀, 김현희, 문명녀외)
- 9/17(수) 오전 11시 회원사업을 위한 자문회의 (평화여성회 회의실, 양세진, 김숙임, 김현희, 송소희외)
- 9/18(목) 오후 3시 Giving Expo 2003 부스설치 설명회 (여성들라자 제5회의실, 김현희)
- 9/24(수) -25일(목) 제3회 시민운동가 한마당 대회 (목포 청소년 수련관, 김숙임, 김현희, 김수길)
- 10/3(금) -4일(토) 제1회 평화여성회 가족한마당 - 내안의 보석을 찾아라 - (바람과물연구소, 평화여성회 회원 약 30여명)
- 10/10(금) -12일(일)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Giving EXPO 2003 (서울여성물라자, 김숙임, 심형희, 김현희, 김수길, 진은주, 지성혜, 최선희, 문명녀, 김현진, 김정화, 임인영, 황순영, 최안진경, 송소희, 박재길)
- 10/18(토) 오후 9시 서울 여성의 전화 길터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오키도키/ 김현희, 김수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국 / 제 / 연 / 대 / 위 / 원 / 회

2003년 활동보고 및 평가

- 위 원 장 : 김정수
○ 담당실무자 : 김현희 조직국장

0. 2003년 사업개요

한반도 통일운동과 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운동을 국제화하고, 국제 평화운동을 국내화하는 인태활동을 강화한다.

○ 사업목표

-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의 지속
- ㉡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계활동과 관계 강화
- ㉢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강화
- ㉣ 국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1. 총평

- 1) 2003년은 북-미 핵공방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활동,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 반대 운동 등이 평화여성회 활동의 중심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역시 이에 맞추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반대를 위한 국제서명 결재인을 전개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서명캠페인을 통해 평화여성회의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 시민사회-평화단체들의 국제연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평화여성회의 국제연대에서의 국내외적 인지도와 위상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캠페인은 여전히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역량이 있는 개인 활동가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보다 조직적 차원에서 국제연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만드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 2) APA 운영위 활동 - 국제연대위원장과 위원의 참여로 Asia Peace Alliance를 통해 한반도 핵위기 상황을 알려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Asia 평화운동의 연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활

동이 평화여성회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머무르는 점이 있었다. 향후 평화여성회 뿐 아니라 APA에 참여하는 국내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활동을 보다 확산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3) ARENA Regional School Workshop

평화여성회와 참여연대 ARENA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프로그램은 9.11 이후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적 세계전략과 대테러 전쟁이 아시아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응하는 아시아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Asia 지역의 젊은 활동가들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의 평화운동의 흐름, 아시아의 현실, 국제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활동가, 실무자들에게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프로그램 초기 준비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취지와 조직관계가 사무국과 충분히 공유,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 합리적 절차의 도입이 향후 국제생사의 주체나 후원자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제연대 전략회의

2003년 초반부 활발하게 진행되던 비해 후반부에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전략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청된다.

2. 사업내용 및 평가

[국제 서명 캠페인]

- (1) 한반도 전쟁위험 반대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인(민중)과 국제사회의 호소문 서명운동
(코디네이터 : 정경란 위원, 실무자: 김수길 간사)

가. 캠페인취지

- 1) 전쟁 발발가능성과 한반도 핵위기에 대한 한국사회의 우려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며, 2)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방안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3)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정착을 위한 단체, 개인 간의 연대망 형성에 기여하며, 4) 6자회담전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한국시민사회와 국제시민사회의 염원을 관련당사국 정상에게 전달하기 위함

나. 시행기간 : 8/10-27

다. 서명운동 경과

- ①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참여연대는 8월 8일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6월사당방, 평화네트워크, 한반도평화국민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게 서명운동 제안단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 ② 8월 11일 11개 단체-녹색연합, 6월사당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반도평화국민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은 <한반도 전쟁위험 반대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인(민중)과 국제사회의 호소문> 국문과 영문을 작성해 국내외 단체들에게 지지서명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호소문은 한반도평화국민회의와 정전50주년조직위의 정전50주년연인 성명서를 토대로 정경란이 작성하여 이현숙, 박순성이 검수하고 김학균, 명호의 요청으로

수정했다. 영문호소문은 이대훈의 번역, 서제정의 수정이 있었다.

- ④ 국제서명은 단체중심으로 받았다. 녹색연합(김타관)과 환경운동연합(명호)은 환경단체를, 6월사랑방(김학규)은 개인서명을, 전국교수노동조합(간사)과 학단협(조희연)은 교육단체와 교수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유명재)은 통일단체를, 참여연대(김상훈)는 시민단체와 참여연대 관련 단체를, 한반도평화국민회의(이태호, 김태완, 김수갑)는 국회의원을, 한국여성단체연합(조영숙)은 여성단체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평화단체와 그외 단체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다. 또한 평화민들거기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베일리스트를 통해 서명작업을 알렸다.

국제서명 요청은 환경운동연합(김민지), 녹색연합(이유진), 참여연대(양영미)가 가진 국제이베일리스트와 평화여성회(김정란)가 가진 학무기 반대 평화단체 국제네트워크 abolition 2000, 국제여성평화단체 WILPF,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에서 구성된 peace caucus, Nonviolent Peaceforce, AFSC 조셀거슨의 이메일 리스트, 그외 평화단체 이베일리스트와 아시아평화연대 이베일 리스트(평화여성회 김정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 ⑤ 8월22일 6자회담 관련 당사국 정상에게 편지(대표 서명: 참여연대 박상광 대표, 평화여성회 이현숙 대표)와 함께 호소문, 서명자 명단을 fax로 전달했다. 캐비레티는 영문 이대훈의 초안을 서제정, 박상광 대표의 수정, 국문 김정란의 초안을 박상광 대표의 수정을 통해 작성하였다. 미국은 맥악관, 러시아는 크렘린, 중국과 일본은 각각의 뉴욕주재 유엔대표부에, 그리고 서울주재 4개국 대사관에 팩스를 보냈으며, 한국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북한은 통일부 승인하에 뉴욕주재 유엔대표부와, 별도로 피스보트(일본)를 통해 북의 반핵평화위와 대외협력위원회, 파스트라나(페데라)를 통해 제네바 북한 대사관에 전달되었다.

- ⑥ 8월 22일 6개국 정상에게 편지와 호소문과 서명자 명단(42개국 162개 단체와 372명)을 보냈다. 2003.9.5 현재 총 43개국 167단체 688명이 서명했다.

지지 서명을 한 단체는 국제단체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과 WILPF 2개/ 지역조직인 군축과 안보를 위한 퍼징양 협체인(PCDS)/ 피스보트(일본),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이 있는 미국단체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등 50개 단체와 국민단체는 여성, 환경, 평화, 인권,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115개단체가 지지서명을 하였습니다. 개인서명자는 한반도평화국민회의에 소속하신 김근태 의원(시민연전주당), 이부영 의원(무소속)을 비롯하여 2000년도에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한 모시헌 그리피스 대학교수를 포함하고 있다.

- ⑦ 8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서명운동과 각국정상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한국의 11개 단체와 지구리 넷 호주지부, 호주 평화위원회, 플루토늄 대신 히로시마, 페지 8월 25일 서울, 시드니, 몽골, 뉴욕 4곳에서 동시에 보도자료를 발송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반대하고 핵분열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를 세계적으로 알렸다. 서명운동에 관한 가사는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통일뉴스에 실렸다.

- ⑧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평화여성회)과 주한미국 하버드 대사(평화여성회와 참여연대)가 호소문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 하버드대사는 다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기여할 것

이라는 데 동의하며, 무시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미국은 외교적 해결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편지를 보냈다. 문희상 비서관장은 호소문이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여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국정운영 광고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알려왔다.

라. 언론보도 : 한겨레신문 8/26, 연합뉴스 8/25, 통일뉴스 8/26

마. 평가

① 시의성: 6자회담 바로 전이므로 외국에서 관심이 많았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서명운동이 있어서 관심을 조기에 얻지 못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짧은 단제가 참여했다.

② 서명기간: 30일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을 설정해 서명을 도왔기 때문에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③ 서명자

- 서명 작업 제안 때 서명대상을 국내는 단체로 제안하고, 외국은 단체, 개인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명이 진행되면서 국내에서 단체와 개인, 국회의원 서명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과 국회의원 서명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 많은 서명을 받지 못했다. 외국서명과 관련 외국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줄 수도 있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서명마감일을 고려해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 서명대상에 대한 정확한 입장정리를 사전에 해야 한다.

- 8월이 휴가기간이고 단체지저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명을 받는 시간이 짧아 외국단체의 지저서명은 적고 개인서명이 다수이다.

외국에서 서명은 8월 20일, 21일에 집중되었고 미국에서는 조셉 지슨의 노력이,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에 코디네이터가 호소문을 일컬어 돌림으로써 미국과 일본에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 각 단체가 관련 국제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룹에 속한 개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 향후 단체중심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그 영향력을 볼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언론 홍보

- 언론홍보에 대한 초기판단 부족

전쟁과정에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문제점은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등 언론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 언론홍보 양식의 문제

기자회견없이 보도자료로 대체해 기자회견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다.

- 국내적으로 4개국 공동보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의 11개 단체와 지구의 몇 호주정부, 호주 평화위원회, 증루토뉴 핵선 허모시마, 매지 2000은 8월 25일 서울, 시드니, 동경, 뉴욕 4곳에서 동시에 보도자료를 발송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반대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를 세계적으로 알렸다. 동경기자회견에 많은 언론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호소문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지구의 몇 호주 정부의 성명서와 비슷한 성명이 한국에서도 발표되었다는 정도로 알려졌다.

⑤ 전체 코디네이션(coordination)

평화여성회가 진행한 코디네이션은 큰 무리가 없었지만 후반 언론홍보에 아쉬움이 남는다.

⑥ 외국단체와 연대

- 4개국 동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외국단체와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한반도 평화관련 외국단체와 향후 연대할 수 있는 도대를 닦는 데 기여하였다.

⑤ 과제

- 서명운동의 결과를 서명단체와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에 대한 내부계획이 필요하다.
- 2차 6자회담을 포함하여 향후 한반도 관련 일정을 정리하여 이 일정에 맞는 한반도평화관련 시민사회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
- 이런 계획안에서 한반도 평화관련 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한 조직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2) “한국전투병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국제사회에의 호소문” 국제서명 캠페인

(이라크파병국민행동 정책기획단 국제연대팀 활동, 정경란: 국제연대팀 간사, 김정수: 국제연대팀 위원)
가. 일시: 9/23 ~ 10/14

나. 내용: 이라크파병국민행동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전투병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국제단체 6개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영국 등 8개국 371개단체, 그리고 개인 149명이 서명을 받았다. ‘지구의 빛’, ‘평화를 위한 헤이그 호소(Hague Appeal for Peace)’, ‘국제화해친우회(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등 국제평화단체와 ‘미국친우봉사회’, ‘피스보트’ 등의 세계각국의 평화단체가 이번 서명에 참여했다. 이 호소문은 미대사관을 통해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10월 16일 청와대 방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다. 주최: 이라크파병국민행동 정책기획단(국제연대팀) 주최, 본 회 국제협력위에서 실무 담당
라. 기타: 한일 전투병 이라크파병 반대 한일, 한러여거-일본 공동선언 발표 정경란 지원

[2005 무력분쟁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

(1) 동아시아 지역모임 참가

가. 일시, 장소: 9/30-10/2 필리핀 다바오시 민다나오섬

나. 참석: 정경란 국제연대위원(갈등해결 센터 연구원)

다. 내용:

- ① ‘국제무력분쟁 방지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제기)을 주제로 Armed Conflict Prevention Conference 2005 개최예정
- ② 네덜란드의 평화단체인 유럽갈등예방센터(European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는 2005년 제네라 유엔본부에서 “무장투쟁 예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목표로 2002년 9월부터 준비를 해왔다. 이 회의는 2001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2002년 5월 시민사회들이 유엔과 함께 갈등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추천서(the Secretary-General's Recommendation 27)에 의거해 그 준비를 시작했다. 9 개월에 걸친 준비기간동안 ECCP는 유럽 뿐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지역에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학자, 유엔과 협의를 통해 각 지역별 연락포인트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2003년 6월 4-8일까지 네덜란드 소세스피타그에서 전세계 60명의 활동가들이 2005년 갈등예방을 위한 국제회의 준비회의(International Preparatory

meeting for 2005 conference on conflict prevention)에 참석해 국제운영그룹(International Steering Group)을 선출하고 각 지역별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10월 필리핀 다바오시에서 동남아시아/중동아시아 지역별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평화여성회, 피스보트(일본), 아레나/아시아평화연대(홍콩)는 동북아시아 모임에 참석해 앞으로 지역협의회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아시아를 분리해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견제 참가자들이 수용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코디네이터로서 아시아평화연대와 피스보트를 추천하였다.

③ 2005 국제회의의 국내 준비 모임

- 가. 1차 12/5 ; 국내 평화단체의 역량 점검, 경험 공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움
- 나. 2차 12/30 ; 실무팀 구성, 2월 동북아시아 지역회의의 전 일정 조정

④ 향후 평화여성회는 국제연대위원회와 갈등해결센터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함

[APA 운영위원회 활동]

(1) APA 운영위원회 참석

가. 일시,장소 : 2월 4주차, 홍콩

나. 내용 : APA 조직 강화를 위한 논의, 아시아 각 지역의 현황, 평화운동 보고, 각 나라 및 지역(동북아, 필리핀-민다나오, 인도네시아, 인도-파슈미크 등) 평화운동의 APA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

(2) 북-미 핵공방을 둘러싼 한반도위기에 대한 APA 성명서 준비

가. 일시: 5월

나 : 내용

- 이라크 전쟁 후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한미정상회담(5월15일)이 개최되어 있어, 노동현 대 통령의 방미 전 APA를 통해 한반도 관련 성명서 발표하는 것을 예정으로 준비.
- 김정수(평화여성회), 이대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준비
- 한반도 핵위기 상황, 한국군 이라크 전 파병 반대 소식들을 APA Network을 통해 알려내고, 국제서명 운동에도 APA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냄

[ARENA REGIONAL WORKSHOP & AGAINST US BASE Int'l Conference]

(1) Asia Regional Exchanges Alternatives(ARENA) Regional Workshop 2003 Seoul 공동주최

가. 일시,장소 : 11/26-30, 한국 노동 교육원

나. 내용 :

- 주제: 9.11 이후의 아시아: 미국의 전쟁에 대한 대안
(Asia after 9.11: Alternatives to the American War)
- 목적:

① 미국의 대테러전쟁(the US War on terrorism)과 관계된 개념, 언어, 상황에 대한 정의와 아시아의 상황에서의 총체적 비판을 시도함

- 나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전략적 목표에 대한 분석과 비관적 사회운동을 이끌어냄
- ni 아시아 각 나라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현실을 분석하고 경험을 나눔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다양한 아젠다들의 결합시키고자 하는 반성을 이끌어냄
- ni 대테러전쟁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재구성할 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지역에서의 해제모니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전략을 수립함
- ni 움직임들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는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

다. 프로그램

- 1부: 미국의 대테러전쟁
 - '테러리즘' 용어, 테러리즘이란 용어가 사용된 다양한 상황, '적'의 형성 등에 대한 재규명
 - 미국이 전개하는 전쟁의 배경에 대한 전략 분석 (미제국과 부식독트린의 형성과정)
 - 대테러전쟁의 결과
 - 각국의 상황 공유(오지나카, 한국, 인도, 네팔나오,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 사회운동의 아젠다와 실현의 수단 - 공동의 아젠다 수립을 위한 연대 논의
 - 대안모색
 - 현재까지의 운동의 대응과 비판들에 대한 반성 -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한 보고
 - 새로운 담론 형성의 모색
 - 전략과 연대모색
- 사회운동가들을 위한 아젠다
 - 사회운동가들이 대테러전쟁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공동의 메시지를 이끌어냄
 - 아젠다에 대한 후속프로그램 계획안 마련
- 활동가들의 활동계획 발표
- 한반도와 미국
 - 한국의 사회(평화)운동의 상황에 대한 분석
 - 한국사회운동단체 방문 등

라. 참석 : 국내 24, 국외 15

평화여성회: 심영희 대표(주최단체 대표 인사), 정경란 위원(한국상황 발표), 김정수위원장, 김수경 간사(실무전담), 김현희,저성희 간사(프로그램 총괄)

(2) 미군기지 반대 세계 대회 후원

가. 일시, 장소 : 12/1-2, 한국여성개발원

나. 참석 : 김정수, 정경란, 김수경

다. 내용 : 환경문제, 기저재해지에 따른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 각국이 미군과 체결한 조약의 개정문제 등 각국의 미군기지 상황 공유 및 공동행동 방향 논의

[국제 연대 전략회의]

(1) 국제연대 전략회의 1차

가. 일시, 장소 : 2월 6일(목) 오후5시, 여성연구소

나. 내용 : APA 회의 보고, 3.1 반전국제회의 보고 및 공유, 3.15 집회 관련 논의 등

다. 참석 : 김정수, 정경란, 사무처

(2) 국제연대 전략회의 2차

가. 일시, 장소 : 3월 6일(목) 오후5시, 여성연구소

나. 내용 : APA 회의 보고, 3.1 만민국제회의 보고 및 공유, 3.15 집회 관련 논의 등

다. 참석 : 김정수, 김숙임, 김말리, 전은주

(3) 국제연대 전략회의 회의 3차

가. 일시, 장소 : 7/22 4시 참여연대

나. 참석자 : 평화여성회(김정수, 김수진), 참여연대(양일미)

다. 내용 :

- 참여연대 양일미간사 '2005 분쟁방지 국제대회 준비모임'(International Prelatory meeting for 2005 conference on conflict prevention) 출장 보고 / 한국평화단체 연합수준, 방식 등 논의

(4) 국제연대 전략회의 4차

가. 일시, 장소 : 7/30 17:30-19:30

나. 참석 : 평화여성회, 다함께, 자몽원, 아시아사회연대, 평화시민연대, 이라크연평화탑 각1-2명 참석

다. 내용 : 자카르타 국제회의, 2005 국제 대회 참가 보고 및 9.27 행사, 학문계 평화적 해결 국제 서명 논의

(5) 국제연대 전략회의 - 유디스 르 블랑과의 간담회

가. 일시/장소 : 8/11 13:30-15:30, 여성교회

나. 참석 : 박준, 최용환외 1명(다함께), 김송국, 김정수

다. 내용 : UFPJ 활동 소개,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미국 내 연대 활동 보고□질의

[개인, 단체 교류]

(1) 캐나다 Alternative의 실무자와의 만남(김정수)

가. 일시: 3월 29일(금), 장소: 느티나무작업

나. 내용

- Alternatives라는 캐나다 NGO는 전세계 35개국의 시민단체와 연대를 가지면서 교육, 대한적 website portal 운영 등을 통해 세계화, 발전, 평화 문제등을 다루고 있는 단체.

- 평화여성회는 홍콩의 ARENA와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를 통해 소개받음.

- Alternatives가 개최중인 website를 통해 전세계 시민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network을 구축하고자 함.

- 평화여성회도 함께 참여하면 한반도 평화운동 소식을 국외에 전달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Alternatives에서 전반적인 계획안을 보낼 예정

(2) UFPJ(United for Peace and Justice) 활동가 유디스 르 블랑(Judith Le Blanc)대방,

가. 일시, 장소 : 8/11 10-13시, 김정수, 사무국

나. 내용 : 평화여성회 활동 소개, UFPJ 활동내용, 미국내 반전활동 소식 공유

(3) 아레나 본부(홍콩)소속 안자니(Anjan) 대방

가. 일시, 장소 : 9/17 평화여성회

나. 참석 : 국제연대위원 정경란, 사무국 직원

다. 내용 : 평화여성회 활동 소개, 아레나 2003 지역 워크숍 관련 업무 협조 사항 확인

(4) 이, 브라운 대학 교수 캐서린 루츠(Catrz) 대방, 의견 교환

가. 일시 : 10/27 14시

나. 장소 : 본 회 회의실

다. 참석 : 정경란, 사무국

라. 내용 : 평화외교, 안보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남북여성교류 등에 관해 논의 예정

(5) 전직 미 외교관 해리 반즈(Harry Barnes) 내방, 의견 교류

가. 일시 : 10/

나. 장소 : 본 회 회의실

다. 참석 : 김정수, 정경란 국제연대위원장, 사무국

라. 내용 : 대북 관련 국제 정세, 남한 NGO의 대응 등 논의예정

[연대행사(참가)]

(1) ASF(Asia Social Forum)

가. 일시,장소 : 1월중순, 인도 하이데라바드

나. 참석 : 김정수 국제연대위원장

다. 내용 : Peace and Security Conference 주제발표(김정수)

(2) 2003 World Conference against A and H Bomb(수소, 핵 폭탄 반대 세계대회)

가. 일시, 장소 : 8/3-9, 일본

나. 참석 : 이길현속 대표

(3) 국제 평화교육학회(International Institute On Peace Education(IIPED2003) :

가. 일시, 참석 : 8/8-10

나. 참석 : 이길현속 - 3일차 포럼 진행(Penary Panel B: "Militarism, Conflict and Prospects for Peace i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정경란, 김정수, - 일반참가

김현희, 이성혜, 김수길, 송소희 - 2,3일차 OpenForum 참가

(4)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며 재일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육,시민 단체 비상대책 협의회(가칭)간담회

가. 일시, 장소 : 9/8(월) 노디나루 카페

나. 참석 : 김수길

다. 내용 : 재일 민족교육 기관/교육수혜자에 대한 일본의 탄압에 대해 남한사회의 부지/무관심에 대해 문제제기, 일본의 우경화 문제/재일민족교육탄압문제 - 운동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동 논의후 공동성명 발표(9월 17일)

(5) PNND(Parliamentary Network for Nuclear Disarmament, 핵무기감축의원내외국)지지서명

가. 서명 : 9/9(화) 이길현속 공동대표 명외, Fax/E-mail 발송

나. 지지절차 : 25차 사무국 회의(9/8)

(7) 북핵 평양선언 1주년 기념 글자만들기 '어깨동무=友' 연대

가. 발송일 : 9/16 이메일 발송(피스보트 김명하에게 발송)

나. 내용 :

① 9.17평화글자만들기 실행위원회의 주최 행사에 대한 연대사 발송(정경란작성)

북핵 평화선언 1주년을 맞아 9.17 저녁 촛불과 함께 '어깨동무' 글자 만들기 행사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그 취지에 공감하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이 행사에 동참합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여성들은 일본에서 폭일 사이에 불신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여대동무들끼리 행사에 노력하는 일본 시민에게 감사와 연대를 보냅니다.

전쟁과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을 믿으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② 행사개요

- 취지 : 조일 평양선언 기념, 발전적 한일관계수립, 동아시아 평화 기원
- 주최 : 9.17 평화결자만들기 실행위원회(대스나우코리아재원)
- 시간/장소 : 9/17 저녁 일본 영치(메이지)공원
- 내용 : 917 명의 사람이 '여대동무' 다섯 글자를 촛불로 만들

(8) 원수금 주최, "한반도에 비핵/평화를 일조국과 정상화를 촉구한다"일본 평화집회 참가
가. 일시/장소 : 10/7-10, 일본 각지(장소미확인)

나. 참석 : 김숙임,심영희 대표(?)

다. 내용 : 원수금의 발원 요청으로 본 회 대표 파견

(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석

가. 일시/장소 : 10/5-8 서울 코네상스 호텔

나. 참석 : 심영희 대표

다. 행사개요 :

① 주최 : 여성부, 매일경제신문사

② 주제 : 주류화와 자녀교육

(10) Women Waging Peace 프로그램 참석

가. 일시 : 11월 1일-11월 7일, 미국 케임브리지 찰스 호텔 및 하버드대학 케네디정치학교

나. 참가 : 정경란 갈등해결센터 연구원

다. 내용 : "갈등현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Women Waging Peace의 프로그램과 하버드 대학 케네디정치학교의 Women and Public Policy Program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과테말라, 브룬다 등 분쟁지역의 여성들이 참석해 분쟁 지역의 상황에 대해 정보 및 문화를 교류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 1325 결의안의 의미와 각국의 적용, 협상 방법, 리더십 훈련 등을 하고 미국정부 관리, 유엔 관리, 국제기구 관리 등과 대비하는 방법등을 배웠다.

(11) 제5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

가. 일시, 장소 : 12/19-22, 홍콩 Baptist University

나. 참가 : 심영희 대표(위크샷 주제 발표자-여성과 평화)

다. 내용 : "새로운 도전 끌어안기 : 궤동하는 여성들(Embracing Challenges : Women in Action)" 주제와 3박 4일 일정

[기타]

- (1) 계획 / 미실시 : 국제여론 형성을 위한 이메일서비스(팀) 운영
(여성부 2003공동협력사업: 프로젝트 (영역: 여성외 정치참여확대))
가. 일시 : 정기적인 이메일서비스 제공(예, 격월 1회)

나. 목적 :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국제 여론을 조성한다.
- 국제여성들의 지원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온라인네트워크 활동 전개

다. 내용 :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별 주제에 대하여 소식을 전하여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는 이메일 서비스 활동, 평화와 통일에 관련한 여성계의 주요활동과 여성전문가들의 정책제시 활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한반도문제를 국제화 함.

라. 방식 : 월 2회 한반도 상황과 시민사회 활동을 미국과 유럽, 한반도 주변국들의 여성민화NGO와 각 정부, 의회 등에 발송 및 여론화(일본 예외)

- (2) 유엔 젠더 데이터베이스(UN Gender DB)등록 서류 제출

가. 제출일 : 9/17, e-mail 발송, 9/18 접수확인(UNDP 서울사무소 이옥순)

나. 내용 :

- ① 8/28 UNDP 한국사무소 요청에 대한 회신 (DB구축목표 :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인브리 질의안 1325에 따라, 유엔 안보리 및 유엔 기구의 정책 수행시 활용.)
- ② 본 회 활동영역, 설립년도, 직원 및 회원 수, 국제포럼 참가 이력 등 기록 후 제출(정보간사 발송 질에 관련 기록 유지)

○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일지

- 2/6(목) 17시 국제연대 전략회의, 여성연구소
- 3/6(목) 17시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여성연구소(김정수, 김숙임, 김일리, 전은주)
- 3/29(금) 캐나다 Alternative의 실무자와의 만남, 느티나무마을(김정수)
- 4/28(월) 17시 ARENA지역학교 준비회의, 참여연대(김정수, 김수일)
- 5월중 북-미 핵공방을 둘러싼 한반도외교에 대한 APA 설명서 준비
- 8/4(월)-10(일) 국제평화교육학회 (International Institute On Peace Education:IPE2003) 참가, 아태국제이해교육원(정경란,김정수,이현숙)
- 8/2(토) 2003 World Conference against A and H Bombs(원수독반대세계회의) 참가 (이현숙)
- 8/3(일)-9(토) 2003 World Conference against A and H Bombs 참가(김귀옥)
- 7/22(화) 16시 국제연대 관계 단체 회회, 참여연대(김정수, 김수일)
- 7/30(수) 17시 국제연대 전략회의, 여성연구소(김정수, 김수일)
- 8/11(월) 10시 줄디스 로 블랑(Judith Le Blanc)-UFT(United for Peace and Justice) 운영위원 대담 평화여성회 소개, 사무국(심영희, 김정수, 사무국)
- 8/11(월) 13시 한국 평화운동가와 줄디스 로 블랑과의 간담회 개최, 여성교회(김정수, 김수일, 다함께, 김송국)
- 8/10(월)-27(수)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서명 캠페인(정경란,김수일)
- 8/29(금)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FCNL) 카린 러의 방문,회의실, (심영희,김정수,사무국)
- 9/8(월) 17시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며 제일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육,시민 단체 비상대책 협의회'(가칭)간담회, 느티나무 하회
- 9/18(목)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며 제일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육,시민 단체 비상대책 협의회' 설명서 발표-제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행위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 9/9(화) FNND(Parlimentary Network for Nuclear Disarmament,핵무기감축의원네트워크)저지서명
- 9/30(화)-10/2(목) 분쟁일지 2008 세계대회 동아시아 지역 준비 모임 참가, 필리핀 다바오 민다나오 (정경란)
- 9/16 (화) 독일 평양선언 1주년 기념 글자판틀기 '어려둥무=友'(프리스보트) 연대
- 9/17(수) 아레나 본부(홍봉)소속 안자니(Anjani) 대담, 사무국, (정경란, 사무국)
- 9/17 (수) 유엔 젠더 데이터베이스(UN Gender DB)등록 (김수일)
- 10/7(화)-10(금) "한반도에 비핵/평화를! 일조국교 정상화를 촉구한다"(원수금 주체), 평화집회 참가, 일본, (김수일)
- 10/5(일)-9(수) 새재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석, 서울 프네상스 호텔, (심영희)
- 9/29(화)-10/14(화) 한국 전투병 이라크 파병 반대 국제 서명 캠페인(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국제 연대 분과 실무 담당) (정경란, 김정수, 김수일)
- 10/23(월) 14시 미, 브라운 대학 교수 캐서린 루츠(Cate) 대담, 의견 교환, 사무국 (정경란)
- 10/31(월) 14시 진지 맥 외교관 해리 번즈(Harry Barnes) 대담, 의견 교환, 사무국 (정경란, 김정수, 사무국)

- 11/26(수)-30(일) 아레나 지역 워크숍 공동 주최, 한국 노동 교육원, (심영희, 김정수, 정경란, 김수길, 김현희, 지성희)
- 12/1(월)-2(화) 미군 기지 반대 국제 회의 후원, 한국 여성개발원, (김정수, 정경란, 김수길)
- 12/5(금) 2005 무력분쟁 예방 국제대회 한국 준비 모임 1차 주최(정경란, 박수현, 김수길)
- 12/9(화) 일본여성회리중앙본부(Japan Women's Council)에 신년(연대)사 발송(공동대표 김숙임 명지)
- 12/19(금)-22(월)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 홍콩 (김숙임, 심영희)
- 12/22(월) 2005 무력분쟁 예방 국제대회 한국 준비 모임 2차 주최(김정수, 정경란, 김수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3년 활동보고 및 평가

0. 구성

- 이 사 장 : 김윤옥
- 이 사 : 김윤옥, 박분이, 윤영애, 이문우, 최민자, 최영실, 류춘도, 정현택
- 원 장 : 김귀옥
- 연 구 원 : 정현택, 박현선, 윤덕희, 장남덕, 이금순, 김영미, 김경수, 정경란, 안정애, 윤여영, 김정민
- 담당실무자 : 김수림

0. 사업기조

그동안 여성평화운동의 활동의 기반하여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그 연구 결과 또한 보다 광범위한 여성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 사업목표

- ①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한다.
- ② 현실가능성을 검토하여 <여성과 평화>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③ 연구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평화, 통일 전문가 여성인력들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메뉴얼 개발과 연구사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1. 사업보고 및 평가

(1) 평화포럼회

가. 일시, 장소 : 3월 12일(수) 오후6시~9시, 평화의길 지하 강당

나. 내용 : 북핵 위기 및 북미공방을 둘러싼 정세토론 및 정보공유 등

다. 주관 : 여성평화연구원

라. 내용 : 발제(홍승희 정세대응팀장)

마. 참석 : 김경수, 정경란, 김현희, 김윤옥, 류춘도, 김귀옥, 이김현숙, 홍승희, 박수선, 윤여영, 지성혜, 문명녀, 김숙임, 학생, 전은주

(2) 여성과 평화 3호 발간

가. 수록 내용

발간사 여성과 평화 3호를 내어	김광복
머리말 전쟁과 여성: 여성의 힘으로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을	김귀옥
시사와 조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라크 미군과 평화	김영희
여성의 삶과 대군의 그림자	이정희
여성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국방현실과 전쟁	만정애
특집 : 전쟁과 여성	
남전문화 속 여성의 침묵과 기억의 정치화	조 은
전쟁이 끝나도 여성에게 평화란 없다: 1953년 <i>'전쟁미망인(戰爭未亡人)'</i> 의 삶을 중심으로	이윤희
이슬람 여성과 전쟁	오은경
해외여성: 삶과 정체성	
조선적으로 산다는 것	김영
시평	
이혼과 살인 속의 민족과 페미니즘: <i>장미의 고백과 장미나눔의 서문</i>	연부
침묵의 복원, 또 다른 역사 쓰기: 조 은 <i>다문화로 가는 길의 서문</i>	황
기획논문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남북 여성 교류의 과제: 2002 남북여성합의회를 중심으로	김귀옥

나. 출간사항

발행일 : 2003.12.31

발행부수/현재형태 : 400부, 마스터인쇄(150부 당대에서 배본, 250부 평화여성회 사무처에서 보급)

ISSN : 1599-5623 05

(3) 여성과 평화 2호 판매 및 보급 현황

가. 당대 마케팅 보고서

업고 200부 (2002년 5월 23일)

배본 170부(추가주문40부)

반종 140부

성원대부수는 50부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나. 연구원 및 평화여성회 사무국을 통한 판매 및 보급

업고 300부

판매 6부(2003년, 2002년은 기록없음)

재고 80부

○ 한반도평화센터 일지

- 3/12(수) 18시 월례평화포럼회, "북핵 위기 및 북미군방을 둘러싼 정세포론 및 정보공유", 여성교회
- 6/16(월) 15시 여성평화연구위원회, 여성과 3호 편집방향 및 프로젝트 수행, 성균관대학교
- 11/18(화) 13시 여성과 평화 3호 편집회의, 성균관대학교
- 12/22(월) 12시 여성평화연구원 송년회, 한정식점 석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정 / 보 / 사 / 업

2003년 활동보고 및 평가

○ 담당자 : 정보 간사 김수길

0. 사업기초

사이버 시민 사회 확대에 따라, 사이버 평화 운동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제로서 파악되고 있다. 사이버 평화 운동의 영역은, ①물목집 다수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평화 운동 확산, ②회원 및 특정 방문자(기자 등 자료확박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및 활동내용 제공, ③평화 운동 단체 간 자료 및 의견 공유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정보사업은 상기 3개 영역을 실행화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다음의 하위 목표를 찾는다.

○ 사업목표

- ① 3개 영역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
- ② 신속한 소식, 자료 업데이트
- ③ 방문자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시행

1. 출제

○ 성과

- '정보 사업 영역' / '사이버 평화운동'의 자리매김

: 정보사업의 기초와 구체적인 목표 없이 막연하게 운영하던 기존의 홈페이지 부문을 '정보사업'이라는 독자적인 업무 영역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1) 상기 분류는 학술적으로 논리 된 것은 아니며, 평화여성회 정보간사의 업무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것임.

○ 과제

- 수록 자료의 재제화, 총괄 검색 시스템 제공

: 사진(경지영상), 비디오(동영상), 글(기사, 성명, 보도자료, 일반 게시물 등)등 홈페이지 보유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수록 자료 검색 시스템 제공, 자료 수록 기준, 양식 재제화하여야 한다.

- 독자적 웹 프로그래밍 능력 개발

: 빠르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자료, 시스템 제공을 위한 정보사업 영역의 프로그래밍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하드웨어 구축

: 케일링 시스템, 웹 호스팅등의 비용문제와 문제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하드웨어 독립이 요구된다.

- 사이버 평화 운동의 확산

: 일원화 사이버 평화 운동의 역사를 일구고, 개념을 정립하여, 사이버 상의 평화운동 전환을 창출, 확산한다.

3. 사업보고 및 평가

1) 사이버 캠페인(사이버 평화 운동 확산)

(1) 지역구 국회의원 파병반대 이메일 발송

가. 시행기간 : 10/23 - 진행중(24일 현재)

나. 주최 : 평화여성회 한반도 평화 센터, 오마이 뉴스

다. 시스템 개요

> 계 발 : 오마이 뉴스 웹마스터 팀
> 개발 기간 : 10/18-23
> 메인페이지 : "http://www1.chmynews.com/peace_event/assembly_mail/default.asp?"
> 사용이미지 : 3개 (610*150, 553*65, 150*100)
> 시스템 흐름도
- 메인 페이지 접근 → 의원 선택(지역구 의원 선택 가) → 파병 찬반 여부 팝업 표시(<confirm>"> 활용) → 클릭 시 메일 발송 팝 오븐 → 발송자 정보 입력 → 메일 발송 → 메일 발송 내용 DB table 자동 기록 유지 → DB table 일괄

평가 1) 사이버 캠페인

○ 성과

- '사이버 평화 운동 확산'이라는 정보사업 무분란의 독자적인 영역 구축 사례가 됨

○ 과제

-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사업 부문 자체 웹 프로그래밍 능력 개발이 필요함

2) 본 사업은 한반도 평화센터 주도 사업이며, 상기 기술 및 평가는 정보사업 영역에 초점을 맞춘 것임.

2) 홈페이지

(1) 구조 변경, 기능 신설(소프트웨어 환경 구축)

가. 온라인 관련 현황

① CNAME

CName	개설일	경로	url
www	02/04/19	/main	www.peacewomen.or.kr
arena	03/04/25	/main/arena2003	arena.peacewomen.or.kr
antiwar	03/10/08	/main/antiwar	antiwar.peacewomen.or.kr
staff	03/06/30	/main/staff	staff.peacewomen.or.kr
english	03/11/03	/main/english	english.peacewomen.or.kr

② Mailing List 현황

List 명	개설일	경로	용도
wmp	03/05/30	wmp@list.peacewomen.or.kr	회원 뉴스레터 발송용
staff	03/05/30	staff@list.peacewomen.or.kr	사무국 자료 공유용
wmpnews	03/10/29	wmpnews@list.peacewomen.or.kr	국제 뉴스레터 발송용

③ 주요 DB table 현황

일상명칭	게시물 수 (등록 자료 수)	시스템 명칭
평화여성커뮤니티	86	zetyx_board_pmc
김동혜결커뮤니티	19	zetyx_board_crc
어종생 커뮤니티	14	zetyx_board_mgc
열린 게시판	76	zetyx_board_open_board
메인 기사	84	webzine
공지/언론/성명	479	news
사진첩	132	zetyx_board_album

3) 소유 도메인 현황

도메인명	등록일	만료일
peacewomen.or.kr	02/04/19	04/04/19
peacewomen.com	01/05/30	05/05/30

나.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① 사업 필요성

가) 대부분의 사용자가 가로(폭) 기준 800px 모드를 사용하므로 800px 이후의 게시물은 심플해
광고 효과를 내기 어려움 (800px로 페이지 너비를 맞추기)

나) 커뮤니티 상 불량 게시물의 증가로 사용자의 불편감 조래는 물론, 관리상 어려움 발생 (계

3) 'canonical name'의 존재로, 도메인 소유자가 부여할 수 있는 2차 도메인을 탈함

시물 필터링 필요)

iii) 홈페이지 상 센터 제재 개편 뒤 반영 (센터 비비게이션 바/센터 페이지 신설 필요)

iv) 수치 전행사업 홍보를 위한 사이트 및 기타 페이지 개편(arena, staff, antiwar, 활동목표, 홍보대사, 사진첩)

② 사업 결과

1) 800px 이하로 메인 페이지 수정

- 대비게이션, 기사 2단 제재 → 대비게이션, 기사, 공지 등 3단제제로 개편

- 800px을 벗어나는 배너들은 '공지' 상하로 조정

- 2단 전체를 차지하는 '기사 란'의 폭 조정(이미지 조정 및 'han_substr' 함수 활용 전담

조 내용 자체 축소)

ii) 필터링 가능 게시판 신설(실용 제로보드 도입)

- 커뮤니티 활용 빈도수가 높은 갈등해결, 심성 2개 커뮤니티의 DB table을 제로보드 DB

table access: 프로그램으로 교체

- 자료 변환(구 게시판에서 신 게시판으로 이동)은 수작업 진행(copy & paste)

- 자료 검색 및 필터링 댓글 달기를 가능 신선했

- 기존 홈페이지 당락과 달리 2단 프레임 형식 사용으로 커뮤니티별 페이지 신규 생성

iii) 센터별 페이지 구축

- 센터별 5개 페이지 신설(파, 우 프레임 분할에 따라 총 15개 페이지 작성)

- 각 센터별 DB table 추가

- 홈페이지 좌측 비비게이션 바 신설(160*190px)

iv) 사이트 신설(arena, staff, antiwar) 및 페이지 신설(활동목표, 홍보대사, 사진첩)

- 원시 사업 특화에 따라 사이트 신설 및 Cname 부여

. arena : 2단 프레임 no image

. staff : 2단 프레임, 1개 DB table, no image (항후 인프라넷으로 확장변환)

. antiwar : no 프레임, 2개 DB table, 2개 image

. 활동목표: 정화여성의 활동 목표 페이지 추가

. 홍보대사: 홍보대사(이경원)영입에 따른 페이지 추가 및 링크 생성

. 사진첩: 기존 '사진으로 보는 평화'페이지 유명무실해 따라 제로보드 이용 갤러리 DB

table 생성

다. 센터별 도입/배너 게시 편도

구 분	항 목	번 도	견 영
공 통	강의	1	- 8월전후 1회로 전체회의를 주관
	대내	2	- 8월과 10월 - 8월과 10월
한반도평화센터	강의	3	- 412 국제 인권 공동행동 - 412 국제 인권 공동행동 - 412 국제 인권 공동행동
	대내	3	- 412 국제 인권 공동행동 - 412 국제 인권 공동행동 - 412 국제 인권 공동행동
일상평화센터	강의	5	- 평화실현을 위한 2차 - 평화실현을 위한 2차 - 평화실현을 위한 2차
	대내	3	- 평화실현을 위한 2차 - 평화실현을 위한 2차 - 평화실현을 위한 2차
갈등해결센터	강의	1	- 갈등해결교육자료집
	대내	0	
외원참여센터	강의	2	- 여성평화교육 - 여성평화교육
	대내	1	- 여성평화교육
국제협력위원회	강의	0	
	대내	1	- 국제협력위원회
연 대	강의	0	
	대내	1	- 연대회의
계	강의	8	
	대내	9	

평가 2) 홈페이지

○ 성과

- 정보간담회 주무 보직자 확충으로 홈페이지 관리 영역의 기초 필요 해결
- 3월 국내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 4xxxx등에서 10.27 현재 29,705등으로 방문자 수 완만한 증가
-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가독성 향상
- 대내, 팝업 등 지원으로 센터 활동의 원활한 소개

○ 과제

- 일일 방문자 수 확인 등 방문자 접속 프로그램 설치
- 회원 커뮤니티 활성화등 방문자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시행
- 사이트 디자인 기능 등 최근 추세 반영
- 활동 소식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본문, table 개설

○ 정보사업 사업일지

- 03/28(금) 홈페이지 뒤로 돌아가는 비둘기 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수정
- 04/10(목) 412 국제 반전 공중행동 캠페인 팸 게시 500*400px
- 04/10(목) 반전평화음악 듣기 버튼 160* 90px
- 04/25(금) 아래나 홈페이지 개편 (<http://arena.peacewomen.or.kr>)
- 04/25(금) 여성평화제 팸업 팸 게시 230*350px
- 04/28(일) 아래나 버튼 게시 160*90px
- 05/09(금) 여성평화제 캠페인 팸 2차 게시 400*600px
- 05/29(목) 평화심성훈련 2차 팸업 팸 게시 400*600px
- 06/13(금) 평화심성훈련 강좌 2주차 팸업 팸 게시 500*250px
- 06/20(금) 평화심성훈련 강좌 3주차 팸업 팸 게시 500*250px
- 06/26(목) 3격제 3집이 버튼 게시 2개
- 06/27(금) 평화심성훈련 강좌 4주차 캠페인 팸 게시 500*250px
- 06/30(일) 메인페이지 왼쪽 센터별 내비게이션 메뉴 활성화
- 06/30(일) 회원/실무자 매일릴 리스트 구축 :
wmpilist.peacewomen.or.kr/staff/@list.peacewomen.or.kr
- 06/30(일) 실무자를 자요일 개설 : <http://staff.peacewomen.or.kr>
- 07/08(화) 신도리코 LP7900e 프린터 구매 / 설치 : 레이저 20ppm급
- 07/10(목) 커본 단말기 추가 구매 / 설치 : '삼성 SP-F213K' 1기
- 08/11(일) 온라인 매일릴 리스트 등록 오류 수정(전보넷 > 평화여성회 리스트)
- 08/11(일) 커뮤니티 중 '8기 아카데미' 게시판 삭제
- 08/11(일) DB table Direct Access 페이지 개편
<http://www.peacewomen.or.kr/~hjang/MyOwnPhp>
- 08/28(목) 불량 게시를 삭제 관련 게시판 운영 원칙 변경
- 09/04(목) 대인자의 버튼 부착 160*90px
- 09/18(목) '단체소개' 페이지의 메인 이미지 교체(서양여성>대표3인)
- 09/19(금) 회원 한아당 캠페인 팸 게시 370*600px
- 09/19(금) 홈페이지 상, '활동목표' 페이지 신설200*70px
- 10/01(수) 홍보대사 이정현 소개 페이지 개설, 버튼 부착
- 10/02(목) 불량 게시를 줄기에 따른 게시판 교체(기존 게시판 > 제로보드 게시판)
- 10/06(일) 기밀엑스로 버튼 부착 160*90px
- 10/08(수) 파벌반대 페이지 개편 <http://antiwar.peacewomen.or.kr>
- 10/08(수) 파벌반대 페이지 파로가기 버튼 부착 180*85px
- 10/09(목) 파벌반대 범국민 행동 페이지 버튼 부착 150*40px
- 10/09(목) 사이트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변경(네네 모음란 좌측 하단 > 우측 상단이동)
- 10/30(금) 평화여성회 6주년 홍보 비디오 홈페이지 연동, 홈페이지 좌측 하단, 178*144 px
- 10/21(화)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변경(가로록 1024px 3단 체제 > 가로록 800px 3단 체제,)
- 10/22(수) 파벌반대 2차 범국민 행동의 날 팸업 팸 게시 600*700px
- 10/23(목) 국회 파벌 결의 제지 온라인 운동: 국회의원에게 파벌반대 매일보내기 게시
- 11/3(일) 영문 홈페이지 연결 2차 도메인 신설 <http://english.peacewomen.or.kr>
- 10/29(일) 국제 연대 매일릴 리스트 개설(wmpnews/wmpnews@list.peacewomen.or.kr)

- 11/5(수) 열한 게시판, 불량 게시물 필터링 가능 게시판으로 교체
(/zerobbs/zboard.php?id=open_board), 기존 게시판 삭제
- 11/7(목) 정기 소식지, 과월호 홈페이지 등록(메인>회원참여센터>정기소식지)
- 11/13(목) 3차 과평반대 병국연행동 팝업 창 제작
- 11.18(화) 평화여성회 홍보 애니메이션 배너 제작 게시
- 11.18(화) 메인서버 크래킹(웹서버, 이메일서버, ftp서버등 모든 자원 마비), 19일 오전 복구
- 11.19(수) 여성평화아카데미 홍보 팝업 창 작성 게시 315*455px
- 12/23(화) 강동해결 센터, 보안개발 자료집 홍보 애니메이션 팝업 창 제작, 게시
- 12/24(수) 이집현숙 상임대표 민족화해상 수상 홍보 팝업 게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처 업무일지

1. 회의

1) 이사회

1/27(월) 오후 6시

정기이사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3/31(월) 오후 6시

정기이사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2) 운영위원회

3/12(월) 오후 3시

제 1차 정기운영위원회, 여성연구소

4/11(금) 오후 4시

제 2차 정기운영위원회, 청산교육장

5/16(금) 오후 3시

제 3차 정기운영위원회, 여성평화의 집 지하 강당

7/10(목) 오후 3시

제 4차 정기운영위원회, 여성연구소

8/28(금) 오후 3시

제 5차 정기운영위원회, 여성교회

3) 총회 준비위원회

10/29(수) 오후 2시

제 1차 총회준비위원회, 여성연구소

11/12(수) 오후 6시

제 2차 총회준비위원회, 여성교회

12/3(수) 오후 6시

제 3차 총회준비위원회, 여성교회

12/15(월) 오후 6시

제 4차 총회준비위원회, 여성교회

3) 사무처회의

2/14(목) 오전 10시

제 1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2/20(목) 오전 10시

제 2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3/7(수) 오전 10시

제 3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3/10(월) 오전 10시

제 4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3/17(월) 오후 4시

제 5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3/24(월) 오후 4시
 4/7(월) 오후 3시
 4/17(목) 오후 1시
 4/22(화) 오전 10시
 4/29(화) 오후 1시
 5/12(월) 오후 3시
 5/26(월) 오후 11시
 6/2(월) 오후 11시
 6/10(화) 오전 10시
 6/27(7) 오? ?시
 6/24(화) 오후 1시
 6/30(월) 오후 4시
 7/8(월) 오후 1시
 7/14(일) 오후 4시
 7/21(월) 오후 3시
 7/28(일) 오후 4시
 8/12(화) 오전 10시
 8/19(화) 오후 1시
 8/27(수) 오후 2시
 9/8(월) 오후 1시
 9/15(월) 오후 3시
 9/29(월) 오후 4시
 10/13(일) 오후 4시
 10/21(화) 오후 2시
 10/28(화) 오후 2시
 11/4(화) 오후 4시
 11/10(일) 오후 4시
 11/17(월) 오후 4시
 11/24(월) 오후 10시
 12/08(일) 오후 2시
 12/15(월) 오후 4시
 12/29(일) 오후 2시

제 6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7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8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9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0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1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2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3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4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5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6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7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8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19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0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1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2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3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4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5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6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7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8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29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30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31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32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33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34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35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36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제 37차 사무처회의, 사무처회의실

4) 외부회의

2/20(목) 오후 1시30분
 2/21(금) 오전10시
 2/27(목) 오전12시30분
 3/5(수) 오후 1시
 3/5(수) 오후 5시
 3/6(목) 오후 5시
 3/7(금) 오후 2시

여연 사무국장 연석회의, 청산교육장(전은주)
 반전평화여성행동 회의, 여성교회(김숙임, 전은주)
 반전평화여성행동 회의, 세종문화회관(전은주)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통일교육협의회 회의실(전은주)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실행위, 민중연대(전은주)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여성연구소(김성숙, 김숙임, 김말리, 전은주)
 3.15 반전시위 준비단 회의, 참여연대(전은주)

3/11(화) 오후 3시
3/17(월) 오후 3시
3/18(화) 오전11시
3/25(화) 오전 8시
3/26(수) 오후 2시
3/26(수) 오후 6시
4/ 2(수) 오후 4시
4/ 3(목) 오전10시30분

4/ 3(목) 오후 2시
4/ 9(수) 오후 6시
4/15(화) 오후 6시
4/16(수) 오전 7시30분
4/18(금) 오전10시
4/21(월) 오후 5시
4/23(수) 오후12시
4/23(수) 오후12시
4/24(목) 오전10시
4/25(금) 오후 5시
4/28(월) 오후 2시
5/ 7(월) 오후11시
6/24(화) 오후5시
6/30(월) 오후12시30분

7/4(금)-6(일)
7/4(월) 오후 시
7/5(토)
7/7(월)
7/7(월)
7/7(월) 오후6시
7/8(화) 오후 2시
7/8(화) 오후6시30분
7/9(수) 오후12시
7/9(수) 오후5시30분
7/9(수) 오후12시
7/10(목) 오후4시

7/11(금) 오후4시30분
7/11(금)
7/11(금)
7/15(화) 오전11시

시민의선은 화담회 - 판전대 주하여(정경환 참가)
북핵관련 T/F (재어사범) 회의,참여연대 (이길현숙, 정경환)
공동실천 긴급 실행위 회의(전은주)
북핵관련 의한간담회, 국회 귀빈식당(이길현숙, 전은주)
한진평화 합동운영위원회 회의, 연중연대(전은주)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회의, 한소리회(김영리, 전은주)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 준비회의, 황정연(전은주)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이길현숙, 김숙임, 전은주, 김원희)
(가칭)한반도 평화연대회의, 참여연대(이길현숙, 정경환, 전은주)
공동실천,여성생태대위 합동운영위, 민주노총(전은주)
공동실천,여성생태대위 합동운영위, 민주노총(전은주)
북핵관련 6인위원회의 회의, 국회 귀빈식당(이길현숙)
여성생태대위 공동집행위원회, 명대위 상동실(전은주)
한반도평화국민회의 시민단체 회의, 참여연대(정경환, 전은주)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통일교육협의회 회의실
통일교육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통일교육협의회 회의실
여성생태대위 대표자회의, 양현교회(김숙임)
한반도평화국민회의 시민단체 회의, 참여연대(정경환)
한반도평화국민회의 시민단체 회의, 참여연대(이길현숙, 정경환)
한반도평화국민회의 운영위(이길현숙, 전은주)
국방정책 현안 대응 시민사회단체 논의, 참여연대(김숙임, 안정애, 전은주)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실무회담 관련 여성위 모임(김숙임, 전은주, 남인순, 이경미 외)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실무회담, 금강산(김숙임)
통일교육협의회 의장단회의, (이길현숙)
지은희장관과의 간담회, 행원(이길현숙)
통일교육협의회 의장단회의 및 이사회, 통일교육원(이길현숙)
참여연대 사회참여연구소 자담회, 참여연대 강당(이길현숙)
한반도평화국민회의 발미단 평가모임 및 해단식, 인사동(이길현숙, 정경환)
여우정 평화상 추진회 회의, 제2전국위(이길현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7주년기념식, 백범기념관(전은주, 지성혜, 김수림)
국방정책 관련 대응 회의, 느티나무자택(김숙임, 전은주)
남북여성평화행진 관련 논의, 세종문화회관(김숙임, 이길현숙)
국방정책 관련 대응 회의, 느티나무자택(김숙임, 전은주)
정전50년 관련 여성행동 논의 모임, 작은포도밭(이길현숙, 윤정숙, 정강자, 박진용외)
연속공동행사 여성위, 회의실(김숙임, 통일연대, 종단)
KCRV(한국국민평화회의) 방미활동관계회의, 성공회 대주교실(이길현숙)
남북작가금회달 환송만찬, 신라호텔(이길현숙)
<정전을 평화로> 여성평화연대 회의, 평화여성회(평어,이연,민우회,이연)

7/16(수)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공동대표 회의, 여의도관광호텔(이길현숙)
7/22(화) 오전8시	727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 회의, 참여연대
7/22(화) 오전10시	727한반도평화대회 키포 회의, 참여연대 '평화선언 채택'관련 논의
7/23(수) 오후5시	국방정책 및 국감대응 회의, 참여연대
7/23(수)	KCRC 총회, 성공회대강당(이길현숙)
7/24(목) 오전10시30분	청와대 고문단 회의(남북회담사무국) 및 대통령 위촉장 전수식 및 오찬간담회, 청와대(이길현숙)
7/24(목) 오전8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 운영위원회, 국회피빈식당(이길현숙)
8/8(금) 오후4시	공동실천 선행위 회의, 민주노동당(김현희)
8/11(일) 오전10시	연속공동행사 추진본부 회의, 민회협(김숙임)
8/12(화) 오후 2시	군대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모임 회의, 천주교인권위(전은주)
8/12(화) 오후 4시	9.27 국제반전행동 행사 준비 회의, 참여연대(전은주)
8/22(금)-25(일)	인연재단 추화-제주도 평화회의, 제주도(이길현숙, 김숙임, 심영희, 김정수, 김엘리, 박수선, 안정애)
9/1(일) 오전11시	연회협 여성위 회의, 민회협 회의실(김숙임)
9/19(금)	이라크 전투명 파병반대 비상사국회의 제안단체 집행책임자 회의
9/20(토)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결성
9/26(금)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기획단 회의
9/30(화)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2차 기획단 회의
10/1(수)	파병반대 국민행동 2차 운영위원회
10/6(일)	파병반대 여성행동 회의
10/9(목)	파병반대 국민행동 3차 운영위원회
10/16(목)	파병반대 국민행동 4차 운영위원회, 청와대 기자회견
10/20(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5차 기획단 회의
10/23(목)	파병반대 국민행동 5차 운영위원회
10/24(금)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2차 비상사국회의
11/3(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기획단 연석회의
11/4(화)	파병반대 국민행동 7차운영위원회
11/6(목)	한국여성단체연합 4차 이사회
11/11(화)	파병반대 국민행동 8차 운영위원회
11/13(목)	파병반대 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단/기획단연석회의
11/19(수)	파병반대 국민행동 9차 운영위원회
11/26(수)	파병반대 국민행동 운영위원장 회의, 4차 비상사국회의
12/3(화)	파병반대 국민행동 기획단 회의
12/4(목)	파병반대 국민행동 11차 운영위원회
12/10(수)	한국여성단체연합 18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1차 회의
12/11(목)	통일교육협의회 이사회
12/11(목)	파병반대 국민행동 12차 운영위원회
12/14(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단 간담회(최섉희)
12/17(수)	파병반대 국민행동 13차 운영위원회

·12/17(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달회
·12/18(수)	한국여성단체연합 18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
·12/24(수)	반전평화연광행사 간담회(최선희)
·12/26(금)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 사무국장 연석회의

2. 사업일지

1) 집회

·2/27(목) 오전11시30분	반전평화여성행동 집회, 세종문화회관(김귀옥, 김숙임, 김정수, 김현전, 김현희, 류준도, 문명녀, 윤명선, 전은주, 정경란, 정현백, 지성혜)
·3/11(화) 오후 7시	연가일 주희 : 양심수석당과 수배체제를 위한 작은 문화제 "박경순에게 희망을!", 천도교수문회관(전은주)
·3/15(토) 오후 5시	이라크 침공반대, 한반도전쟁취해 반대 3.15 반전평화대행진, 종로공원(김숙임, 전은주(이사), 문영금, 이낙호, 김열리, 문명녀, 안병선, 전은주, 김현희)
·3/17(일) 정오12시	한국군 이라크 파병반대 1만시위, 평화미 앞 (이집현숙)
·3/22(토) 오후2시	타났한 스님 탈한기념 광화문원대회 "전쟁의 소리, 평화의 울림", 시청 앞 광장
·3/22(토) 오후4시	이라크침공군탄, 한국군 파병반대 촛불대행진, 종로공원-광화문(김숙임, 전은주, 이사, 이낙호, 김열리, 안병선, 김정수, 이경명희, 이사, 김귀옥, 권은주, 지성혜, 김수길 외)
·3/26(수) 정오12시	전쟁반대 비대사관 1인릴레이시위, 비대사관(김숙임, 김태경, 권은주)
·3/27(목) 오후1시30분	파병반대 국회 앞 여성 건널목시위, 국회 앞(김숙임, 문명녀, 이낙호, 문영금, 김정수, 정경란, 지성혜, 권은주, 김수길 외)
·3/29(토) 오후 7시	반전평화 촛불시위, 평화문 교보문고 앞(전은주, 김현희, 지성혜, 문명녀 외)
·4/ 2(수) 오전 9시	한국군 파병반대 집회, 국회 앞(김숙임, 이낙호, 전은주)
·4/ 3(목) 정오12시	이라크침공군탄과 이라크여성,어린이들이 평화명상 및 모금행체인, 명동성당 들어리(이집현숙, 김숙임, 전은주, 김현희, 지성혜, 문명녀, 김수길)
·4/12(토) 오후 3시30분	국제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시청 앞(김숙임, 김숙임 지인, 이낙호, 류준도, 김정수, 정경란, 동민이, 김현희, 김현희 지인, 전은주, 김수길, 지성혜, 명남중학교 학생 8명 외)
·4/20(일) 오후3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평화의 행진> 사랑해요! 이라크 친구들 행체인 참가, 남산(김숙임, 이대수, 김현희, 지성혜, 김현전, 김정화)
·5/24(토) 오후 4시	5.24평화군축을 위한 세제어성의 날 행체인,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김숙임, 김현희, 지성혜, 김수길, 전은주, 장정옥, 김정화, 김병철 외)
·6/13(금) 오후5시	고 진호선, 심미선 1추기 613 추도대회, 시청(이집현숙, 김숙임, 김현희, 지성혜, 전은주, 김수길, 김정화, 정경란, 문영금 외)
·6/15(일) 오전10시	연속공동성사추진본부 주최, 6.15 3주년 기념식, 백산기념관(김숙임, 전은주)
·6/15(일) 오후 1시	연화원 주최, 6.15 기념 국제평화대회, 도라산역(김숙임, 안병선, 류준도)
·7/24(목) 오전11시	<정전을 위하여>여성평화연대 주최, 여성평화퍼레이드, 명동성당 들어리 (김숙임, 김수길, 전은주, 김현희, 송소희, 최안진정)

7/25(금) 오후1시	727조직위 주최, 국제민간법정추진위 주관-한반도핵문제에대한 국제민간법정, 박명기법관 편찬선 총
7/26(토) 오후9시	727한반도평화회담조직원 주최, 평화포럼, 연세대 (도본, 정경관, 김현희, 최안진경 외)
7/27(일) 오후2시	727 한반도평화대회 조직위 주최, 한반도평화대회 참가, 임진각(이길현숙, 최안진경, 김귀옥, 안병선, 조영희, 김현희, 지성해, 김수길, 권운주)
8/15(금) 오후7시	민화협 주최, 광복56주년기념 평화콘서트, 한강(김현희, 김수길, 정경관 외)
9/27(토)	9.27 국제 반전공동행동의 날(김숙임 외)
10/6(월)	과병반대 국민행동 대표단 국방위원장 연담
10/8(수)	과병반대 민주노총 사국토론회
10/9(목)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 기자회견, 느티나무카페
10/17(금)	이라크결의안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10/25(금)	이라크파병반대 2차 반국민행동의 날(김숙임 외)
10/28(화)	이라크파병반대 청와대 1인시위(김숙임 공동대표)
11/1(토)	과병반대 국민행동의 날
11/6(목)	과병반대 농성
11/8(토)	과병반대국민행동 농성
11/11(화)	과병반대 여성평화행동의 날
11/15(토)	3차 범국민대회 - 이라크 파병철폐 국민 총연기대회
11/19(수)	호주계 폐지 이종 사무소 개소 및 출판결의서 국회전달
11/20-23	민화협 주최, 태평도 통일기행
12/1(월)	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12/5(금)	한국여성재단 창립 4주년 기념대회 참가
12/9(화)	이라크과병반대를 위한 국회의원결론에 드리는 호소문, 국회의원 일대일 연담, 연두연 결속의 날
12/10(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587차 수요집회 주관
12/12(금)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 다진
12/14(일)	대통령4달 대표 과병합의 반대 기자회견
12/14(일)	과병반대 국민행동 대표단 회의
12/18(목)	국회의원 연두연 원반의견 불기, 국회의원결 발문(최선희, 김현희)
12/20(토)	과병반대 과병철폐 광화문 인간미 잇기 대회
12/23(화)	과병반대 기자회견(지성해, 송소희, 김도형)
12/29(일)	반전평화연말행사 이라크과병반대 송년 행체인(김숙임외 7명)
12/30(화)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민족화해상(수상자:이길현숙 대표) 시상식 참여
12/31(수)	반전평화송년집회 2003년전평화송년결의대회(최선희외 5명)

2. 기고

이현숙, □건강한 사회를 위한 평화□, (사)하나로 교육복지연구원 □나눔과 성장□,2003년 4월호(통권28호)
 정경관, □전쟁을 넘어, 평화세상 이루기 위한 여성의 역할□, (사)진폭여성단체연합 □진폭여성□,2003년 4월호
 (통권25호)

김경숙, □이라크 전쟁이 제기하는 근본적 물음□, (사)서울여성성익전회□서울여성회전화□, 2003년 4월호(통권 59호)

김숙임, □원상에서 평화만들기□, 안산YWCA인권위원회□안산YWCA□, 2003년 5월호(통권32호)

이현숙, □논찬과 답변□,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 □기장총회보□, 2003년 6월호

3) 인터뷰, 강의

2/15(토) 오전7시30분 KBS2라디오-생방송 열한아침 정송석입니다 인터뷰-2.15국제반전평화대행진 소개(전은주)

2/19(수) 오후 7시 원음방송 89.1 라디오방송 행복터치 행복동네 사람들 인터뷰 (김현희)

7/3(수) 교통방송 인터뷰, 홀리데이인서울호텔(이집현숙)

7/6(일) CBS 시사저키 정경50주년 관련 인터뷰(이집현숙)

7/18(금) CBS시사저치 인터뷰(정전50년 관련), 안원광항(이집현숙)

7/22(화) 미국 NGO radio 인터뷰, 프레스센터(이집현숙)

7/23(수) R-TV 토크(이집현숙)

11/4(화) 김숙임대표 강의(하나로복지연구원)

2004년 사업계획안

I. 사업방향	126
II. 센터, 위원회별 계획	129
한반도 평화센터	130
일상외평화센터	132
갈등해결센터	134
회원참여센터	139
정책위원회	141
국제연대위원회	14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44
정보사업부문	146
III. 월별 사업계획	148

1. 사업 방향

1. 사업목표 : 반전평화와 한반도평화 조성활동 및 평화문화 확산

2. 사업취지와 기초

미국의 북에 대한 경제보장 약속과 북핵폐기 동시행동 원칙은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6자회담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은 새해에도 이어져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미국의 대선결과와 미국의 군사대권주의 정국에 편승한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역시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2003년 이라크전쟁을 전후하여 전쟁반대와 한국군 과잉전대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평화운동의 토대를 다졌으며, 북핵폐기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국내외 활동으로 한국사회운동의 한계를 주도 하였다. 2004년에도 이라크침공 한국제대한 과병강요등 미국의 군사대권정책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노골화될 것이며 핵위기를 둘러싼 북미갈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위협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군사대권정책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남북관계 또한 남북대화소 설치, 금강산, 평양 육로관광추진, 남북정협 등 꾸준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획기적인 남북간 정치변화는 예견되지 않고 있다. 남북민간교류사업 역시 지난 몇 년간 폭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주변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어 이후 더욱 실질적인 교류내용과 내용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도 정치권의 분열, 국회 과반운영 등 민심을 외면한 정치과열은 계속되고 있고, 무안핵폐기갈 문제, 생존권을 둘러싼 노동자, 농민의 분신자결, 호주계 별채를 둘러싼 갈등 등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험거운 난제로 남아있다. 또한 2004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혼란은 가중될 것이며 정치권비자금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과제는 국민들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특히 이라크 과병을 둘러싸고 과병반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총선을 통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평화운동진영에 요구된다.

따라서 2004년은 이라크전쟁과 과병국면이 계속되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조성이 예견되므로 이러한 어려운 정세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여성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반전평화운동과 평화문화 확산운동을 어떤 기초와 전략 속에서 펼칠 것인지, 대중과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적극적인 논의와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여성평화운동의 담론을 형성하고, 여성주의 정책성을 확립해가면서 조직적으로는 안락, 공직 모태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실무력

을 강화하고, 사업의 집중과 분산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앞으로 평화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본격화될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를 잘 정리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가고, 각 센터와 회원회의 전달 또한 구체적으로 설정해가면서 전문화와 내실화를 통한 여성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자.

1) 반전평화운동의 기초 및 전략 강화

이라크 파병반대활동, 전쟁반대운동,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비판 등 반전평화운동의 기초와 전략을 강화하여 반전평화운동의 선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2)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활동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 북미간 갈등해소와 통일이 및 한반도 긴장 조성 예방을 위해 한반도평화국민회의 활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한다.

3) 남북화해협력의 대안적 모색과 풀린 형성 및 남북여성교류의 지속화

한반도 평화형성과 남북통합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 및 민간교류사업의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남북화해협력 및 통일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풀린과 대안을 수립한다. 또한 남북여성교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남남간, 남북간 여성들의 연대를 강화한다.

4)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평화담론 형성과 정책역량 강화

강제재결교육과 일상의 평화교육 및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본격화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인프라를 보다 견고히 구축한다.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여성평화운동의 담론을 형성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 수립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생산능력을 높인다.

5) 국제연대사업의 활성화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관심과 국제화의 필요에 따라 국제연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의 국제연대역량을 더욱 확대, 형성한다. 국제평화운동의 국제화와 국제평화운동의 국내화로 국제연대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성평화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조직체계개선에 이은 조직 안정화 및 의사소통구조의 활성화

센터별 조직체제 구성의 안정화, 조직간 의사소통구조의 원활화, 인적인프라 형성을 통한 여성평화지도력 강화, 회원확대 및 신입회원교육, 회원헌나당 등 회원사업의 적극화한다. 또한 제정을 통한 조직안정화를 위해 CMS사업에 더욱 주력한다.

7) 사무실 공간마련 계획 수립 및 추진

회원참여공간과 실무집행의 원활한 업무 보장, 회의공간 마련 등 사무실 공간문제를 해소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파듯하고 편안한 평화운동의 장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3. 주요사업내용

1) 반전평화운동의 확대

- 폭력위기 해소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정세 대응활동
- 구체적인 관점에서 전쟁피해여성의 삶 고찰과 반전평화운동 전개
- 군사주의문화 해소, 평화군축을 위한 의정감시 및 의제개발활동

2) 남북화해와 협력활동

- 남북여성교류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활동
- 남북통합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활동(간담회 등)
- 여성평화통일 정책제안 활동 및 전문인력 확보
- 북한임산모와 어린이 돌기 사업 전개

3) 평화,통일교육과 평화문화 확산

- 여성평화통일 지도력 양성 및 강사뱅크 안착화
- 평화심상훈련 프로그램의 전문화
- 일상의 평화문화 지형서 개발과 평화문화 캠페인

4) 갈등해결과 증세훈련

-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면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갈등해결의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하여 질적 내용의 확대에 힘쓴다.

5) 회원확대와 조직력 강화

- 조직강화를 위한 신입회원교육 강화 및 회원한미당 정례화
- 회원활동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CMS 활성화 및 재정외 안정적 자립화
- 공간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6) 정책개발과 연구활동

- 군복역 근접 활동(국당갑숙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활동)
- 여성평화운동의 정책성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 반전평화운동 및 평화문화확산을 위한 달론형상을 위한 연구
- 정세대응을 위한 토론 및 정책제시활동

7) 국내연대활동

- 반전여성평화활동 연대활동을 통한 여성평화운동의 확대강화
- 국내 연대활동(평화, 통일, 여성 등)의 효율적 전개 및 내실화

8) 국제연대활동

- 폭력위기해소, 반전운동 등 한반도문제에 국제적 여론 확대
- 국제평화운동연대를 위한 네트워크활동
-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재역량 확대

II. 센터, 위원회별 계획

한반도 평화센터

○ 사업방향

평화적, 여성적 관점에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장기적 전망 아래 중단기 과제를 설정하여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과제 제시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통일, 국방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평화지도력 형성을 위한 주체역할 확대에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다.

○ 사업내용(안)

- ① 한반도 평화와 여성평화운동 강화를 위한 전문가포럼
- ② 여성평화지도력 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전문위원 위촉 및 확대
- ③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홍보자료 또는 시청각자료 제작

2-1. 국방과제팀 (팀장 : 안정혜)

- 팀원 : 김숙임, 여해숙, 김원희, 김수원, 강정숙, 조경훈
- 사무국 : 전은주 정책국장

○ 사업목표

- ① 국방감독관 제도의 입법화를 시도하면서 대안적인 국방감시제도를 연구한다.
- 대국회 토론회활동, 여론활동, 전문인프라 구축 등
- ② 군속터 근절, 평화군축을 위한 국방부, 국방위 의결감시활동을 실시한다.
- ③ 평화주의와 여성주의적 관점을 국방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과제를 개발한다.
- ④ 국방관련 전문인력 확보하여 인적인프라를 구축한다.

○ 사업내용

- ① 국방감독관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 ② 국방감독관 제도 법률인 마련 및 여론화대, 홍보활동
- ③ 5.24 세계여성 평화군축의 날 행사
- ④ 국방위원회 의결감시활동
- ⑤ 국방관련 외국자료 분석 및 국방관련 연대활동

2-2. 통일과제팀(팀장 : 윤덕희)

- 팀원 : 장남익, 김귀옥, 노귀남, 박현선, 송소희, 우문숙, 한옥자 등
- 사무국 : 전운주 정책국장

○ 사업목표

- ①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대안적 모색과 물건을 형성한다.
- ② 통일정책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의제를 개발하고 제시한다.
- ③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교류를 지속화하고 여성평화지도를 형성한다.
- ④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활동 및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 ⑤ 북한임산모와 어린이돕기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내용

- ① 남북통합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
- ② 남북여성교류사업의 지속을 위한 활동(일부회담, 여성모임, 여성행사 등)
- ③ 여성평화통일분야 전문인력 확보(전문위원 위촉)

일상의 평화센터

1. 전체 사업 방향

여성평화운동의 철학과 가치인 여성주의 평화 담론형성에 노력한다. 전쟁과 군사패권주의가 낳은 사회구조에 대해 저항하는 평화주의자의 삶과 가치, 운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성찰하고 평화운동의 현장에서 또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한다. 또한 평화운동이 일반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게 다양한 평화교육과 평화심성훈련을 실시한다.

2. 특별 사업 진행

<평화교육문화탐>

○사업 목표

- (1)각 세대에 맞는 여성주의 평화지도력 훈련을 실시한다.
- (2)여성평등의 관점 하에서 평화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한다.
- (3)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사업 내용

- (1)2004 여성평화아카데미
-시민사회 내 반군사주의 운동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2)어린이평화인형극
-이전보다 더욱 치밀한 기획력과 조직적 준비를 바탕으로 평화교육 내용을 충실히 하여 어린이 평화교육의 전국적 제인을 담당한다.

<평화심성탐>

○사업 목표

- (1)여성주의 평화운동의 담론화를 위한 자료수집과 평화주의자의 삶과 가치, 운동 등의 연구를 실시한다.
- (2)여성주의 평화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출판방식을 개발한다.
- (3)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의 전문화와 확산을 위해 강사뱅크 구축에 힘쓴다.

○사업 내용

(1)정기모임

- 평화심성훈련을 일상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화심성 팀원과 평화여성회 회원의 모임을 운영한다.
- 평화적인 시위문화 개발을 위해 새로운 전문가 발굴에 힘쓸 것이며 팀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것이다.
-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평화심성훈련 강사뱅크형성

- 여성주의 평화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스터디를 진행하여 앞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요구될 평화심성훈련에 대한 수요에 응하기 위해 강사뱅크를 형성하는데 주력한다.

(3)제 3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 제 3차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은 1박2일로 평화주의 담론과 여성주의 평화담론을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과 평화운동의 방식, 평화운동가의 삶과 철학, 희망 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평화심성훈련프로그램 참가자들을 팀원과 회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

갈등해결센터

<전체 사업방향>

- 갈등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갈등해결센터의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회원 확보에 힘쓴다.
- 사회갈등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 기반을 넓힌다.
- 갈등해결의 적용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하여 질적 내용의 확대에 힘쓴다.

○ 주요 사업

- 교사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 교육과 중재훈련

1) 공적 교육 기관에서의 교사대상 갈등해결 교육: 중부교육청 주최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한 갈등 해소 방법의 설계(30시간 연수)

일시: 2004년 1월 26-30일

<연수목적>

-교사들의 평화적 갈등해결방법을 이해, 훈련함으로써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을 높인다.

-학생들에게 평화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연수내용>

교시 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26(월)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1 1. 연수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와 전망 모으기 2. 연수의 목표 및 내용 오리엔테이션 - 갈등과 갈등해결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2 1. 갈등 개념 2. 갈등의 원인과 주기 3. 갈등대응유형 4.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5. 갈등해결의 적용분야		
1/27(화)	갈등 분석 1 1. 갈등분석의 의미 및 필요성 2. 갈등분석의 여러 방법 이해 3. 갈등분석 실습 1/왕따기법			갈등 분석 2 1. 갈등분석 실습 2/일장바위생각하기 ABC 삼각형 2. 갈등분석 실습 3/ 두지기법		
1/28(수)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의 기초 1. 듣기 2. 말하기(나전달법, 바꿔말하기, 열린 질문 등) 3. 관찰/Body Language 4. 아이디어 모으기(Brainstorming)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 1. 대화(Dialogue) 2. 의사결정 및 문제풀기 과정		
1/29(목)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협상 1. 협상은? 2. 협상의 여러 유형 3. 협상 실습 4. 협상의 원칙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중재 1. 중재는? 2. 중재자의 역할 3. 중재의 과정		
1/30(금)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중재 1. 중재과정 디자인 2. 중재과정 실습			갈등해결의 적용 모래 1. 연수에서 얻은 것과 앞으로에 대한 기대 2. 학교에서 갈등해결의 적용 모색 - 갈등해결 교육과 또래중재 - 협동적인 학교 만들기		

2) 지역 ngo 활동가 대상 갈등해결, 중재 훈련

-현재 지역활동, 사회활동의 중심이 된 지역을 중심으로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갈등의 평화적 해결 중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호남, 영남 등 지역 순회) 개발

-갈등, 평화적 갈등해결에 대한 기초 이해 워크숍 + 사례분석 및 전담세우기 워크숍 + 게임 및 활동을 위한 실천적 능력 개발워크숍 등 중기적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회활동의 예방 및 평화적 해결의 주체로서 NGO의 역할을 높이는데 기여함.

-모집 및 행동상 준비를 지역의 단체에서 맡도록 하고, 갈등해결센터는 프로그램 내용 지원.

-행정부 등 관련 기관 프로젝트 지원 모색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 교육(또래중재 제도적 접근)

1) 2003년에 이어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교육을 확대한다.

관악고, 양곡중, 이대부중 등 참여대상 시간 및 CA 시간을 이용해 갈등해결교육을 지속하고, 학교내 정율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청소년 평화, 갈등해결캠프

-평화문화 형성과 청소년들의 평화적 갈등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을 캠프 개최.

3) 청소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적극적 홍보를 통한 교육 실시

예) 학생 간부 수련회에 적합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홍보를 통한 학교 모집-청소년교육지원 파견 교육 실시

4) 학부모 교육

-학교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화, 갈등해결 교육을 통해 평화문화 형성에 기여함.

-1차적으로는 갈등해결교육 시행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학부모에 대한 접근을 모색한다.

-강사 트레이닝(회원 확보 및 갈등해결 교육 확대)

2003년에 이어 2기 갈등해결 강사 트레이닝 실시

<트레이닝의 목표>

1.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진행자로서 평화의 지식, 가치와 태도, 기술을 함양한다.

2. 참여프로그램 진행의 기술을 익힌다.

<기대효과>

1) 임시취주의 경쟁적, 패타적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시도로서 학생들이 평화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2) 일상에서 빈번한 사소한 갈등을 힘과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한다.

3) 대화와 협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훈련한다.

4) 전진의 극복,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분노조절과 평화적 조율을 익히고 권용, 평화, 화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5)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갈등해결□평화문화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갈등을 청소년 스스로 조정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래 중재인’을 양성한다.

사업추진기간: 2003년 2월 20일~7월 5일 총 74시간

교육은 3단계로 진행되고, 이후 실제 학교 갈등해결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1. 1단계: 기초-평화적 갈등해결의 이론 및 당면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2차 3일 워크샵 진행)

2. 2단계: 심화-기초에서 진전적인 틀에 대해 이해한 것을 각 부분마다 심화 학습 및 훈련

(3시간씩 8강과)

3. 3단계: 적용-앞에서 이해하고 훈련한 것들을 실제 청소년 대상의 진행자로서 진행 실습 및 평가, 교안 만들기, 참관 실습(3시간씩 10강과)

4. 학교 수업에 강사로 참여

교육 이수 후 중고등학교에 창의재량 수업 및 CA 시간에 갈등해결 교육 강사로 2~3회 출강하도록 한다.

5.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갈등해결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1단계: 기초

2차 3일 워크숍: 2월 20(금)~22일(일)

전체 교육프로그램 소개, Community Building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초적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프로그램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본다.

2단계: 심화(매주 월요일 6시)

1차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평화교육의 필요성과 평화교육의 한 내용으로서의 갈등해결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한다.

2차: 갈등의 원인 분석의 여러 방법

*갈등해결의 첫 과정인 분석에 대해 이해한다. 사례를 가지고 분석과 전략제우기에 대해 실습한다.

3차 갈등해결의 방법-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갈등해결의 구조화된 방법 중 하나인 대화(Dialogue)의 원칙을 이해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창의적 대안능력을 키운다.

4차 기본적 기술인 의사소통기법/적극적 듣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등 실습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말하는 법' '말을 듣는 법'을 훈련한다.

5차 갈등해결의 방법-협상의 원칙과 방법

*실습을 통해 자신의 목표, 타인의 목표를 이해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동적 협상을 배운다.

6차 갈등해결의 방법-중재 1

*중재의 원칙과 방법을 익히고, 과정에 대해 실습한다.

7차 권선 다루기

*서로 다른 차이가 고정관념, 편견 등을 통해 차별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편견과 강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훈련한다.

8차 분노조절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났을 때의 행동 등을 객관화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우고, 모색해본다.

3단계: 적용

강의와 실제 중고등학교 수업 참관실습을 통해 적용 훈련을 한다.

1차 갈등해결교육 진행 방법론

*평화의 가치, 기술, 태도의 내용을 함양시키는 평화, 갈등해결 교육의 교육방법론에 대해 이해한다.

*2003년 진행된 학교 창의재량과 CA반 등에서 진행되었던 갈등해결 교육의 사례를 듣는다.

2차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디자인과 진행방법

“갈등해결과 평화” 수업의 전체 프로그램을 디자인해보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등을 검토한다.

3차-9차 수업교안 만들기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초로 수업의 구체적 교안을 만들어본다.

*2회 (학교)수업 참관 실습, 평가

*참가자들이 교안 만들고, 시연 실습

10차 평가 및 전망

“교육의 진과정과 상반기의 광의제량수업 진행을 평가하고 한국사회 갈등해결의 제도적 문화적 확산과 정착과 학교의 평화문화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장차참가비: 48만원(2박3일 워크샵 포함 총 74시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 지원)

-갈등해결을 통한 남북여성교류 “대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만남” 프로젝트 추진

-분쟁지역에서 평화조정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제 남북 여성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의 평화적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만남’을 2005년에 개최, 진행할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 후원 등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갖고 계획(제안)서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 한다.

-과정을 팀을 구성하고, 이 팀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작업(워크샵, 토론회 개최)을 진행하고, 재정타편을 위해 국내외 후원단체를 접촉,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회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만남’ 프로젝트 계획(제안)서를 완성한다.

-사회갈등분석, 해결방안(문화, 제도) 연구 작업

갈등상황에서의 평화적 행동 지침 모색을 위한 사회갈등 분석 및 접근 모색 연구

-연구, 출판 사업

2002, 2003년 1차 기획, 제작된 시민교육, 청소년 교육 매뉴얼을 보완하여 하반기 개발됨.

-회원 재교육

학습모임, 디프로그래밍 접목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의 기회 마련

-국제연대

국제비폭력평화세력(Norviolent Peace Force International)

Center for Nonviolent Communication(NVC): 2004년 5월 15-24일 비폭력대화 국제심화훈련 프로그램 공동 주최

조직

운영위원회

-2004년 총회를 기점으로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가 가동됨.(갈등해결센터 운영규칙 참조)

-구성: 당면적 운영위원(센터 장 박수선, 팀장 조영희(청소년교육팀), 본부 사무차장 최현희)

일반 운영위원(김길수, 이계열, 강윤경, 정경란, 최경현진(서기))

-갈등해결센터 사업 전반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구조

청소년교육팀

-구성: 조영희(팀장), 박인혜, 신은희, 하은영, 어혜숙, 전호진, 최안진경, 최경현진

-청소년 대상 갈등해결, 평화교육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함.

-사업: 학교 갈등해결교육, 교안 개발 활동, 청소년캠프 준비 및 진행, 학교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사회갈등사태연구팀(구성 예정)

“대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만남” 프로젝트팀(구성 예정)

회원참여센터

- 소장 : 최선희 사무처장
- 자문위원 : 양세진
- 담당실무 : 김현희 조직국장

○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회원확대를 이루어 나가며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후원유지 및 회비증대 노력을 기울여 회원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한 재정구조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며, 또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재정마련을 도모한다.

○ 사업목표

①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부심을 키워준다.

신입회원 한바탕, 전체 회원한바탕 행사 등을 통하여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여성평화운동에 기여하도록 자부심을 키워준다.

② 평화운동의 소모임을 마련한다.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 활동의 장을 발굴하여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평화 운동의 주체가 되어가도록 한다.

③ 회원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한다.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여 회원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도록 한다.

④ 평화여성회의 활동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을 담아낸다.

온라인 오프라인 소식지를 통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회원들의 소식도 함께 담아내어 회원들간의 친밀감을 높여낸다. 또한 평화여성회를 알기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소재자를 만들어 배포한다.

⑤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 사업내용

1) 회원사업팀

팀원 : 김현진, 김현희, 문영녀, 송소희, 최선희

(1) 사업방향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회원확대를 이루어 나가며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준다.

(2) 사업내용

① 회원 소모임 마련 : 회원들의 관심을 자극하여 회원 소모임을 만들어 내고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원 산책 모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산행모임을 진행한다.

③ 회원학대 사업 : 년 2회 정도 회원학대 집중기간을 정하여 상근자, 임원, 회원 모두 회원학대의 분위기를 주어 회원학대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④ 회원의 지속적인 관리

회원관리 DB 작업,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한다. 신입회원들에게는 축하카드 및 매월 해당되는 달에 생일을 맞이한 회원들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매년1회 생일카드를 발송한다.

⑤ 신입회원 교육

2개월에 한번씩 신입회원 한미당을 개최하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부여 및 지속적인 여성평화운동의 후원, 활동의 동기부여를 마련한다.

⑥ 회원 프로그램 : 년 1회 회원한미당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여성평화운동의 인적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도록 한다.

⑦ 정보 제공 서비스 및 회원관리 서비스 : 회원들에게 평화여성회 소식, 회원들간의 소식, 회비현황, 기타 정세 이슈, 여성평화운동 소식 등을 on line 소식지, off line소식지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평화여성회를 알기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소재자를 만들어 배포한다.

2) 소식지 팀

팀장 : 송승희

팀원 : 김현희, 박수선, 이은하, 장성순, 최선희

(1) 사업방향

정기적으로 회원들간의 정보교류 및 평화여성회 관련 소식, 회원소모임 회원과의 관계성을 높여가고 사회정세 내용 등을 담아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

(2) 사업내용

- on line 소식지 발행
- off line 소식지 발행 (년 4회)

3) 평화카페팀

팀장 : 미정

팀원 : 미정

* 재정사업은 평화여성회 전제사업으로 가자가되 주부 부서를 회원참여센터로 하기로 하다.

(1) 사업방향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을 기획하고 마련한다.

(2) 사업내용

년 1회 또는 2회 정도 평화여성회를 위한 후원행사등을 진행한다.

정책위원회

- 위원장 : 심영희
- 위원 : 공동대표, 센터소장, 위원장, 사무차장, 전문위원 등
- 사무국 : 전은주 정책국장

○ 사업방향

전쟁반대와 평화문화 확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논의로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평화운동의 장단기적 계획과 정책을 구상한다. 또한 여성평화운동의 정립을 위한 정책과 연구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하고 확산한다.

○ 사업내용(안)

- ① 여성평화운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기적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 ② 반전평화운동 및 평화문화확산을 위한 담론형성을 위한 논의와 연구
- ③ 출선 대응활동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정책 제시활동
- ④ 정세대응을 위한 토론 및 사안별 간담회

국제연대위원회

○ 위 원 장 : 정경란

○ 담당실무자 : 김수길

1. 사업기조 - 방향과 목표

전년도 사업을 계승하여, 국내외 한반도 통일운동과 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제적 평화운동의 여성적 관점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명제에 따라, 평화여성회가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운동을 국제화하고, 국제 평화운동을 지역화 하는 연대활동을 한다.

○ 사업목표

- ① 국내 (여성)평화 단체들의 국제 네트워크와 관계 강화
- ② 국제평화운동의 여성평화주의 관점 강화
- ③ 국제 평화활동의 국내화
 -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 강화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의 지속
- ④ 국내 활동의 국제화 :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역문화와 홍보활동
- ⑤ 국제연대활동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2. 사업계획

[국내 단체 조직]

- (1) World March of Women(세계여성행진) 사이버 평화포럼(가칭)의 한국측 코디네이터 역할
 '세계 여성 행진'의 운동영역 - 반군사주의, 여성평화운동 - 화해에 따라, 연대면 회의를 앞서, 온라인 상에서 가상 포럼을 진행하기로 결정. 평화여성회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측 코디네이터로서, 전쟁 반대 여성행동 등 한국의 여성 평화 운동단체들의 제 이슈를 국제화 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 (2)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참석, 운영
 국내 평화 단체의 국제정보 교류네트워크인 '평화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를 주도하여, 국제 반전 평화 행동을 비롯해 국제행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등 국내 평화단체들의 국제 연대 역량 강화에 힘쓴다.

[국제 평화 운동의 여성주의 관점 강화]

(3) 국제 대회 참가 및 재 활동에서 여성주의 시각 제공

평화 관련 국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 국내회의 상황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전체 평화 운동 진영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공, 균형된 평화운동을 이끈다.

[국제 활동의 국내화, 국제 활동의 국내화]

(4)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한미일 및 국제연대 강화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AFSC), Peaceboat, Nonviolent Peaceforce, International Peace Bureau(IPB),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WILPF) 등 국제단체와의 연대

(5) 아시아 평화 연대 APA(Asia Peace Alliance) 운영위원회 활동

아시아 평화 연대 운영위원 단체로서, 아시아의 평화형성과 국제적인 군사주의와 핵군주의 흐름에 대응해 정책 대안과 반전평화국제행동 등을 모색한다.

(6) 2005 무력분쟁 방지 국제대회(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준비

'국제적인 무력 분쟁 예방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조직된 '문명분쟁에 대한 지구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대회가 2005년 9월 3-4 차례 대륙별 권역 모임을 갖게 되므로, 동북아시아 지역 모임에 앞서 한국측 모임을 기획, 진행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모임에 국내 평화 단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7) 세계 사회 포럼 참가

가. 일시, 장소 : 2004년 1월 16일-1월 21일, 인도 콜비이

나. 내용 :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세계화 속에서 새로운 민중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매년 1월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해 군사주의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활동을 집중하고 평화여성회의의 방향설정과 활동을 모색한다. 이번 사회포럼에서 다룬 주요주제는 1) 군사주의, 전쟁과 평화, 미디어, 정보, 지식과 문화, 2) 민주주의, 생태안보와 경제 안보, 3) 지속가능하고 민주적 발전 및 사회제도·식량, 건강, 교육과 사회안보, 4) 세계, 차별, 위안, 권리와 평등·국가, 민족, 시민, 법과 정의, 5)종교, 문화, 정책성 가부장제, 젠더와 책임리더 등 10개이다.

(8) Nonviolent Peaceforce 스리랑카 파월렛 프로젝트 후원

비폭력 평화세력(Nonviolent Peaceforce)은 평화형성을 위한 비폭력 민간세력(international civilian nonviolent peaceforce)을 양성하고, 이들을 분쟁지역에 파견하여, 갈등 해결과 예방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서 평화여성회는 이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다. 비폭력평화세력은 스리랑카를 첫 번째 분쟁지역 대상으로 선정하여 2003년 말 부터 비폭력민간세력을 모집, 훈련, 파견 준비중이다. 평화여성회는 스리랑카 프로젝트의 후원과 비폭력평화세력과 연대를 통해 국제평화단체의 활성화와 공동에 참가해 전문화를 도와 비폭력적 갈등해결방법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평화물민드는여성회 별첨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이 사 장 : 김준옥
- 이 사 : 김준옥, 박분이, 윤영애, 이문우, 최만자, 최명실, 류준도, 정현백
- 원 장 : 심영희
- 연 구 원 : 정현백, 윤덕희, 김필리, 김경수, 정경란, 안정례, 윤여령, 김정민
- 담당실무자 : 김수길

1. 사업기조 - 방향과 목표

국내 여성평화 운동을 주도하는 평화여성회의 Think-Tank로서 활동 정책 개발과, 기초 이론 생산 활동에 주력 하며, 연구활동이 광범위한 영향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 사업목표

- ① 여성 평화, 통일 운동의 이론 강립과 확산을 위한 연구활동 전개
- ② 여성과 평화 4호의 발행
- ③ 여성 평화, 통일 전문 연구 인력 양성, 확보 인력 중 구성
- ④ 여성 평화운동의 매뉴얼 개발

2. 사업계획

(1) 연구원 지휘와 역할의 정상화 / 연구원 내부 세미나

2002년, 2003년 연구원 활동의 부실은 연구원 내부 역할의 집중이 부족했고, 연구원 책임자의 역할의 누락 현상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4년 연구원 활동을 명실상부한 지휘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역할 강화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현재 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이고, 그 가운데 학사가 8명이나 되는 막강한 인력 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3, 4명에 불과한 것이 몇 년째 현실이다. 이 문제는 연구원의 성격이 운동체와는 다소 다르다는 점도 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도 관련이 있다. 더 중요한 문제로는 연구원의 지휘와 역할이 명실상부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원은 여성회와는 다른 이사회를 갖춘 '병설'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조직 체계(재정적 조직, 재산관리 조직 등)를 갖고 있지 못하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평화여성회의 한 개 부서해 불과하다. 그

하나 실재적으로는 사무국과 긴밀한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 (2)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확산을 꾀할 수 있는 평화, 통일 영역의 연구과제(유역) 수행 및 결과발표 심포지움
; 연구원의 연구 역량이 2년간 사장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2004년에는 이 방면의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 개발 가능한 잠정적인 연구 주제는 “한국 군사주의와 여성의 삶”, “한국 반공주의 변천 과정과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 “평화와 통일 지향을 위한 성평등 방안”, “평화교육의 통일교육에의 적용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여성통일교육의 확대안과 프로그램” 등

(3) 여성과 평화 4호 발간

부크지 형태로 발간된 기존 ‘여성과 평화’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차기 여성과 평화를 학술지 형태로 발간한다.

- ; 1호 특집 “일상속의 폭력”, 2호 특집 “분단과통일”, 3호 특집 “전쟁”으로서 시의적절한 특집 주제들 기획. 4호의 기획도 개발. 예) “패권과 미국”, “여성과 군대” 등

- ; 연구원 내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 현재 원장이 편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체제를 벗어나 별도의 편집위원장이 필요함.

- ; 여성과 평화는 연구원과 평화여성회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현재까지 이방면의 유일한 전문지라는 성격을 살려 이 방면의 좋은 글을 기고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좋은 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외에 홍보하는 지면(제일 뒷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현재의 제작비 지체 중단 방식을 벗어나 학진이나 여성부, 기타 창으로부터 여성과 평화 제작비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과의 공동 협의가 필요함.

정보사업부문

1. 사업기조 - 방향과 목표

사이버 시면 사회 확대에 따라, 사이버 평화 운동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이버 평화 운동의 영역은, '①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평화 운동 확산, ②회원 및 특정 방문자(기자 등) 자료화제를 목적으로 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및 활동내용 제공, ③ 평화 운동 단체 간 자료 및 의견 공유'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정보사업은 상기 3개 영역을 실현화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의 경제성을 갖는다.

○ 사업목표

□ 사이버 평화 문화 확산

- 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
- ② 활동 소식과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
- ③ 방문자 확대를 위한 권력 수립, 시행

2. 사업계획

(1) 평화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상 평화 센터의 평화문화 확산 캠페인, 한반도 센터의 반전 캠페인 등 오프라인 평화 활동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온라인 활동으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온라인 평화운동의 영역을 개발, 구축하여 새로운 전형을 창출한다.

(2) 홈페이지 정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거나, 다시 제작한다.

예시) 자료 접근성 향상, 자료 분류 체계화(수목 기준 수립과 양식 체계화), 자료 검색 시스템 제공, 비디오 스트리밍 제공

(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권력 수립과 시행

2003년 12월 현재 일일접속자 수 기준 2만1천명인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방문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41 상기 분류는 학술적으로 논의 된 것이 아니며, 평화여성회 정보전시의 일부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것임.

51 열거닷컴(<http://www.ranker.com>)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순위이며, 국내 사이트 중 일일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자체 접속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회원 커뮤니티, 회원간 쪽지 주고 받기, 회원간 채팅 기능, 회원 사진 올리기 등)

(4) 자료 보존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

평화여성회 영향력 확대에 따른, 온라인 공격에 대비 정기 데이터 백업(월 1회)을 실시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용한다.

월별사업계획

구분	사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반도 문화센터	통일과제팀												
	국방과제팀												
열산 센터	심심힐점기모임	월 1회											
	심심혼연강사명표형성	연중											
	3차문화심심훈련						진행						
	어린이문화인한국								진행				
	어성필화아카데미										진행		
	문화문화탐색선								진행				
삼동 해결 센터	중부청각통화결연수	진행											
	감동해결강사트레이닝						진행						
	청소년 강령,광화 교육								진행				
	비폭력대화 국제대회						진행						
	청소년강령해결캠프							진행					
회원 참여 센터	회원함미달						준비		진행				
	신입회원교육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소식지	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준비	발간	
	회원소모임	연중											
	CMS확대,회원관리	연중											
한국 어성필화 연구원	어성필화 회4호발간				기획	제작		광고수집		편집	발간		
	토론회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정채워													
국제 연대 위원회	세계어성필화 국내(local point)	연중											
	말학단체 국제연대 전략회의	사전 별											
	국제대회 참가	사전 별											
	APA 운영위원회의 활동	사전 별											
	2005 후원분발 발지 국제대회	연중											
정보 사업	자료백업	월 1회											
	홈페이지 제작					기획		프로그래밍	제작				
사무처	총회										준비	준비	진행
	분당위원회	월 1회											
	후원회									진행			

2003 회계감사 보고

평화물만드는여성회

2003년 회계 감사 보고서

감사 일시: 2004년 1월 5일 오후 1시 ~ 3시

감사 장소: 평화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감사 내용: 1) 금전출납부

2) 원장

3) 수입지출결의서

4) 통장

평화물만드는대표취하

평화물만드는여성회의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 및 회계장부를
위하 같이 감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업감사는 별첨)

통상회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결과 금전상 착오가 없으나 다음과 같이 몇가지 미비사
항이 있어 지적합니다.

1. 금전출납부는 액셀과 함께 수기장부로 하기를 권장합니다.
2. 회계담당자가 이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의 해석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야 합니다.
인수인계서(일시, 장소, 인수자, 인도인, 총재등을 확인하는 절차와 날인필요)
3. 회계전문인력이 필요하나 미처치않을 경우 회계수당을 지급하여 회계의 전문성과 책임성
을 높여야 합니다.
4. 2003년도 회계적립금이 적립되지않았으므로 2004년도 예산에 포함하여 적립하여야 합
니다.
5. 현금보유금액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통장에 적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이우정 평화기금 통장의 실태내용을 1년 한기시 꼭 확인을 요합니다.
7. 수입지출결의서 작성시 작성자는 본인의 이름과 함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꼭 하여야
합니다. 결재 도장은 회계담당, 사무처장, 대표가 꼭 찍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4년 1월 5일

감 사 이 문 우



감 사 윤 영 애



정관, 규정, 규칙

정관

정관개정안

운영규정

운영규정개정안

김등해결센터규칙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편의를 위해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② 본회의 명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과 평화적 관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제반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제명, 정제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준
일위원회 위원 5인 내외와 준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뒤 1년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4.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
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
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동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총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 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회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
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재산 및 정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태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1. 총회 구성 및 의결은 총회 참석자로 한다.

제20조(의결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선에 관한 사항
2. 급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와 이사들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기타 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의결은 제적이사 과반수로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원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전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 하는 사항

제 6 장 재 정 (재 산 및 회 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회계수입)

1. 본회의 회계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도록 한다.

제30조(인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처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2조(구성 등)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각과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처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2.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해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영

무원항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제설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1. 1. 28 4차 개정

2002. 1. 25 5차 개정

2003. 1. 28 6차 개정

개정목록

	→새시	→로
제1장 일반 13조 5항(입헌의 선출) (신설)	-	3. 지도위원은 선임대표들로 구성한다.
제1장 일반 14조 1항(입헌의 직위)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할, 관할한다.	3.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할, 관할한다. 또한, 공동대표를 1인이 행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임종에 관다.
제5장 여사회 23조(가)	30. 장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30. 장임이 된 임원의 선임

정관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편의를 위해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②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과 평화적 관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세계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재민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1.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천위원회로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1번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4.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도위원은 전임대표들로 구성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또한, 공동대표중 1인은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동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총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 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재산 및 정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태도, 증여, 담보, 대여, 위탁,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발할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1. 총회 구성 및 의결은 총회 참석자로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급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와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이사 파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파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파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원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계명
10. 결원이 된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 하는 사항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도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관할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다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2조(구성 등)

1.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학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처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2.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재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재산 시 권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함께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입부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1. 1. 28 4차 개정

2002. 1. 25 5차 개정

2003. 1. 28 6차 개정

2004. 1. 9 7차 개정

운영 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센터장, 팀장, 위원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배석 가능하다. 행정기관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원장도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거친다.
 2. 임기 : 서기, 회계, 일반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조직)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탄도평화센터, 알상평화센터, 갈장해결센터, 회원참여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1. 구성 : 센터에는 1명의 소장, 각 사업 팀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 각 센터는 각 센터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각 센터 소장과 팀장은 각 센터와 팀의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한다.
3. 센터소장 선출 및 임기 : 각 센터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받으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4. 소집 : 각 센터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1999. 3. 4. 1차 개정

2000. 1. 25 2차 개정

2002. 1. 25 3차 개정

개정목록

	←예시	→으로
1.3(운영위원회) 1.구성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센터장, 팀장, 학원장, 사기, 회계,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배석 가능하다. 행정기관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원 회장으로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의 구성은 총회에서 최종인준을 거친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센터위원, 위원장, 사기, 회계,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배석 가능하다. 행정기관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원의 원장도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회에서 최종인준을 거친다.
1.3(운영위원회) 2.임기	2. 임기 : 사기, 회계, 학원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1.3(운영위원회) 3.선출	-	3. 의결 : 추가
2.3(조직)	제2조 ...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제2조 ... 국제연대위원회, 정책위원회...
2.3(조직)	제2조 (조직)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헌원 도정화센터, 일상생활센터, 강동해상센터, 회원참여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직원지원회를 둔다.	제2조 (조직)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헌원 도정화센터, 일상생활센터, 강동해상센터, 회원참여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직원지원회를 두며,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설립한다.
2.3(조직) 2.직무	2. 직무 : 각 센터는 각 센터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며, 각 센터 소장과 팀장은 각 센터와 팀이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한다.	2. 직무 : 각 센터 소장과 팀장은 각 센터와 팀을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강령 및 집행을 한다.
2.3(조직) 3.선출	3. 센터소장 선출 및 임기 : 각 센터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함으로써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임정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3. 선출 : 각 센터소장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표가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3(조직) 4.운영	4. 소집 : 각 센터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 : 각 센터위원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운영규칙은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3(자문위원회)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4.3(전문위원회)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에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에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운영 규정 개정(안)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회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센터위원, 위원장, 사기, 회계,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배석 가능하다. 행정기관인 한국여성평화연구원원의 원장도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회에서 최종인준을 거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5. 의결 :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조직)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도령화센터, 일상명화센터, 갈등해결센터, 회원 참여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며, 한국어성평화연구원을 발설한다.

1. 구성 : 센터에는 1명의 소장, 각 사업 팀장과 막간명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 각 센터 소장과 팀장은 각 센터와 팀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을 한다.
3. 선출 : 각 센터소장 및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표가 위촉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4. 운영 : 각 센터(위원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운영규칙은 전체 운영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둘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 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 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가 위촉한다.

1999. 3. 4 1차 개정

2000. 1. 25 2차 개정

2002. 1. 25 3차 개정

2004. 1. 9 4차 개정

갈등해결센터 운영 규칙(안)

제1조(운영위원회) 본회 운영규정에 따라 갈등해결센터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가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당면적 운영위원(센터의 장, 센터 내 팀장, 본회 사무처장)과 일반 운영위원 등 30인 내외로 구성하여 센터의 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일반 운영위원은 본회 갈등해결센터 사업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 2인 추천과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2.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직무 : 운영위는 총회에서 결의한 센터의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센터 운영위원 중 2인은 본부 운영위원으로 본부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운영위는 예산집행 재직을 수임하고 집행의 책임을 갖는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5.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조직)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제에 따른 상설적인 팀과 임시 활동을 위한 팀을 둘 수 있다.

1. 구성 : 팀은 3인 이상의 회원의 구성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팀 구성 결의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고, 팀장은 호선한다.

2. 직무 : 팀장은 팀원의 자량과 파제에 맞는 다양한 활동 및 회의를 편성, 주재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운영 : 각 팀은 팀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예산 집행) 갈등해결센터의 예산은 본회 교무예산과 센터 독자예산으로 구성된다. 예산의 집행은 교무되는 예산은 평화여성회에 따르고 독자적인 예산은 갈등해결센터 예산집행에 따른다.

제4조(기타) 본 운영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004. 1. 9 제정

I

부 록

성명서
기사모음

성명서

2003년을 자주□평화의 해로

여중생 밀대위와 한국사회단체 청년기자회견문

2003년 한반도의 새해 아침은 유례없는 긴장과 희망이 공존하는 가운데 밝아오고 있다. 올해로 정전 50년을 맞는 한반도는 50년 전 전쟁의 상흔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세계 유일의 분단냉전지대로 남아 있다. 분단된 한반도의 북녘은 국제적 고립과 후심한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핵 개발의란을 둘러싼 북미간 긴장이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희망 또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 수년간 남북간 평화와 회개의 기운은 고조되어 왔고 한반도를 전쟁과 소모적 대결로부터 지케내겠다는 한국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강박하다. 지난해 미군 레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암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 집회를 통해 우리는 호혜·평등의 한미관계를 확립하고 군사주의와 전쟁의 폭력을 단호히 반대하는 우리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우리는 정전 협정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자주□평화의 해로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003년은 여중생 사망사건의 확인자를 처벌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평등한 한미관계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6월 발생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그 처리과정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은 무고한 두 소녀의 죽음에 대해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실 여중생 사건은 유사한 여러 사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중생 사건 외에도 무수히 많은 미군 관련 사건들이 가해자인 미군의 편의에 따라 지극히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처리되어 왔다.

한국인 대다수의 형위는 일시적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적된 분노에 기초한 것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것이다.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공정한 사건 처리를 가로막는 현행 한미SOFA의 전면적 개정은 그 최소한의 전제이다.

우리는 현재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한 '개선안'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한 '개선안'은 현행 한미SOFA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에 동참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평등한 한

미관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는 불평등한 SCFA의 근본적 개정과 역중생 사망 사건 책임자의 처벌,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로운 우리의 협력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정부와 언론이 한국인의 합의를 더욱 진지하게 되새길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일부 미국 고위 관리들과 언론들이 한국인의 요구와 합의행동을 감정적 변명으로 치부하거나 맥락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에서 일고 있는 거대한 지구와 평화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수십년간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존재방식을 특정지어 온 불평등과 폭력을 정상화하여 한미관계를 호혜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재정의되자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는 점을 미국 정부와 언론은 직시해야 한다.

2003년은 북핵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일관되게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기를 끝내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의 대전환을 이루는 해가 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 냉전지대인 한반도는 최근 수년 동안 분세기간의 대결과 냉전을 넘어서는 중대한 변화의 계몽을 내딛어 왔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대결적인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으며, 나아가 10·12 북미 공동코펜하겐과 북일 정상회담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지금 심각한 전쟁 위협 앞에 직면해 있다. 주지하듯이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켈리 특사의 남북 이후 '북의 우라늄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체의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중추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이에 맞서 핵 공격 조치해제 및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미간 갈등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현 위기상황과 관련,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보여온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면서도 핵 군축에 소극적이고 포괄적 핵심협금지약(CTBT)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제비바 합의 사항인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핵 선제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간 관계개선 노력들과 합의의 성과들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가 하면,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을 무시하고 폄하했다. 부시 행정부는 나아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펼침으로써 북미관들의 원인을 제공했다. 사실 미국은 북한 우라늄 문제를 제기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북과의 협상을 거부한 채 일방적 제재를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핵 동결 해제는 북의 강경대응을 불러왔다.

한편,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동결을 해제하고 IAEA 사찰단을 주방한 해 이어 NPT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특히 한국 정부와 주변국의 중재에 의해 대화에 의한 해결이 논의되고 있고 이를 위해 상호간을 자극하는 정책을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이 NPT 탈퇴를 선언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북이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 핵무기 개발도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는 내외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취한 NPT 탈퇴 등의 조치가 대화와 협상을 지지해온 국제여론을 냉각시키고 한국인과 세계 평화에

호세리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의 협력을 촉구한다. 북한당국자는 북의 강경대응이 한반도 전쟁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적시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지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개발, 배치, 사용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전쟁이나 무력의 사용, 기타 통제조치가 문제해결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반도 8천만 민중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8천만 민중의 의사와는 상충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논의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 문제는 오직 북미간의 실질한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북미간의 조건 없는 대화와 상호 동시조치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최근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북한 당국 역시 빌 리처드는 미 뉴멕시코 주저사를 점측하는 등 최소한의 대화의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북한이 NPT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무기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대북적대정책과 핵위협을 중단한다면 북미사이에 별도의 감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 역시 다정다감히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북미간의 작극적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협상의 첫걸음은 북미 양국이 상호간 대북 증속제금 중단과 핵동결 해제 조치 및 NPT 탈퇴를 동시에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물가함, 평화협정 체결, 테러지원금 및 경제 제재의 해제를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포괄협상 방식을 통해 일괄타결해야 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에게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봉쇄와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북미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가 흑심한 거금과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관련 주변국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 줄 것과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경제교류를 지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3년은 세계 평화에호세리의 연대를 통하여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부도덕한 전쟁과 전쟁위협으로부터 세계평화를 지키는 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테러의 이름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의 경험을 통해 어떤 전쟁도 중국에는 두고한 민중들에게 끔찍한 공포와 고통의 상흔을 남기는 가공할 폭력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극적 전쟁의 표면이 꽤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은 9·11테러 이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저위하는 중 제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이라크 전쟁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441호를 무조건 수용하면서 유엔사찰단이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사찰을 전쟁

하였고 이라크의 대량학살무기(WMD) 개발·보유현황 보고도 지난 12월 제출된 바 있다. 이러한 검증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라크에 대한 전쟁구실을 찾으려 전쟁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이라크가 미국과 다른 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그 자체가 대량학살무기의 증거라며 정권교체 없이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내정간섭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전쟁을 서두르는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우리는 명분 없는 대이라크전에 반대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전쟁 준비에 대한 협력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나 피병 등 지원 요청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대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평화에 호소력들과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3년, 한반도 전역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호세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한 연대의 촛불을 피워 올리자.

지난 해 우리가 저마다 피워 올린 촛불은 상상과 호세평등,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염원의 상징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분노와 항의행동은 비단 무고한 두 여중생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수백 수천만의 미선이 요순이가 부도덕한 군사작전과 전쟁의 과정에서 죽어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겪게 될 공포와 비극에 함께 아파하고 분노한다. 우리는 올해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비극, 특히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이 만들어내는 파문의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세계 평화세력과 연대할 것이다.

2003. 1. 13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한국사회단체

6월사립형/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반포연대/PaxPeaceNet/동북아평화포럼/YMCA/개혁국민정당/건강권 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국제육수수재단/미군기지선실화장반대경기도운동본부/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 사건경기도목부대대책위/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열합회/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화문테데존모임/기독교사회선교연대대회/기독교시민사회연대/기독교여성회/남북공동선언실현연대/남북한살운동본부/노동인권위원회/노동자차별/노동조합가입정영연구소/녹색연합/다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희재단/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주연문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남녀연합/대전환경연합/대전홍사단/대한대수교장로회총회사회부인권위원회/다중친환경여과차시민연대/문학예술인연공동체/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장기수호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연호시민모임/민주연문운동시민연합/민주주

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교회선교연합/민중의소리/박정희기념관건립민대국민연대/반미여성회/법민권남측본부/법정학원남측본부/법정의집/보건복지민중연대/부산실록서당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광고인권위원회/불정등원 SOFA국민행동/사실혁명회/사회당/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세세상을여는민주교여성공동체/세운터/서울통일연대/성남시민모임/수원여성회/스프링페더문화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안양여성회/양성수후원회/언론개혁시민연대/여성사회교육원/영등포산업선교회/배장민주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울산비군기지원운동본부/우규치/우리문화정책심연구회/울산여성회/울산참여연대/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원불교청년회/의정부참여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전충남지회/인도라당생명공동체/인원통일연대장기수송환대책위/자연생태연구소마당/자주여성회(준)/자주문화통일민족회의/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조결산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생기행연합/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현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조결산연합/전국민중연대/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민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의회/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통일연대/전태일기념사업회/제3세계신학자협의회/제주여성회/제주참여환경연대/조국통일본민권남측본부/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좋은벗들/주부보살대전장력시지부/주한미군법외권결운동본부/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진보교육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참여자치총회를위한총선시민연대/참여자치21/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민주교광기수가족후원회/민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민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청소년단체위/충북여성연우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통일광광/통일민주협의회/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네드워크/평화물만드는여성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권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모항여성회/푸른충남리추진협의회/부본학교/학생평동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청년회/한국보육교사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실록서당소/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연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진화연합/한국여성경제인연합/한국여성학자협의회/한국자연재해합동협의회/한국제이디에스/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국환경교육원/한글문화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주무모임/향원교회/환경센터 불꽃세상/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희망

..은

이라크전 반대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침공이후 이라크를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주장해온 미국은 이제 전쟁 도발을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끝내고 침공의 시기를 몇 주내로 좁히고 있다. 명세제적인 변천이론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주요 동맹국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합의없는 단독 침공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일러부지기외 결과로 현재 일방한 미국의 제2차 이라크 침공은 최소한의 근거나 명분, 설득력을 결여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잔인폭력적인 전쟁 도발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을 주장해온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설이나 테러 지원설이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고 최근 화학무기 공장이라고 미국이 제기한 이라크 시설이 제해의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점이 밝혀지는 등 여지 증거와 인본을 호도하는 술수만 난무하고 있다.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 부시 행정부는 이제 이에 이라크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일방적 시도가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갖추어야할 그 어떠한 윤리적 성찰도 없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야기될 민간인들의 사상 문제, 국제법상 불법무기인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 문제, 핵무기 사용으로 야기될 무차별 살상문제, 전쟁후 미국 기밀의 식유제한 독식의 정당성 문제 등 민주사회가 타당히 다져야할 인도주의적, 윤리적 문제가 내뿜겨져 있다.

나아가 이보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지구촌 다수의 민주국가들이나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조차 이러한 반민주적인 미국의 패권정치를 비판하거나 교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넓은 단델라 전 대통령과 같은 극소수의 국가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그럴 염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외에 대다수의 이른바 민주국가가 보여준 태도는 무기력과 자포자기에 가까웠다.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할 지구촌에 이보다 더 암울하고 피보적인 태국이 있을 수 있는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는 한반도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풀거진 이후 북한에 대한 중용제공 중단에 이어 재국의 대북 식량지원마저 일제 중단시킨 미국은 최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주변에 전력을 증강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군사주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외면한 채 전쟁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 도발은 몇몇 국가의 조야한 무기개발보다 훨씬 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전쟁과 학살의 광기 속에서 어렵게 옹근 20세기 민주주의의 성과와 합의·협력에 기초한 국제정치적 확신을 총체적 위기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라크전으로 시작될 새로운 종류의 강권의 시대를 더 늦기 전에 저지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희망의 징표, 국제반전운동

최근 전국 각지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성황한 한국사회로움에서도 확인되었듯 지난해 시작되어 지

급까지 지속되고 있는 쏫불시위는 이러한 반전운동의 일환이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 의식과 양심의 보루이다. 미군 주둔의 현실과 함께 억압되고 있는 미 군사대권주의에 대한 인식은 이제 이 대권주의를 상대화하는 민주 평화세력과 양심들과 연계되고 있다.

국제평화운동은 지난 1월 18일에 이어 오는 2월 15일 최대 규모의 국제 반전행동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원주에서, 세계적으로 100여개 도시에서 미 대권주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의 이라크전쟁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전개될 것이다. 아울러 제2 제3의 호순이 미 선이가 될지도 모르는 이라크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막았다고 이라크를 향해 떠난 한국 이라크평화팀원, 미국의 폭격을 연명으로 막고자하는 국제 인간발매 참가자들과 함께 쏫불시위의 정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며 우리의 배국을 국제사회의 비국과 연계시키는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비록 이들의 숫자는 적지만 모든 역사적 진보가 그러하였듯이 반인륜적 패권정치를 막아내는 양심의 죽이 될 것이다.

우리는 대이라크전에 반대하며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에 대한 과병계획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원에도 반대한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반인륜적 전쟁에 협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라크전을 통해서 반인륜적인 대량살상행위에 참여한 군대는 신 정부가 추진하려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패배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용병처럼 강대국의 식민지 점령정착에 종원되는 군대를 둔 국가가 어찌 '중심국가' 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국정부가 이라크전을 지원한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서 향후 미국의 내정간섭이 증대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나마 미북한 민주주의 성지도 위협받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이라크전 반대를 호소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전쟁 참가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오는 2월 15일 국제반전행동의 날은 미국의, 미국인의 전쟁을 저지할 절호의 기회이다. 2월 15일, 우리는 군사력에 도취된 제국이 항상 치욕과 함께 몰락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평화의 힘으로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온누리에 밝힐 것이다.

2003.2.11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성명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03 한반도 반전□평화 여성선언

올해로 정전 50년을 맞는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그동안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지난해 우리 남, 북 해외여성들은 금강산에서 열었던 남북여성통일대회를 통해 민족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 그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땅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민족의 운명과 때 개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우리 여성들은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을 물고 올 어떠한 구설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굳게 단결하여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 나가고 이 땅에 다시는 불행과 고통, 전쟁이 일어 나지 않도록 국제적 여성연대를 강화하고 세계여성들의 평화적 힘을 결집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와 세계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여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같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이번 3.8 세계여성지날을 맞아 한반도에 감돌고 있는 전운을 달갑히 느껴내고 7천만 주민과 세계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들의 평화의지를 한데 모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에 조성되는 긴장과 갈등이야말로 7천만 겨레에게는 생사가 좌우되는 문제이므로 전쟁위험을 비롯한 그 어떤 군사행동도 거부하며 하루속히 한국정부를 포함하여 북□미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곧 중북미 평화 및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려나가고 세계 모든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다.

셋째, 우리 여성들은 세계 평화애호세력들이 단결하여 여러차례 퍼뚫한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부도덕한 전쟁과 전쟁위협으로부터 세계평화를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와 세계 각국이 군사적 힘의 최대치 대결을 촉진시키는 신진 과학 기술과 막대한 자원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와 인권, 환경을 위해 전용 사용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03년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해외 여성단체

여중생 범죄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불법 폭력연행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미군예견 승방당어, 여중생범죄위원 소환장 발부 및 불법 폭력연행

-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철회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정부는 촛불시위 관계자 소환하고 미군 범죄자 소환할수 있게 SOFA 개정작업에 나서라!

지난 3월 3일 종로경찰서가 '여군장갑차 여중생 및 신호소□심리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이하 여중생 범죄위)의 문경현 신부, 홍근수 목사 등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종일 집행위원장, 최근호 상환실장 등 8명의 여중생범죄와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그 내용은 2002년 12월 7일부터 2003년 3월 1일까지 7차례 열렸던 광화문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나 피의자 자격으로 출두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어제 3월 12일 경찰청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러 가던 여중생범죄와 소속단체 관계자 및 회원 21명을 무거버린 폭력으로 강제연행하여 현재 노랑진 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가둬놓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여중생범죄에 대한 대응방향이 왜 이러 강경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유가족들과 범죄대 대표단을 만나 촛불시위를 자제해달라고 할 때만 하더라도 한미관계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다보니 그런 요청을 할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면적으로 범죄대 관계자에게 소환장 발부 및 폭력연행으로 이미저리라고 도저히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 여성들은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한달도 안된 이 시점에서 해가 지난 범죄까지 소급해서 그것도 책임자 한두명도 아닌 범죄대 관계자 8명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한 것도 모자라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면담을 요청하기는 사람들을 대낮에 무제한 폭력으로 연행한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치명하게 죽어간 우리의 두 딸 호순이와 미선이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이 사건의 근본문제인 불평등한 SOFA 개정의 요구를 절기차게 촉구해온 '여중생범죄'를 폭력으로 짓밟는 경찰당국과 정부의 처사에 심히 분노한다.

정말 경찰당국이 말하는대로 집시법 위반이라면 경찰은 왜 지난해 12월에는 가만히 있었는가. 작년에 촛불시위시 집회신고를 하려는 범죄대 관계자에게 '촛불집회는 집회가 아니다 사건신고가 필요없는 추모행사'라며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최근에 와서 과도한 진압으로 그것도 해가 지난 일까지 소급해서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그러면 당시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발인지 피문지 않을수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촛불시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비단 여중생범죄와 소속단체뿐만 아니라 어린이, 주부, 노인 등 일반시민과 국회의원, 정치인, 해외동포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참여속에 진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찰당국이 무리하게 집시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촛불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무당한 처사이자 도무지 알 수가 맞지않는 행동이다.

따라서 여중생범죄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 대낮에 폭력적으로 연행된 범죄대 관계자 및 소속단체 회원들을 즉각 석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경찰청장의 공개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작 지금 해야할 것은 범죄대 관계자를 소환하고 연행하는것 급한 것이 아니라 하루마써 SOFA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일임을 노무현 정부는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 미중생 병대위 관계자 8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즉각 철회하라!
- 미중생 병대위 관계자 및 소속단체 회원 등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 무자비한 폭력 연행을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경찰청장은 공개사과하라 !
- 노무현 정부는 SOFA 개정을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라 !

2003년 3월 1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과 한국군 파병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한국정부는 이라크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미국은 명분 없는 이라크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미국이 한국정부에 이라크전 지지의사 표명과 의회지원, 인민차관 등을 요청해 올 때 3월 13일 존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이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이라크 전 발발시 미국을 적극 지원할 뜻을 분명히 했다. 총장관은 국익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며 공병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지원이나 의료지원도 함께 할 것임을 밝히고 이라크 전쟁 파병이 검토사항도 아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반면 이 날 국회의원 35명은 '이라크 사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반전평화요구 대열에 합류한 것은 매우 현명한 내용이다.

현재 이라크전쟁계획이 유엔안보리의 동의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파병문제는 의료지원, 경제지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전쟁을 지지,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전쟁 뒤처리를 남의 나라에게 함께 떠맡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다.

2. 지금 미국은 자신의 전쟁계획에 전 세계를 끌어들이며 전쟁감행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미 수많은 나라가 불조호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민중들의 만연 한성이 지구전체를 데어리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를 전의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 아프간전쟁에서도 알 수 있지만 무수한 전쟁난민이 발생하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였고, 현재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감행과 관련하여 폭발적인 세계 반전 시위를 접하고 있다.제다가 전쟁난민의 80%가 여성과 아동, 힘없는 민간인임을 볼 때 이 이라크전쟁의 결과 또한 그 파괴의 참상과 비참함은 불보듯 변하다. 군사주위가 지배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으며 이제 미국의 이라크 전쟁 계획은 이미 그 명분을 상실했다.

3. 한국정부는 국익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미국의 전쟁지원 요청에 적극 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정부에 되묻고 싶다. 도무지 주변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미국정부의 독물장군 식의 행태에, 석유패권을 강화하려는 전쟁계획에 도대체 무슨 명분과 근거로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것인가?

미군다나 한반도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라크 전쟁이 남의 일만은 아니를 피부로 채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나라 이전에 힘을貸어주는 전쟁지원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라크전쟁 다름으로 점쳐지고 있는 북한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없는 이라크파병은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될 수 있으며 제다가 이후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쳤을 시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4.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결정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재균형을 맞추겠다며 출범한 현 정부는 대장한 한미관계 속에 평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패권적이고 정의를지 못한 이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어떠한 정당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각

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한국의 젊은 군인이 의미없는 전쟁에 투입되어 무고한 생명이 비참하게 사라지는 현장에서 꽃다운 젊은 청춘을 보내서는 안 될 것이기에 한국군 파병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이라크파병계획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전쟁계획 즉각 중단하라.

2003. 3. 1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지 W 부시는 야만적인 침략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이라크에 대한 20일(한국시각 오전 11시35분) 오늘 미국의 공격이 시작됐다.

그로록 전 세계가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여론을 무참히 무시한 새 결국 부시는 이라크에 공습을 시작하였다.

도대체 미국이 말하는 세계평화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미국이 말하는 정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던 말인가.

미국 부시정부가 이라크에 공습을 시작한 이상 이제 미국이 말하는 정의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황혼한 전쟁을 일으킨 이상 미국이 말하는 평화란 더 이상 없다.

〈뉴욕타임스〉는 □침공까지 48시간 이내 3천여 발의 정밀 유도폭탄과 미사일이 퍼부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모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첫 미를 동안 사용된 미사일의 30배에 이르는 양이다. 또한 이번 전쟁은 미국이 그동안 개발한 최첨단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시범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91년 걸프전 때 죽은 이라크인은 20만 명이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30만 명의 이라크인이 죽을 것이라고 한다. 또, 사상자나, 아사자, 부상자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자는 무려 1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중동지역의 석유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번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부시정부는 이런 자신들의 패권적 야욕을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린 상황이라 이제 주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세계 평화에호가많은 더 이상 미국의 이런 무자비한 패권적 야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세계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짓하는 미국의 잔혹한 행태에 거세히 항의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 관리의 이번 작전을 □충격과 공포□라고 경고하면서 □이불, 사흘, 나흘, 다섯 사이에 이라크 인들은 완전히 녹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싸우려는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려고 한다. 몇 일, 몇 주가 아니라 단 몇 분만에 허로사다 원목 부하와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정말 이 전쟁이야 말로 “충격과 공포” 이다. 아니 넘뜰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다.

전리를 거스르고, 질의를 거스르고 지구를 피로 물들게 하는 부시의 침략전쟁은 용서받지 못할 지옥으로 기록될 것이며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21세기 꿈과 희망을 무참히 좌절시켰다.

우리는 어떤이와 여성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고, 끔찍한 환경 파괴와 그 후유증을 초래할 이 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

부시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조지 W 부시는 계획적인 대량 살육을 즉각 중단하라!

2003년 3월 20일

평화통일노는여성회

국회가 국민의 절절한 대의기구라면 한국군 파병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지난 28일 국회는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결정으로 대의기구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참으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노력했다. 그리고 탄원청화의원모임을 비롯한 50여명의 마·야 의원들의 파병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국회는 오는 2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80%를 넘고 있고, 파병을 반대하는 국민 또한 과반수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2-3일도 안돼 다시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바로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여기에 미국은 파병요청도 모자라 이라크 전쟁으로 등을 수용할 교도소 관대법까지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니 우리 여성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교전국 상대국의 포로를 다룬다는 것은 전투과정에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매우 위험한 일이며 게다가 참전국도 아닌 우리 한국군이 왜 그 위험을 맡아야 한단 말인가. 지금 공명당과 최보명을 보내겠다는 것도 결사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파병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여성들은 이라크의 수많은 어린이와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는 이 야만적인 미국의 침략전쟁의 현복판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국군 파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진정한 대의기구라면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만일 이런 침략전쟁을 국회가 승인을 한다면 여성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으며 다음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의 표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는 한국군 파병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라!

정부는 한국군 파병계획 즉시 철회하라!

미국은 무자비한 침략전쟁 즉각 중단하라!

2003. 3. 27

반전평화여성행동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비트릭,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한YWCA연합회, 두레당, 반미여성회, 부산여성회, 생태태근침을위한한소리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태평연대(군),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전쟁반대여성경화행동, 우한미국병리군정운동본부,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주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아이니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주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호주세페지모임, 환경운동연합 우부지킴이 / 이산 37회 단체]

이라크파병한 국회통과에 관한 설명

침략전쟁 공범행위, 국회의 한국군파병안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4월 2일) 국회는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정부 결정 이후 재시민사회단체의 뜨거운 파병반대요구와 전국민적인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표결강행처리에 국민으로서 분노와 배신을 감할 수 없다.

이번 전쟁은 유엔의 동의도 없이 미국의 일방적이고 명분없는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참혹중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재전이후 지금까지 무참히 죽어가는 사람은 결국 이라크의 힘없는 어린이와 여성이 대부분인 민간인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전당에서 이라크 민중들은 더욱 처참하게 희생될 예정이어서 이 추악한 학살전쟁에 대한 비난이 세계적으로 분출치릴 줄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군 파병을 결정한 것은 이 학살에도 동참하게 되는 결과이다.

어군다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동안 전국민적 반전여론을 무시한 채 이 파병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대의기구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깨닫게 잊어버리고 국민을 무시한 배신행위이며 국가 위신의 추락과 패권국가의 지원국가로 낙인찍히는 부끄러운 행위이다.

한국군 파병은 '국익'으로 논할 사항이 아니다.

전쟁한 '국익'은 국민의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존중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지 주고받기 식의 경제타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라크전은 지구역사상 가장 추악한 침략전쟁이며 이라크국민의 인권과 생명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의 인권과 평화를 짓밟은 전쟁이므로 한국군 파병은 우리 정부도 침략전쟁의 공범국임을 자임하는 결정이다.

지금 이라크에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 힘없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터에 우리 한 국군도 서있다고 상상해 보라. 지금은 학살현장에 우리 군인을 보낼 것이 아니라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이라크어린이와 여성, 민중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제 노무현정부와 국회는 침략전쟁의 현장에 우리 군인을 내몰고 탄 역사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 한반도 평화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후 전쟁반대와 파병반대 범국민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 등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의 현장에서 이라크파병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2003년 4월 3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군내 인권 침해 문제 및 국방부 '군기강 확립 종합대책' 에 대한 성명서》

최근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 등과 같은 군내 인권침해 문제들이 잇달아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지난 8월 1일 국방부에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종합 대책은 군내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은폐口호시키고, 또 다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본 단체들은 이번 국방부의 종합대책 및 군내 인권 침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 및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번 부대정밀진단 조사과정 및 구체적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내 성폭력 및 폭력 실태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하라.

국방부는 이번 '군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안'이, 지난 7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대정밀진단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밀진단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65만 육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가 단 15일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번 조사 및 그 결과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이번 부대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군내 성폭력 및 폭력 사건의 발생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이번 대책안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 부대정밀진단의 근거와 조사 방식, 그 결과를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개하고, 이번 종합 대책안에서 밝히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안이 어떠한 기준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문제에 대해 신뢰성, 객관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함으로써, 조사과정과 그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및 통념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성적 성향자와 이상성적 소지자 초기 식별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국방부는 이번 종합대책안 중 하나로,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성적 성향자와 이상성적 소지자를 조기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통념은 가짜인 사람, 다른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몇몇 특수한 개인의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은폐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은 결코 정신이상자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가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사회에서 소위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 성적 성향자를 가리내고자 하는 국방부의 대책안은, 최근 발생한 군내 동성간 성폭력 문제를 동성

여자에 의한 폭력으로 궁경지움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 군내 동성간 성폭력은 성적 정체성에 기반한 문제가 아니라 군내 위계관계 및 재작된 성문화와 성인식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및 폭력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통념 및 통상대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성적 성향차와 이상성적 소지자 조기 식별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야 한다.

3. 군내 성폭력 및 폭력문제 해결 기구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한, 운영상의 시정규칙들을 구체화하라.

국방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서,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부 공익신고센터 제정비, 신고시스템의 개선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했던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의 해결 과정들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적이고 위계적인 군 문화 안에서 군내에 피해 사실을 알려내고, 권리구제를 요청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동안 발생했던 군내 성폭력 및 폭력사건의 불투명한 조사과정 및 해결 또한 피해자들이 군내 시스템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할 때, 국방부의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내 인권 침해 사건 접수 창고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고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근절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정황들이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조사위원 포함 등의 시행체계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1.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성폭력 사건 및 폭력 사건과 관련, 민간단체 민간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조사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국방부는 유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부대정밀전단의 근거로 조사 과정, 그 결과를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3. 국방부는 민간단체 민간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군내 성폭력 및 폭력 실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시행하라.
4.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라.
5.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및 폭력은 '일부 문제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편견을 강화하고, 성폭력 및 폭력을 은폐시킬 우려가 있는 어떤 대책안을 전면 수정□보완하라.

이번 국방부의 종합 대책안은 일차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대안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폭력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신

새대장병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한 위계서열 계급사회의 권력관계,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되는 혐의인 것이다. 국방부는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인파악을 근거로 군내 내에 조직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단체들은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최근 발생한 군내 성폭력 및 폭력 등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군내 인권침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본 단체들은 본 요구안에 대한 국방부의 이후 반응에 주시하고,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동과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내 인권침해 실태를 군의 주도 하에 조사□발표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 하기보다는, 군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군 내□외부에서의 심각한 우려들에 귀 기울이고, 군내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본 단체들의 요구안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적극적 조치들을 위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5년 8월 1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톨릭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어성전우회, 한국어성의전화연합, 한국어성단체연합 국제열네스티한국지부성폭소수자그들

6자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의견

1. 우리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대화로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이 과속으로 치닫지 않고 차기 회담을 약속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참가국들이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2)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고려, 3) 핵 해법의 단계적, 병행의 방법으로 포괄적 해결, 4) 회담기간 중 북한의 추가적인 상륙 악화조치금지, 5)대화유지 및 공통인식 확대, 6) 6자회담 지속 등 6개항에 공감하고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외종)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2. 그러나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이라 해도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이 협상을 위해 한 발짝 양보하거나 다가서는 작은 진전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종래의 완고한 입장을 확인한데 그친 것은 향후 대화의 전망마저도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선망스런 대목임을 밝힌다. 양보와 다짐 없는 협상은 회담을 자신의 종래 입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전략이라는 세상의 의심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또한 우리는 협상 중에 공식적인 회담장의 발언(북의 핵보유 선언이나 핵실험 발언)을 전후 문맥 없이 흘러 협상을 무력화시키고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미 행정부의 일부 강경세력들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런 위기 조성 의도들이 한반도의 불안과 고통을 지속시키고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4. 우리는 차기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참가국 모두가 선 핵포기, 선 적대시정책 포기, 등의 요구들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길을 열어 한반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을 절박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6자회담에 참가하는 주변 4개국이 20세기에 법한 과오에 실수에 대해 엄중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현재의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우리는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이 지난 한 세기동안 한반도에 침여하고 있는 주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 온 사실을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20세기 초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침략과 식민화, 해방 후 미소의 분할 점령과 분단정부 수립, 3년에 걸친 한국전쟁과 남한을 제외한 3개국간의 정권전쟁, 등 강대국에 의해 덧씌워진 20세기의 비극이 21세기에 이른 오늘의 시점에도 여전히 한반도 주민들을 구속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평화를 갈망하는 한반도 주민들의 피사를 존중하여 차기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치들을 제로부터 진지하게 마련해 갈 것을 촉구한다.

2003년 8월 30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라크에 추가 파병 절대 반대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정부에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공식 요청을 해오면서 우리 정부 또한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할 방침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감할 수가 없다. 우리 여성들은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든 한국정부가 명분도 없는 반인륜적인 전쟁의 전후처리에 동참하여 이라크에 한국군을 추가 파병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1. 이라크 추가 전투병 파병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

이미 이라크전은 석유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이었음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으며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현재 미군희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제2차 베트남전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억울이 일고 있으며 미 의회 또한 전비 추가 승인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있다. 저금 이라크에는 영국과 호주와 전투병 외에는 비전투병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몇몇 나라밖에는 없다. 미국의 '종전선언' 이후에도 무당한 전쟁에 대한 이라크인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미군의 희생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급기야 미국은 전쟁의 책임을 타국에 전가시키며 파병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투병파병은 명분없는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결과이므로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

2.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다.

정부에서 제기하는 '국익' 또한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문제이며 남의 나라 불행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얻는 것은 도덕적 윤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 지금 이라크에는 이미 파병된 비전투병력마저 인명손실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투병파병은 대타격을 입을 수 없다. 지금은 분단상태에 놓인 한반도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내고, 그로부터 협력과 이해를 얻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대군다나 이라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투병파병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화와 국제사회로부터 조성될 도덕적 비난 또한 국익면에서 중요하다.

3. 유엔이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의 전후처리를 지며 파병결정을 결의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라크전쟁은 이미 미국의 명분없는 석유패권전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책임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이 그러한 명분없는 전쟁의 전후처리를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 미국이 전후처리의 책임을 유엔으로 돌려 파병결정을 요구하더라도 유엔은 미국의 원탁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라크인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평화적 해결로 민주적인 정치질서 형성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절대 반대한다.

죽음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힘의 세계 군사주의 질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추가 희생은 우리의 원색을 낭비하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피를 흘리게 할 뿐 아니라 이라크 민중의 회생을 낳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2003. 9. 15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행위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북일 정상회담 일주년을 맞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북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에서는 관계정상화라는 동떨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뒤늦게 밝혀진 일본인 납치 사건과 복귀한 핵전동을 계기로 일본 내 반북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와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는 비합리적인 편협감정과 관동을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최근 들어 한층 극심해진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차별과 일부 보수우익집단에 의한 재일동포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주목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일련의 폭력적 사태들은 일본 정부와 시민들이 표방해온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재일동포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 감정의 대응들은 동북아시아에 보다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존과 상호존중의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시대적 요구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극우적 움직임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일본에 있는 민족교육 현상들이다. 특히, 일본에서 정식으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전국 120여개의 학교에 등록한 1만5천 여명의 총련계 조선학교학생들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만단계 4개학교에 다니는 2천5백 여명의 학생들과 일본 학교를 다니며 170 여개의 민족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있는 3천 여명의 어린이들 역시 교육과 폭력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조선학교들은 법적·제도적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공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국공립 대학수험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적으로도 지방자치체의 보조이외에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해방후 탄생시킨 일본 사회의 차별 속에서 어렵게 구축한 고층한 민족교육·민족문화의 터전이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법제 강화와 재무장화, 헌법 개정 움직임 등 일련의 군사대국화·군국주의화 정책에 반대한다. 또한 일본사회의 군국주의화와 함께 강화되는 일본 내 극우세력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폭력 및 차별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가해주체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명확한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보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극우보수화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명확히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재일동포 특히 동포학생들에 대한 일본 내의 차별과 폭력 사태에 대해 일본정부에 분명한 대책을 촉구하고 이를 동포학생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제도의 미관미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 또한 이들 민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동포인권과 민족교육·민족문화의 권리를 지키내기 위한 동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

하며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재일동포와 민족교육에 대한 분단적 편견과 군국주의적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족화해와 한일공존을 이루기 위한 각종 토론과 교류를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사회 내의 평화를 사랑하는 양심세력들과 연대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과 비합리적인 감정의 대응들에 맞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건전한 각시자가 될 것이다.

2003년 9월 17일

(참여자단체 총 40 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고장선충보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국제민주연대, 그린피플
태운동연합, 남부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남북여권이어대동무, 다산인권센터, 대학노동조합, 동아시아평
화마을, 민족민주연사□회성과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
의회, 서울교육포럼,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아이들의보육을 걱정하는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원학도본아카
데미, 인천운동사당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
합, 참여연대, 전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유위험내일여성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
회, 평화포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주론아시아센터, 평화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학원없는사회,
한일대학생 평화 인권 캠프,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홍사단, 홍사단 교육연대(가나다 순)

2003.9.18

[성명] 여중생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을 당장 석방하라!

여중생 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이 경찰당국에 의해 연행되었다. 여중생 1주기 추모대회를 앞둔 6월6일 역시 미군에 의해 사지가 절단당한 채 1년여간을 신유하다 돌아가신 전동복씨를 추모하기 위한 대회와 관련 하여 최근호 상황실장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 경찰당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 당시 집회현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추모대회장에 난입하여 행사를 이수과정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상으로 붙여넣은 것은 다름 아닌 경찰당국이었다.

사실이 이러하건대 앞피를 뒤따루어 범대위의 상황실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도 모자라 지금까지 수배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당국 차원의 범대위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임과 동시에 두 여중생 사건 이후 국민적으로 불분명하고 있는 자주평화, 전쟁반대 운동의 행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행위로 범대위는 전국민과 함께 당국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미국의 침략야욕을 막고자하는 것,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왜가 될 수 있던 말인가.

이것은 300일이 넘는 광화문 촛불행진에 참여한 많은 참가자들과 국민들이 지금까지 미국과 노무현 정부에게 폭탄을 들러준 옥소리였다. 그런데 국민과 함께 한 범대위 관계자에 대해 계속된 수배와 구속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절절한 염원과 요구를 묵살하겠다는 당국의 의도에 다를 바 없다.

다시금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그렇게 사람을 가두고 연행한다고 해도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전쟁반대의 촛불 행진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범대위에 대한 탄압은 국민에 대한 탄압이며 이는 결국 거대한 촛불이 되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태국이 애국을 탄압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라.

최근호 상황실장을 즉각 석방하라.

자주평화의 촛불을 꺼뜨려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2003년 10월 6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호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이라크결의안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파병은 절대 안된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미, 영 점령군의 외연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1.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 구성을 승인하는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사령관이 이끄는 다국적군의 구성을 승인하고, 유엔회원국들에게 이라크 재건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미국의 노골적인 파병일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우리여성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미,영 점령군의 외연확대에 불과하므로 유엔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군사주의 패권정책으로 일관하는 미국의 점령군의 역할에 동원하게되는 파병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유엔의 평화유지군과는 엄연히 다르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분쟁지역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현장을 감시하는 현상유지가 주요임무이면서 집속국인 이라크의 종파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미군주도의 다국적군은 점령군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지 않은 채 다국적 확대를 의미하며 군비 또한 유엔이 아닌 참전국의 부담으로 추당하게 된다.

그동안 안보리 결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던 조, 독, 러 3국도 미국의 집요한 공세와 압력 끝에 결국 온성입장으로 선회했지만 파병, 재정지원은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라크점령군으로서의 미국 뜻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 따라서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은 유엔결의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에서 명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이 본연의태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없다. 아랍국을 대표한 시리아도 표결에 앞서 이라크전쟁을 통해 이룩한 것은 이라크의 파괴 뿐이라며 미국에 대한 이라크 침공을 강도높게 비난했으며 이미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터키, 스페인 등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과 저항을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역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이미 원대성향의 과도통치위원회가 이라크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라크 재건과정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4. 그렇지만 미국부시대통령은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힘입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 파병에 대해 더욱 압박해 올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파병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면서도 제대로 된 논의와 합의 과정 도출은 미흡했으며 유엔안보리의 결정 이후 갑자기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있다.

정부는 유엔의 결정이 있다하더라도 미,영 점령군의 외연확대에 불과한 다국적군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유엔 결의안의 성과와 한계를 적시하여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아직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두 정상간에 한국군 파병에 관한 어떠한 약속과 발언이 오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현숙 김숙영 심명희(직인생략)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1000인 평화선언

우리 여성들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미국은 이라크 파병압박을 중단하라

이라크 전투부대 파병여부를 앞두고 국민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전투처리의 책임 또한 한국정부가 떠맡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절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군사주의 패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파병압박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전쟁의 전투처리 책임을 위해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이라크 전역을 살상이 될것이지만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발진하지 못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조직과의 연계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미국의 파병요청은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비전투병으로 시작했던 파병 요구를 전투병 파병 요구로 이어갔고, 위험노출뿐 아니라 파병비용(3천명이 주둔할 경우 한해 7백84억원 소요)까지 우리 정부에게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투병 파병은 침략군 머군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위협을 떠맡는 일이다.

2. 전투병 파병은 국군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랍권 민족과의 갈등도 증폭될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체인유지한 비정규전 성격을 포함하는 반미시위를 타고 이라크 내 저항세력을 추격하면서 이들과 교전하는 일이 추가 되므로 이는 필히 양국 간 섀를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파병된 한국군이 다치지 않으려면 보강도 없으며 전투 군사적 증강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것이며, 이라크인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 또한 미군과 같은 전쟁군으로 함께 인식될 것이며 이라크 뿐 아니라 6억 인구를 가진 아랍권 전체에도 갈등이 증폭되어 공동시장까지도 잃을 수 있는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3. 미국은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민중이양 시기를 밝히고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라크인들은 머군이 들어와서 후세인정권보다 실질적으로 나아진 제 전혀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총 돈 외국군은 누구냐 침략군"으로 여기고 있다. 이라크인들이 전쟁으로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전기와 수도가 제대로 들어오고 생활이 안정되는 일이다.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인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라크인들의 생활과 인권이 나아질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라크 평화를 위해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민중이양의 시기를 밝혀야 하며 이라크인 스스로 경찰을 조직하고 피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이라크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평화를 호소할 명분을 잃지 될 것이다.

한미 동맹 강화, 경제적 측면 등 국익을 이유로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세계는 이라크전쟁에 명분을 주고, 책임을 떠안는 한국을 기억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핵을 이유로 대북협상의 강경카드를 사용해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조성될 경우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할 명분을 잃게 된다. 다른 나라 만중의 아픔을 이용해 우리의 국익을 논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는에 동참해서도 안 된다. 파병을 안하는 것이 결국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

5. 정부는 과병문제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2차 조사단을 파견하라.

국방부는 이라크 과병여부를 앞두고 실무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조사한 활동내용을 보고하였지만 미군들의 안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점, 조사시간이 매우 부족한 점, 군중심의 인적 구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부실조사의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이번 정부 조사단이 주로 비군사행부와 군정당국의 안내와 정보제공에 의존하여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하였으므로 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라크의 민심과 여론, 국제기구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인 조사단을 추가로 파견할 촉구한다.

6. 전 세계의 시민들이 우리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1차 과병 이후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가족, 질병, 가난, 일자리 부족 등으로 고통받는 이라크 민중들과 어린이, 여성들의 건강뿐이다. 미국이 점령한 후 패허가 된 이라크 땅은 생화를 잃었고, 희망을 잃었다.

우리 여성들은 평화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 정부는 전투무대 과병 여부를 자국의 이익을 쟁기기 위해 또는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들어갈 수 없는 길을 택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선택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0. 9

이라크 과병을 반대하는 여성1000인

<과병반대 여성평화행동의 날 길의문>

여성의 이름으로 과병을 반대한다.

정부는 이라크과병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무시정권은 노골적인 과병압력 즉각 중단하라

이라크 과병을 앞두고 정부가 파견한 대미과병협의단과 2차 정부합동조사단의 귀국 후 8, 9일 연이어 보도된 발언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전후복구가 제대로 안돼 이라크인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월부터 워싱턴에서 정치 공격화, 조직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김민복 조사단장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병반대 성격과 규모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이 명확히 다름을 확인하고 온 대미과병협의단의 보고내용과 이후 정부의 결정이 매우 주목된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여성들은 이라크과병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는 이라크과병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과병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5천명규모의 안정화군(Stabilization Forces)으로 실질적으로 전투병을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요구하였고, 한국정부는 '비전투병 2천명, 전투병 1천명'의 기본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병보다 비전투병의 수가 적다고 하여 그 부대의 성격이 비전투병이 될 수 없기에 정부의 기본구상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과병압력은 더욱 분노스럽다.

미국은 더 이상 노골적인 과병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과병을 요구하는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고, 과병을 결정했던 나라라도 들어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자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패권정책으로 일관하는 전횡주변, 무시정권에게 보내는 세계의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다. 유독 한국정부에 대한노골적인 전투병 과병압력 요구는 한국정부와 국면을 절지히 무시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정부는 이라크 내 치안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과병 대상국들이 잇따라 철회 또는 유보 쪽으로 태도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금 바그다드에서는 박격포탄이 시내 미군사령부를 향해 발사되고 폭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전선언 이후 처음으로 미군전투기가 날다다리는 등 이라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이라크를 방문 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러한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끊이지 않는 저항세력의 게릴라식 공격을 보면서 이라크를 사실상 '전쟁지역'으로까지 묘사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협의단과 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하여 16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례안보협력회의의 협상결과와 18일부터 파나는 국회 이라크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의 사태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이라크과병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굳이 정부조사단의 방문 필지 않더라도 이라크는 지금 전투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 수도,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의 재건과 구호가 더 시급하다는 것은 온 현상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과병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은 물론 보듯 명하다. 한국 의 유일한 과병국

이었던 타키까지 파병을 공식 철회(7월)하였고, 파병을 고려했던 나라들이 계속 철회 또는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 부담을 한국정부에 떠안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관수륙 더욱 선중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파병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병규모와 시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 이전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라크의 상황이며 파병반대 국민여론이다. 더 이상 미국의 논리를 보며 파병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선행되는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국내 여론을 활용하기는커녕 협상 상대자를 대신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정치외교의 당당성을 근본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부는 전투병 파병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을 신중히 수렴하며 이라크 파병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파병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더 늦기 전에 용기있는 주권국가로서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와 생명, 여성인권을 옹호하는 파관직 군사주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여성들은 이라크와 한반도, 세계의 폭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평화적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여 파병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노동원 정부는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은 노골적인 파병압력 즉각 중단하라.

2003. 11. 11

만전평화여성행동

기독여민회, 두레방, 여성문화예술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천주교여성공동체, 통일연대여성위원회, 전여대협, 반미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동여성위원회, 상대대근로위원회한소리회, 자주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한미군범죄구결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합,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대구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출격, 이라크서 민간인 희생자 발생
에관된 피해상황, 이라크 파병결정 당장 철회하라.**

1. 마침내 결하고 싶지 않았던 비보를 듣고 말았다. 30일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의 고속도로상에서 한국인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피격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얼마 전 국회 이라크조사단이 머물던 호텔에 보복포가 발사되어도 대수롭게 생각지 않던 정부를 보면서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 결국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접하면서 당면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성들은 우선 쫓겨나지 않게 피해를 당한 희생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부상당한 동료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2.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접한 후 "그간 우리는 테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고 용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 왔다"면서 "여번 테러는 군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더욱 더 용납해선 안되는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악화일로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이라크의 상황을 접하면서 민간인과 비민간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라크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분노하여 자살테러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주권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최후의 용무덤으로 죽음같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민중들의 거센 저항의 이유를 적시하여 우리 정부는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물론 민간인테러가 문제이지만 대통령은 민간인 테러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현실을 적시하면서 이라크파병결정으로 인해 침략군인 미국의 면에 선 한국의 인상을 심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

3.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오늘 열리는 NSC 대변회의에서 3천명 규모의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유지할 경우 파병부대 성격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그중 경우 최대 1천500명 수준까지 검토했던 특전사의 비율 강화를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이런 민간인 피해사건과 이라크파병문제를 질투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방부와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나 있는 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 파병결정으로 인해 한국정부 또한 이라크저항세력의 공격대상에서 전의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우리는 더욱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간인테러가 발생했다고 해서 특전사의 비중을 강화하여 보호하겠다는 발상에 분노스러움을 감출수가 없다. 특전사의 비중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라크의 상황이 나아지겠는가? 라는 의문 부를 뿐이다. 지금 이라크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정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특전사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고, 현재의 한국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함께 이제는 파병되어 있는 비전투병까지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4. 지금이 기회다. 생명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여성들은 강력히 주장한다. 노무현정부는 이라크의 상황을 보면서 노심초사하는 국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바라며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병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우리의 요구

1. 이라크 피격 사망자에 대한 심심한 애도와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빈다.
2. 노무현정부는 이라크 민중들의 지센 저항의 이치를 각시하여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3. 생명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여성들은 정부가 노심조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해야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3. 12. 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현숙 김숙임 심영희(지인생략)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국회 요구안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결이 급박하게 과속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이후 불거진 핵파문과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전쟁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와 정치권의 의지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국내외에 평화적 문제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결의를 표명해 줄 것을 긴급하게 촉구한다.

오늘날 이렇듯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과 북한 양자 모두의 책임이 놓여있다. 먼저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인 정부가 이룬 대북협상의 성과와 납득한이 이룬 화해-협력의 전선을 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북강경정책을 펼치면서,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근본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미국은 2002년 초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핵공격을 포함한 단호한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또한 북한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국제사회 및 미국 내부의 요구를 저버리고, 대북 중용 제강 중단,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 나포 등 압박과 제재로 일관함으로써 문제의 악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와 한국국민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협상에 들어가,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

한편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보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성격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하기로 한 영변 핵시설들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고, IAEA 사찰단의 추방을 결정하였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조치는 미국의 중용공급중단과 함께 제네바합의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조치들은 핵무기개발을 대미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조치들에 대하여 분명하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남한 사회에서도 북한의 강경조치들에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켜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추가적인 핵동결 해제조치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현재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떤 명분의 전쟁도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연속공통체'의 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는 급박하게 치닫고 있는 전쟁위기와 대결적 북미관계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한 조치를 강구하고 나서야 한다. 지금은 지루한 논쟁 대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하루 빨리 한반도 전쟁이라는 재앙을 막아낼 방안을 강구할 때다. 한국정부는 주도적으로 위기로 치닫는 북미관계에 제동을 걸고, 어둠을 평화의광명 태어날로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하여 한다. 또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디긴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나서야 한다.

특히 한국 국회는 초당적으로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한 특별 결의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한국시민들을 향해 전쟁한대와 한반도위기 해법의 평화원칙을 분명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가 더 이상 과거처럼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정쟁을 일삼지 말고 정다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반도위기를 조기에 방지하고 북한핵문제의 적대적 북미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적극적 노력에 나설 것을 긴급하게 제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결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북한핵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있다는 것을 결의하기 바란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무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국회사 국민은 이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위기의 책임에 대해 어느 일방의 편들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냉정한 판단을 통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정부와 한반도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기 바란다. 한반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한반도 주민이며 한반도의 주인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반도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한국정부와 한반도 주민의 의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는 북한핵문제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결의안에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위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임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 모조시 이를 완화·관리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다.

넷째, 국회는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북 중유제품 중단과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의 동시 철회, 양국의 상호 긴장고조행위 즉각 중단, 최대한 이른 시일 안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당선자가 특사외교 등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초당적일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건설적 비판과 정책 대안 제시는 바람직하지만, 북한핵문제를 전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이는 우리의 힘과 자해를 유실시키면서 민족 전체를 파멸의 위험으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상의 결의안 채택과 함께 위기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국회가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위기대응국민기구'(가칭) 마련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2년 12월 30일

녹색연합□HFN양복이평화포럼□민족회합은동연합□민족회해자주통일협의회□6월시장방□한국여성민주회□좋은뜻들□
참여연대□평화에트위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통일시민연대□한국여성단속연합□하늘
단체협의회□환경운동연합

Turkish - Korean - Japanese Peace Consensus on Iraq

The anti-war movement from Turkey, Korea and Japan have united to voice our opposition to our governments' collective complicity in supporting the illegal US and allied occupation of Iraq. We oppose the proposed, and further deployment of troops to Iraq and call on our governments to withdraw commitment to Iraq in this form.

Based on the Jakarta Peace Consensus, the peace-loving people from Turkish, Korean and Japanese civil society, demand an immediate end to the illegal occupation of Iraq by the US-led coalition and the immediate withdrawal and removal of all foreign troops, military advisers and representatives, military equipment and armaments.

We insist that our governments recognize that the Iraqi people have absolute and sovereign rights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No occupying power has the right to violate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Iraq. Any decision about the need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rests solely with the Iraqi people.

We strongly support independent civil society assistance to and solidarity with the Iraqi people however we urge our governments to seriously reconsider the form in which they commit themselves to the 'reconstruction' of Iraq. Any commitment should not serve as a cover to legitimize, or profit from, the illegal invasion and occupation of Iraq. Humanitarian aid must not be used to support or promote the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objectives of the occupying forces. We insist that our governments' involvement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of the Iraqi people.

Voices of Turkish civil society

We wholly reject the Turkish government's October 7 decision on to deploy Turkish forces to Iraq. We urge the government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Turkish people who oppose such involvement in Iraq and withdraw the decision of dispatchment.

Voices of Korean civil society

We oppose the Korean government's October 17 decision to deploy troops to Iraq. Korean people do not support this decision as we refuse to lend legitimacy to the US-led war of aggression and illegal occupation. We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focus on build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t to frustrate the building of better East Asian relations by deploying combatant troops to Iraq.

Voices of Japanese civil society

The people of Japan raise their voices against any proposed deployment of the Self Defense Forces to Iraq. We make a timely reminder to the Koizumi Government of the importance of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nd advocate that Japan not seek to follow a policy of militarization. Japan's grant assistance must be used for the empowerment and well-being of the Iraqi people and not to further Japan's corporate and state interests in the Middle East.

Turkey

- ? Global Peace and Justice Coalition
- ? Peace Initiative for Turkey
- ? Istanbul Social Forum
- ? Cinema for Peace collective

Korea

People's Action Against the Dispatching of Korean Troops to Iraq
(351 organisations)

Japan
Peace Boat
Peace Now Korea Japan
More to come

25 October 2003

Korea-Japan People's Statement against US requirement for sending troops to Iraq

October 25, 2003

Peace lovers around the world fought against war in Iraq. However, the US government headed by Mr. Bush brought about this war of aggression in Iraq. Furthermore, it is now requesting nations worldwide, such as

Korea and Japan, to dispatch forces to Iraq. The United States' request for dispatching forces to Iraq is an expression of unilateral doctrine and violence, as well as an attempt to shift responsibility for the war o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 in actuality, the war occurred for the sole economic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The whole world thinks that the war in Iraq, started by the U.S., is the one of the most immoral in world history, and obviously a war of aggression. It was made possible through lies and hypocrisy, dogmatism and supremacy.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re not, after all, found in Iraq, and the U.S. insinuation that Saddam Hussein was somehow tied to the 9/11 bombing of the World Trade Center was an

outright lie. The U.S. justification for war in Iraq was fraudulent, and the war is revealed to be a unilateral war of aggression for the sole benefit of the U.S. The world defines the U.S. as the enemy of peace because the U.S. destroyed the 21st century chance for world

peace and friendship. The U.S. could have chosen peace, but it chose war instead.

The war in Iraq is still being waged, and it is possible because of U.S. immorality. The citizens of Iraq are sacrificed in the struggle for supremacy over petroleum and power in the Middle East. Mr. Bush declared the end of the war on May 1st, but since then we see more death and injury in the Middle East. Anti-U.S. sentiment is spreading over the people in Iraq and the Islamic people. The Islamic resistance continues its vicious circle, with terrorism and retaliatory attacks toward U.S. forces.

The international dispatching of forces to Iraq will strengthen the US policy of invasion. Countries dispatching forces to Iraq will become an enemy and an aggressor, a threat to the Islamic people. We peace lovers from Korea and Japan declare that we will never allow the dispatching of forces to Iraq. And we want to keep peace in East Asia and the world. We peace lovers from Korea and Japan have confidence that dispatching forces to Iraq will bring more fighting and more tragedy to Iraq.

To end the war in Iraq, we must withdraw U.S. forces, not organize a multi-national force in Iraq. The US must recognize the sovereign rights of the Iraqi people, and as such, take heed when they declare that they do not want to be occupied.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must never act as the US has acted, as the aggressor, and must never bring disgrace to their respective nations and their people by dispatching forces to Iraq. The people of Korea and Japan declare that: they will not give a cent, much less sacrifice a life, for the

expense of this war of aggression.

We ask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to reject the US request for dispatching of forces to Iraq, to withdraw the decision to dispatch forces to Iraq, to take steps towards a peaceful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more we reject the militarization of Japan under the aegis of US war policy.

We emphasize that we reject the dispatching of forces to Iraq for the sak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n which there is much potential for war. Korea and Japan should not bring war to East Asia by dispatching their forces to Iraq. They should act instead to keep peace in East Asia.

We peace lovers from Korea and Japan will do our best to resist US policy regarding war, and to resist US pressure to dispatch our forces to Iraq. We the people of Korea and Japan, will continue to earn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through truth, under peace and friendship of the world.

<Our Request>

1. The US must withdraw forces from Iraq.
2.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must withdraw the decision to dispatch forces to Iraq.
3. The US should stop their unjust pressuring of other countries to dispatch forces, and instead, should give support to Iraq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5 October 2003

Japanese NGOs (300)

25 Oct. World Peace Parade Executive Committee / Action Committee Not to Allow U.S. Attack on Iraq (Kyushu/Yamaguchi) / Action Committee Not to Allow U.S. Attack on Iraq (Fukuoka)/Adachi Discussion Group on Constitutional Issues /Agora/Agora/Shouman/Arako-kai /Asian International Symposium Japan Secretariat/Asia Pacific Peace Forum (AIPF)/Asian Peace Alliance(APA)/Japan/ ATTAC Japan /Association against Militarism (Fukuoka)/Association for Peace Exchange with Youth of India & Pakistan /Association for Making Korea a Community of Synergy /Boete-no-Kai - Study Group on Constitution,Hyogo /Bura-no-kai: A Book Society on Families /Citizens' Urgent Action for No to War and to Abolish Security Laws /Citizens' Network 21 against Constitutional Revisions and All War Laws/ Citizen's Network, A Call for Withdrawal of Bases for the World Peace (Okinawa)/Association for Preventing Nago Offshore Base Construction /Okinawa Council for Promoting the Constitution /Okinawa Hito Tsubo Anti-War Laidowners, Kanto Block /Kansai Liaison Committee for Removal of Military Bases with Okinawa People /Nachidu Takara Network /Nachidu Takara Hiroshima /Citizens' Action Fukuoka Linking with Okinawa/Lecture Series on Okinawa in Solidarity with Okinawa Struggle for Independence and Liberation and Fighting against Japan-U.S. Security Treaty/ Lecture Series on Okinawa Culture /Committee of Lantern Demonstration Aiming at Getting Rid of Security Treaty /Dancing Group "Getto-no-Hana"(Shell Flower)/Education Workers and Amalgamated Union Osaka /Gensuikyō's Oita branch /Global Peace Toyama /Gobar Farm /Group for Let Constitution Alive /Group of Non-Violent Citizens to Protect the Article 9 of Japan's Constitution /Kamagawa Association

to Protect Peace Constitution /Kansai Joint Action /Kitakyushu School Workers Union "U"/Kyoto Action Committee for Lecture Series on Emperor System /Let's Change "Kanasawa" Network/National Network of Women against Military Bases/Oji-ki Church /Osaka Peace Cycle/Nagano Peace Cycling Executive Committee /Peace Cycle Tokyo /Akita Peace Committee/OKAYAMA PEACE COMMITTEE/Toyama Peace Committee/Tokushima Peace Committee /Kodaira Peace Committee/Peace Committee Tokyo/Sinjuku Peace Committee/Nerima Peace Committee /Pacific Asia Resource Center(PARC)/ Signature Movement against Koizumi & Bush /National Network of Japan-Korea People's Solidarity /'Objection! Japa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Campaign/National Congress for Supporting Korean Political Detainees/ South Korean Laborer Support Association in Japan /STOP! Citizen's Network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Article 9 Society - Over Tokyo /The Article 9 Society Hiroshima / Suwa Network to Spread Worldwide the Article 9 of Japan's Constitution /The Article 9 Society - Kansai /The Year 2001 Gifu /Stop Nuclear Fuel Cycle! Kanto Group of 10,000 People to Take Legal Action Utilizing Our Constitution Tokyo Committee /URIPARAM - Samunori Group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CENSUIKIN)/ Japan Communist Party Suwa Region's Cultural Support Group for Building a Sophisticated Culture/Disaster Victim Support Center of the Network to Realize Public Aid Law/International Peace Pilgrimage/Study Society for Problems of UN and Constitution/National FAX Communication against Cooperating with the War and Legislation for Military Emergencies /Support Group for Lawsuits of Soldiers and Civilians Stationed in Korea /Saitama Sogo Law Office/Group to Fight Together with Asian Workers in Japan/Association of Korean Democratic Women in Japan/Association of Korean Democratic Women in Japan Osaka Branch/Korean Alliance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in Japan(Hang Tong Ryon)/Korean Alliance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in Japan Osaka Branch/Circle for Reading Works of Korean Resident Writers in Japan /Japanese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of Koreans/Sapporo Peace Action/Sanya Welfare Center for Day-Laborers' Association Activity Committee/Action Committee Against Japanese Military Involvement/Broad National Alliance for Autonomy, Peace and Democracy/Kansai Network against War Cooperation/Shinano People's Movement: Research Group/Web on Constitutional Issues with Citizens and Scholars/Concerned Citizens of Japan : Tokyo/Civic Forum in Minon/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Aichi Branch/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Osaka Branch/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Okinawa Branch/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Kanagawa Branch/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Saitama Branch/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Tokyo/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Hyogo Branch/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Mie Branch/Japan Lawyers Association for Freedom Miyagi Branch/Save the Dugong Campaign Center (SDCC)/People's Life Finance Corporation Dispute Committee /Sexism and Emperor System Study Group/Human Rights Action Hamamatsu/Peace Net from Shinsyu/Sinjuku Democratic Association of Commerce and Industry/The Power of People/Space 21/Suwa Study Association/PINCH Against War and Security Control/Friday Lecture Series on War and Peace/Rally of Citizens' Movements against War/Nerima Action against War Cooperation/Kanagawa Committee of White Ribbon Campaign for Peace/NOIAWACS GROUP, HAMAMATSU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and Conflict Situations Network, Japan (VAWW-NET Japan)/No! to Rape, No! to Military Bases, Women's Group /Women's League for Intercepting Courses toward War, Kita/Itabashi/Toshima-City(KIT),Tokyo,Japan/'Not to be

Cheated by War Maker' Citizen's Group Disgusted with War/National Labour Union Communication Council(Zenrokyo)/Kawakami Chapter of Tokyo Union, Zenrokyo-National Union Communication Council /Women's Center of 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Zenroren)-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Women's Discussion Group, Tokyo Regional Headquarters of Zenroren-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Zenroren-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 Tokyo Regional Headquarters' Legal, Accounting and Patent Workers' Union/Ikebukuro Chapter of Legal, Accounting and Patent Workers' Union, Zenroren-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Committee for Peace and Democracy, Tokyo Regional Headquarters, Zenroren-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Securities-related Workers' Union, Tokyo Regional Headquarters, Zenroren-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Tokyo Regional Headquarters, Zenroren- 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Bunkyo-dai Higashi Chapter, Tokyo Regional Headquarters, Zenroren-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No Nukes Plaza "Tanpopo-sya"/Chigasaki White Ribbon Campaign for Peace/Global Citizen Lecture Series Amakusa/CHANCE!pond/Tele-communication Workers, Union/Fukuoka Network against the Emperor System/Kyoto Action Committee against the Emperor System/Hiroshima Network to Rethink the Emperor System/Tokyo Godo Law Office/Group to Protect the Nature of Tomakomai/Block the Road to War! - One Million Signature Campaign/Broad National Alliance for Autonomy, Peace and Democracy, Aichi /Nagano Asia, Africa, Latin America Solidarity Committee/The Japan Scientists' Association/Japan Scientists Congress Tokyo Branch /Study Group on Nuclear Strategy Issues, Japan Scientists' Association/National Christian Council of Japan- International Committee (NCCJ)/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Kanagawa District Special Board for Opposing State Secrecy Bill/Japanese Lawyers International Solidarity Association/Japanese Lawyers International Solidarity Association Tokai Branch/Peoples' Aid and Relief Association of Japan Suna Branch/Consumers Union of Japan/Hokkaido Action Group to Settle Japan's Post-War Responsibilities/NO! Security Laws, Go with Berkeley, Peace Action/Osaka Pal Coop Labour Union Part-timers' branch/Santama Legal Office/Santam Citizen's Group for Saharing Okinawan People's Anger/Tachikawa Tent Village for Watching the SDF Activities/Labour Movement Activists Congress/ Society for Realizing Ukocharanke between the Ainu and the Japanese/Sapporo Freedom School Yu/Action Group on "Concerning War Responsibility on Our Grandchildren's generation"/Miyagi Support Group for Former "Korean Comfort Woman Living in Japan" /Japan 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Yokohama Diocese/White Ribbon for Peace Action, Tokyo Group/Peace::Walker/Citizen's Group for Using the Constitution/National Christian Council of Japan Nishi-Chugoku Diocese Propaganda Committee Social Action Department/Japan Scientists Congress Tokyo Branch Musashino Tsuiken Group/Japanese Work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Activities/Osaka Law Office/Osaka Chuo-ku Reformist Club/Japan 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Media Literacy Club/Johoku Legal Club/Post Service Worker's Union/Asian Wide Campaign 三 Kyushu/Yamaguchi/Japan-Korea Association/Japan-Korea Education Forum/Osaka Security Labour Union Nakadate Branch/Joint Support Council for Labour Conflict at Nakadate Security/Democratic Lawyers Association/Japan Federation of Publishing Workers' Union/Osaka Area Congress/Gensuikyo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Tokyo Council/PEACE BOAT/Action Group for July 19 Citizens' Public Hearing on New Law for Dispatching Japan's SDF to Iraq/Aqua Housing Institute/Osaka Communication Group for Workers' Accident Support/Plaintiffs' Group of Trial on Discriminatory Treatment in Sumitomo Life Insurance/Kita-Senju Legal Office/Peace Cycle/Komae Group for Promoting

Peace Constitution/Japan-Korea association Tokyo Federation/Tokyo Federation of Prefectures Workers' Labor Union/'No War' * Kagawa Group/Peace Congress at Kagoshima Prefecture/Japan Korea Association, Kagoshima Preparatory Group/Meiji University Sundai Circle/Moriyama Law Office/Yabuka Foundation/ Yugo-Net/Citizen Caravan Against Contingency Legislation in Kanagawa/Citizen Coalition Against Contingency Legislation in Hiroshima/ Aichi Peace Action Against Contingency Legislation/ National Council of Labor - Postal Workers Union in Tokai/ Postal Workers Union in Chugoku/Citizen Coalition Against Revise of Peaceful Constitution/ Liberate Publishing/ Conscientious Objection Kansai Group/ Council of Labor's Movement/ Children of the Gulf War - Photo Exhibition U.S. Committee/ Buddhist Group for No War/Plaintiffs' Group of Trial on 'Kokoro' (thought) in Kitakyushu/Plaintiffs' Group for Trial on Textbook of History in Ehime/ Support Group for Trial on Textbook of History in Ehime/ Religionists Group for Peace in Imabari/ Free Space "Sourakumura"/ Group for Examination of Education in Ehime/Kitakyushu "Kawaraban"(News Paper)/Group For Peace With Costarican People/The advocacy advertising movement for Removal of US Marine Bases, Tokyo-Kanto Area/Betsukai-cho Group against US Marines Station/ Kanagawa Worker's Union Alliance/Korean Christ Church In Japan - National Council of Youth Group/ Support Group for 10.25 Peace Walk/Kitakyushu Action Group Against Japan-US New Guideline/All Weapons Into The Musical Instruments Peacemaker's Network/Association Of Worker's Union In Osaka Area/Kita-sensu Chapter of Legal, Accounting and Patent Workers' Union, Zenronen-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Youth Group of Legal, Accounting and Patent Workers' Union, Zenronen-National Union of General Workers/Block The Road to War! - One Million Signature Campaign/United Church Of Christian Japan, Kyushu District - Peace, Human Right Board/Japan Congress of Journalists/Japan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Group for "Norito"/ Peace Now Korea Japan/Coali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Of Atomic Bomb Victims/Christian Peace Network/Minami- Osaka Law Office/Japan-China Friendship Association Sinsjoku-Branch /Editing Comm itee of 'Against Dispatching Abroad of Japanese Military Force'/'Getto(name of the film on War in Okinawa)' Circle in Hamamatsu /Lawyer's Office of Hyakuro Hayasi/Trade Union of Lawyer's Of fice of Hyakuro Hayasi/Anti-Nuclear Joint Action in Ibaraki/Anti-Capitalist Action/Coordinating Committee of Movement Against the Emperor System/Group for Anti-Emperor System in Hyogo/Peace Action 21/Peace Action in Hamamatsu/Peace Cycle in Ohta/Kanagawa Network of Peace Cycle/National Network Of Peace Cycle/Peace Cycle in Hamamatsu/Hiroshima Network of Peace Cycle/Peace Saga/Peace News/People's Plan Study Group/Hitotsubashi University Mercury Circle/Group for Showing People's Will again st Hinomaru and Kimigayo(national flag and natinal anthem glorifying the Emperor's rule)/Kanagawa Group against Legislation and Press of 'Hinomaru and Kimigayo'/Human Renaissance Association/'Hyoutanjima'(the island of Utopia)/study circle/Hiroshima-Setouchi Newspaper/Buddhist group in Bingo against the Yasukuni Shrine/Pinch! Fukuoka/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No War Network/Kumamoto Prefecture Citizens for the Promotion of the Japan's Peace Constitution/Tokyo Group to Defend Peaceful Constitution and to dismantle Military Bases/A Peace Museum Grassroots House/Group for Peace and Welfare/N ational Group to Exchange Movements for Peace and Democracy/Group to Build Peaceful City in Fukuoka/Civic Action in Shizuoka for Peace and Human Rights/Association of Institutes for Peace and Democracy/Action of White Ribbon for Peace in Fukuoka/Movie Circle to Create Peace in Amakusa/Yamato Citizen Group

to Create Peace/Gathering for Peace in Nishi-Tokyo (B/Coalition Against the War of Revenge/Women's Department of General Union of Law,Accountment and Patent Offices/Hokkaido Peace Committee/Forum of Peace Movement in Hokkaido/Hongo Culture Forum Worker's School(HONS)/Voices of Water, Forestand Peace/Group for Seeking Future/Study Group on Ethnic Discrimination,Makugi'

Korean NGOs (351)

21C Korea Research Institute, Buddhist Coalition for Realisation of 6.15 Declaration, Human Right Committee of KNCK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angnam-Seocho,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angdong-Songp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angseo-Yangcheon, National People's Network-Gangwon,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Gangw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eoje, Network for Healthy Society(Association United), People's Network-Gyeonggi,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north Gyeonggi,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Gyeonggi,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Gyeonggi-Incheon, National People's Network-Gyeongnam,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Gyeongnam, Gyeongnam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Gyeongnam women's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yeongju, Fellowship for the Sufferers, Korea Womenlink-Goyang,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oyang, Green Korea United-Gongju,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wache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wangju, Gwangju Women's organization, Korea Womenlink-Gwangju, Gwangju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Green Korea United-Gwangju Jurnam, National People's Network-Gwangju Jurnam, Women's Association United-Gwangju Jurnam,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Gwangju Jurnam,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wangju,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Gunsan, Korea Womenlink-Gunpo, Korean Christian Action Organization, ????????, Gimjae Democratic Association, Korea Womenlink-Kimpo, Citizen's Coalition for Realization of Korea Declaration, Association for Citizen's Exchange in Korea, Korea Life Movement of Young One Buddhis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Namw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Namhae, Labor Human Rights(Institute for Worker's Rights), Power of Working Class, Workers Institute for Management Analysis, Green Korea United, ????????, Green Peace Party,???????,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Altogether,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Dangjin, Green Korea United-Daegu-Gyeongbuk, National People's Network-Daegu-Gyeongbuk,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Daegu/yeongbuk,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Daegu/yeongbuk, Daegu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Daegu Women's Association, Daeg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Daeg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Daejeon, , Daejeon Young Christian Association Daejeon Solidarity Network,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Daejeon Environmental Forum of Women Daeje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 Self-Government, Green Korea United- Daejeon-Chungnam,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Daejeon-Chungnam,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Daejeon-Chungnam, National Professors Association for Democracy-Daejeon-Chungnam, Daejeon Chungnam Forest for Lif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Daejeon, Young Korean

Academy-Daejeon, My sister's plac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Masan-Changwon, Masan-Changwon Women worker's Association, Masan, Changwon, Jinhae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Mokpo,?????????, Citizens for Culture Reform,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 ??????, ??????, Pan Korean Association for Reconciliation(MINHWAORYON), National Reconciliation, Self-reliance, and Reunification, Korean Democratic Labour Party,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Gangwon,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Gyeonggi,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Gyeongnam,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Gyeongbuk,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Gwangju,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Daegu,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Busan,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Seoul,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Ulsan,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Incheon,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Jungnam,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Jeonbuk,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Jeju,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Chungnam, Korea Democratic Labour Party-Chungbuk, Solidarity of Democratic Work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Gangwon, Korean Federation of Construction and Industry Trade Unions,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Gyeonggi,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Gyeongnam,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Gyeongbuk, , Korea Federation of Transportation Public & Social Service Worker's Unio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Gwangju-Jungnam, Korea Professor's Union, Korea Metal Workers Federatio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Daegu,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daejeon, Korean University Workers Union, Korean Bus Workers Union, Korean Federation of Taxi Workers Union,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Busan, Korean Federation of Temporary Professors Union, Korean Federation of Clerical & Financial Labour Unions, Korean Federation of Private Service Workers Union,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Seoul, Korean Federation of Institution Management Trade Unions, Korean Federation of Press Unions, , Korean Federation of Women Workers Union, Korean Cargo Workers Federatio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Ulsa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Incheon,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eonbuk,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Jeju, ,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Chungnam,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Chungbuk,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Gangwon,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south Gyeonggi,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east Gyeonggi,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Gwangju jungnam,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Daegu Gyeongbuk,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Daejeon Chongnam,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Busan, National Alliance for a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southwest Gyeongnam,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Seoul,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Ulsan,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Incheon,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Jungju Wanju, 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or for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Coalition for Anti-Memorial of Park jeong hee, Women Association for Anti-America,?????????????????????????????, People's Solidarity for Health & Social welfare,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Busan Green Korea United-Busan, National People's

Network-Busan, Busan Counseling Center Against Sexual Violence, Korea Women Association Unite-Busan, Busan Women Education Center, Busan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Busan Women's Association,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Pusa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Busan, Bucheon Women Worker's Association, Buddhist Solidarity, Environment Solidarity of Buddhist, People's Action for Reform of Unjust ROK US SOFA Agreement, Association of April Revolu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Sekcho-Goseong-Yangyang,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Sacheon, Socialist Part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a New World,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Seosan-Taean, Solidarity for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Korea Womenlink-Seoul-southwest, Korea Womenlink-Seoul-northeast, National People's Network-Seoul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eoul,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Seoul,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Soecheon, ?????, Seongnam Citizen's Group,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Seongnam,????????????, Sewon Women's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Suw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Surcheon, ???????,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Sihung, ???????,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Asan, Ansan Center for Labour Human Righ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Anyang-Gunpo-Uiwang, Ans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Anyang-Gunpo-Uiwang, Anyang Women's Association, Supporting Committee for Prisoners of Conscience, Women's Social Education Institute,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Yeosu,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Yeosu, Open Society Hope Solidarity,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Osan-Hwaseong,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 ??????????, Wolsan Women's Associati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of Wolsa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Wolsan, ?????????, Human Right Committee of Wonbuddhism, The Wonbuddhism youth Association, Korea Womenlink-Worju,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Worju, Yuseong Coalition for Democratic and Self-Governance, Uijungb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Iche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Isean,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Indrnet Community for Life, Solidarity for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Green Korea United-Incheon, Incheon Women Worker's Association Incheon Womenlink,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Incheon, ?????, Women's Association for Self-reliance,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Janghung,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orean Farmers League, The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Newspaper Reporter, National Clergy Conference for Justice and Peac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National People's Network, Korea Contingent Workers Center, ?????, Korea Women's Trade Union, Korea Women Farmers' Association,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Daejeon, ?????, Korean Farmers League-Gangwon, Korean Farmers League-Gyeonggi, Korean Farmers League-Gyeongnam, Korean Farmers League-Gyeongbuk, Korean Farmers League-Gwangju jeonam, Korean Farmers League-Junbuk, Korean Farmers League-Jeju, Korean Farmers League-Chungnam, Korean Farmers League-Chungbuk, Junbuk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Junbuk, Junbuk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Juribuk Solidarity for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omen Against War,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Jinju, JunTae-il Memorial Society, ??????????, ?????. Jeju Women's Association,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Jeju, Jeju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Self-government & Environmental Preserva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Jeju,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Jecheon, ??????, One Korea Buddhist Movement, Goodfriends, National Campaign for eradication of crimes by U.S. troops in Korea, Institute of Progressive Education, Jinju Womenlink,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rents for Cham Education,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Jinju, Chuncheon People's Solidarity, ??????, ?????,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Changnyung,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Cheonan,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 Reunification Youth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Cheongju, Chuncheon Womenlink,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Chuncheon, , Chungbuk People's Network, Chungbuk Women's Association, Chungbuk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Citizens/Solidarity for Participation & Autonomy of Chungbuk,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 Changju, ??? ??,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ChungCheong, , Solidarity of Korea Peac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Tourgyoung, ???, Preparing Towards One Korea(Tongilmasi), ?????,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Paju,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Pyeongtaek, Pyongtaek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lf Government, Civil Network for a Peaceful Korea, Women Making Peace, Incheon Network for Peace and Participation, Solidarity for Peace and Human Right, Citizen's Network for Peaceful Reunification , Pohang Women's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Pohang, Korea Progressive Academy Council, Korea National League of YMCA, Korea Church Women United,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Labor Studies Policy,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The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Hanchengyun), Korean Lesbians Gays Bisexuals Transgender's Coalition for Human, Korea Childcare Teachers Association,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s United, Korean Women Link, Korean Women's Studies Institute, Korea Women's Hot Line,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The Korea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Korea Youth Movement Council, Korea Youth Corps, Korea Life Culture Research, Citizens' Action Network, Taegu Housewives' Association (hamjamo), Citizens for Abolition of The family Headship(hoju) System Korea Environmental Litigation Center, 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 Movement-Wheongseo

**International Appeal to Protest Against the Dispatching of Korean Combat Troops to Iraq -
The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must say no to Washington's unjust request
for additional Korean troops!**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unilaterally started the War on Iraq despite the opposition and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quested the Korean government to send additional troops to Iraq. Such a request by the US is yet another expression of American unilateralism as it is an attempt to shift the responsibility and burden of the immoral wa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we note that such a request amounts to Washington's admission of the failure of its preemptive strike strategy in Iraq. Despite Bush's declaration of victory, the war is far from over. As the war is dragged on, the number of US troop casualty has already surpassed the number during the war. The war has not brought peace to Iraq. It has

only brought the vicious cycle of revenge and terror instead. As a result, the US is facing ever growing resistance from the Iraqi people and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against the unilateral war and occupation, both without justifi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US' illegal war, international peace organizations and peace loving citizens warned that a war would only lead to a vicious cycle of more violence. This is the reality in Iraq today. Immoralities of the war are also found in many places.

New facts are uncovered showing that warmongers in the US and UK lied and manipulated their evidences to justify the war. The US has searched everywhere in Iraq but failed to find any trac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urthermore, it has not yet produced concrete evidences that Saddam Hussein is connected to the terrorists who committed the 9-11 attack. As of this mo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being pressur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to dispatch a light infantry unit (approximately 5,000 troops) with independent command. The US is forcing the Korean people to dispatch troops who will face the Iraqi people at gun point. The Korean government must say no to such unjust request. Sending Korean troops to the battle field where

nothing can't be foreseen except death means walking into the abyss of a long term war where they, together with the US soldiers, will be embroiled in a vicious cycle of violence. Increasing combat capability will inevitably lead to more casualties, which will then prompt stronger resistance. Additional Korean troops will not help to ease the tension between the US military and the Iraqi people. It will only heighten the tension instead. The real reason why the US military is in a predicament right now is that it is currently occupying Iraq after an illegal preemptive strike. Moreover, sending of combat troops will only worsen the situation in Iraq and arouse the resistance of the Iraqi people. In order to resolve internal conflicts in Iraq, the US must first admit its wrong doing and immediately announce its plan to withdraw its military force from Iraq. If and only if the people of Iraq requests UN's assistance in nation rebuilding and the UN decides to form a peace keeping force afterward, we may discuss the issue of participation. Even in this case, we believe sending humanitarian economic aids and reconstruction assistance is a more effective means than dispatching combat troops. Iraq questions including the issue of dispatching more troops must be approached with a view to ending the tragedy of Iraq and no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 government. Having gone along with the US invasion of Iraq, Korea too cannot be completely free from taking responsibility of the tragedy of Iraq.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begin to search for a new role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the alleviation

of the Iraqi people's sufferings and the immediate establishment of democracy in Iraq for the people of Iraq, not for the US. Korea must abandon even the idea of sending additional troops and instead work for the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return of peace in Iraq. At the minimum, the Korean government must clearly and immediately turn down Washington's request for combat troops.

** People's Action made International Appeal to Oppose Dispatching Korean Combat Troops to Iraq. This appeal was signed by six international NGOs and 371 NGOs and 146 individuals in Sou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We sent this message to President of ROK Roh Moo Hyun a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 Bush and the US embassy in Seoul on October 16, 2003.

Stop War Planning and Start Peace Talks

An International Appeal to Oppose War Provocation in Korea and to Resolve North Korean Issue by Peaceful Means

For the past five decades, the horror of war has constantly dominated Korea, instilling mistrust, hatred, and confrontation in the people living in North or South Korea alike. This quasi war-state has also frustrated the efforts they have made to develop a peaceful Korea and a peaceful world. The era of confrontation must end now. As we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we invite you to proclaim with us a Jubilee of Peace, a year marking the start of a new epoch of peace and reconciliation, coexisten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e peoples of Korea and the world demand that the armistice be replaced with a peace treaty as a way to end the current confrontation an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peoples' wishes notwithstanding, a danger of war looms large over the Korean Peninsula at the moment. The conflict is between the US administration demanding unconditional dismantlement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North Korean government refusing it for a security guarantee. Attempts to resolve this issue by threats and sanctions have only escalated the tension, leading to the *de facto* annulment of the 1994 Geneva agreement that had sustained a hope for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nuclear issue. This year the tension between the two sides has ascended to an unprecedented level, making war a real possibility.

Military means cannot be a solution to the current dispute. The nuclear and security issu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should and can be resolved by peaceful means. The forthcoming six-nation talk on the issue, once deemed impossible to many, can be a starting point for a new direction. We, NGOs and peace groups in Sou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make the following appeals to everyone who denounces war as a way to peace.

-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must be resolved only by peaceful means. For this the US, North Korea and all other parties involved in the forthcoming multilateral talk should engage in a dialogue with a genuine commitment to peace. Threats of containment or use of forc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negotiating table, as such threats have only obstructed meaningful talks in the past.
- We oppose the development, deployment or use of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is non-nuclear principle, we oppos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s well as the US deployment and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of the two Koreas must be respected by all states, and the US must clearly denounce its nuclear first-strike policy.
- The current crisis should be resolved by a package deal where the U.S. provides for a security guarantee and the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the North's freeze of all nuclear weapons programs. South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 need to support and guarantee the commitments made in the package deal while North Korea is required to conduct earnest dialogues with her neighbours. Only by replacing the armistice with a peace treaty, can the sources of the continued military confrontation as well as the sources of future conflict be removed once and for all.
- We believe that any policy regarding Korean futur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Korean people's views and hopes. It should be clearly noted that the Koreans desire no war but reconciliation, cooperation, peace building and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We welcome the proposed six-party talk as a diplomatic success jointly achieved by the governments of North Korea, the US, China and others. This frame of talk should serve as a venue of resolving the prolonged conflict in such a way as to fulfil the peace wishes of the Koreans.

A deadly arms race is on the horizon in Northeast Asia. The US has adopted a nuclear first-strike posture, is promoting high-tech weapons systems such as the missile defense, and is increasing it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Using the North Korean crisis as a justification, Japan is bolstering its military capability while dismantling legal constraints on its military activities. China and South Korea continue with their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s. This trend should be stopped now. Otherwise it will soon create an insane arms race that will doom the prospect of peace in the region and the world. We urge the governments in the region to realize the danger of this trend and to start immediately working together towards security cooperation and disarmament.

Recognising the tremendous positive effect that the peace-loving peoples of the world have made in preventing war, we are determined to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m to bring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urrent crisis not only as a way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s a way to contribute to building a peaceful world. We appeal to everyone to work together for the world where peace and co-prosperity prevail over war threats.

August 2003

Forum of the June
Green Korea United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Korea Progressive Academy Council
Korean Professors Union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National Counci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Women Making Peace

Women Committee for Cooperation Meeting of the North & South Korea

민족공동행사를추진본부 여성위원회

4th floor The Women's House of peace, 38-84 Jangchoong-Dong1ga, Joong-Ku, Seoul, 100-391, Korea Tel : 82-2-2275-4860 Fax:82-2-2275-4861 , e-mail: wnp@peacewomen.or.kr

Date: July 2, 2003

Mr. George W. Bush,
President of USA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20500

March, 8, 2003

Dear President Bush

We send greetings of peace.

We, Korean women who support peac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tension and the sense of crisi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se days, and would like to define our position.

Women from North Korea and South Korea met together in Seoul for the Conference of Peace and Reunification for Korean People from March 1-3, 2003. We signed the 'Declaration of Korean Women Against War' during this conference, and announced it on March 8, International Women's Day.

The strong will of women from North and South Korea that we want no more war in our land is expressed in the declaration.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perceive the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serious threat to the survival of the Korean people, and we will do our best to prevent war. We will campaign against war to maintain the autonomy and dignity of our people. And we will work with women from all over the world for world peace. We enclose the Declaration of Korean Women Against War issued on March 8, 2003, International Women's Day. We sincerely urge you to read it and join us keeping peace in Korea and the world.

Sincerely,

Korean women who long for peace:

South Korea:

Women's Committee for Promoting Joint Ev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 1) Women's Committee of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2) Women's Committee of Solidarity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3) Women's Committee of Seven Main Religious Orders of South Korea

North Korea:

Central Committee, Democratic North Korea Women's Alliance

Women's Association of North Korea

Department of Women,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Enclosed: Declaration of Korean Women Against War, March 8, 2003, International Women's Day

In Commemorat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Declaration of the Women of the Korean Peninsula
Opposing War and Pursuing Peace

The South-North Women's Convention for Reunification held last year at Mt. Gungang w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position and role of women - comprising half of the population - of Korea, for bringing to fulfillment what was pledged in the June 15, 2000 Joint Declaration, and for securing the peace and safety of this country.

Today, women's groups from all classes are joined as one, keeping in step with this nation's strong determination for independence, unity, reunification.

Despite our strong desire and many efforts for peaceful reunification, the crisis and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greater.

On International Women's Day in this crisis situation when war seems imminent, the women of the South and North, with powerful determination to ease the tension surrounding the peninsula and to protect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is nation, solemnly proclaim:

1. Women of the North and South see the danger of war threatening this land as an issue of great importance to this nation's destiny and the life or death of each individual.
2. Women of the South and North will unite our strength and actively work to preserve national independence, dignity, and peace.
3. Women of the North and South will actively engage in antiwar movements, working together with women's groups around the world, and will seek to achieve a unity of peace-loving women all over the world.
4. The key to national peace is in the fulfillment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omen of the South and North with a desir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proclaim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s a joint national landmark, and will move forward on the road to an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and national solidarity.

March 8, 2003

Women of the Korean Peninsula
Opposing War and Pursuing Peace

2003 The Year of Independence and Peace
New Year's Statement by the Korean Civil Society
Press Conference

January 13, 2003

New year is dawning in the Korean peninsula amidst unprecedented tension and hope. Korea, marking the 50th year of the ceasefire from the Korean War, remains the only divided land steeped in Cold War in the world, the scars and wounds of the War still very much current.

North of the dividing line is beleaguered by isolation and starvation; the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over the alleg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that reignited last year has split over into the new year, drawing the entire peninsula into a renewed crisis, with the breakout of a war seemingly just around the corner.

On the other hand, the hope for change has taken its root and set to gain strength. The momentum of pea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soared to new levels over the last few years. And the aspiration of the people to fend off the likelihood of war and destructive confrontation from the peninsula has risen to new heights.

People of South Korea have clearly articulated, through a series of candle-lit vigils and rallies that erupted in the wake of the deaths of two middle-school girls who were ran over by an armoured vehicle of the U.S. military, the will to establish a new Korea-U.S. relationship based on reciprocity and equality and to oppose the violence of militarism and war.

We declare 2003, which marks the 50th year of ceasefire in the Korean War, as a Year of Self-Determination and Peace, and have set our position.

This year should be devoted to laying a new foundation of Korea-U.S. relations based on equality, paved through the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killings of two middle-school girls and the amendment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eaths of the two middle-school girls who were ran over by an armoured vehicle of the U.S. military last June, and the subsequent handling of the case have brought out the inequality very inherent in Korea-U.S. relations. The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ought fit not to find anyone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the two schoolgirls. In reality, the deaths of the two girls are just one of many similar incidences, which have largely gone "unnoticed" in Korea. All of these cases have been swept aside in a succinct fashion by U.S. military authorities - without even pretence for transparency or fairness - for the comfort of the culprits by pulling the rank of U.S. military personnel. The protest that erupted from the Korean people stems not from spur of the moment emotion but from accumulated anger and frustration, which can only be addressed by fundamental readjustment of Korea-U.S. relations. A comprehensive overhaul of the current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hich stands in the way of justification in handling two girls killed, is a minimum prerequisite towards this end.

We cannot accept "measures for improvement" in the operation of the SOFA worked ou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U.S. and Korea. The "improvements" do not address the fundamental inequality inherent in the SOFA, nor can they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incidents. They fall far short of the demand for a fair and equal Korea-U.S. relations put forward by the great masses of Korean people who have carried on the candle-lit demonstrations. We shall continue with the peaceful protest until those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two schoolgirls are brought to justice, U.S. President George W. Bush

makes a formal and public apology, and the SOFA is revised fundamentally.

We call on the U.S. government and media to address the Korean people's protests with greater clarity and sincerity. The dismissal of the protests as senseless emotional outbursts or as banal rationalism, by som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media practitioners, fails to grasp the rising tide of aspiration for peace and sovereignty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roughout the world. The U.S. government and media need to recognise the just and reasonable demand calling for a redress of the inequality in the Korea-U.S. relations and the privilege bestowed on the U.S. troops in Korea.

This year should be devoted to the laying of a new foundation of Korea-U.S. relations based on equality, paved through the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killings of two middle-school girls and the amendment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which remains the only divided land gripped in Cold War, has, over the last few years, taken important and momentous steps towards historic changes to finally rise out of and put behind the half century of confrontation and hostilities. The historic inter-Korea summits and June 15 Joint Declaration instituted an entirely new framework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gnalling the beginning of the end to hostile inter-Korea relations. They paved the way for the October 12 Joint Communiqué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the North Korea-Japan summit meeting, which have given energy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Despite considerable changes and progress,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overshadowed by a serious threat of war. The refusal to engage in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the suspension of crude oil supply, undertaken by the U.S. Bush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October visit to North Korea by Kelly and the subsequent allegation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and the North Korean decision to lift the freeze on nuclear facilities and the declaration to withdraw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have rekindled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setting the scene for the eruption of a serious crisis.

In addressing the current crisis, we cannot but point out inherent dangers of the unilateral foreign policy posture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U.S., despite possessing the largest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has consistently resisted nuclear arms reduction and has refused to join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It has failed to live up to security guarantee towards North Korea contained in the Geneva accord and refused to rule out pre-emptive nuclear attack on North Korea.

The Bush Administration has unilaterally turned its back to the achievements made in North Korea-U.S. relations by the preceding Clinton Administration, nullifying the progress. At the same time, it has willfully stood in the way of the effort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improvement in inter-Korea relations. It reverted to the hostile posture towards North Korea, defining North Korea as a part of the "Axis of Evil", setting the scene for the inflammation of tens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 reality, the U.S. has failed to present the clear evidence of its accusation concerning th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of North Korea. It was set on unilateral retaliation against North Korea, refusing to engage in any kind of dialogue, provoking the North Korean response lifting the freeze on the nuclear facilities.

We are deeply concerned by a series of North Korean measures, starting with the lifting of the freeze on the nuclear facilities in Younghyun, the expulsion of the IAEA inspectors, and most recently, the declaration of withdrawal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n the midst of the rising suspicion surrounding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 declaration of withdrawal from the NPT, coming at the heel of a new round of efforts by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 to prioritise dialogue and to refrain from provocative measures, is most regrettable. The action is a cause

of concern in all the countries involved that North Korea is intent on rushing to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rough the reactivation of various nuclear facilities. In pointing out that a series of actions taken by North Korea, leading up to the declaration of withdrawal from the NPT and undermining the international good will which has sustained the efforts to enhance dialogue and the very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and all the forces of peace in the world working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current problems, we call on North Korea to withdraw its decision to leave the NPT regim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realize that the hard-line measures may give rise to an undesirable turn of events, precipitating to a war that might break out in the Korean peninsula.

We call for the "nuclear weapon-free Korean peninsula" and, as a part of this vision, oppose development, deployment and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we oppose reliance on war or use of force or blockade as means of dealing with any problem. The greatest victims of any war i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80 million people living in this land. We shall not allow any moves, measures, and consideration for a war totally disregarding the will of the people. A comprehensiv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olution of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ove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can only be obtained by negotiations in good faith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e call for "unconditional dialogue and simultaneous reciprocal a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e note that there are signs of initial efforts towards dialogue, such as the U.S. government's indications of its readiness to return to dialogue on this issue, and the contacts between a representative of the North Korean authority and Governor Richardson of Texas. We feel there is a room for encouragement in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statement points to a possibility of resolution through negotiation, as it expresses a commitment not to pursue nuclear development despite the withdrawal from the NPT, and readiness to subject itself to a verification regime acceptable to the U.S. if the U.S. brings its hostile posture and nuclear threat against North Korea to an end. We call on each side to build on these openings to institute a rigorous dialogue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to bring tension concerning the alleged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program to a peaceful resolution.

The first step in negotiation should take the form of simultaneous withdrawal of the decision, on the part of the U.S., to suspend the supply of crude oil, and on the part of North Korea, to revoke its decision to lift the freeze on nuclear facilities and to withdraw from the NPT. What should ensue is a package settlement through a comprehensive negotiation. The U.S. should articulate the commitment of non-aggression towards North Korea, conclude on a peace treaty, remove North Korea from the list of nations supporting terrorism, and lift economic sanctions, which sets the framework guarantee for North Korea's survival and security. In turn, North Korea should institute a clear renouncement of nuclear intentions demonstrated through a verification regime acceptable to the U.S. and the renouncement of its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missile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call on President Kim Dae-jung and President-elect Roh Moo-hyun to resolutely stand against any measures of blockade or war that would escalate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lace efforts to facilitate dialogue and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o bring the issue to a peaceful and mutually acceptable resolution. We call 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continue on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support of North Korea plagued by food and energy shortage.

We call on Japan, China, Russia, and EU and all other concerned countries to support the efforts for peaceful resolution of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to continue with humanitarian support of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2003, all peace-loving and peace-making forces of the world need to build global solidarity to defend the world from unjust wars and threats of wars that are raging in various corners of the world, such as Iraq.

We have learned from the war in Afghanistan, which began in the name of a war against terrorism,

that a war, in whatever form, is extreme violence against the lives of innocent people leaving behinds deep wounds, scars and ruins.

Another war is looming over the horizon even before the dust of the previous war has settled. Following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U.S. has embarked on an unprecedented pursuit for unilateral hegemony. The U.S. has singled out the Hussein regime of Iraq as a grave threat against world security and peace through its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supporting terrorism and is methodically inching towards a war. Iraq, however, has accepted to comply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441 unconditionally and has allowed UN inspectors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weapons inspection. The Iraqi government has, in December, last year submitted to the UN a voluminous report on the development and posses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Bush Administration of the U.S., however, has already, before the conclusion of a verification process, ruled that Iraq possesses dangerou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its justification for the war drive.

The U.S. Bush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present any concrete evidence of Iraq's threat against the U.S. or any other country for that matter. Instead, it claims the Hussein regime as the proof-personifie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s intent on removing the regime. The blind and deaf rush to war against Iraq cannot be explained apart from the U.S.'s own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We oppose the war against Iraq that is being pursued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The international society must refuse cooperating with the unilateral U.S. war drive. We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refuse the requests for financial contribution or military participation. We will work in solidarity with all peace forces in opposing the war against Iraq.

In 2003, let us light candles of solidarity for peace, mutual respect, and co-existence in all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The candles we had lit last year were symbols of our aspiration for co-existence, mutual respect, equality, and peace. Our anger and protest were not just over the deaths of two schoolgirls. We know hundreds, thousands, and millions of Messeens and Hyosoons may die in the course of immoral military manoeuvres and war. We share their fear, pain, and anger. We seek solidarity of all pro-peace forces in our struggle to tackle the realities we fin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declare our solidarity with all people struggling for peace against various wars around the world and the hegemonic wars waged by the unilateral Bush Administration in the U.S.

2003. 1. 13

Pan-Korean Committee on the girls killed by an U.S. armoured vehicle (P.C.G.V) and Korean NGOs

보도기사 모음



‘여성여성단체인합과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등 33개 여성 평화 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여성행동의 날> ‘평화의 빛, 춤... 그리고 여살’ 행사를 갖고 이라크전쟁 반대와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를 주장했다.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은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쟁희생자와 대가청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다.

“여성들이 앞장서 전쟁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고 반전 평화를 이루자.” 한·미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등 33개 여성 평화 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여성행동의 날> ‘평화의 빛, 춤... 그리고 여살’ 행사를 갖고 이라크전쟁 반대와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를 주장했다.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은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쟁희생자와 대가청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다.

한·미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는 “전쟁이 임박해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며 “이라크 전쟁은 우리와 직접해 있다는 생각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 치우치지 말고 국제주의적 관점에 서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한 뒤, 여기에는 반드시 여성주의적 시각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3차에 걸쳐 이라크로 출국한 바 있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에 대해 여성해방연대(준) 소란 사

무국장이 보고했다. 파견된 반전평화팀은 이라크 현지에서 국제 반전평화팀과 함께 연대와 지원활동을 할 것이며 3월 15일로 예상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 국경지역으로 이동해 피로지킨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WAW(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는 전쟁을 상징하는 검정색과 고통을 상징하는 붉은색, 해방을 상징하는 흰색을 이용한 '평화의 춤' 퍼포먼스와 참가자들 모두가 'No War'라고 적힌 손거울을 들고 미 대사관을 향해 '평화의 빛 비추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성회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여성계 입장을 발표했다. 또 주최측은 이를 이날 오전 미 대사관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전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최측은 반전평화팀 한국 지원단이 재일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는 부산지역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오후 4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

과병동의안 처리 앞두고 국회앞에서 발성 농성도

25일쯤 예정된 국회 이라크 전쟁 과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의안 처리 반대 목소리가 23일 잇따랐다.

· '전쟁반대광화문공동성명'과 민주노총 등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당 앞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병 동의안 국회 의결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 뒤 발성 농성을 벌였다.

· 참석자들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명분없는 전쟁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침략전쟁에 대한 공식 저지를 넘어 한국군 과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군 과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끌려다닐 서는 일일 뿐이며 이로 인한 불행한 결과와 국민들의 저항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 여성단체인 '정화여성회'는 이날부터 의원들에게 과병 동의안에 반대하는 전화 권기와 e-메일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은 24일부터 이틀간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과병 저지를 위한 온라인 국회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 국회 자유계시판에는 23일 현재 '과병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글 2백여건이 올라왔다. (중앙 윤혜신 기자 hyaesin@joongang.co.kr)

난제 기자회견

민주화, 한민족의 평화, 한국여성들의 인권



<3월 24일 오후 12시> 여성국회의원, 양태노총 "전쟁 중단, 파병 반대"

여야가 24일 총무회담을 열어 이라크전에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 등을 파병하는 내용의 '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 탄전의 여론은 높아지기만 하고 있다.

△"여성단체들과 뜻을 같이해 양심과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파병을 반대할 것"이라는 여성 국회의원 ©민중의소리 집필수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여성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을 중단하고 파병을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 호소문' 발표하였다. 이들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거부할 것과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침공을 중단할 것"을 한미양국에 촉구하였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유엔안보리의 평화적인 노력과 전 세계의 반전열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법상 불법인 이라크 침략을 단행했다"며 "우리 여성들은 지금 자행하고 있는 미국의 폭력이 이라크 국민의 절반인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향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우리 여성들은 91년 걸즈오프 이후 이라크 갓난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아진 사실과 옐로우라냥탄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들의 비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 한미동맹관계 때문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미국의 전쟁 지원 요청에 적극 나서고 있고,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전쟁이 가제다를 경계해 이익에 굴복한 몇몇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여인이 미국이 전쟁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미당에 한국정부는 명분없는 무모한 전쟁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여성의원들은 '이라크인 수십만의 피로 한반도 평화를 약속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여성단체들과 뜻을 같이해 알십과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파병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파병반대의 대열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였다.

여섯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미국의 전쟁을 중단하고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국회의원 대국민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 이어 여성단체는 여성국회의원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꽃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명원, 김희선, 이미경, 조태숙, 최영희 민주당 의원 5명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주회, 여성의 전화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오마이)

차도르 입은 여성 시위대, 국회 앞 행진하면서 경찰과 실랑이



\'당대치위\'

국회 \'과병 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1시 30분경, 검은색 차도르를 두른 4명의 여성의 목소리가 국회의 건너편 도로에 울려 퍼졌다.

▲ 제척국면장당 윤선희 집행위원은 27일 오후 여의도에서 경찰색 차도르를 두르고, 이라크 피해여인이 사권과 파병반대 비둘기를 부착한 채 반대시위를 벌였다.

㉔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 여인들의 손에는 종이 비둘기와 포탄에 맞아 부상을 당한 이라크 소녀의 사진이 들려있었다.

여성들 주변에는 40여명의 경찰 기동대원이 방패를 든 채 예위하고 있었다. 이 여성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로 만드는 여성회 소속 회원들. \'전쟁반대\' \'과병반대\'를 외치며 일렬로 늘어서 국회 앞쪽으로 평화행진을 하던 중이었다. 이들 주변에도 줄복줄복 따라 걷는 복원지 여성들이 산발적으로 평화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들이 국회 방향으로 행진할 때마다 방패로 막아섰고 급기야 여성들은 경찰이 든 방패를 잡고 치우라고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약 40분간 시위 여성들과 경찰의 실랑이가 계속됐다. 이에 여성들은 경찰을 향해 \'우리도 땀을이면 경찰도 땀을이어야 한다. 평화적으로 걷는데 왜 방패를 들이대느냐\'면서 방패를 치워달라고 복성을 높였다.

결국 경찰이 결국 방패를 내리고, 여성들은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 40여명은 방패를 뒤로 뺀 채 약 2미터 떨어져서 여인들의 뒤를 쫓았다. 국회 '과병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 앞 시민단체의 과병 반대 집회는 이렇듯 여성들의 외침으로 시작됐다.

어제 오후 2시30분부터는 민주화운동선전가죽협의회 소속 어머니들이 보라색 비둘기풍 든 채 거리로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3일 국회의 국군 파병안 통과를 '침략전쟁'의 공범행위로 규탄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대의가란인 국회가 전국민적 반전여론을 무시한 채 파병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자 패권국가로 지원국가로 낙인찍히는 부끄러운 행위"라며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침략전쟁의 현장에 우리 군인을 내몬 역사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더이상 한반도의 평화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후 전쟁반대와 파병반대 범국민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 등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의 현장에서 파병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shin@yna.co.kr

동성애자·장애인·여성·어린이 등이 반전시위에 나선 자화

직접적으로 들었다. "이라크전이 당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반전 시위에 나선 것인가." "부식한 달걀. 그렇게 썩는 것부터가 당선이 국가주주의 포로가 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쟁은 개인의 인권을 한층에 두지 않는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이다. 그리고 그 폭력은 언 제나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장애인과 같이 힘없고 약한 소수자에게 대부분 돌아온다. 무슨 상관이라고. 왜 상관이 없는가. 이라크 국 민이나 우리나라 모두 소수자이고 약자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저 신을 칠은 '아나키스트'로 소개한 20대 동성애자는 반전 시위를 열 이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문에 대한 현답이었다.

▲"전쟁은 소수자 인권 유린하는 범죄" [15일 15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공원에는 오랜만에 일군의 사람들이 모 여들었다. 제마다 'Stop the War' '전쟁 반대, 파병 반대' 등의 피 깃을 손에 들고서 있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반전 열 기가 전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갈망하던 국내에서도 이날 대규모 반전시위가 종로공원에서 열렸다. 미중생사참사권 법국탄 대책위와 전국 7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 실천'이 기획한 '반전평화 촛불대행진' 이었다.

여느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시위의 주류는 민주노동-전교조-녹 색연합-민주노동당-개혁국민당-대학총학생회 등 진보적 사회단체 채와 정당 참여였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전쟁반대'를 외친 사 람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외국인노동자 등 소위 '마이너리티'와 주로 '연대'에 활동해온 동성애자, 아나키스트도 집회장 한편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반전을 피쳤다.

행사장 주무대의 반전 구호가 끊어지고 있을 즈음, 공원 중앙에선 색다른 반전 시위가 벌어졌다. 동성애자를 포함해 20대 젊은 이나 키스트로 구성된 '아날레' 회원의 작은 시위였다. 노인 앞에서 저 소름없이 담배를 물고 신 20대 여성과 링크 스타일로 머리를 치장한 남성 등 예상불지 않은 10여 명의 젊은이가 그 주인공이었다. 주 위의 따가운 시선에 여러집일이 이들은 기타 반주에 맞춰 육체를 꺼리낌없이 허여가며 '저 별 여자를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들의 반전가들을 불렀었다.

속연한 분위기 속에서 구호를 따라 외치는 다른 참여자의 모습과는 다른 이색적 풍경이었다. 친구들이 노래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한 남성은 분필로 바닥에 낙서를 해냈다. 미국을 비판하고 이라크군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만의 반전 시위 방식이었다.

'동성애자'와 '반전'이라는 두 이미지는 쉽게 결합되지 않는다. 주위 사람이 꿈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듣고서 두 이미지는 연결됐다.

'동맹'이란 구호를 색진 널려져를 쓴 한 20대 여성은 "근본적으로 전쟁은 비인간적인 강자의 폭력으로써 소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소수자의 입장에서 외치는 약자를 무뎠히 학살할 이라크군을 가만히 앉아 지켜볼 수 없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 했다.

자신을 '태닉'이란 이름으로 소개한 이 미성은 이 점에서 이라크군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사

최적 경쟁에 참여할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들이 '반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쟁이 자신과 같은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자의 이름을 누구보다 학자로서 더 잘 해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소수자는 이들뿐이 아니었다. 공원의 다른 한 편에선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 50여 명이 도랑도랑한 목소리로 "전쟁을 반대해-, 평화를 사랑해-"로 끝나는 노래를 불리며 조율한 반전 시위를 벌였다. 저러아동문화연구회·어린이도서관연구회·한글글쓰기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회였다. '어린이'와 '반전' 역시 연결이 쉽지 않지만 권 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의욕은 이윤이 있는 것이었다.

▲진보단체 내세우는 반전 논리와 달리 두 아이와 함께 나온 한 주부는 "우리 모임은 인간평화를 자임해 이라크로 간 동화화가 박기범씨와의 인연을 계기로 주말마다 시내에서 모여 반전 시위를 갖고 있다"면서 "평화의 중요성과 전쟁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다가 아이들이 '그런 몸으로 실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와 이에 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반전 시위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눈에 띄었다. 이라크전쟁 반대 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는 이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이끌고 시위에 동참했다.

남성 위주 사회에서 학자할 수밖에 없는 여성도 적극적으로 반전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여성해방연대·건강한 대여성연대 등 30여 개 여성단체는 지난 2월 말 '반전평화 여성행동'이란 연대 조직을 만들어 날마다 거리집회인을 벌이고 있다. 여성 단체연합회·여성민주회 등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통해 '이라크전 반대와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를 주제로 활동 목표로 내걸었다.

앞산 속에서 전쟁의 위험을 그 누구보다 절감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정치 반전에 대해서는 세련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일반의 정서와 달리 사회적 소수자로 대접받고 있는 이들 '마이너리티'에 이라크 전은 동맹상 편의 위기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보적 사회단체가 내세우고 있는 반전의 논리에도 조금 다른 것이었다. 이들의 반전 운동은 날뛰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라는 국제적 감각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물론 극우주의자의 체계적 민족주의적 관점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국가의 앞산적 폭력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이너리티'로선 세계 최강국 미국에 의해 자행될 소수자의 인권 유린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이지 국가의 이해득실이 아니다. 그만큼 그들의 반전은 국가적 이해보다 더 절실한 것이다.

'메나'이 마지막으로 던진 다음 제책은 이런 인식을 바탕에 둔 것 이었다. "국면의 국면에 의한 국면을 위한 정책"라고 허를 찌름 미칠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 민주주의를 보라. 얼마나 많은 젊은 이 들이 전쟁에서 죽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소수자들을 죽여왔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수자의 인권이 유린당했는지. 이것이 모두 국면의 국면에 의한 국면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전쟁은 강자의 폭력일 뿐이다."

인길환 기자 chan@kyunghyang.com

한겨레>의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캠페인에 일반시민들은 물론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33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오경숙 이강실 정현택)은31일 회의를 열어 <한겨레> 캠페인 및 성금활동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

여성단체연합 최분성비 조직국장은 "단체 내부에 이라크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지원 활동을 맡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한겨레> 캠페인에 기꺼이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성연합은 이번 주내에 산하단체들과 협의해구체적인 모금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상임대표 이집현숙)도 이날 동참의사를 밝혔다.

전은주사무국장은 "전쟁 중단"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를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전쟁상황에서 여성단체로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캠페인 참여를 통해희생자 지원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60여지에 이르는 '와이범사예이 녹색가게'도 조만간 특별마사회를 열어수익금을 <한겨레>의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캠페인에 기부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전쟁으로 고통받고있는 이라크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며 "이라크에 직접 갈수는 없지만 녹색가게 마사회를 통해 의약품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말했다.

경실련도 이날 "홈페이지(ccsj.or.kr)에 <한겨레> 캠페인 기사내용과 도움 방법등을 실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도 지난 29일 열린 '제38회 정기총회'에서 <한겨레>캠페인에 대한 모금활동을 벌여 40여만원을 모았다고 전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도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벌여 <한겨레> 캠페인에 동참할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캠페인을 주관하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과 남북어린이 어깨동무에각급 학교와 교회 단위에 서 모금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전화가 쇄도했다.

강경아리피해정 기자 ari@hani.co.kr

이정현 '평화수호 이천사' 홍보대사 위촉

[속보, 연재] 2003년 05월 19일 (일) 11:21



한때 '평화의 이천사'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랐던 가수 이정현이 실제로 평화를 수호하는 '평화여성회' 홍보대사가 됐다.

이정현은 20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로부터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받으며 관련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1991년 결성된 평화여성회는 국내에서 권위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자리매김했으며 평화와 통일, 어린이친화 등에 대한 업적을 쌓아온 바 있다.

관계자는 "이정현은 지난 2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추모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했고, 불평등한 소파법에 대한 반대외사를 확고히 표명해왔다"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또 "홍보대사로 대중 연예인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PEACE'를 타이틀로 한 2집 음반을 내는 등 각종 사회운동에 관심을 보여온 이정현도 이 제의를 기꺼이 수락했다고. 이정현은 "향후에도 사회문제에 보다 많은 의견을 피력하는 공인으로 남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현은 20일 위촉식을 겸한 '여성평화회' 공식으로 홍보대사로서의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강수진 기자 kant@hot.co.kr

중앙

이정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홍보대사로

[속보, 연재, 생활/문화] 2003년 05월 19일 (일) 21:09

'테크노 이천사' 이정현(사관)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대표 이김현숙)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일 '여성평화회'에 참석, 위촉패를 받고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평화여성회'는 1991년 결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정현은 대중스타로서는 처음으로 이 단체의 홍보대사가 됐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이 효순이 추모 행진에 참가하는 등 평소 평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이정현은 2000년 'Peace'를 타이틀로 한 2집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핵시대]43개국 163개단체 '6자회담 국제호소문' 발표

[속보, 사회] 2003년 08월 26일 (화) 01:0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등 11개 국내 단체를 비롯해 43개국 163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자격의 시민 380명은 25일, 6자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험 반대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인과 국제사회의호소'를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를 통해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호소한다"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한반도 핵무기 배치·사용 반대 △미국의 대 북한 경제안전보장과 이를 통한북한의 핵포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어떠한정책도 한반도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6자회담이한반도 주민의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정착, 통일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실제적인강동 해결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호소'는 지난해 10월 이후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 발표한 것으로,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국제평화국(IPB)과퍼스보트 등의 단체와 김근태 이부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 호소문을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상에게 보냈으며, 북한에는 6자회담 전제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권계 기자 wonje@hani.co.kr ①한겨레(<http://www.hani.co.kr>)

국방감독관제를 신설하라

[속보, 정치] 2003년 08월 04일 (월) 18:51

“제 입대 동기가 바로 열cese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여권집단에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18년 전 내 남동생이 휴가 나오는 군인 편에 붙어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그때의 참담함이 아직도 뇌리에 선한데, 최근에도 부대 안의 가혹행위를 호소하는유서를 남기고 의경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인임을 견어이 하고, 또 침묵해야 하는가 군대 내 비민주적 폭력행위의 일상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군인은 곧 ‘계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이들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기본의무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1조).

그러나 참행하게도 민주주의와 문명문화를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의 구타·가혹행위 등 군인 재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996년 1311건, 1997년1146건, 2000년 1073건, 2001년 878건으로 매년 1000여건의 구타사고가 발생하고있고, 군무이탈(탈영) 사고는 2000년 1316건, 2001년 1334건이 발생했다.

여것은아직도 많은 군인들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군무이탈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타와 가혹행위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자살·희생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이다.

1980년부터 1999년까지 군에서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희사 387명 등이며, 1998년부터 1999년까지 희사당사사고와 자살은 연도별로 각각 330 대108명, 359 대 103명, 273 대 92명, 248대 102명, 240 대 74명으로 군 사망사고 중 3분의 1이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원인도 과거의 개인문제(가정문제, 여자관계, 열세비판, 부채 등) 비율이 크게줄어들고 구타·복무열중·처벌후려 등 부대 내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방부는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사망 조사를 위해 국방부 내예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않아 사실상 권상규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군복력 구체수단으로 소원수리제도가 있으나, 당사자 확인 후 이어지는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군인들이 기피하는실정이다.

실제 현역군인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대다수의 병사들은 못 본 척하거나 참고있었으며, 조속장관에 보고, 헌병대에 신고, 소원수리를 작성해도 이에 대한조치는 함달지 않았다”는 응답이 75.91%를 차지하고 있다(국가인권위, ‘군대 내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02, 104쪽).

부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대 지휘관이 승진·보직 시 악영향을 우려해 자체 해결에 나서면서 은폐·축소·조작·폐곡을 시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문제해결을 군의 손에 맡겨 둘 수 없다.

인권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가 군대를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적부유기다.

현재 군복역 인권피해 유형도 구타 및 가혹행위 외에도 집단 따돌림,성폭력 및 성추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인의 인권보호는 군조직의 생리화능력이 절대 우선시 될 수 없는 국가 본연의 임무임이 자명하다.

국회에 국방감독권을 신설하라.

국방감독권은 민간인이어야 하며, 군대 내인권유린 실태를 조사·감독·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판단될 경우, 군인 재개인은 누구라도 군대 내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국방감독관에게 직접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청원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이 밖의 모든 군인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확보되는 그날을 위하여...

안철재 평화역성회 국방개혁팀장⑤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제 및재래로 금지

군대내 인권감시,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로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군대감시기구인 '국방감독관제도'가 떠올랐다.

23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군대내 폭력 및 인권침해와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국제법법조사연구관과 안정재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 국방과제팀장이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입을 주강하고 나섰다. 독일 하사관 출신으로 한국을 방문하던 후배 토마스셔도 토론회에 참석해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8월 '군대내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도 평화여성회가 국방감독관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에 대해 토론회는 자리는 이날이 처음인 셈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길현숙 평화여성회 대표는 "여성단체가 군대문제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가 보지도 않고 여자가 뭘 한다고 감히 끼어드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군대는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기구"라고 답했다.

이길 대표는 "군대에서 태운 위계질서가 가족이나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아내구타·상하복종식 직장문화로 이어진다. 합법화된 폭력이 인정되는 군대를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인권보호나 민주주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와 위상, 권한 유사...국방부으로부터의 독립이 관건

독일 국방감독관은 군대 구성원으로부터 청원을 받아 정보요구권 및 문서접근권을 갖고 국방장관-육군-부대기관-군 요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사전예고 없이 군 부대에 방문하거나 현지 부대에서 일반 군인을 면담할 수 있고, 군법정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국방감독관이 취합한 정보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통보되며 이후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는 대중에게도 대중있게 보도된다. 국방감독관은 국방부 장관이나 해당 기관에 문제 시정 요구 및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가진 명령이나 지시는 할 수 없다. 조사권과 권고권은 있겠지만 명령권이 없다는 점에서 독일의 국방감독관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점이 있다.

국가인권위가 독립된 국가기구이듯, 독일의 국방감독관제도 역시 국방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의회의 영향력이 강한 독일은 국방감독관을 의회 기관으로 소속시켰다. 국방부 안에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군대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에게 협력하는 것을 방지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취지의 국방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테 보라스치는 "독일은 종교와 사명이 함께 모이는 '힐테입' 제도가 있어서 (군대 내 갈등을) 보완한다. 이 조직은 비공식적인 모임이지만 부대 내에서 누구나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독일처럼 확실한 군대감시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며 "군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군대 성격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기 입법정보연구원 역시 "반드시 독일형태의 제도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군대를 통제하는 성격의 법적 기관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고순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소원수리" 등 군대 내 사병의 호소창구가 별 소용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감시기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군대 내 인권교육, 군사법제도 개혁 시급



군대 내 인권교육과 사회전반의 군사문화 개선도 과제로 꼽혔다.

안정재 평화여성회 국방과제팀장은 "군대 내 폭력행위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군출신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할악하여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우리 현대사와 맞물려있다"고 지적했다. "군대 내 페민주적 폭력행위의 일상화는 일본군 출신 대통령과 군사무대타로 집권한 역대 정권의 온존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황학수 변호사는 "임주일 전 동창회에서 만난 현역 중령 친구가 '군대 자살자는 죽어도 마땅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전하며 "아무리 얘기해도 인식 전환이 어렵다"고 말했다.

단기 범무관으로 군생활을 했던 이영규 변호사는 군 간부양성과정에 의무적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내부 반감에게도 단계적으로 인권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군사법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사단장이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에서 나온 혈랑도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군집중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형 국방감독관계도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론회 규모도 작았고, 대부분 참석자가 국방감독관계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감독관 도입안이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공론화되고 다듬어져 국회에 입법화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참석자들은 "군 인권보조를 위한 대안 논의는 많이 있었다"며 "국방감독관 제도의 한계와 한국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강조했다./권박호원 기자 (10zzung@ohmynews.com)

오마이뉴스 2003-09-23 18:09:07

□민중의소리□“정전, 50년은 충분하다, 이제는 평화”

여성단체, 명동성당서 여성평화퍼레이드 열어

임은경 기자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전우회, 한국여성친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주여성회, 반미여성회 등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성당 뜰에서 '정전을 평화로'라는 주제로 여성 평화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여성평화퍼레이드에 참가한 여성단체 회원들 ②민중의소리 김철수

이곳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들은 “정전, 50년은 충분하다, 이제는 평화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그동안 존 전시상태에서 반박년을 살아온 남북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휴전상태를 평화로 바꾸려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성했다.

또한 여성들은 “그동안 여성은 역사의 변방에서 전쟁의 피해자로 살아왔다”며 “더 이상 이종살상의 고통이 중첩되는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막인해 한국여성친화연합 상임대표가 낭독한 ‘여성평화선언문’을 통해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지금도 전쟁을 대비한 군사훈련과 영권의식은 여전히 언제까지 두서너서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평화의 여신’으로 분장한 참가자들이 평화의 염원을 담아 나무에 평화 리본을 달고있다. ③민중의소리 김철수

또 “최첨단 군사시설과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앞세워 순식간에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군사패권국가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핵문제를 별미로 북에 대한 경제와 문화, 전쟁위협으로 한반도 경제를 초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위태로운 한반도 경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앞으로 남과 북, 세계여성들과 연대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체제 종식과 아울러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명상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명동성당 주변으로 평화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부산은 25일(금) 오후 4시 부산롯데백화점 앞에서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

△“이 땅에 불어오는 군사주의와 무역장벽을 우리 여성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④민중의소리 김철수

2009년 07월 24일 ⑤민중의 소리

여성 1000인 평화선언 기자회견

권박효원 기자 10zzung@ohmynews.com

▲ 9일 오전 11시 느디나루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은 이라크파병 반대한다" 구호를 외치는 여성들.

©2003 권박효원

"저희가 이용하려고만 한 거야. 왜 일본은 우리보다 적게 (파병)한다는데 조선만 보내달라 그래. 뭐 때문에."

"그저 이 늙은이 따윈 우리가 나라일을 때 고생하던 생각해서 군인을 한 보냈을 뿐잖아. 마음이 아파."

"한국 정부는 이라크 개회 철회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라! 한국에선 우리 군인 보낸다는데 나는 절대 반대래. 정부가 너무 썩어서 못쓰잖아."

9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디나루 카페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할머니들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인권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전날 수요일에 참석한 뒤 양상을 찍어 이 자리에 반전 메시지를 전했다.

기자회견장에는 20여 명의 여성이 모여 있었다. 어린아부터 할머니까지 나이도 다양하고, 여성운동가, 간호사, 대학생 등 직업도 다양하지만 파병반대에는 뜻이 같다. 4월 노연경양은 군인인 최삼춘이 멀리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이들은 모두 군인 그들 뒤에 전쟁반대라는 글씨가 적힌 풍어를 들고 있었다.

1000인 평화선언 참가자 명단에도 노동, 환경, 농민, 보육, 교육, 장애 등 각 분야와 관련된 여성단체가 눈에 띈다. 재한국민정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여성위원회 회원들도 평화선언에 참가했다.

▲ 할머니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연경양

©2003 권박효원

이들은 선언을 통해 "전투병 파병은 절령군 미군이 갑당해야할 군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을 떠맡는 일이다. 한국군 또한 절령군으로 인식되어 아랍권 민중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실질적인 이라크 안전 보장과 한국정부의 민간인 중심 2차 조사단 파견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현택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여성 1000인의 향후 활동을 밝혔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국회의원에게 파병반대 염서보내기. 정 대표는 염서를 읽어보이며 "특히 국방위원 16명에게 염서를 보낼 것이다. 오는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의 평화기여 정도가 사실상 기준이 된다"고 강

조했다. 2004 총선에 실시할 여성정책평가기준에 과병 찬반여부를 포함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 대 표는 "이를 근거로 한 낙선운동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열서보내기 외에도 각 여성단체별로 실천활동이 펼쳐진다.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는 명동에서 이라크 파병반 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평화여성회는 파병반대토론회를 열고,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주도로 각 지역별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된다.

여성단체들은 이외에도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파병반대 동원을 호소하고, 오는 22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및 피포먼스를 연다.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국제연대활동, 범국민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2003/10/09 오후 2:27

© 2003 ChosunNews

‘어린이부터 여대생, 할머니까지’ 2003-10-09

여성 1000인 평화선언

김희준 기자 (ckkim@tongilnews.com)

▶9일 오전 11시 한국동 노타나루카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평분없는 침략전쟁 이라크파병 반대한다.”

어린이에서 여대생, 정신대 할머니까지, 여성 노동자, 농민, 주부 등 모든 여성의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는 선언이 발표됐다.

9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노타나루카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여성회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파병반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평화여성회 권은주 사무국장은 취지 및 경과보고를 통해 9.11이후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한 여성계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병을 둘러싸고 악론이 분열되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무고하게 죽어 가는 민간인 학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긴급하게 여성 공동행동을 조직해, 1000인 선언에 여성 농민, 노동자, 간호사 등 직업별로도 다양하고 여성단체들도 많이 참여해 어린이에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범 여성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 1000인 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어린이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참가자들은 윤금순 통일연대 여성위원장, 이향원 연노달 여성위원장, 조이성권 평화대중학생회장이 낭독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1000인 평화선언’을 통해 “전투병 파병은 정령군 미군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을 떠맡는 일”이라며, “미국의 평분없는 침략전쟁의 전후처리 책임을 위해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투병 파병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랍권 민중과의 갈등도 증폭될 것”이며,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평화를 호소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라크의 인습과 여론, 국제기구 등의 보다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인 조사단을 추가로 파견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게 “전쟁으로 인한 이라크인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라크인들의 생활과 인권이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라크 평화를 위해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전쟁이알

의 시기를 함축하"한다고 촉구하고 "우리 여성들은 평화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선언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글종기자]

인권행트를 위해 금강산을 방문중인 정산대 할머니들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사람들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나, '아귀 같은 일본은 <파병을> 적재 하는데 뭇 때문에 우리만 같이 보네나', '나라없이 고생할 때 생각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안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간다는 것이 마음이 아라', '과명제회 철폐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라. 절대 반대한다', '정부가 너무 조단해 갖고 못 쓰것어. 한국 정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라' 등 아픈 역사를 겪은 자신들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정현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하며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이 10월 21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할 예정이며,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10월 11일 오후 3시 대학교에서 개최할 파병반대 범국민대회와 16일 '국말비 증역반대 파병반대 각계선언 기자회견'에도 여성계가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에게 파병반대 염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위원회 소속 18명의 의원에게 대해 지역구 여성단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염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향후 선거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 단체별로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는 이라크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서명운동을 대구 수요일 명동에서 진행하고 있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파병관련 토론회를 22일경 준비중이며,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환경연대 명진숙 으뜸제기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개혁신당 김영숙 앞선지구당 공동대표와 여성민주의 윤정숙 공동대표 등 20여명이 함께 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성미 조직국장의 네살배기 딸 노연경 양이 할머니 문옥남(60)씨와 함께 나와 귀여움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 등 잇따라

2003/10/9

(서울=연합뉴스) 정성호,정용섭,안희기자 = 청와대가 이라크 추가파병문제와 관련, 국민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라크 파병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평화여성회,통일연대 여성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동·노년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여성1천인 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파병을 반대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상매시지도 함께 방영돼 파병반대 열기를 고조시켰다.

여성단체들은 앞으로 3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지속적인 파병반대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여성단체들은 이에따라 오는 21일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반대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파병반대 결의를 발송하고 파병반대국민 서명운동과 토론회에 여성 정치인들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민주노동당과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소속 예비군들도 이날 오전 청와대부근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파병반대 예비군 1천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후세 군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파병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파병요청에 대해 정부당국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덕성여대,경국대 등 44개 대학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총학생회장단도 이날 오전 종국대에서 파병반대 성명서를 내고 명분없는 전쟁에 종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 학교에서 파병반대 선전전과 반전 서명운동을 벌이고 오는 26일 서울세화역 부근에서 반전평화 사진전을 열기로 했다.

사회당 서울시위원회도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친동 현대투자신탁 앞에서 당원 10여명이 모여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를 위한 대 시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파병반대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jamini74@yna.co.kr

2003/10/10

청와대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와 관련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법조계와 예비군들도 파병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9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동 노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130여개 여성단체 회원 1천여명의 서명으로 이뤄진 이 선언에서 이들은 “명분없는 전쟁에 국익을 이 유보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함부로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조성됐을 때 어쩔지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스국회·청와대에 앞서보내기 스파병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스여성 정치인들과의 공동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민주노동당과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소속 예비군들도 이날 같은 시각 서울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예비군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후배군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파병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도 이날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한승헌 변호사, 김제환 고려대 법대 교수 등 179명의 법률가들은 선언서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은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총사단(대표 박인주)도 성명을 내려 “파병 문제는 ‘국익’차원이 아닌 일반 이라크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휴머니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투병 파병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영인 김태규 기자 yiye@hani.co.kr

"이번 참사 정부의 파병결정 탓"

[속보, 사회] 2003년 12월 01일 (월) 17:12

[오마이뉴스 김지은/남소연 기자]

▲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에서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쪽 티크리트에서 송전탑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전기업체 직원 2명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미해군의 공격을 받아 숨진 데 대해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파병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1일 오후 1시 서울 평화문 터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한 공격"이라며 "우가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 데 영대 외의 활동이 불가능한 사회·제미부대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행동은 "고인물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지난 70~80년대 한국의 젊은 노동자들이 망국했던 나라 이라크를 우리 국민에게 적대적인 땅이 되도록 만든 파병 방침을 진작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일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파병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민행동은 이번 공격과 파병 결정과는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행동은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와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해왔다"며 "그런데도 국방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이라크에 있는 국민들과 피전된 군인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행동은 "국방부의 주장은 다 큰 비극의 악순환을 가져올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평화지도, 종파화지도 않은 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최신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처장은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사건을 자초한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사무처장은 "그 책임은 바로 파병결정 철회"라며 "우리 여성들은 정부가 파병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 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의 파병반대 운동도 계속될 전망이다.

'9.27 국제 반전공동행동 조직위원회'에 참여했던 4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안전평화공동행동'은 오는 13일 '한국-중동 공동 반전행동' 집회를 다함포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반전집회는 이집트의 카이로와 한국의 서울에서 동시에 열리게 되며 참여자들은 집회를 통해 '파병 반대' '테러방지법 반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민행동은 미 대사관 옆 한국통신 건물 앞에서 6일째 '파병반대 노상농성'을 진행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달 26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 과병 원칙 고수, 논란 거세질 듯

[속보, 정치] 2003년 12월 01일 (월) 21:44

(동영상 보기는 KBS에 직접 로그인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번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피격사건을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테러로 규정하고 그러나 기존의 이라크 추가과병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과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피격사당사건을 용납해서는 안 될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번 사건은 군대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와는 달리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더더욱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시신 운구에 직접적 신경을 쓰고 추기테러가 없도록 경계를 강화해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따라 다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폭력과 살상에 대해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기존추가 과병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영관(외교통상부 장관): 예정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과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전황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 정부의 기존의 어떤 과병방침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자: 국회 이라크 조사단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 피해상황의 여파와 조사단의 현지 정세 파악 상황을 모아 조사단 차원의 보고서를 내일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강창희(국회 이라크 조사단장): 우리가 보고했던 보고서를 만든 시점은 지난 시간이었었고 이것은 추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거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기자: 정치권도 일제히 현직교인 안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직교인과 군보자, 그리고 세뇌, 제마부대원의 신변안전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인 사망자에 대해 정부가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안과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비전투병 위주로 파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격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병 완전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반대 국민행동은 대리위험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했다면서 파병철폐와 함께 서퇴, 제마부대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최섉희(영화물안드레여성회 사무처장)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의 결과는 파병을 당장 철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반면 파병완성 시민단체는 이라크사태가 테러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파병부대 규모를 강화하고 전투병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몇몇 단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석준(교수/바른사회통화한시민회의 공동 대표) 당초의 방침을 잘못이 밀고 가고 특히 파병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실해 담보하기 위해서 전투병을 더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한국인 피격사건을 계기로 이라크파병 완만논란 속에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들간의 의견대립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복삼원입니다.

민간인 피격 불구 파병 원칙 '불변'

정부, 북핵 해결위해 추가파병 고수 밝혀

기사전송 손택권(patrick23) 기자



▲ 윤영권 외교통상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인 피격사건과 관련해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최선희 평화불만드는여성회 사무처장이 1일 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병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긴급진단] 한국인 피살, 그래도 이라크에 파병? / 방송팀 기자

<기사 수정 : 1일 오후 2시45분>

정부는 이라크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격사당 사건을 추가 파병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정리에는 북핵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사건으로 한중 적화된 파병반대 여론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1일 오전 수석 보좌관 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잇달아 열렸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향후 대책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주목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파병 얘기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다. 대통령은 오히려 "예민한 시기에 정부 내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사건이 추가파병 결정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인식과 맞닿아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다종일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민간인 피격」 작은 사건은 아니지만, 추가파병과 같은 중대사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라 보파관은 회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시간만으로 추가 과병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SC 상임의장을 겸하고 있는 라 보파관은 이라크 추가과병 문제에 있어서 '노 대통령의 복심(良心)'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라 보파관은 정부가 추가과병을 결정하기 전 미국에서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만나 최종 조율을 거치는 등 과병 결정의 중요한 고지마다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NSC 상임위원 겸석한 은행권 최고로 장관도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도 (과병논의에) 고려할 것이나 정부의 과병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예정대로 과병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오마이뉴스> 기자회견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이라크내 저항세력이 자국내 외국인들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빚어진 우발적 테러"라면서 "황폐해진 국가의 재건을 요구하는 이라크인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이라크를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라크 과병이 그 자체로는 명분도 없고 여론도 안 좋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익을 그르치는 결과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가 말한 '국익'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정부가 이라크 과병을 북핵 해결의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노 대통령은 11월 28일 SBS 특별대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기본 전제로 두고 과병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미국은 얼마든지 긴 시간 동안 북한을 봉쇄할 수 있으나,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주권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하고 부닥치며 세계여론에 호소하며 싸워나가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미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다가서제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될까?"

노 대통령은 "통상발전 쟁점 해결로 소련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북일이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말을 하게 됐다"는 세균 대(동방정확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외교관도)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통후 후 독일 상황을 우리의 현실과 대비해보면, 북핵 문제가 업존하는 상황에서 과병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노 대통령은 "명분에 논란이 있고, 역사적 평가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쳐 나가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 때문에 대통령의 '과병' 인식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도 추가과병을 감성적 요인으로만 파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여성운동, '버팀목' 있어 아름답다

어면, 지킴이상·
버팀이상 수상식

“여성운동사에서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없음을 깨달음 여성운동가들이 만든 여성회를 계몽으로 전진한 것 중 으뜸으로, 거침없고 수완이 넘치는 우리 어머니들이, 모범자를 만들 필요 없었지. 그 역할을 살아있는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노년도, 제 자신이 버팀목이 되는 노년도 있을 것이다.”

지난 19일 여성문화 활동 유구한 기념 여성문화 지킴이상·버팀이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를 축하하는 모습이다.

“2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지킴이상 여부가 있을 때마다 이 순간의 행복을 기록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순간이네요. 우리 거침없고 넘치는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어 온 것들이, 거침없고 수완이 넘치는 우리 어머니들이, 모범자를 만들 필요 없었지. 그 역할을 살아있는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노년도, 제 자신이 버팀목이 되는 노년도 있을 것이다.”

지난 19일 여성문화 활동 유구한 기념 여성문화 지킴이상·버팀이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를 축하하는 모습이다.



여성문화 활동 유구한 기념 여·남자 모두 수상자를 축하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킴이상·버팀이상 시상식 모습이다. www.kidn.com

올해 지킴이상 수상자는 김희영, 버팀이상 수상자는 이은영이다. 시상식은 여성문화 활동 유구한 기념 여·남자 모두 수상자를 축하하는 모습이다.

올해 지킴이상 수상자는 김희영, 버팀이상 수상자는 이은영이다. 시상식은 여성문화 활동 유구한 기념 여·남자 모두 수상자를 축하하는 모습이다.

올해 지킴이상 수상자는 김희영, 버팀이상 수상자는 이은영이다. 시상식은 여성문화 활동 유구한 기념 여·남자 모두 수상자를 축하하는 모습이다.

올해 지킴이상 수상자는 김희영, 버팀이상 수상자는 이은영이다. 시상식은 여성문화 활동 유구한 기념 여·남자 모두 수상자를 축하하는 모습이다.

여성운동 지킴이상·
버팀이상이란?

여성문화 활동 유구한 기념 여·남자 모두 수상자를 축하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킴이상·버팀이상 시상식 모습이다. www.kidn.com

여성문화 활동 유구한 기념 여·남자 모두 수상자를 축하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킴이상·버팀이상 시상식 모습이다. www.kidn.com

□사건·사고 & 유언 □ 03.02.24 여성운동, '버팀목' 있어 아름답다

2/25 (월)
2월 25일



Photo 클릭



“이라크도 한반도도 전쟁은 안된다” 11일 오전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라크공격 반대·한반도 전쟁 위험 반대 700여 시민 사회단체 반전평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평화물 만드는 여성회 회원들이 평화

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형 피켓을 이용해 전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장월영기자 joy@womanstime.com

□우먼타임즈□ 03.02.25 이라크도 한반도도 전쟁은 안된다

여성이여, 반전의 소리를 높이자

미대사관 여성계 입장 전달



은 세계에 '평화의 빛'을 비추기 위해 반전평화여성행동연합은 미대사관 공보청사관에 견학할 임원하는 여성계 입장을 전달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행동보고와 함께 미포럼스를 지난날 27일 보았다. 30여개 여성단체들

의 주제로 진행한 여성행동은 △이라크공격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를 북침하고 참은 주 평화여성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여성행동연합대전의 한국이러크 반전평화행동 보고에 이어 한국여성단체

이 연합 주최한 이번 반전평화운동은 천간여 명의 평화 애호가들의 반전 목소리에도 굴하지 않는 미국 부시정권의 모란을 지적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평화여성

연합의 발원, 평화여성회(평화여성행동, WAW)의 제포럼스가 이어졌다. 여성계 입장을 미대사관에 전달한 여성행동연합 관계자는 "확고한 여성계의 목소리를 미대사관에 전했고 이에 관한 답변이 가까운 시일 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아프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참무지로 변화시킨 엄격한 사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난민 80% 여성과 아이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불국 전쟁이 평화의 군사주의 문화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자군 여성들이 이라크에서 반전평화행동으로 전쟁반대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여성과 이름으로, 소수자의 이름으로 잘못된 이해를 고기의 확산을 제지하고 반전운동 및 국제 여성을 확산해 갔어야 라고 전했다.

□크리스찬연합심공 □ 03.03.12 여성이여, 반전의 소리를 높이자



2003. 4. 10. 3월

○ 평화여성회 소속 회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근처 건물에서 반전평화 여성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 NGO □ 03.03.11



미국의 테이락 전쟁 중단과 한국군 피해 해방을 위한 여성단체들과 여성단체대표들이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상계학기자 gisak@ngosimes.net

다시연의신문 03.03.31

반전평화캠프 여성행동 1일농성

예멘을 멈춤성명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관화를 만드는 여성회, 반전평화여성회와 함께 2003년 3월 31일(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관악역에서 1일 농성 및 자살 시위(부탄)를 벌여 미국군 철수를 촉구한다.

3월 28일(토)부터 31일(월)까지 4일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주변에서 1일 농성 및 자살 시위(부탄)를 벌여 미국군 철수를 촉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멘을 멈춤성명서

이날 행사에는 30여명의 여성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3월 31일(월)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자살 시위(부탄)를 벌여 미국군 철수를 촉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訪美일 두기류 노무현 대통령과 방미를 위해 왔던 9월 고전 국무총리가 직접 부른 미국 제2사단을 방문, '양대선 사람'의 오해를 선명하고 거주 권리로 남기고 있다(사진 위).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30명여 이날 서울 YWCA강당에서 미국 선언을 발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아래).

$$T_{\text{eff}} = 3.05 \cdot 10^4$$

□대한매일□ 03.05.10 5월 10주 기류

먹기·쓰기·환내지 **적게** 웃기·듣기·참여는 **많이**

평화·여성회 컴퍼인

“먹기·쓰기·환내지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생활 습관·경험은 물론 일하는 평화여성회’가 정전 5주년을 기념해 비폭력 평화문화 캠페인으로 3주에 걸쳐 ‘먹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 단체가 추진하는 ‘먹기’는 ‘적게 먹기, 적게 쓰기, 적게 환내지’다.

평화여성회 이강현(사진) 상임 대표는 “적게 먹기’가 평화의 길을 가자다 물론 아니라 윤택함으로 그 목표는 후진국민들을 기복함으로 이 평화문화 캠페인을 줄리문다고 설명한다.

“먹기·쓰기’는 지구촌의 문제를 다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간 전쟁이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비롯된다. 가장 대표로 ‘미주인 항시탈의 물갈 수비’ 등이 긴드인 분쟁과 맞먹는다는 통제가 있다”며 “전기를 아끼고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적게 환내지’는 가정과 사회의 평화와 풍요를 조성하는 첫 걸음이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화를 내면 자녀들이 괴롭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보복사슬이 자녀 화대의 권인 아드기’를 한다.

이 캠페인을 만드는 것 기여하는 것



“적게 먹기·쓰기·환내지” 캠페인이다. 통계를 ‘적게’ 참여하기’다. 많이 웃으면 연금도 더 쌓인다. 많이 듣기 전향해 지고 주변 사람 물에게도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먹기·쓰기’는 갈등을 극한 제압이다. 많은 분쟁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오해가 생기고 갈등도 일생하기 때문이다.

“많이 참여하기’는 행동력이 중요하다. 실천이다. 평화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참여할으로써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강현 대표는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평화를 누릴 자격도 생긴다”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평화여성회는 운동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까지 3주에 걸쳐 ‘먹기·쓰기·환내지’ 캠페인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또 생활 속의 실천사례를 공모 수기로 공모해 평화실현상을 수여한다.

공모는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02-2275-4801 또는 e-메일(sh@peacewomen.or.kr)로 보으면 된다. 공모료 4만 원이다.

□중앙일보 □ 03.07.21 먹기·쓰기·환내지 적게, 웃기·듣기·참여는 많이



전쟁없는 한반도를 바라며... 여섯번째 회원들이 24일 영동시장 앞에서 현재의 '영동시장'을 '영동시장'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영동시장 60주년인 오는 27일에 즈음해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전쟁기간에 유방을 잃었던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한 '영동시장 60주년 기념식'을 다짐한 열사가 열었다. 서울/연합뉴스

Metro 03.07.25

□연합뉴스□ 03.07.25 전쟁없는 한반도를 바라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3 여성평화화카데미'

“통일시대 ‘여성-통일전담부서’ 신설해야”

남북경제협력의 중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때가임은 시급히 여겨진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통일포럼)가 25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남북교류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2003 여성평화화카데미 여자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 학계,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오랜만 행해진다는 사실은 ‘남북경제협력의 정책과 여건’이라는 주제토론회를 통해 고 문영림 명예회장이 함께 북한 대표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소개하고 향후 시너지효과를 창출, 확산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자신은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이겨 낸 김경희 대표회장에게 남북협력 개교회를 위한 힘과 헌신, “남북경제협력은 곧 한 개인의 힘이다. 북한은 ‘103만인민’이라는 막대한 자원이 풍부하고, 국민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키에이



통일 과정과 통일후 여성의 역할 제고를 위해 ‘여성-통일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교류에 향후 큰 유지를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림 위원장과 이명박 총리를 소개하며 “김 위원장은 지난 1997년 호주에서 유라시아지역의 발전을 위한 이무고 제국에 우리 민족의 자수성을 보여주기”고 제언을 강하게 하고 있었다.

김영림 총리와 이명박 총리는 “통일과정과 통일후 여성과 교류를 제고하기 위한 관련 지원”을 하고, 통일시대의 여성정책과 북한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각자 수렴과 조정할

을 준비한 ‘여성-통일전담부서’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이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상호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우리 통일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위원회에 이 부서의 관련은 전략적 지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여성과 교류를 위한 ▲남북여성상호 정보교환과 신뢰구축 ▲통일후 여성관련 노동 및 사회정책

정책 지원을 위한 ▲통일부 사회정책 연구 지원 ▲여성교육과 자각된 활동교육사업 등을 꼽았다.

조영현 통일부 국제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여성교류의 50여개 필요조건을 강조하고 “21~22년 여성회의 개최와 여성이 여의도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담은 여성교류화기 여한 기록이 담겨지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여성교류 관련 국제적 프로그램이 ▲도시·자본·부족 ▲외국인 구배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꼽았다. “여성화할 것인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훈식 여성부 대외협력담당관은 “남북여성교류의 전담부서가 통일부에서 때문에 여성정책이 간혹으로 남북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통일부에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과는 같다

□통일교육협의회 □12.06 통일시대 여성-통일전담부서 신설해야

한겨레 2003. 12. 31

“세계에 남북한 현실 바로 알릴 거예요”

민족화해상 받은 이김현숙씨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끄럽지만, 남북화해와 평화운동에 이바지해온 여성의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기에 한편으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김현숙(58)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3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제정한 제1회 민족화해상 개인 부문에 수상했다. 이 대표는 지난 군사독재 시절부터 여성 평화운동에 앞장서고 90년대부터는 북한 어린이 돕기 등 남북 민간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뽑혔다.

“여성은 기존 세력의 주변부에 있어 왔기 때문에 비판적 안목이 높고, 민족통일의 여정과 결과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분단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평화와 화해에 대한 갈망도 그만큼 큼니다.”

이 대표는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던 84년 통일 등 민족사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본 뒤 같은해 영국에 가서 여성들이 펼치는 평화운동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이때 개인적인 일에서 벗어나 통일운동에 몸바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1년부터 4년 동안 남·북한, 일본에

서 해마다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토론회에 꾸준히 참여한 뒤, 이를 계기로 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꾸려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석달 동안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에 가 있었는데, 미국 시민들은 아직도 북한을 악마와 같은 존재로 남한을 과격화 시위가 대일 벌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더군요. 심지어 미국 시민운동가들도 이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는 민족 내부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미국 시민사회와 세계평화단체들이 남북한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지와 힘을 뒀어내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한겨레□ 03.12.31 세계에 남북한 현실 바로 알릴 거예요



